

국립국어원 2008-01-26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013-01

2008년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담당 연구원: 정희창
이운영

국립국어원 2008-01-26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013-01

2008년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담당 연구원: 정희창
이운영

머 리 말

사전은 한 시대, 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어휘집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는 단순한 어휘집에서는 찾을 수 없는 고유의 철학과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선각자들이 펴낸 최초의 국어사전인 《말모이》에는 국어 교육을 통해 혼란스러운 전환기를 극복하려는 애국, 애족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일제 강점기의 억압 속에서도 굳건히 이어져 《큰사전》으로 결실을 맺었고 비로소 우리의 사전은 온전하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민족은 숭한 고난 속에서도 찬란한 민족 문화를 이어 왔습니다. 이는 민족 문화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기에 우리 민족이 지탱해 올 수 있었다는 말과 통합니다. 우리의 문화 가운데에서도 ‘한글’로 대표되는 언어문화는 오늘날에도 민족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주는 동시에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바탕이 되어 왔습니다. 1999년에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언어생활의 준거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언어생활을 제시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50여 만 표제어를 제시하고 맞춤법, 표준어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언어생활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해소하였으며 우리의 언어문화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올 10월에 국립국어원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 웹 사전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시간과 장소, 비용에서 자유로운 웹 사전에는 언어생활의 날개를 달아 국경과 인종, 문화의 장벽을 초월하는 다중의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의지와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웹 사전이라는 새 옷을 입었지만 이 땅 위의 온갖 목소리와 이야기 그리고 창조의 생명력을 온전하게 담은 사전 하나를 살뜰하게 만들어 내는 일 이야말로 우리가 이어나가야 할 정신이자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했지만 언어생활의 혼란을 치유하고 언어문화의 가치를 회복하는 길이 사전에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이 사전에 담긴 내용이 널리 알려지고 발전적인 토론을 통해 더욱 가다듬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누구나 사전을 가까이하고 소통하는 세상이 되어, 문화적 역량이 창조로 이어질 때 우리의 언어문화는 다시 한 번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2008년 12월 24일

이 상 규

2008년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목 차

1.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작업 개관	1
(1) 《표준국어대사전》의 거시적 고찰	1
(2) 《표준국어대사전》의 미시적 고찰	10
2. 연도별 주요 개정 작업 일정	34
(1) 2003년	34
(2) 2004년	40
(3) 2005년	46
(4) 2006년	52
(5) 2007년	60
(6) 2008년	64
3. 예산 집행 내역	67
4. 작업자 명단	70
5. 주요 개정 내용	74
(1) 표제어 추가	74
(2) 뜻풀이 검토	78
(3) 한자 및 한자어 검토	86
(4) 용례 검토	87
(5) 전문어 감수	90
(6) 교과서 비교 검토	92

(7) 북한어 검토	93
(8) 오타기 중 방언 검토	94

6. 웹 사전 검색 시스템 95

〈부록1〉 관련 지침 및 기준 103

○ 미등재어 수집 방법	105
○ 미등재어 선정 원칙	110
○ 한자어 검토 지침	114
○ 전문어 감수 절차 및 내용	118
○ 전문어 감수 원고 파일 작성 지침	122
○ 북한어 인터넷 검색 지침	128
○ 북한어 검토 지침	132
○ 뜻풀이 일괄 처리 목록 및 기준	136

〈부록2〉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지침 193

(붙임1) 《표준국어대사전》 원고 수정 양식	303
(붙임2) 문제점 유형 약호 목록	312

1.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작업 개관

(1)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작업의 거시적 고찰

1) 표제어 수록 현황

사전이란 ‘언어 항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정의한 것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언어 항목’은 사전의 표제항에 해당하고 ‘정의’는 사전의 뜻풀이에 해당한다. 사전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표제화(lemmatisation)된 표제항의 전체 구조를 사전의 ‘거시 구조(macrostructure, 巨視構造)’라 하고 각 표제항을 중심으로 조직된 개별 조항의 구조는 사전의 ‘미시 구조(microstructure, 微視構造)’라 한다.

그런데 언어 항목을 선정할 때의 기준은 사전의 편찬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같은 언어 사전이라도 공시적인 사전과 통시적인 사전, 언어 현상을 규범화하는 사전과 언어 현실 그대로 기술하는 사전의 언어 항목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언어 사전에서는 언어 사회의 공통적인 언어 지식을 수록하고 정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에는 사회의 공식적인 언어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규범’이 포함된다. 사전에서 지식과 규범을 드러내는 기본적인 방식은 표제항이다. 즉 어떠한 표제항이 선정되느냐에 따라 어떤 지식을 보여 주는지가 결정된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밝히고 있는 표제어의 선정 범위는 무척 폭이 넓다.

ㄱ. 현재 쓰고 있거나 과거에 썼던 말 중에서 표제어로 올릴 가치가 있는 단어를 수록한다.

- 일상에서 널리 쓰는 말을 수록한다.
 - 표준어는 모두 수록한다.
 - 비표준어는 널리 쓰는 것을 선별하여 수록하되, 대응하는 표준어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북한의 문화어를 폭넓게 수용한다.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에 수록된 어휘를 선별하여 수록한다.
- 전문 분야의 언어를 영역별로 선별하여 수록한다.
- 방언을 지역별로 선별하여 수록한다.

- 옛말을 선별하여 수록한다.
- ㄴ. 단어가 아니더라도 표제어로 올릴 가치가 있는 것들은 수록한다.
- 접사와 어근, 어미를 수록한다.
- 단어보다 큰 단위도 수록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하는 ‘지식’은 ‘언어생활에서 가치가 있는 현재와 과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만큼 광범위하다. 따라서 표제항을 중심으로 어떠한 정보를 수록했는지를 체계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비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여 주는 ‘어문 규범’은 비교적 명료하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언어생활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금까지 편찬된 언어 사전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어문 규범’을 반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표준국어대사전》은 어문 규범의 기준을 밝히고 구체화한 사전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모든 표제어는 ‘규범’과 ‘비규범’의 두 개념으로 양분되며 ‘비규범 형태’에서 해당하는 ‘규범 형태’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다음을 제외한 나머지 말들은 모두 ‘규범 형태’이다.

- 《표준국어대사전》의 비규범 형태: 비표준어, 방언, 옛말

그러므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표제항을 중심으로 거시 구조를 살펴보려고 할 때 일반적인 표제항의 의미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규범과 관련지어 논의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규범과 관련된 표제항의 정보를 중심으로 초판과 개정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표제어 보완 및 추가

《표준국어대사전》은 1999년에 초판이 발행되었고 2008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개정판은 인터넷에 기반을 둔 웹 사전으로 발표되었다. 1999년과 2008년 《표준국어대사전》은 외형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품사별 표제어 개수〉

품사	1999	2008	품사	1999	2008
명사	335,057	331,023	조사	357	360
의존 명사	1,061	1,072	감탄사	812	874
대명사	463	474	어미	2,526	2,517
수사	277	279	접사	656	674
동사	68,394	68,757	어근	7,346	7,280
보조 동사	48	48	품사 없음	58,509	70,716
형용사	17,361	17,447	합계	512,476	521,315
보조 형용사	29	29	품사 통용	3,400	3,400
부사	17,895	18,033	계	509,076	510,268
관형사	1,685	1,732			

〈관용구 · 속담 개수〉

	1999	2008
관용구	4,574	4,582
속 담	9,415	9,603
계	13,989	14,185

〈전문 분야별 표제어 개수〉

분야	1999	2008	분야	1999	2008	분야	1999	2008
가톨릭	1,448	1,470	법률	9,350	9,505	전기	3,003	3,177
건설	6,215	6,387	불교	10,029	10,097	정치	2,119	2,154
경제	8,542	8,689	사회	2,329	2,418	종교	1,012	1,028
고적	2,398	2,415	생물	4,243	3,382	지리	5,961	6,048
공업	3,695	3,897	수공	2,275	2,430	천문	2,095	2,104
광업	3,338	3,268	수산	910	945	철학	2,065	2,074
교육	1,479	1,533	수학	4,127	4,084	출판	1,464	1,488
교통	1,552	1,592	식물	13,127	11,093	컴퓨터	1,500	1,566
군사	4,979	5,037	심리	1,613	1,607	통신	1,077	1,108
기계	2,369	2,492	약학	1,487	1,495	한의	5,077	5,161

분야	1999	2008	분야	1999	2008	분야	1999	2008
기독교	1,173	1,189	언론	558	555	항공	891	920
논리	718	724	언어	4,208	4,254	해양	1,132	1,179
농업	4,732	4,914	역사	20,858	20,990	화학	8,865	10,029
동물	11,695	11,189	연영	1,731	1,779	인명	10,327	10,322
문학	3,788	3,859	예술	1,295	1,338	지명	6,996	7,014
물리	7,905	7,792	운동	4,962	5,057	책명	2,051	2,040
미술	1,516	1,544	음악	6,939	6,915	고유명사	498	511
민속	4,912	5,127	의학	10,501	10,511	합계	229,129	229,514

사전 개정 작업에서 표제어와 관련된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초판에서 누락된 표제어를 보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쓰이는 말을 추가하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표제어로 추가된 것은 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후자의 경우는 유행어로 그치거나 사회성을 획득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의 ‘각인되다(刻印—)’는 실제로 널리 쓰이는 말이고 말뭉치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초판에는 ‘각인하다’만 실려 있다가 이번에 등재되었다.

각인되다[-되/-뉘] 「동사」 ⇒ 각인03 「2」. 『논리에 **각인되다**/가슴속에 **각인되다**/어릴 적 고향의 풍경은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사실 그 조서 작성 담당 수사관과 지낸 약 1주일간은 그로서는 특별한 인상으로 마음속에 **각인되었다**. 《이호철, 문》

일상용어는 이처럼 말뭉치가 사전의 체계성을 고려하여 편찬자가 추가할 수 있지만 전문어를 표제어로 추가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교육과 관련된 용어인데 특별히 교과서와의 비교를 통해 사전에 없는 말을 보충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단답형(單答型)[-다평] 「명사」 『교육』 필기시험 문제 형식의 하나. 간단한 단어·구·절(節)·문장 등으로 답을 적도록 하는 형식이다.

관용구나 속담 가운데서도 실생활에서는 쓰이지만 초판에 빠진 것들이 추가되었다. ‘가방끈이 길다’와 ‘가방끈이 짧다’는 비교적 최근에 널리 쓰이는 말로 초판에 없던 말이다.

가방끈(이) 길다 「관용구」 많이 배워 학력이 높다. ¶ **가방끈이 긴** 사람이 오히려 이해관계에 더 철저하다.
가방끈(이) 짧다 「관용구」 많이 배우지 못해 학력이 낮다. ¶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가방끈이 짧았던** 아버지는 자식만큼은 대학에 보내려고 무진장 애를 쓰셨다.

아래의 ‘가을 아욱국은 사위만 준다’는 속담은 속담 사전에는 있었지만 초판에는 실려 있지 않던 것이다. 새롭게 등재하고 기존의 속담과 동의어로 처리하였다.

가을 아욱국은 사위만 준다 「속담」 = 가을 아욱국은 계집 내쫓고 먹는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최근에 등장한 어휘를 표제어로 추가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표준국어대사전》과 같은 규범적인 사전에는 언어생활에 정착된 말만 수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을 통과해서 새롭게 등재된 표제어로 ‘누리꾼’, ‘피시방’ 등을 들 수 있다.

누리꾼 「명사」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 네티즌.

또한 초판에는 북한어로 처리되었으나 우리 쪽의 쓰임이 확인되는 경우 더 이상 북한어로 처리하지 않았다. 아래의 한자어는 북한 국어사전에만 등재되었지만 우리의 한적(漢籍)에서 확인되거나 용례가 나타나는 예이므로 북한어라고 하기 어렵다.

겸공01(兼供) 「명사」 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제공함.
훈교(訓敎)[훈:] 「명사」 훈계하여 가르침. ¶ 우리 어머니의 **훈교**가 있다 하고 그 돈을 즉시 도로 보내노라 하고…《독립신문》

한편 더 이상 쓰이지 않고 표제어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일부 표제어는 삭제하였다. 삭제된 표제어는 전문 용어나 아주 궁벽한 한자어, 외국어이다.

가격[^]상품권(價格商品券)『경제』 표시된 금액만큼의 상품을 교환해 주도록 되어 있는 상품권.
고압[^]용액(高壓溶液)『생물』 =고장액(高張液).

‘가격 상품권’은 언어 현실에서는 주로 ‘상품권’으로 쓰이는 말로 국어사전에 등재할 만한 표제어가 아니며 ‘고압 용액’은 쓰이지 않는 말이라는 감수자의 감수 의견을 따라 삭제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번 개정판에는 약 3,600여 개의 표제어가 추가되었는데 이 중에서 사전에 빠진 것을 보충한 미등재어가 2,500여 개이고 북한어와의 대응 관계에서 추가된 표제어가 1,100여 개이다.

3) 규범 관련 보완

《표준국어대사전》은 언어생활의 규범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편찬된 사전이다. 모든 사전이 어느 정도의 규범을 담고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은 모든 표제어가 ‘규범과 비규범’이라는 대립 관계를 형성할 만큼 규범 지향적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는 규범은 크게 ‘맞춤법, 표준어, 띄어쓰기’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맞춤법은 표제어를 어떻게 적느냐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쓰러지다]로 소리 나는 말을 ‘쓰러지다’로 적느냐 ‘쓸어지다’로 적느냐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서 맞춤법과 관련된 개정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맞춤법이란 쉽게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한글 맞춤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맞춤법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표기와 관련된 것으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지명의 표기가 바뀐 경우가 있다.

히우그란지(Rio Grande)「명사」『지명』 브라질 남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 쌀, 축산물, 밀 따위의 수출항이다. 식료품, 직물 공업이 발달하였다.

‘히우그란지’는 그동안 ‘리우그란데’로 알려져 있던 지명이다. 표기법에 맞추어 ‘히우그란지’를 추가하고 기존의 ‘리우그란데’는 “‘히우그란지’의 전 이름”으로 풀이하였다. 이러한 처리는 초판의 ‘뭍바이’, ‘뽀베이’의 뜻풀이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표준어의 문제이다. 언어생활에서 쓰이는 말이 여럿일 경우 어느 것을 표준어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언어는 시간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고 표준어도 예외가 아니다. “표준어 규정(1988)”에서도 ‘복수 표준어’의 개념을 도입하여 널리 쓰이는 말에 대해서는 복수의 표준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초판이 발간된 이후 10년간의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표준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표준어를 추가하지는 않았다. 아직까지는 좀 더 언어 변화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얼마나 반영해야 하는지는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규범을 제시하는 방식을 수정하였는데 초판에서 아래와 같이 ‘잘못’으로 제시하였던 것을 개정판에서는 ‘→’로 제시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알아-맞추다 「동사」 ‘알아맞히다’의 잘못.	알아-맞추다 「동사」 → 알아맞히다

형식은 바뀌었지만 초판과 개정판 모두 ‘알아맞히다’가 표준어이고 ‘알아맞추다’는 비표준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초판의 방식은 규범을 명확히 전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표준어에 해당하는 말이 무조건 잘못되고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오해를 줄 여지가 있었다. 사전에서는 좀 더 중립적인 표현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로 바꿔 제시한 것이다. 표제어가 비표준어일 경우 화살표나 손가락표 다음에 표준어를 제시하는 이러한 방식은 사전에서 전통적으로 쓰던 방식이다.

규범을 사전에서 보여 주는 방식과 관련하여 오해하기 쉬운 것이 사전에 표제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다. 아무리 큰 사전이라도 모든 말을 등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전에 실리지 않는 말이 있기 마련이다. 일례로 ‘넘어지다’를 잘못 쓴 ‘너머지다’는 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이는 ‘너머지다’가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기일뿐더러 사전 표제어로 실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실지 않은 것뿐이다. 이러한 점은 표준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전의 어휘 목록에는 한계가 있고 실제 언어 현실을 완전하게 반영하지도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단은 사전을 근거로 사전에서 등재되지 않은 말은 그 시점에서는 아직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

1)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표준어로 인정받을 만한 말은 많이 있고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사전의

이러한 점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 띄어쓰기다. 띄어쓰기를 할 때 특히 합성어와 관련된 판정은 사전에 표제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으면 붙여 쓰고 그렇지 않으면 띄어 쓴다. 합성어의 띄어쓰기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개정판에서는 교과서와 출판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는데 이를 보면 ‘바닷속’은 초판에는 없었지만 ‘물속, 땅속’에 발맞추어 개정판에 새롭게 추가한 말이다. 이외에도 일관성이 부족했던 경우를 수정하였다. 일례로 초판에서는 ‘가상현실’은 한 단어로 보고 일반어로 처리했다.

가상·현실(假想現實) 「명사」 현실이 아닌데도 실제처럼 생각하고 보이게 하는 현실. 『통신 기기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첨단 기기를 이용한 **가상현실** 게임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개정판에서는 교과서 등과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 ‘컴퓨터’ 전문어로 처리하고 ‘가상·현실’로 처리했다.

가상·현실(假想現實) 『컴퓨터』 현실이 아닌데도 실제처럼 생각하고 보이게 하는 현실. 『통신 기기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첨단 기기를 이용한 **가상현실** 게임을 즐기고 있다.

이러한 처리에 따라 ‘가상공간’과 같은 동일한 부류의 표제어 또한 모두 ‘가상·공간’과 같이 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좀 더 일관되게 띄어쓰기를 한 것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999	2008	영역
가공·식품	가공·식품	일반어
가상·공간	가상·공간	컴퓨터
가상·현실	가상·현실	컴퓨터
가정·교사	가정·교사	교육
가정·교육	가정·교육	교육
간호학교	간호·학교	교육
경찰·학교	경찰·학교	교육
공립·학교	공립·학교	교육

표제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보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999	2008	영역
공업-학교	공업*학교	교육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사회
건강-관리	건강*관리	의학
건국-이념	건국*이념	법률
계급-의식	계급*의식	사회
계급-투쟁	계급*투쟁	사회
고속도로	고속*도로	교통

표제어에는 규범과 관련된 정보만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표제어는 구성 성분을 불임표로 표시한다. 이를 직접 구성 성분(IC: immediate constituent) 분석이라 하는데 개정판에서는 이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졌다. 일례로 초판에서는 ‘회갈색’을 ‘회갈’과 ‘색’으로 분석하여 ‘회갈-색’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회-녹색, 회-백색’처럼 ‘회’와 나머지를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개정판에서는 ‘회-갈색’으로 수정하였다. 또 ‘가달석’은 ‘가달-석’으로 되어 있지만 의미상 ‘가달’과 ‘석’으로 분석하기가 어려우므로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가달석’으로 조정하였다.

한편 다음과 같이 표제어에 가운데점이 들어가는 경우는 초판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가모·콘던·거니의 이론(Gamow-Condon-Gurney-理論) 『물리』 1928년에 가모(Gamow, G.), 콘던(Condon, E.U.), 거니(Gurney, R.W.)가 공동으로 알파 입자의 붕괴 현상을 설명한 이론. 이에 따르면, 원자핵 속의 알파 입자는 핵 표면 가까이 있는 퍼텐셜의 장벽을 터널 효과로 통과하여 핵 밖으로 나간다고 한다.

위의 표제어는 실제로 쓸 때도 ‘가모·콘던·거니의 이론’으로 적으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규범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부 보완하는 선에서 작업이 그쳤다. 앞으로 규범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좀 더 근본적인 수정과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2)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작업의 미시적 고찰

사전의 개정 작업은 최초의 편찬 작업과는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다. 사전의 큰 틀을 바꾸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기초는 이미 처음 편찬 작업 때에 잡힌 것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다. 이는 거시적인 면에서의 큰 틀만이 아니라 미시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큰 틀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안의 세부 내용 또한 크게 달라지기는 힘들고, 큰 틀이 바뀌지 않은 이번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작업에도 이러한 부분은 그대로 적용되었다. 기본 틀이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표준국어대사전》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기존의 사전 지침이나 형식 등이 그대로 유지된 채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태에서 개정 작업에서 방점을 두는 부분은 아무래도 ‘보완’일 수밖에 없다. 이전 지침에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개정 작업의 가장 주요한 부분이 되었다. 초판이 지닐 수밖에 없는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한층 완성된 형태의 사전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개정 작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방향에 따라 이전 사전의 문제점이 어떠한 것이 있었으며 이러한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보완되었는지 살펴보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여 과제로 남은 문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특히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틀을 좀 더 잘 적용하는 것이 개정 작업의 목표였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를 편찬 과정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의 방식과 절차 부분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1) 뜻풀이

사전에서 해당 표제어에 대해 어떻게 풀이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어떠한 표제어를 사전에 올릴 것인가와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뜻풀이에 대해 고려해야 할 주요한 두 가지 사항은 형식과 내용이다. 사전은 하나의 거대한 체계이다. 따라서 사전의 형식은 내용만큼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서 형식 자체가 내용을 규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사전 지침에도 뜻풀이 형식에 대해 먼저 고려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전에 등재된 표제어가 동일한 지위나 동일한 범주의 것이 아닌 만큼 뜻풀이 역시 하나의 방식이나 형식으로 통일하여 제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원칙과 함께 부류별 뜻풀이 형식을 세세하게 나누어 제시하였다.

기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뜻풀이 대원칙은 다음과 같다.²⁾

- ㄱ. 뜻풀이는 정의항과 부가항으로 나눈다.
- ㄴ. 정의항은 ‘중차+유개념’의 형식을 따르며 품사에 따라 해당 품사의 형태로 풀이를 맺는다. 다만 경우에 따라 상위 언어 풀이를 사용할 수 있다.
- ㄷ. 부가항은 반드시 종결 어미 ‘-다’로 끝난다.

이 대원칙은 개정 표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또 기존 지침에서 제시했던 각종 부류별, 전문어별 풀이 형식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기존 지침에서 상당히 자세했던 부분까지 뜻풀이 형식을 제시했다 해도 모든 부류에 대한 것을 제시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것과 그에 맞추어 뜻풀이 형식을 통일하는 것이 개정 작업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내용은 형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부류에 따라 이미 형식이 정해져 있다면 그 형식에 맞는 내용을 채우는 것이 뜻풀이 작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뜻풀이 내용 부분에서는 이 형식에 맞추어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바뀐 정보를 갱신하는 것이 주요한 작업이었다.

이제 이러한 큰 틀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이를 개정 작업에서 어떻게 해결 또는 보완하였는지 살펴보겠다.

가. 문제 사항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문제 사항 역시 형식과 내용 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 둘을 나누어 각각에 대해 살펴보겠다.

① 형식의 문제

형식의 문제는 사전 편찬의 과정 및 절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새로 편찬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작업에서는 이러한 과정 및 절차가 문제의 핵심이 되기도 한다.

먼저 형식 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는 기존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여러 이유로 기존 사전에서 엄격하게 적용되지 못한 점이고 둘째는 지침

2) 이 부분은 2000년에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부족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점이다. 기존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엄격하게 적용이 되지 못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전의 표제어 자체가 하나의 부류로만 묶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동일한 표제어가 서로 다른 복수의 부류로 분류될 수가 있다고 할 때 이를 어떠한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할지가 문제가 된다. 또한 동일한 지침이라도 편찬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여지가 있다. 지침은 말 그대로 ‘지침’일 뿐이지 하나하나의 표제어의 뜻을 모두 두 고려하려 작성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침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느 수위까지, 어떤 범위까지 적용할지는 편찬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절차상의 문제를 든다면, 사전 원고가 최종 완성될 때까지 수많은 교열과 교정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교열 및 교정 작업은 대개 가나다순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형식을 통일한 표제어가 사전 원고 속에 흩어져 있을 때, 이를 하나의 부류로 인식하여 교열을 보는 것은 쉽지 않다. 교열자는 해당 표제어만을 보고 교열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선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형식을 흐트리게 된다. 이는 편찬자가 수십 명이라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지침은 존재하나 통일성을 잃은 경우가 기존 사전에 다수 존재하였다.

두 번째로 지침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부족한 경우는 지침 자체를 만드는 것이 우선하는 과제이다. 이때 어떠한 부분이 불명확한지,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아내는 것은 전적으로 외부 사용자의 평가와 내부 편찬자의 경험이다. 특히 방언어나 북한어, 전문어 등과 같이 지표가 확실하여 일괄적 검토나 수정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하나의 기준만 정하면 처리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으나 일반어의 뜻풀이 형식을 맞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기존 지침에서도 몇 가지 특수한 풀이 형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수많은 단어 부류에 대해 일일이 지침을 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 지침을 만들어 가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동일한 부류의 표제어를 모으는 작업부터 선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러한 보완 작업은 사실상 ‘완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늘 과제가 남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② 내용의 문제

사전 내용상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일반어(전문영역이 표시되지 않은 표제어)의 풀이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전문어 풀이에 대한 것이

다. 일반어와 전문어는 풀이 형식 및 내용 등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 역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리고 셋째는 앞서 두 부류 모두에 걸리는 것이나 관점이 조금 다른 것으로, 각종 최신 정보를 갱신하는 문제이다. 이는 단순한 사실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살펴보고자 한다.

◇ 일반어 뜻풀이

일반어 뜻풀이의 문제점은 기존의 풀이가 잘못된 경우와 새로운 쓰임이 풀이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기존의 풀이가 잘못된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기존의 풀이에 해당하는 쓰임이 있기는 하나 부정확하게 되어 있는 경우이다. 뜻풀이 및 모든 보완 작업은 국어원에서 사전 작업을 위해 구축한 말뭉치를 근거로 이루어졌는데, 말뭉치에 나타난 실제 쓰임과 사전의 풀이가 맞지 않는 경우 이를 정확하게 수정하는 작업이다. 또한 사전 편찬자의 직관 및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쓰임 역시 뜻풀이 검토의 기준이 되었다. 다음에 보이는 바와 같이 ‘고혹’의 기존 풀이는 실제 쓰임 예와 맞지 않는다.³⁾

고혹적 「관·명」 아름다움이나 매력 따위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또는 그런 것.

그녀의 얼굴은 안개가 막 씻겨간 새벽의 숲처럼 깨끗하고 청순해서 너무도 {고혹적이었
다}.<오정인,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었네>

이 혼을 빼앗아 버리는 소음, 저 여자들의 {고혹적인} 웃음소리…….<김성동,만다라>

위의 예에서 보듯이 ‘고혹적’이라는 것은 대상 자체의 성격에 관계된 것이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 관계된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풀이는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기존 풀이가 현재의 쓰임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 말의 쓰임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풀이가 현재는 안 쓰여도 근거가 있다면 새로운 풀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완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풀이의 추가는 뒤에서 살펴볼 것이다.

풀이가 잘못된 두 번째 경우는 해당 풀이의 쓰임이 말뭉치에 없을뿐더러 직관상으

3) 구체적인 문제와 수정 예는 5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예만 보이고, 전체적인 방향의 설명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로나 기타 자료에서도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이다. 원칙적으로 기존 국어사전에서 인정하면서 직관상으로도 가능한 풀이는 쓰임이 나타나지 않아도 인정하는 것이 표준의 기본 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조차 없는 풀이의 경우에는 뜻풀이를 삭제하였다.

뜻풀이 부분의 작업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새로운 쓰임을 반영하는 작업이었다. 표제어의 추가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있던 말에 새로운 쓰임이 덧붙는 경우가 많다. 이는 거꾸로 보면 실제 많이 나타나는 쓰임이 사전에는 없다는 문제를 낳게 된다. 특히 이번 《표준국어대사전》의 개정 작업이 9년 만에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괴리가 많아서 새로운 풀이를 추가하는 것은 사전 개정 작업의 주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 밖에 오류는 아니나 사전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작업으로 기본 표제어 검토 작업이 있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뜻풀이가 동일한 두 표제어가 있을 때 한 표제어에서만 뜻풀이를 하고 다른 표제어는 동의어로 처리하였다. 이때 풀이가 되어 있는 것을 기본 표제어라 한다. 기본 표제어는 쓰임이 많은 쪽을 잡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말뭉치 등을 근거로 재검토 작업을 하였다.

◇ 전문어 뜻풀이

전문어 뜻풀이의 문제는 크게 정보 오류와 어법상 오류로 나눌 수 있다. 정보 오류는 말 그대로 전문어에 대한 정보 자체가 잘못 등재되어 있는 것이다. 기존 《표준국어대사전》의 모든 전문어는 전문가 감수를 거친 것이다. 문제는 전문가에 따라, 전문 자료에 따라 정보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시비나 오류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전문가의 감수를 받거나 다양한 전문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어법상의 오류는 문장이 문법에 맞지 않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다. 일반어 풀이는 모두 국어학 관련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다. 반면 전문어의 풀이는 전문가 감수를 거치는 동안 내용이 수정되면서 문장이 어색해지거나 오류가 생긴 경우가 많다. 물론 교열과 교정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 수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자연스럽거나 이해하기 힘든 문장들이 존재했다. 따라서 개정 작업에서는 이러한 전문어의 문장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문법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 정보 갱신

정보 갱신의 문제는 일반어와 전문어 모두에 걸릴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접근 방식이 다소 다르고 문제의 질 역시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엄밀히 말하면 순수 ‘국어사전’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어 대사전이 그러한 것처럼,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인명, 지명, 각종 행정 기관 명칭, 법률 명칭, 문화재 명칭 등이 올라 있다. 이는 ‘전문 용어’와도 조금 다른 것으로 그야말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그대로 실어 주어야 하는 항목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항목은 대개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항목 자체 및 내용이 변경된다. 최근 정부 조직이 개편되어 행정 기관의 이름이 모두 바뀐 것이나,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생긴 것 등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이렇게 정보가 변경된 것을 수합하여 새로운 정보로 갱신하는 것이 개정 작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정보 갱신 작업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많지 않다. 문제는 어떠한 정보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것은 편찬자의 상식과 정보력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개정 작업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수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갱신 작업을 진행하였고, 따라서 갱신이 누락된 정보가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갱신해야 할 목록이 확보되었다고 갱신이 쉬운 것은 아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자료 자체는 인터넷 등의 발달로 매우 많아 졌지만 그중에서 믿을 만한 정보를 발견하는 것 역시 편찬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 작업에서는 이러한 목록 확보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나. 보완 내용

형식과 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작업에서 주요하게 한 작업은, 검토 작업을 가나다순으로뿐만 아니라 부류별로도 진행한 것이다. 물론 처음 사전 편찬 작업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일부 취했으나 표제어 목록이 확정되지 않은, 작업 중인 사전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었기에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개정 시에는 일단 완성된 형태의 사전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류별 작업을 하는 것이 초판 때보다는 훨씬 수월하였다. 특히 사전 시디의 다양한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각종 부류별 표제어 목록 추출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사전 개정 후반에 새로운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기계적인 단순 형식 맞추기 작업은 한결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① 형식 문제의 보완

일차적으로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 중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된 부분을 전체 원고 검토 시 집중적으로 수정하도록 하였다. 개정 시에도 기본적으로는 가나다순으로 원고를 검토하였지만, 일단 지침과 원고가 완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초판 때보다는 한결 일관성 있게 작업을 할 수가 있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대로 지표가 분명하여 기계적인 수정이나 대조 작업이 가능한 경우는, 개정 작업 후반에 도입된 시스템에서의 기계적 추출과 수정으로 최대한 형식상의 통일을 꾀할 수 있었다. 특히 하나의 표제어의 수정으로 사전 전체 내용에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초판 작업에서는 교열자가 하나하나 확인하여 수정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개정 시에는 이를 기계적으로 일괄 검색 하여 수정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도 한층 질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만 개정 작업에서도 초반에는 초판과 마찬가지로 여러 교열자가 나누어 교열을 진행했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다.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나타난 일관성 결여 문제는 주로 일반어의 다양한 계열 어휘에서 나타난다. 같은 부류에 속한 표제어의 뜻풀이 형식이나 표제어 등재 자체가 일관성이 없는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다양한 경로의 문제를 수합하는 것과 편찬자들의 직관으로 계열 어휘를 모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문제가 되었거나 될 만한 부류를 목록화한 후 하나의 부류를 한 명의 편찬자가 표제어부터 뜻풀이까지 일관된 기준으로 수정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형식상의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등재된 해당 부류의 표제어와 뜻풀이를 검토한 후, 동일한 지위의 누락된 표제어를 추가하거나 다른 표제어와 층위가 맞지 않게 들어간 표제어를 일부 삭제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였다. 또한 표제어의 분석이 달리 된 경우 이를 수정하였고, 다음으로 뜻풀이 형식 및 내용의 기준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일괄적인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② 내용 문제의 보완

내용의 문제는 부류에 따라 보완 방식이 다소 차이가 난다. 먼저 일반어는 말뭉치를

근간으로 모든 작업을 진행하였다. 앞서 문제점에서도 언급했듯이 뜻풀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말뭉치와 편찬자의 직관이므로 보완 역시 이를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 일반어 뜻풀이

기존의 풀이가 말뭉치 쓰임이나 편찬자의 직관과 다를 경우, 우선 기존 국어사전의 풀이를 검토하였다. 처음 《표준국어대사전》을 편찬할 때의 취지가 기존 국어사전의 모든 표제어와 풀이를 담는 것이었다. 쓰임이 많지 않거나 다소 부정확한 풀이라 할지라도 기존 국어사전에서 등재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그 자체가 이미 국어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개정 작업에서도 쓰임이 없다고 무조건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보완을 하지는 않았다. 앞서 언급한 ‘고혹적’처럼 기존 사전에서도 용례와 풀이가 맞지 않고 현재의 쓰임이나 직관과도 전혀 맞지 않는 경우는 수정하였지만, 잘 안 쓰이는 풀이라도 기존 사전에서 인정한 것은 그대로 두는 방식을 택하였다.

잘못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었던 반면 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관점을 취하였다. 기존의 풀이에서 포괄할 수 없는 경우에 새로운 풀이를 추가하였고, 만일 기존 풀이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용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 한 기존의 풀이가 모호하게 나뉘어 있는 경우는 전면적으로 풀이를 수정하여 쓰임에 맞고 분명히 구분되도록 하였다. ‘가볍다’와 ‘무겁다’가 이러한 예가 될 수 있다. 용례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풀이가 겹치거나 누락된 것이 많았고 특히 반의어 관계에 있는 두 낱말의 풀이 방식에 차이가 컸다. 따라서 이 두 단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뜻풀이를 조정하고 형식을 맞추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뜻풀이 추가는 새로운 표제어 추가나 마찬가지로 경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일부 계층에서 일시적으로 많이 쓰이는 뜻이라 해도 아직 정착되었다고 보기 힘든 경우는 뜻풀이를 추가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성격이 모나고 원만하지 않다는 뜻으로 최근 급속히 많이 쓰이는 ‘까칠하다’에는 아직 이러한 풀이가 들어가 있지 않다. 일단 유사한 의미와 표기의 ‘까칠하다’가 이미 있기 때문이다. ‘까칠하다’를 써야 할 자리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까칠하다’가 쓰이면서 현재와 같은 쓰임이 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까칠하다’가 이렇게 사람의 성격과 관련하여 쓰인 것이 그리 오래지 않다는 것도 한 이유이다. 유행어가 사전에 등재되기까지 검토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뜻

풀이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 밖에 실제 쓰임 빈도에 따라 동의어 관계에 있는 두 표제어에서 기본 표제어를 재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일반어에서는 원칙적으로 쓰임이 많은 쪽에서 뜻풀이를 해 주고 아닌 쪽을 동의어로 돌리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것이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애초에 기본 표제어를 잘못 설정하여 그런 경우도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쓰이는 표제어가 바뀌어서 그러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뜻풀이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과 같은 측면에서 기본 표제어도 현재 많이 쓰이는 쪽으로 재정비 작업을 하였다.

◇ 전문어 뜻풀이

전문어 뜻풀이는 앞서 문제점에서 언급한 대로 전문가 감수 결과를 바탕으로 윤문 작업을 통하여 보완을 진행하였다. 이 작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한 분야를 여러 명이 나누어 감수를 하였기 때문에 감수자에 따라 달리 처리된 부분이 있었고 이러한 것을 내부에서 기준을 잡아 통일성 있게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더욱 어려웠던 것은 분야에 따라 달리 처리된 부분이다. 전문어 영역은 다르지만 유사한 계열의 항목들을 감수 분야에 따라 달리 처리한 경우가 많았고 이를 균형 있게 보완하는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내부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는 감수자와 수차례 협의를 하여 최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바른 정보를 수록하고자 노력하였다.

◇ 정보 갱신

정보 갱신 작업은 목록이 확보된 후 이를 여러 편찬자가 부류별로 나누어 일관된 기준을 정한 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기관명이나 행정 구역명 등은 해당 관공서의 누리집 및 행정 자치부(현 행정 안전부)의 행정 구역 편람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정하였다. 그 밖의 문화재명이나 도로명 등 역시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의 누리집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정보를 수정하였고, 누리집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항목은 직접 관련 기관 담당자와의 전화를 통하여 하나하나 해결하였다. 따라서 처리한 항목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다. 남은 문제

문제 사항 및 보완 내용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 이를 형식과 내용으로 나누어 간단히 정리하며 살펴보겠다.

형식상의 문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사전이라는 체제 안에서 늘 숙명처럼 발생하는 것이다. 표제어 부류는 여전히 많고, 또 한 표제어가 복수의 부류에 속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한두 번의 작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목록화하고 수정하는 수밖에 없다. 더불어 개정 작업에서 새롭게 발생한 문제도 있었다. 개정 작업 역시 표제어 하나하나에 대한 검토 작업이 우선하여 이루어진 만큼 편찬자는 해당 표제어의 풀이만을 대상으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교열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초판 경험이 없는 편찬자가 중반에 합류하여 기존 형식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정 작업을 하면서 맞추었던 형식을 다시 흘뜨리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개정 작업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편찬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다만 사전 관리 시스템이 한층 다양한 방식의 검토 및 수정이 되도록 개선되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형식상의 문제는 좀 더 쉽고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내용상의 문제 중 일반어의 문제는, 전문어 등의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일반어는 계속 보완하고 다듬으며 뜻풀이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풀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큰 틀은 안정될 수 있다. 다만 뜻풀이의 보완이 말뭉치에 근거를 두는 것인 만큼 말뭉치 자체를 계속 갱신하여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는 작업이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면 전문어와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풀이의 완성도를 높이기가 힘들다. 특히 전문어 풀이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 분야 자체의 통일된 풀이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용어 자체도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풀이의 통일 또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마다 다른 정보가 실려 있고 국어사전 편찬자로서는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할지 여전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전문어 부분은 표제어 및 뜻풀이를 전문가들의 용어 작업과 연관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야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전문가들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합의된 결과물을 내놓아야만 국어

사전의 일관성도 담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 갱신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할 목록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확보는 것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번 《표준국어대사전》의 개정 작업을 통하여 그러한 작업의 일부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 부분은 인터넷 사전이라는 특성을 십분 이용하여 한층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용례

용례 작업은 뜻을 분명하게 해 주고 보완해 준다는 면에서 사전에서 표제어, 뜻풀이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일반 사람들이 해당 단어의 쓰임을 분명하게 알고 싶을 때 뜻풀이보다도 용례를 먼저 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의 용례는 해당 뜻풀이의 쓰임을 잘 알려 줄 수 있는 전형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실제로 쓰인 예를 찾아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용례 작업은 용례가 없는 표제어 및 뜻풀이에 용례를 싣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이미 용례가 있으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좋은 용례로 교체해 주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였다.

용례 작업은 말뭉치를 보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기존에 국어원에서 구축해 놓았던 말뭉치를 좀 더 보완하고 다듬어서 개정 작업을 위한 말뭉치로 활용하였다. 말뭉치는 인용 말뭉치와 기타 말뭉치로 나뉜다. 전자는 말뭉치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출전과 함께 용례로 실을 수 있도록 정비한 말뭉치로 모두 1,000만 어절이고, 후자는 그대로 실을 수는 없으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용 말뭉치로 7,000만 어절이다.

이러한 말뭉치를 근거로 하여 어떠한 문제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완하였는지 살펴 보겠다.

가. 문제점

① 용례 없는 표제어

용례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용례가 없는 표제어이다. 용례가 없는 표제어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전문어이다. 전문어에는 용례를 보여 주지 않는 것이 기존 지침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어에는 용례가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전문어에는 용례를 보여 주는 것이 사용자들에게는 더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 많아서 이번 개정 작업에서 방향을 달리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는 잘 안 쓰이는 한자어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기존 국어사전의 표제어를 대부분 그대로 수록하였기 때문에 쓰임이 거의 없는 한자어도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말뭉치에서는 대개 용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용례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는 말뭉치 자체가 소설이나 수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실제 쓰임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뭉치 외에 한자어의 쓰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었다. 그 밖에 쓰임이 있을 법하나 기존 말뭉치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용례를 제시하지 못했던 표제어들이 있었고, 이를 위해 말뭉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② 잘못된 용례

기존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용례 중에서 뜻풀이와 맞지 않는 용례가 일부 있었다. 특히 쓰임이 많지 않은 표제어의 경우 말뭉치에 유사한 용례가 있으면 보여 주기도 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뜻풀이를 이해하는 데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뜻풀이를 수정하고 추가하는 과정에서 뜻풀이의 변동과 함께 당연히 용례도 수정이 되어야 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 작업이 이루어졌다.

용례의 오류는 뜻풀이와 맞지 않는 것뿐 아니라 규범에 어긋난 문장에 쓰였거나 원문과 맞지 않는 예가 들어간 경우까지 포함한다. 기존 《표준국어대사전》의 지침에서도 비표준어나 방언이 쓰인 용례는 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부득이한 경우 사소한 표기 오류는 수정하여 실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것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었다.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말뭉치의 문장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있었다. 문헌 자료를 일일이 입력하여 마련한 말뭉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경우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도 필요하였다.

③ 어색한 용례

기존 《표준국어대사전》의 용례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어색한 작성 용례를 보인 것이었다. 사전 표제어 중 말뭉치 등에서 쓰임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잘 쓰이지 않는 표제어에는 용례를 보여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용자에게 도움이 된다. 그만큼 많이 쓰이지 않는 표제어라는 것을 알려 주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제어에 뜻풀이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한 용례를 실어 준 경우가 있었다.

아도-물 「명사」 ‘돈01[1]’을 달리 이르는 말. 중국 진(晉)나라 왕연(王衍)이 고상한 것을 좋아하여 돈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고 ‘이것’이라는 뜻의 ‘아도물’로 바꾸어 부른 데서 유래한다. 『나는 비록 어렵게 살아도 **아도물** 때문에 나 자신을 구차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

용례에 나타난 문장은 매우 현대적인 것으로 실제 ‘아도물’을 ‘돈’으로 바꾸면 사용이 가능한 문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아도물’을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는 ‘아도물’의 뜻풀이를 보고 임의로 만든 예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가 실린 것은, 모든 표제어에 최대한 용례를 넣는다는 기존 지침의 원칙을 과도하게 적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다시 말뭉치를 검색하여 실제 쓰인 예를 찾아 넣어 주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용례를 삭제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나. 보완 내용

앞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 정비한 말뭉치와 <번역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그 밖의 각종 자료를 검토하였다. 편찬자들이 표제어를 가나다순으로 검토해 나갈 때 항상 해당 부분의 말뭉치를 함께 검토하여 용례를 추가하거나 삭제·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① 용례 추가

용례가 없는 표제어 중 일상생활에서도 쓰이고 말뭉치에도 나타나는 경우 용례를 추가하였다. 이때 작성한 용례가 쓰임을 더 분명히 보인다면 굳이 말뭉치에서 용례를 찾지 않고 작성한 용례를 실어 주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표제어에는 말뭉치에 근거한 용례만을 실어 주었다. 인용 말뭉치에 쓰임이 있는 경우는 가장 바람직한 경우로, 출전과 저자를 밝혀서 용례를 실어 주었다. 그런데 인용 말뭉치에는 없으나 기타 말뭉치에는 쓰임이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기타 말뭉치의 문장을 일부 수정하여 작성 용례로 제시하였다. 이는 임의의 작성 용례와는 달리 실제 쓰임이 확인된 것이므로 다소 어색하더라도 제시해 주었다.

한자어에는 말뭉치와 함께 <번역 조선왕조실록> 등을 참고하여 용례를 추가하고자

하였다. 현재는 잘 안 쓰이는 한자어라도 옛 문헌에서 쓰임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번역 조선왕조실록>에서 검색하여 쓰인 예가 있는 경우 출전을 밝히고 용례로 실어 주었다. 그 외에 용례가 말뭉치에 나타나지만 보여 주지 않은 경우들은 개정 작업을 통하여 최대한 실어 주고자 하였다.

전문어는 기존의 지침을 수정하여 넣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전문어 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용례를 보여 주는 것이 뜻풀이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용례를 추가하였다.

② 잘못된 용례 수정

뜻풀이와 용례가 맞지 않는 경우에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뜻풀이에 맞는 용례로 교체를 하거나 용례에 맞게 뜻풀이를 수정하는 것이다. 이는 말뭉치 자료와 편찬자의 직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작업할 부분이다. 뜻풀이에 문제가 없고 그러한 의미로 쓰인 용례가 많다면 이는 용례가 잘못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맞는 용례로 교체를 하였다. 그러나 용례가 오히려 실제 쓰임을 잘 보여 주고 있고 말뭉치 등에서도 유사한 용례들만이 나타난다면 이는 뜻풀이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실제 쓰임과 용례 등을 검토하여 뜻풀이를 수정하였다.

비표준어나 방언의 사용 등 어문 규범과 관계된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용례에 대해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처리하였다. 오류 유형이 단순한 표기의 잘못이면 맞는 표기로 수정하여 원래의 용례를 그대로 실어 주었다. 그러나 단어 차원의 표기 문제를 넘어 어휘 자체가 방언이거나 사전에 없는 말인 경우에는 용례를 교체하였다. 이는 원작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정할 경우 원작 자체가 훼손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다른 용례로 교체하였다.

말뭉치 자체의 문제는 원문과의 대조 작업을 통해 해결하였다. 말뭉치에 나타난 출전 자료를 근거로, 말뭉치 자료와 원문 자료를 대조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하였다.

③ 어색한 용례 수정

쓰임이 확인되지 않은 어색한 작성 용례는 최대한 삭제하였다. 말뭉치 및 자료를 검토하여 용례가 나타나는 경우는 용례를 보여 주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삭제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쓰임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료에도 없고 편찬자의 직관으로도 쓰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임의로 작성하여 올린 용례로 보아 삭제하였다.

다. 남은 문제

말뭉치를 근거로 한 용례 추가 및 수정 작업은 이번 개정 작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만큼 많은 부분이 보완되었다. 편찬자에 따라 더 좋은 용례에 대한 직관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전에 비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용례 작업에서의 문제라면 말뭉치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개정 작업을 위해 새로 말뭉치를 정리했다고 해도 이 역시 수십 년 전의 자료들까지만 구축되어 있는 것이라 근래의 쓰임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따라서 말뭉치를 주기적으로 보완하고 그 대상도 소설과 수필 이외의 부분으로까지 확장하여야 더 풍부하고 현실에 맞는 용례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3) 문형 정보와 문법 정보

기존 《표준국어대사전》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자세한 문형 정보와 문법 정보의 제시였다. 단순히 자·타동사를 구분하는 수준이 아니라 표제어마다 취하는 필수 논항을 상세히 보여 주기 위하여 문형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문형 정보에는 보여 줄 수 없으나 해당 표제어의 특수한 쓰임이나 형태 등을 보여 주기 위해 별도로 문법 정보를 뜻풀이 앞에 제시해 주었다. 이러한 문형 정보와 문법 정보는 사전을 꼼꼼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고급 정보로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런데 문형 정보의 경우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제시하다 보니 일반 독자들이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사전 체계를 상당히 복잡하게 만드는 단점 또한 있었다. 특히 문형 정보는 뜻풀이 분할 및 배열과 결부되면서 매우 자세한 지침이 필요했고, 지침이 자세한 만큼 이를 적용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개정 작업에서는 ‘문형 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존의 정보를 유지하며 수정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따라서 자·타동사를 구분하는 【…을】 정보와 일부 꼭 필요한 정보의 누락이나 오류 외에는 기존의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반면 ‘문법 정보’에 대해서는 말뭉치를 근거로 실제 쓰임에 맞게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문법 정보’는 일반 독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다.

가. 문제 사항

① 문형 정보

문형 정보는 용언의 경우 해당 표제어가 취하는 필수 논항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세세한 지침을 세워 세밀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뜻풀이 배열도 문형 정보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였기 때문에 문형 정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한 정보가 일반 독자들에게는 오히려 혼란을 주기도 하였다. 일단 문형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 자체가 쉽지 않았다. 전체에 해당하는 문형 정보는 포괄하여 뜻풀이 번호 앞으로 빼내고 각 뜻풀이에만 해당하는 문형 정보는 뜻풀이 번호 다음에 제시를 하는, 일종의 수학 공식 같은 제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편찬자 역시 문형 정보가 복잡한 항목의 경우 제시 방법에 혼선을 겪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부 항목은 세밀하고 정확하게 제시된 반면 다른 항목은 간략하게 제시되는 등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필수 논항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대해 편찬자마다 의견이 다른 것도 문형 정보 제시의 어려움 중 하나였다.

② 문법 정보

문법 정보는 단어의 세부적인 실제 쓰임을 알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 특히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독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이다. 문형 정보로 제시할 수 없는 단어의 여러 쓰임에 대해 다양하게 안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뜻풀이나 용례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제 용법을 아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문법 정보 역시 기존 국어사전들의 내용을 그대로 실은 경우가 많아서 현재의 쓰임과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여기에 더해 문법 정보가 필요한 표제어인데 누락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문법 정보가 자세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을 오류라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들의 편이를 생각한다면 되도록 다양한 문법 정보를 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나. 보완 내용

① 문형 정보

이번 개정 작업에서 문형 정보에 대한 보완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졌다. 이미 언급했듯이 문형 정보는 뜻풀이, 용례 등 모든 부분과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수정한다는 것은 전체 틀을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 작업에서는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으로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명백하게 잘못된 문형 정보가 들어간 경우 삭제하거나 보완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문형 정보 추가는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해 주어야 할 경우로 한정하여 제시하였다. 즉 타동사인데 【…을】 정보가 없는 경우 이를 추가하는 정도로만 보완을 하였고 그 밖의 세세한 문형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보를 최대한 유지하였다. 그리고 용례와 마찬가지로, 실제 쓰임을 확인할 수 없는데 뜻풀이에 근거해 임의로 유추하여 만든 문형 정보 역시 삭제하였다.

② 문법 정보

문법 정보의 수정 역시 말뭉치를 근거로 하였다. 특정 형태로만 쓰이거나 특정한 단어에만 결합하는 표제어의 경우, 이를 말뭉치의 빈도를 근거로 세밀하게 보완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구사일생’에는 다음과 같이 문법 정보가 제시되어 있고 이에 맞는 용례가 제시되어 있었다.

구사·일생(九死一生) 「명사」 ((주로 ‘구사일생으로’ 꼴로 쓰여))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을 이르는 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다/그는 징용에 끌려갔다가 광복이 되어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다.

그런데 실제 말뭉치에는 다음과 같이 ‘구사일생이나’, ‘구사일생이’ 등의 다른 형태도 나타난다.

잔을 기울이며 선생님은, 지하실, 체포, 탈출, 다시 감금, 북한(北韓), 그리고 {구사일생의} 야간 도망 등을 길게 이야기하였다.<netc3615,447,오상원,난영>
이때 상주에서 패한 장수 이일이 옷통 벗고 머리 풀어진 채로 {구사일생이} 되어 단기로 충주읍 안으로 들어와서 신립에게 뵈었다.<NDPAC012,443,박종화,임진왜란>
당한 수효가 속속 드러남에 따라 그 엄청난과 잔혹함 또한 하늘 무서운 것이었다. 살아남은

자는 제각기 {구사일생이나} 간발의 차이를 안 거친 이가 없었으니, 천명이 아닌 이 또한 없었다.<NDNAA002,270,박완서,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따라서 문법 정보를 ‘주로’에서 ‘흔히’로 바꾸고 다른 형태의 쓰임도 용례로 보여주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⁴⁾

구사일생(九死一生) 「명사」 ((흔히 ‘구사일생으로’ 꼴로 쓰여))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을 이르는 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다/그는 정용에 끌려갔다가 광복이 되어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다./상주에서 패한 장수 이일이 옷통 벗고 머리 풀어진 채로 **구사일생이** 되어 단기로 충주읍 안으로 들어와서...<박종화, 임진왜란>

문법적인 결합 양상이나 의미적 결합 양상 등도 말뭉치 및 실제 쓰임을 기준으로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전체적으로 보완하였다.

다. 남은 문제

이번 보완 작업에서 꼼꼼히 다루지 못한 부분은 문형 정보이다. 문제점은 이미 언급한 바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전 틀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있는 후에야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법 정보 부분은 이번 보완 작업에서 상당 부분 개선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단어의 의미나 쓰임은 변하기 마련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일부 유형에 국한된 문법 정보를 좀 더 다양하게 제시하여,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에 미묘한 쓰임의 차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교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원어와 발음

《표준국어대사전》의 원어와 발음 중 발음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작업이 이루어지

4)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주로’는 그 형태 외의 형태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 ‘흔히’는 특정 형태가 많이 쓰이나 그렇지 않은 형태도 일부 나타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에 특정한 형태에만 굳어져서 쓰일 경우에는 ‘주로’나 ‘흔히’를 사용하지 않고 ‘○○ 꼴로 쓰여’라고 표현한다.

지 않았다. 기존 발음 정보 중 명백하게 오류인 것을 수정하는 정도였고, 대부분은 표준 발음법에 규정된 것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내용은 없었다. 이에 비해 원어는 들어 있는 정보의 양이 많고 다양한 만큼 여러 측면에서 보완 작업이 이루어졌다. 원어 역시 기존 정보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기존 정보의 양상 자체가 복잡한 만큼 많은 검토가 필요했다.

가. 문제 사항

① 발음

발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기존 사전에 제시된 발음 정보 자체라기보다는 표준 발음법 전체와 관련된 것이었다. 표준 발음법에서 규정한 발음 중 일부가 현실 발음과 동떨어져 있고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또한 경음화와 관련하여 현실 발음과 사전의 발음이 다를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문제가 되었다. 더 큰 범위에서 보면 외래어에 발음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사전의 체제 자체가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또 실제 작업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새로 추가하는 표제어의 발음이었다. 해당 표제어에 대한 현실 발음이 복수로 나타날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하여 실어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② 원어⁵⁾

원어는 크게 한자어와 그 밖의 외래어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한자어에서는 명백하게 오류로 지적받은 부분을 고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 일관성 있게 한자를 제시하는 것이 그다음으로 큰 문제였다. 한자의 일관성 문제는 여러 이체자에서 비롯된다. 통용되는 한자가 여럿 있을 경우 어느 것을 사전에서 기준으로 삼아 보여 주느냐의 문제이다. 동일한 의미로 쓰인 한자의 자체가 표제어마다 다르게 올라 있어서 이를 어느 하나의 기준을 잡아 통일하여 주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복합어의 경우도 한자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었다.

외래어는 주로 오류가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외래어의 경우 원어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널리 쓰이지 않는 외래어의 경우 외국어 사전

5) 여기서의 ‘원어’는 해당 표제어의 어원이 되는 원래의 언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표제어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는 한자와 로마자 따위를 가리킨다.

이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원적으로 어느 언어에서 온 것인지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 또 외래어 원어의 문제는 많은 경우 표제어의 표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원어가 바뀔 경우에 따라 표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래어 표기는 관용으로 인정받아 이미 널리 쓰이는 특정 형태로 굳어진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원어를 수정했다고 해서 표기까지 바로 수정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가 되었다.

나. 보완 내용

① 발음

발음의 여러 문제 중 표준 발음법에 명시된 부분이나 외래어의 발음 문제는 사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문제이다. 표준 발음법은 어문 규범의 개정이 있지 않은 한 달라질 수 없는 부분이고, 외래어의 발음 역시 표준 발음법과 관련하여 규범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있고 기준이 정해져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경음화와 관련하여 현실 발음과 다르게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정 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부 문제가 되는 단어에 대해 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이를 사전에 반영할지 여부와 반영 방식 등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이번 개정 작업에서는 수정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발음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발음의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과, 일부 추가되는 표제어의 문제 발음에 대해 발음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사전에 실는 정도의 작업만이 이루어졌다.

② 원어

한자나 외래어 모두 원어의 보완은 오류 수정에 초점을 두었다. 여러 자료에 근거하여 명백하게 오류인 경우 수정을 하였고 한자어의 경우는 최대한 일관성을 맞추도록 노력하였다.

한자어의 경우 일차적으로 사전 작업을 한 경험이 있는 한자 전문가에게 전체 검토를 의뢰하여 보완 작업을 진행하였고, 여기서 문제가 되거나 여러 의견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자문 회의를 통하여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 냈다. 이렇게 최종 결정된 사항들을 사전에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외래어는 최대한 자료를 통해 문제가 되는 원어를 수정하였고, 자료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해당 언어 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였다.

다. 남은 문제

문제 사항에서 언급한 대로, 한자의 경우 여전히 여러 이체자 사이에서 통일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 외래어의 경우도 의심이 되는 원어가 있으나 이를 명백하게 해결해 줄 자료 등의 부재로 보류한 경우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수집하고 자문을 구하여 좀 더 분명한 정보를 실어 줘야 할 것이다. 다만 외래어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표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원어만이 아닌, 외래어 전체에 대한 논의와 연동하게 함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외래어의 대부분이 전문어인 만큼 전문 용어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5) 기타 보완 작업

지금까지 뜻풀이, 용례, 문형·문법 정보, 원어, 발음 등 사전의 주요한 정보에 대해 어떻게 보완 작업을 진행했는지 살펴보았다. 사전에는 이 외에 어원, 속담과 관용구, 삽화 등이 실려 있다. 그리고 좀 다른 측면에서 북한어, 방언, 옛말 등 표준어가 아닌 표제어에 대한 처리도 보완에서 문제가 되었다. 이 중 어원과 방언, 옛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완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전체 검토 과정 중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만 수정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번에 보완 작업이 이루어진 속담과 관용구, 삽화, 그리고 북한어 부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① 속담과 관용구

속담과 관용구에 대한 보완 작업은 다른 일반 표제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많이 쓰이는데 빠진 속담과 관용구 표제어를, 말뭉치 및 속담 사전 등을 참고하여 추가하였고, 풀이가 잘못되었거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관용구에는 용례를 제시하기 때문에 용례를 보완하는 작업도 진행하였다.

속담과 관용구에서 중요하게 이루어진 또 하나의 작업은 북한 속담이나 관용구로 되어 있는 것을 남한 속담이나 관용구로 수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북한어’ 작업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기존 《표준국어대사전》에 「북」 표지를 달고 올라 있는 속담과 관용구의 남한어 쓰임을 확인하여 남한어로 처리하는 것이다.

속담과 관용구의 보완 작업을 위하여 속담과 관용구에 해당하는 말뭉치만을 별도로 추출하여 모았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 보완 작업을 진행하였다.

② 삽화

삽화 보완 작업은 크게 삽화 수정과 삽화 추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초점을 맞춘 것은 잘못된 삽화의 수정 작업이다. 이미 올라 있는 삽화 중 내용이나 글자 등이 잘못된 것을 맞게 수정하는 것과, 해당 표제어의 표기나 뜻풀이 등이 바뀌면서 삽화에 들어 있는 정보도 바뀌게 된 것을 수정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작업이었다. 특히 지명은 변동이 매우 많고 지금도 수시로 바뀌는 부분이라 지속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삽화 추가는 극히 일부에서만 이루어졌다. 1999년 발간 당시 가능한 한 많은 삽화를 실어 주었기 때문에 삽화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 삽화가 실려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삽화 자체를 구하거나 제작하기가 어려운 것들이라 이번 보완 작업에서도 추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 개정 작업에서는 삽화가 필요한 목록을 일차적으로 추리고 이 중 삽화를 구할 수 있거나, 최소한 삽화 밑그림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추가 작업을 진행하였다. 대여가 가능한 경우는 대여를 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직접 제작을 하였다.

③ 북한어

이번 보완 작업에서 뜻풀이, 용례 등과 함께 주요하게 다루어진 것으로 북한어 검토 작업을 들 수 있다. 기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지적을 많이 받은 것 중 하나가, 남한에서도 쓰이는 표제어가 북한어로 올라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어로 올라 있는 표제어들을 모두 검토하여 남한에서의 쓰임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북한어 검토 작업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전체 원고를 가나다순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북한어로 실린 표제어가 말뭉치 등 남한 자료에서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남한에서의 쓰임이 확인이 될 경우 남한어로 돌리고 용례를 실어 주었다. 말뭉치에 나타나더라도 특정 작가의 작품에만 나타나거나 출전이 의심스러운 경우는 검토 사항으로만 남겨 추후 일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표기법만 차이가

나는 대응 남한어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이를 말뭉치 등에서 확인하여 대응 남한어를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랭동공장’은 기존 《표준국어대사전》에 북한어로 올라서 다음과 같이 뜻풀이가 되어 있던 표제어이다.

랭동공장(冷凍工場) 「명사」 『북』 『공업』 변질될 수 있는 제품을 얼리거나 차게 해서 저장하는 공장.

말뭉치 및 남한 자료 확인 결과 같은 의미의 ‘냉동 공장’이 남한에서도 쓰임을 확인했고, 이 경우 다음과 같이 ‘냉동 공장’을 표제어로 추가하고 ‘랭동공장’은 ‘냉동 공장’의 북한어로 처리하였다.

냉동·공장(冷凍工場) 『공업』 변질될 수 있는 제품을 얼리거나 차게 해서 저장하는 공장.
랭동공장(冷凍工場) 「명사」 『북』 『공업』 ‘냉동 공장’의 북한어.

다른 하나는 북한어만 추출하여 별도로 검토하는 작업이다. 말뭉치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일상적으로 남한에서 많이 쓰이는 표제어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북한어를 검색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후 인터넷 검색 결과와 말뭉치, 기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괄적으로 전체 북한어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였다.

북한어 검토 작업을 하면서 두 가지 점에 유의하였다. 첫째는 남한 자료에서 북한어와 동일한 표기가 나타날 경우 의미도 동일한지 확인하는 일이다.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면 남한어로 볼 수 없으므로 그대로 북한어로 두었다. 둘째는 남한 자료의 성격을 확인하는 일이다. 최근 인터넷 검색 결과를 보면 북한 관련 자료가 대량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 결과 해당 북한어가 나타나더라도 출처가 북한과 관련된 자료 모음이라면 그대로 북한어로 두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특히 남한과 북한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북한의 자료가 많이 유통되면서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어 작업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남긴 다른 문제는 한자어에 대한 것이다. 한자어 중 북한어로 올라 있는 것이 상당수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한자어는 최근에 만들어진 말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남북이 갈라지기 이전 자료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보완 작업에서 찾아본 자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북한어로 남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후 각종 한자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북한어로 실린 한자어에 대

해서는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뜻풀이, 용례, 각종 사전의 정보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존 《표준국어대사전》이 지녔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보완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또 이번 보완 작업에서 미비했던 점과 앞으로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사전은 살아 있는 말을 담고 있는 것인 만큼 말이 변하는 한 사전의 보완에도 완성은 없다. 보완 작업을 하며 더 나은 방식과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며 완성이라는 ‘이상(理想)’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전 작업일 것이다.

2. 연도별 주요 개정 작업 일정

(1) 2003년

① 사전용 말뭉치 정리

□ 작업 개요

- 내용: 국어원 구축 말뭉치를 사전 보완 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
- 결과: 인용 말뭉치 10,000,000 어절, 기타 말뭉치 70,000,000 어절 정리

□ 작업 세부 사항

○ 개괄

사전용 말뭉치 정리 작업은 개정 사전 작업을 시작하는 데에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표제어, 뜻풀이, 용례 등을 보완할 때에 사전 편찬자의 직관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료에 근거하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해 놓은 말뭉치를, 개정 작업에 새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 말뭉치 분류

- 인용 말뭉치는 사전에 그대로 인용하여 용례를 실을 수 있는 정비된 말뭉치이다. 소설과 수필, 일부 신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출전을 바로 인용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다.
- 기타 말뭉치는 그대로 인용할 수는 없으나 사전 내용을 보완하는 데에 참고로 삼도록 마련한 말뭉치이다. 소설, 수필 외에 신문, 잡지, 산문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 말뭉치 예시

그렇게 따로 살림을 하고 있노라면, 첫째 {뜬마음}이 안정이 될 뿐만 아니라 홀몸으로 어디 가서 월급이나 한 이삼십 원 받고 지내는 것 같을 것이냐 <netc14,308,채만식,탁류> 야심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요사이의 여순이와의 접근에서 마치 무슨 승리나 얻은 듯한 자만과 {뜬맘}을 가지게 되어서 이러한 심리는<netc11,141,한설야,황혼> 서장은 만석이의 말을 황급히 채뜨렸다. 주변머리 없이 {뜬머슴} 이죽이듯 자꾸 씨부리는 게 도무지 불안해서 못 견디겠는 모양이었다. 두 사람은 요정을 나와 한 <NAGAB003,294,

송기숙,암태도>

그러나 이제는 밥을 찾아 흘러가는 뜬뭍들의 하룻밤 숙소로 변하였다. 벽이 확 나가고 네 기
둥뿐인 그 속에 힘을 잃은 물방아는 <2bexxx18,83,김유정,봄봄>

어디 자식 아니란 법도 있나. 자식은 다 한가지지 어느 자식은 제 정으로 낳고 어느 자식은
내다 버릴 뜬물로 맹글었다던가. 못 허지, 못 허구 말구. 내 눈갈에 개흙 들어가 봐라. 내가
그 꼴을 보고 가만 <NAOAB030,012,한수산,유민>

② 사전 원고 검토

□ 작업 개요

- 내용: 사전 원고의 전체적인 검토 및 보완
- 결과: 사전 1,833면 검토(‘ㄱ’ ~ ‘뽕바위’)

□ 작업 세부 사항

○ 개괄

사전 원고 검토 작업은 사전 원고를 ‘ㄱ’부터 모두 읽어 나가며 검토하는 작업이다. 검토의 대상은 표제어, 원어, 발음, 활용 정보, 문형 정보, 뜻풀이, 용례 등 사전에 실린 모든 내용이다. 사전 편찬 경험이 있는 작업자가 말뭉치와 각종 자료를 근거로 하여 최대한 정보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수정한 사항은 일정한 양식에 따라 한글 파일로 작성하였고, 수정한 이유를 최대한 파일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 부분별 작업 내용

- 표제어

말뭉치에서 출현 빈도가 높으나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은 단어는 따로 모아 추가 대상 표제어 목록을 작성하였고, 거꾸로 국어의 한 단어로 보기 어려운 표제어는 논의를 거쳐 삭제하였다. 또한 표제어의 띄어쓰기나 IC 분석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수정하였다.

- 뜻풀이

말뭉치를 근거로 뜻풀이의 수정, 추가, 삭제 작업을 진행하였다. 현재 올라 있는 뜻이 실제 말뭉치의 쓰임과 맞지 않을 때에는 수정하였고, 아예 쓰임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삭제하였다. 반대로 말뭉치에 쓰임이 많이 나타나는데도 뜻풀이가 없는 경우는 새롭게 풀이를 추가하였다.

- 용례

말뭉치를 근거로 용례가 없는 표제어에 용례를 추가하였다. 인용 말뭉치에 적절한 용례가 있는 경우는 출전을 밝혀서 인용 용례로 제시하였고, 기타 말뭉치에 나타나는 용례는 적절하게 수정하여 작성 용례로 제시하였다. 용례와 뜻풀이가 맞지 않는 경우는 적절한 용례로 교체하였고, 작성 용례만 있는 경우는 인용 용례를 추가하였다. 또한 쓰임이 많지 않은 표제어에 들어간 임의의 작성 용례는 삭제하였다.

- 기타

원어, 발음, 활용 정보, 문형 정보 등도 말뭉치와 각종 사전 등을 활용하여 보완하였다. 또한 내용상 정보가 갱신된 경우도 최대한 검토하여 수정하였다.

○ 작업 예시

#1가마치02#2표수#3가마치02#4가마-치02#5눌은밥은 가마(가마솥)에서 끓는 것이므로 IC분석이 가능함.

#1뜯기다01#2뜻수#3[2] 「2」 '뜯다[1] 「2」 '의 피동사.#4[2] 「2」 털 따위가 뽕히다.#5'뜯다[1] 「2」 ' 뜻풀이 수정과 함께 처리함. '나물을 뜯는' 것은 피동이 아니라 사동사여서 '뜯다[1] 「2」 '의피동사로 둘 수 없음.

#1뜯기다02#2뜻수#3%#4 「1」 '뜯다[1] 「2」 '의 사동사.¶그는 어제처럼 나물을 뜯으려 갑네 핑계를 대고 나왔다. 그러나 나물은 윤순이에게 {뜯기고} 자기는 윤수와 낚시질을 하고 싶기 때문에 먼저 뛰어나왔다.<NGSAB002,310,이기영,신개지>§ 「2」 ~. 「3」 ~.#5'뜯다[1] 「2」 ' 뜻풀이 수정과 함께 뜻풀이 추가함. 이에 따라 이후 뜻풀이 번호도 바뀜.

#1로07#2뜻추#3%#4 「13」 ((주로 인지나 지각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어떤 사물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그는 나를 {바보로} 여긴다./그는 도인을 {라이벌로} 생각했음에 틀림없다.<netc4510,397,김승옥,60년대식>§#5현재 뜻풀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쓰임이 있음

#1선후책01#2용수#3¶독립 운동~했다.§#4¶민심이 크게 동요하는 듯하니 오늘은 여러 대신들 의견을 널리 들어 {선후책을} 도모할까 합니다.<NAGAA090,033,송기숙,녹두 장군>§#5원래 있던 작성례를 인용례로 바꿈. 작성례인데 독립운동이 나와 어색함.

#1섬전#2용추#3%#4¶{섬전이} 일다/그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괴인의 동작은 {섬전처럼} 빨랐다.§#5기타 인용례 수정하였음.

#1온달02#2용추#3%#4¶보름달은 누가 보아도 이지러진 데 없는 온달이지만, 칠혹 속의 먹장같은 그믐밤에 그 무슨 달이 뜬다고 {온달이라} 하는가.<NMHHB050,162,최명희,혼불>§#5%

③ 미등재어 수집

□ 작업 개요

- 내용: 소설 등 문헌(책자)을 검토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표제어 수집

- 결과: 11,800 단어 수집

□ 작업 세부 사항

미등재어 수집 작업은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표제어를 수집하기 위하여 소설, 수필, 어휘사전, 시어사전, 어휘 조사 자료집 등 각종 책자를 검토하여 미등재어를 추출하는 작업이다. 2003년에는 소설 등 57권의 책자를 실제 읽어 나가며 《표준국어대사전》과 비교·검토하여 미등재어를 추출하였고, 미등재어가 쓰인 문장과 출전 등을 포함하는 일정한 양식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표제어로 있더라도 쓰임이 다르거나 용례가 없는 경우도 함께 정리하였다.

○ 작업 예시

#1동두깨비#2피난민 신세가 모두 그렇듯 부엌 세간 또한 사과 껌을 찬장삼아 포개어놓고
동두깨비(소꿉질) 같은 살림을 살았던 것이다.#3김원일(1998), 마당 깊은 집, 문학과 지성사, 19면

#1자미롭다#2「그런데 유감이지마는 당신네와 내 자식의 관계는 그렇게 간단하게 못 되었던 말이지요 왜그러냐 하면 첫째 남자만 있는 집안에 젊은 남녀가 끼여 있다는 것도 **자미롭지** 못한 일이거나 가령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아까 말한 김익준이가 우리 은행에 관계 있는 사람이라서……」 #3이기영(1948), 인간 수업, 「한국근대장편소설대계 14」, 태학사, 357면

#1지대09#2주인이주머니는 아침밥을 먹다 말고 나와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는 서방을 위해 **지대**에서 배웅하는 시늉만 했고, 노마님은 꼭 바깥 솜을대문까지 아들을 따라나갔다.#3김원일(1988), 마당 깊은 집, 문학과 지성사, 24면#4용례 없는 단어

④ 관용구, 속담 용례 수집

□ 작업 개요

- 내용: 말뭉치 자료에서 사전에 수록된 속담·관용구에 대한 용례 추출
- 결과: 관용구 4,125 항목, 속담 9,300 항목에 대한 용례 수집

□ 작업 세부 사항

속담·관용구 보완 작업에 앞서 말뭉치에서 속담·관용구가 쓰인 용례를 추출하여 정리하는 작업이다. 일반 표제어와 마찬가지로 속담과 관용구도 말뭉치와 자료를 근거로 보완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말뭉치를 검토하여 필요한 용례를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속담에는 용례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표제어와 풀이를 수정하는 데에 근거 자료가 되었다. 관용구에는 적절한 용례로 등재가 되었고, 속담과 마찬가지로 내용을 보완하는 데에 근거 자료가 되었다.

○ 작업 예시

“그만해두소 설마 산 입에 {거미줄} 치겠소 집안이 이 꼴인데 이녀 살 걱정만 하고 무신 인심이요” “시끄럽다! 니가 뭐를 아노! <NALAA133,416,박경리,토지>
집을 나가라는 말에, 눈앞이 캄캄했다. 땅 한 뼘기 없이 이 집에서 쫓겨난다면 네 식구 영락 없이 입에 {거미줄} 치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땅 대신 종문서를 내어 주는 양 진사가 원망스러웠다. “옹보가 문서 집 <NAHAA010,066,송기숙,자랏골의 비>
곁에 섰던 복희도 깜짝 놀라서 {발을} 굴렀다. 「어머! 집을 허물구 길을 만들어 ……」
<NAIAB020,129,황석영,영등포 타령>
아우가 유엔 경찰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발을} 굴렀다. 강을 건너야겠다는 막연하면서도 절실했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광나루에 도착한 <NCHAB000,023,김용성,도둑 일기>
삼엄한 청내로 들어서면서 철은 아직도 영신의 사슬에 묶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마음 속으로 {발을} 굴렀다. 검찰관들의 심문을 받으면서 철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것은 휴식이 아니었다. <NRYAA000,388,정연희,한 뼉의 땅>

⑤ 전문어 표제어 감수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전기」, 「수학」, 「생물」 등 3개 분야 전문어 표제어 감수 시작
- 작업 결과
 - 총 2,077 항목 감수
 - 「전기」 분야 250 항목, 「수학」 분야 1,290 항목, 「생물」 분야 537 항목

□ 작업 세부 사항

○ 개괄

전문어 감수는 해당 전문 분야에서 용어 정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초 학문에 속하는 분야에 대한 사전 표제어 감수 작업이다. 「전기」, 「수학」, 「생물」, 「동물」, 「식물」, 「물리」, 「화학」, 「의학」 등 8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 및 협회의 추천을 받아 2~6인의 감수자를 선정하여 감수를 진행하였다. 2003년에는 「전기」, 「수학」, 「생물」 분야의 감수를 시작하였다.

○ 감수 절차

각 분야의 전문어를 다시 하위 분류 하여, 해당 세부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 받아 감수를 의뢰했다. 감수자는 출력된 원고에 직접 감수를 하여 제출하였고, 감수 결과가 감수자에 따라 다르게 처리된 경우에는 회의를 통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⑥ 사전 편찬 회의 운영

□ 회의 개요

○ 회의 참석자: 사전 관련 원내외 작업 인력 전체

○ 회의 내용

- 원고 검토 결과 보완 및 수정
- 원고 검토 시 발생하는 문제점 논의 및 해결
- 기타 사전 전반에 관한 문제점 논의

○ 회의 개최 횟수

- 총 17회 개최

□ 세부 사항

○ 개괄

사전 편찬 회의는 사전 개정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인력이 정기적으로 원내에 모여 개최하는 회의이다. 사전 개정 작업이 상당수 원외의 인력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작업 관리와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첫 번째 목적을 두었다. 또한 사전 작업의 특성상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관성 유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 운영 방식 및 논의 사항

사전 개정 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중 사전 원고 검토 등 주요 작업을 행하는 작업자들과 원내 담당자가 월 2회 모여 논의를 하였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 결과를 원내에서 검토한 결과 잘못 수정되었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 작업자에게 알려 차후 작업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둘째, 원내 검토 결과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제에 대해 논의 하여 최선의 수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작업자가 검토를 하며 해결하지 못했거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여 수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밖에 사전 회의에서 결정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문제들은 별도로 수합하여, 차후 해당 전문가 등을 통해 수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2) 2004년

① 사전 원고 검토

☐ 작업 개요

- 내용: 사전 원고의 전체적인 검토 및 보완
- 결과: 사전 2,701면 검토(‘뽕박질’ ~ ‘외국법인’, 누적 4,534면)

☐ 작업 세부 사항

2003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② 미등재어 수집

☐ 작업 개요

- 내용: 소설 어휘집 등 문헌(책자)을 검토하여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표제어 수집
- 결과: 20,500 단어 수집

☐ 작업 세부 사항

2003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004년에는 주로 소설어 사전, 비속어 사전 등 어휘집을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③ 전문어 표제어 감수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수학」, 「생물」, 「전기」, 「동물」, 「식물」 등 5개 분야 전문어 감수
- 작업 결과
 - 총 34,118 항목 감수
 - 「수학」 2,838 항목, 「생물」 3,706 항목, 「전기」 2,753 항목, 「동물」 11,694 항목, 「식물」 13,127 항목

□ 작업 세부 사항

2003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003년에 시작한 「수학」, 「생물」, 「전기」 전문어 감수를 완료하고, 「동물」, 「식물」 전문어 감수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④ 전문어 교열 및 교정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생물」, 「수학」, 「전기」 전문어 감수 결과 검토 및 최종 원고 파일 작성

○ 작업 결과

- 3개 분야 총 11,373 항목 수정 원고 작성 및 교열
- 「생물」 4,243 항목, 「수학」 4,128 항목, 「전기」 3,003 항목

□ 작업 세부 사항

출력 원고에 이루어진 전문어 감수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파일로 작성하는 작업이다. 감수 원고의 내용을, 사전 원고 검토 결과와 동일한 방식으로 한글 파일로 작성하였다. 전문어 감수 결과 중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을 수정하였고 전체적인 운문 작업도 병행하였다. 또한 한글 파일로 작성한 원고를 교정 및 교열 하는 작업도 진행하였다.

□ 작업 예시

#1가는네잎갈퀴#2뜻수#3높이는 30~40cm이며, 잎은 4~6개씩 돌려난다. ~꽃차례로 핀다. 경기, 경남, 전라, 제주 등지에 분포한다.#4높이는 15~40cm이며, 잎은 4~6개씩 돌려난다. ~꽃차례로 핀다. 우리나라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에 분포한다.#5%

#1가는숨방망이#2뜻수#35월에 노란 꽃이 줄기 끝에 피고 ~관모가 있으며, 전라 등지에 분포한다.#45월에 노란 두상화가 줄기 끝에 피고 ~관모가 있으며,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 분포한다.#5%

#1지연탄성#2북남#3%#4지연^탄성(遲延彈性)『물』 외부의 힘에 의하여 형태의 변화가 생긴

뒤 본래 형태로 돌아가는 시간이 긴 재료의 탄성.#5%

#1지체양자#2표식#5감수자 의견.

#1지체양성자#2표추#3%#4지체^양성자(遲滯陽性子)『물』방사성 붕괴 뒤의 들뜬상태 때문에
에 핵에서 저절로 방출되는 양성자.#5감수자 의견.

⑤ 한자 검토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사전의 한자 및 한자어 전반 검토
- 작업 결과: 사전 700면 검토

☐ 작업 세부 사항

○ 개괄

사전의 한자 및 한자어 전반을 검토하는 작업이다. 사전 작업 경험자이면서 한자 전문가를 선정하여 사전의 한자어의 원어란에 제시된 한자 및 뜻풀이에 나타난 한자, 내용 등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작업은 사전 원고 검토 작업과 마찬가지로 원고 전체를 읽어 나가며 진행하였다. 검토자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자는 차후 자문 회의에 올릴 수 있게 별도로 정리하였다.

○ 부류별 검토 사항

- 원어

한자어의 경우 원어란에 한자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검토하여 오류를 수정하고, 병기가 가능한 경우 한자를 추가하였다. 이 외에 이체자의 일관성 유지 작업 등도 이루어졌다.

- 뜻풀이

뜻풀이 나타난 한자를 검토하여 오류를 수정하였다. 또한 한자어의 경우 뜻풀이를 검토하여 잘못된 뜻풀이를 바로잡고, 유래가 있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이를 보완하였다.

☐ 작업 예시

#1즉사02#2뜻수#3그 자리에 가서 직접 일에 관계함. 또는 그렇게 관계하는 일.#4「1」나가
가 그 일에 관계함.「2」눈앞의 사물을 대면함.#5한자. 「1」풀이 전면 수정 하고 「2」의

풀이를 추가. 옛 문헌에는 주로 두 번째 의미로 쓰이는데, 특히 ‘卽事’라는 제목의 漢詩 작품이 매우 많음.

#1중보01#2원수#3中保#4仲保/中保#5한자. ‘仲保’가 더 일반적이고, ‘中保’는 간혹 쓰임. ‘仲保’를 기본으로 보아 앞쪽에 추가.

#1준민고택#2뜻#3재물을 마구 착취하여 백성을 괴롭힘.#4백성의 고향을 뽑아낸다는 뜻으로, 재물을 마구 착취하여 백성을 괴롭힘을 이르는 말.#5한자.

#1반호04#2뜻#3%#4「1」 용의 수염을 더위잡고 울부짖는다는 뜻으로, 임금의 상(喪)을 몹시 슬퍼함을 이르는 말. 황제가 용을 타고 승천할 때 그 신하들이 용의 수염을 더위잡고 뒤따라 오르려다가 실패했는데, 백성들은 땅에 떨어진 용의 수염을 안고 땅을 치고 울부짖었다는 중국의 전설에서 유래한다. 「2」 몹시 억울하거나~#5한자.

⑥ 관용구, 속담 검토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관용구, 속담 용례 수집 결과를 근거로 뜻풀이 및 용례 검토 작업
- 작업 결과: 관용구 4,125 항목, 속담 9,300 항목에 대한 뜻풀이 · 용례 검토

□ 작업 세부 사항

수집한 관용구와 속담의 용례 자료를 근거로 뜻풀이 및 용례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작업이다. 북한 속담으로 되어 있으나 자료가 있는 경우 남한 속담으로 돌렸고, 쓰임과 풀이가 다른 경우 풀이를 수정하였다. 관용구의 경우 용례가 실리기 때문에, 일반 표제어와 마찬가지로 정리된 자료를 근거로 용례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 작업 예시

#1뒤웅박#2속뜻#3~말.#4~말. ≡뒤웅박 신은 것 같다.#5뒤웅박 신고 얼음판에 선 것 같다. 이 속담과 “뒤웅박 신은 것 같다”를 동의 속담으로 처리함.

#1뒤웅박#2속뜻#3되어~말.#4=뒤웅박 신고 얼음판에 선 것 같다.#5뒤웅박 신은 것 같다. 이 속담과 “뒤웅박 신고 얼음판에 선 것 같다”를 동의 속담으로 처리함에 따름.

#1등01#2관용추#3%#4[그가 죽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등에 찬물을 끼얹는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5등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다. 기타 말뭉치를 수정하여 용례를 제시함.

#1등01#2관용추#3%#4[나머지 사백만은 농민의 {등을 굶어먹고} 사는 사람들이고...<NGQAC001,157,이광수,흙>#5등을 굶어먹대[값아먹대]. 북한 관용구를 남한 관용구

로 돌림에 따라 용례를 추가함.

#1똥줄#2관똥수#3몹시 두려워 겁을 내다.#4몹시 마음을 줄이거나 두려워 겁을 내다.#5똥줄(이) 당기다. 관용구 ‘똥줄(이) 당기다’의 용례를 보면, 겁을 낸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마음을 줄이는 의미로도 쓰임이 보여 뜻풀이에 반영함.

⑦ 북한어 인터넷 검색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북한어로 처리된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남한어 처리 여부에 대한 근거 자료 마련
- 작업 결과: 북한어 70,000 항목에 대한 인터넷 검색 및 결과 정리

☐ 작업 세부 사항

사전에 북한어로 등재되어 있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쓰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이다. 문헌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실제 남한에서 쓰이고 있는 표제어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인터넷에서 쓰임을 조사하여 쓰인 예문과 출처 등을 정리하였다. 이는 이후 북한어를 남한어로 처리할 때에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 작업 예시

#1검색단어: 발방아

#2검색어: 발방아

#3검색결과:

[역사]고구려의 발견

... 쉽게 들어 올리게 되어 있다. 평균대의 원리를 이용한 장치이다. 지레 장치를 이용한 것으로는 곡식을 탈곡하는 데 쓰인 **발방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최근까지 농촌에서 사용하던 **발방아** 모습 그대로 고구려 시대에 사용되고 있었다. 『일본서기』에는...

김용만 | 바다출판사 | 2001년 07월 30일 [‘역사’ 카테고리만 검색 | 제외]

속초문화원 누리집

... 선비 강태봉 이야기 【민담12】 옛날에 강태봉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어. 그런데 아주 그렇게 못살았대. 마누라가 **발방아** 찌어서 먹거 살았는데, 그 강태봉이라는 선비는 밤낮으로 공부만 하더라. 어느날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날에 마누

라가 잠깐...

[http://www.sokcho-culture.com/research/research1-2-2\(12\).htm](http://www.sokcho-culture.com/research/research1-2-2(12).htm)

홍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전승되어 온 우리 조상들의 힘든 일손을 덜기 위해 슬기를 모아 생활하던 한 장면이다. 오늘날 절구통 → **발방아** → 물레방아 → 연자방아 → 기계 방아로 한국 방아 문화가 발달하였으며 이 물통 방아는 화촌면 구성포리, 동면 노천리 등 물이...

<http://chuncheon.kbs.co.kr/hongcheon/inside/it02/min01.htm>

시낭송 감상실

... [제주] - 타작노래소리가락추수 분류 번호 북한지방의 토속, 구연민요 제목 음원형식 민요분류 유래지방 NKYS-401 **발방아** 소리소리가락토속민요평안도 NKYS-402 콩, 조발 김매는 소리소리가락토속민요평안도 NKYS-403 모심기...

http://www.naemaum.com/3000_Folk/Folk001list.htm

#4비고: %

⑧ 오폭기 검색 및 수정 작업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사전 뜻풀이 및 용례에 들어간 오폭기 검색 및 수정
- 작업 결과: 자주 쓰이는 오폭기 10,000여 개 수정

☐ 작업 세부 사항

교정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자주 쓰이는 오폭기를 사전 시디를 통해 일괄 검색 하여 수정함.

☐ 작업 예시

#1쏘삭대다#2용례#3「1」 「2」 이 씨는 어리숙한 김 서방의 돈을 뜯어내려고#4「1」 「2」 이 씨는 어수룩한 김 서방의 돈을 뜯어내려고#5어리숙하다#6오폭기목록
#1열외#2용례#3 「2」 어리숙한 아이는 또래 집단에서#4 「2」 어리숙한 아이는 또래 집단에서#5어리숙하다#6오폭기목록
#1등글다#1#2용례#3 「Ⅱ」 초생달이 점점 등글어#4 「Ⅱ」 초승달이 점점 등글어#5초생달#6

오표기목록

#1분단장#2#2용례#3눈썹이 항시 초생달처럼 떠 있었다#4눈썹이 항시 초승달처럼 떠 있었다
#5초생달#6오표기목록

⑨ 사전 편찬 회의 운영

□ 회의 개요

- 회의 참석자: 사전 관련 원내외 작업 인력 전체
- 회의 내용
 - 원고 검토 결과 보완 및 수정
 - 원고 검토 시 발생하는 문제점 논의 및 해결
 - 기타 사전 전반에 관한 문제점 논의
- 회의 개최 횟수
 - 총 18회 개최

(3) 2005년

① 사전 원고 검토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사전 원고의 전체적인 검토 및 보완
- 작업 결과: 사전 2,626면 검토(‘외국사절’ ~ ‘아래 아(·)’, 누적 7,160면 검토 완료)

□ 작업 세부 사항

2004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원고 검토 작업을 완료하였다.

② 교과서 비교 검토 및 미등재어 수집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 교과서 포함 말뭉치를 검토하여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표제어 수집
 - 국어 교과서와 사전의 띄어쓰기 등 차이점 조사

○ 작업 결과

- 말뭉치 자료 100만 어절 검토
- 미등재어 12,000여 항목 수집

□ 작업 세부 사항

초중고 국어 교과서와 《표준국어대사전》을 비교하여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표제어를 수집하고, 표기·띄어쓰기 등 교과서와 차이가 나는 부분을 검토하여 정리한 작업이다. 또한 합성어를 만들기 쉬운 단어(‘가루’ 등)가 결합한 말을 말뭉치에서 빈도 조사 하여, 빈도가 높은 합성어(‘석탄가루’ 등)는 등재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이 조사 결과 수집된 미등재어는 차후 추가할 표제어의 대상 자료로 활용되었고, 교과서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회의 등을 통하여 수정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에 반영하였다.

□ 작업 예시

목록	단어	빈도	사전 수록	비고
가루01	버터가루	1		
가루01	보릿가루	3	보릿가루	
가루01	부침가루	2		
가루01	분가루	3	분가루	
가루01	분필 가루	1		o
가루01	분필가루	1		o
가루01	비늘가루	2	비늘가루	
가루01	비듬 가루	1		
가루01	빵가루	9	빵가루	
가루01	빳가루	20	빳가루	
가루01	뿔가루	1		
가루01	사슴뿔 가루	1		
가루01	사탕가루	4	사탕가루	
가루01	산초가루	2		o
가루01	산춧가루	1		o
가루01	살가루	1		
가루01	삼가루	1		
가루01	생 가루	1		o

목록	단어	빈도	사전 수록	비고
가루01	생가루	1		o
가루01	생선뼈 가루	1		
가루01	석탄 가루	5		o
가루01	석탄가루	14		o

가려내다 사 [가려 내다]@ 글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정보들 중에서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가려 내는 것 자체가 벌써 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중3-1 국어>

가려내다 사 [가려 내다]@ 위의 단어들에서 접두사와 접미사를 가려 내어 보자. <교학사 문법>

가려내다 사 [가려 내다]@ & 마지막 문제는 똑같은 크기의 암소 두 마리 중에서 어미와 새끼를 가려 내라는 건데, 글썄 누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겠니? <3-1 읽기>

가루눈01 사 [가루 눈] 에스키모 인의 말에는 눈에 관한 단어가 ‘가루 눈, 젖은 눈, 큰 눈’등을 구별할 수 있게 분화되어 있다. <대한 국어생활>

가루스프 미 골고루 볶아지면 물 1 컵을 붓고, 가루수프로 간을 맞추면 서 끓인다.<5-1든쓰>

쪼가리 미 ‘이성 친구’를 뜻하는 속어 썹시리=조잡하고 구차하다, 썹난다=화난다/열받는다, 쪼가리=이성 친구, 황당떠움=매우 황당함, 훨=훨씬/매우 더 < 교학사 문법>

가분자기 미 @ 이 여인이 가는데 가분자기 뇌성벽력을 하면서 그 벼락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래서 인지 뒤를 돌아봤단 말야. <고등국어-상>

가산점 미 @ 합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 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 < 교학사 문법>

가상공간 사 [가상 공간] 일반적으로 컴퓨터 통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상 공간. <국어 1-2>

가상공간 사 [가상 공간] 여가 생활 중 비현실적인 환상 소설이나 만화에 빠져들거나 비현실적인 가상 공간에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본다. <생활국어2-2>

③ 전문어 표제어 감수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의학」, 「물리」, 「화학」 등 3개 분야 전문어 감수
- 작업 결과
 - 총 27,271 항목 감수
 - 「의학」 10,501 항목, 「물리」 7,905 항목, 「화학」 8,865 항목

☐ 작업 세부 사항

2004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의학」, 「물리」, 「화학」 전문어 감수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④ 전문어 교열 및 교정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동물」, 「식물」, 「의학」 전문어 감수 결과 검토 및 최종 원고 파일 작성
- 작업 결과
 - 3개 분야 총 35,271 감수 항목 수정 원고 작성 및 교열
 - 「동물」 11,694 항목, 「식물」 13,127 항목, 「의학」 10,501 항목

☐ 작업 세부 사항

- 2004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⑤ 한자 검토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사전의 한자 및 한자어 전반 검토
- 작업 결과: 사전 2,250면 검토(누적 2,950면)

☐ 작업 세부 사항

- 2004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⑥ 관용구·속담 추가 및 최종 원고 확정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관용구, 속담 표제어 추가 집필·삭제, 최종 원고 확정

- 작업 결과: 관용구, 속담 2,000 항목 집필 및 삭제, 최종 원고 확정

□ 작업 세부 사항

수집된 관용구·속담의 용례 자료와 각종 속담 사전 등을 참고하여 관용구·속담 표제어를 추가하고 보완하는 작업이다. 뜻풀이·용례 보완 작업 결과도 함께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관용구·속담의 표제어 및 뜻풀이를 확정하였다.

□ 작업 예시

#1뛰다#2속표추#3%#4뛰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이 있다=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5뛰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이 있다. <속담 사전>에 있으나 <표준>에 없는 속담으로 속표추하고, 이 속담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를 동의 속담으로 처리함.

#1뜯구름#2관표추#3%#4뜯구름(을) 잡다 막연하거나 허황된 것을 좇다. 구름(을) 잡다.¶{뜯구름을 잡겠다고} 어려서부터 객지로만 떠돌며 보낸 지난 세월의 덧없음이 불현듯 그의 가슴을 때렸다.<NAEAA000,061,윤홍길,완장>#5뜯구름을 잡다. 관용구 ‘뜯구름(을) 잡다’와 ‘구름(을) 잡다’는 의미가 유사하고 교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동의 관용구로 처리함.

⑦ 표제어 일관성 기초 조사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사전의 복합 명사 및 구 표제어 띄어쓰기 일관성 조사
- 작업 결과: 복합 명사와 구 목록 265,000건 검토

□ 작업 세부 사항

사전에 오른 복합 명사 및 구 표제어의 띄어쓰기 일관성을 조사하고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현재 사전에 올라 있는 유사한 구조의 복합 명사 및 구 표제어를 부류별로 추출하여 자료를 마련하였다. 다만 이러한 표제어의 경우, 어느 한 가지 기준으로 띄어쓰기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명백하게 일관성이 없는 경우만 수정을 하고 그 외에는 차후 검토를 위해 자료로 정리하였다.

□ 작업 예시

단어 처리	구 처리	수정 사항	검토 의견	원어
	야간 ^ 학교			夜間學校
	임간 ^ 학교			林間學校
	주간 ^ 학교			晝間學校

단어 처리	구 처리	수정 사항	검토 의견	원어
	하계 ^ 학교			夏季學校
	형무관 ^ 학교			刑務官學校
	부관 ^ 학교			副官學校
사관-학교		사관^학교	전문어. 앞말 자립적.	士官學校
	종교 ^ 학교			宗教學校
연구-학교		연구^학교	전문어. 앞말 자립적.	研究學校
	정규 ^ 학교			正規學校
	단급 ^ 학교			單級學校
	하기 ^ 학교			夏期學校
대-학교				大學校
고등-학교				高等學校
중등-학교				中等學校
초등-학교				初等學校
공립-학교		공립^학교	전문어. 앞말 자립적. '국립^학교' 참고	公立學校
	국립 ^ 학교			國立學校
사립-학교		사립^학교	전문어. 앞말 자립적. '국립^학교' 참고	私立學校

⑧ 사전 편찬 회의 운영

□ 회의 개요

- 회의 참석자: 사전 관련 원내외 작업 인력 전체
- 회의 내용
 - 원고 검토 결과 보완 및 수정
 - 원고 검토 시 발생하는 문제점 논의 및 해결
 - 기타 사전 전반에 관한 문제점 논의
- 회의 개최 횟수
 - 총 12회 개최

(4) 2006년

① 사전 등재 예정 표제어 선정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다방면으로 수집된 미등재어 목록을 대상으로 등재 대상 표제어 선정

- 작업 결과: 약 2,700 표제어 선정

☐ 작업 세부 사항

미등재어 수집 작업, 교과서 검토 작업, 사전 원고 검토 작업, 말뭉치 검토 작업 결과 등을 통해 수집된 미등재어 목록을 검토하여 등재할 표제어를 선정하는 작업이다. 이 외에도 국어원에서 발간한 신어 보고서, 현대국어빈도조사 보고서 등도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검토 및 선정 작업은 미등재어 선정 지침에 따라 진행하였고 추가가 확정된 표제어는 차후 집필 작업의 대상이 되었다.

② 사전 등재 예정 표제어 집필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선정된 표제어 집필
- 작업 결과: 약 2,700 표제어 집필

☐ 작업 세부 사항

추가 대상으로 선정된 표제어를 말뭉치 및 추출 대상 자료, 기타 각종 사전, 전문 서적 등을 검토하여 집필하는 작업이다. 집필한 내용은 표제어의 띄어쓰기, IC 분석에서 원어, 뜻풀이, 용례, 어원 등 해당 표제어에 관련된 모든 정보이다.

☐ 작업 예시

#1명퇴#2표주#3%#4명퇴(名退)[-퇴/-튀]「명」=명예퇴직.¶회사에서는 {명퇴를} 통해 인원을 감축할 예정이다.§#5미등재어 추가.

#1비밀번호#2표주#3%#4비밀-번호(秘密番號)[비:---]「명」은행이나 컴퓨터 시스템 따위에서, 보안을 위하여 미리 약정하여 쓰는 개인 고유의 문자열.¶비밀번호를 잊어 버려서 돈을 찾을 수 없다./접속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참」패스워드.#5미등

재어 추가. 사전에 ‘패스워드’가 비슷하게 올라 있으나 이것은 컴퓨터 전문어로 되어 있음.
‘비밀번호’는 좀 더 포괄적으로 쓰인다고 판단하여 독립적으로 뜻풀이를 함.

#1비정규직#2표추#3%#4비-정규직(非正規職)〔비정규직만[--정-]〕「명」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따위가 이에 속한다.¶최근 들어 비정규직 인력의 증가로 인한 고용 시장의 불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5미등재어 추가. ‘비정규직’ 역시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말임
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아 표제어로 추가함. 뜻풀이에 ‘정규직’이 나와서 참고 어휘로 ‘정
규직’ 추가하지 않음.

③ 원고 일괄 처리 사항 검토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동일 부류 표제어 뜻풀이 통일 작업
- 작업 결과: 60여 부류 검토

□ 작업 세부 사항

○ 개괄

동일한 부류의 표제어를 일괄 검토 하여 표제어, 뜻풀이 등을 일관성 있게
수정하는 작업이다. 그동안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류와 내부에서 검토가 필
요하다고 판단 부류 등을 목록으로 만들고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수정하였다.

○ 부류별 검토 방식

- 기준 설정 필요 항목

뜻풀이 형식이나 표제어 등재의 일관성 등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표제어
목록을 검토하여 기준을 설정한 후, 이에 따라 모든 표제어를 일괄적으로
수정하였다. 여기에는 문화재 명칭, 행정 기관 명칭 등 전문 분야 및 고유
어에 속하는 것도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것은 문화재청 자료, 행자부(현 행
안부) 자료 등을 검토하여 기준을 정한 후 일괄적으로 수정하였다.

- 단순 수정 항목

용어가 바뀐 경우나 사전 지침의 수정으로 일괄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사
전 시디를 통해 해당 용어를 추출하여 일괄적으로 수정하였다. 지명 및 인
명의 단순 비교 및 수정 작업도 진행하였다.

□ 작업 예시

#1릴낚시#2뜻수#3낚싯대에 장치한 릴의 손잡이를 돌려 줄을 풀었다 감았다 하면서 물고기를 낚는 낚시.#4낚싯대에 장치한 릴의 손잡이를 돌려 줄을 풀었다 감았다 하면서 물고기를 낚는 도구. 또는 그것으로 하는 낚시질.#5일괄 처리.

#1멍텅구리낚시#2뜻수#3여러 개의 낚시를 미끼의 주위에 달아서 거기에 물고기가 걸리게 하는 낚시.#4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미끼의 주위에 달아서 거기에 물고기가 걸리게 하는 도구. 또는 그것으로 하는 낚시질.#5일괄 처리.

#1민낚시#2뜻수#3끝에 미늘이 없는 낚시.#4끝에 미늘이 없는 낚싯바늘.#5일괄 처리.

#1민지낚시#2뜻수#3끝에 미늘이 있는 낚시.#4끝에 미늘이 있는 낚싯바늘.#5일괄 처리.

#1종묘제례#2표주#3%#4종묘^제례(宗廟祭禮)『역』 종묘에서 거행하는 제향 의식. 조선 시대의 왕실 제사 중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였으며 엄격한 유교식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종묘 제례악과 더불어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 무형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중요 무형 문화재 제56호.#5일괄 처리

#1좌도#2표주#3%#4좌도02(佐道[좌:-]「명」『지2』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에 속하는 섬. 면적은 1.127km.#5일괄 처리. 경상남도 통영시청 관광시설계 광동실 계장과의 통화로 확인. 지적계에서 조사한 유·무인도 자료를 근거로 함. 통영시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한 바로 지금은 ‘좌도’라는 호칭을 씀.

④ 한자 검토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사전의 한자 및 한자어 전반 검토
- 작업 결과: 사전 2,090면 검토(누적 5,040면)

□ 작업 세부 사항

- 2005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⑤ 전문어 교열 및 교정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물리」, 「화학」 전문어 감수 결과 검토 및 최종 원고 파일 작성

○ 작업 결과

- 2개 분야 총 16,770 감수 항목 수정 원고 작성 및 교열
- 「물리」 7,905 항목, 「화학」 8,865 항목

□ 작업 세부 사항

- 2005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모든 전문어 교열 작업을 완료하였다.

⑥ 북한어 검토 및 남한어 처리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남한에서의 쓰임이 확인된 북한어의 남한어 처리
- 작업 결과: 9,600 항목 표준어 처리 및 집필

□ 작업 세부 사항

○ 개괄

인터넷 검색 결과 및 말뭉치 자료 등을 검토하여 쓰임이 있는 북한어를 남한어로 돌리는 작업이다. 1999년 발간 당시 조선말대사전에만 실려 있고 남한 국어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표제어는 모두 북한어로 처리하여 등재하였으나 그중 상당수는 남한에서 쓰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를 인터넷 검색 결과 및 말뭉치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쓰임이 발견된 경우 남한어로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 부류별 작업 내용

- 동일한 표기가 남한에서도 쓰이는 경우
북한어로 올라 있는 표제어와 동일한 표기가 남한에서도 쓰이는 경우 남한어로 돌리고 이에 맞추어 표제어 분석, 발음, 활용 등을 추가하였다.
- 표기상 대응 남한어가 확인된 경우
두음 법칙 등 표기상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표제어가 남한에서도 쓰이는 경우 대응 남한어를 표제어로 올리고 해당 북한어는 남한어를 참조하도록 수정하였다.

#1부엌어멈#2북남#3%#4부엌-어멈[-어거]「명」남의 집에 고용되어 부엌일을 하는, 나이가 지긋한 여자.『원삼이 처는 눈에 안 뜨이고 부엌어멈은 원시 있는 모양이다.<netc0501,471,염상섭,삼대>/행랑것들 중에 힘꼴이나 쓰는 젊은 것 둘에다 부엌어멈 하나를 불러 어설픈

살림을 시작했다.《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5북한어 처리.인용 말뭉치에 근거
 #1용담사간탕#2표주#3%#4용담-사간탕(龍膽瀉肝湯)「명」『한』 열을 내리게 하고 가려움과
 통증을 멎게 하는 탕약. 습진, 대하증, 자궁 내막염, 방광염 따위를 치료하는 데 쓴다.#5북
 한어 처리. 인터넷 자료에 근거. 백과사전의 표제항. ‘용담사간탕’의 남한 대응어

⑦ 원고 수정 사항 통합 작성 및 교열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모든 검토 원고 통합 후 최종 원고 작성 및 교열, 교정
- 작업 결과
 - 수정 사항 통합 원고 작성 55,500건
 - 통합 원고 교열 43,700건

□ 작업 세부 사항

일반 검토, 한자 검토, 전문어 감수 등에서 수정된 내용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
 의 파일로 정렬한 후 최종 수정 원고를 작성하는 작업이다. 검토 작업이 분야
 별로 나누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동일 표제어에 대해 복수의 수정 사항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파일로 작성해 두었던 모든 검토 사항을 하나로 합하
 여 정렬한 후, 검토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사전 체계에 맞는 최종 수정 내용을
 확정하였다. 최종 파일에는 어느 분야에서 검토된 것인지를 기입하여 최종 결
 정을 할 때에 참고하였다. 확정된 내용은 차후 입력 작업을 위해 기존 사전 출
 령지에 반영이 되었고, 이를 다시 교열·교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 작업 예시

#1번태호르몬#2표수#3번태^호르몬#4용화^호르몬#5감수자 의견.#6전문어.
 #1병몰#2원수#3(病沒)#4(病歿/病沒)#5한자 자문 의견. 죽음을 뜻하는 경우 원래 ‘歿’을 쓰지
 만 ‘沒’을 사용하기도 함. 원어에 둘 다 제시함.
 #1병부상서#2뜻수#3고려 시대에, 병부(兵部)에 속한 정삼품 벼슬. 문종 때 설치하여 충렬왕
 원년(1275)에 군부판서로 고쳤으며, 뒤에도 몇 차례 환원과 개칭을 거듭하였다.#4고려 시
 대에 둔 병부(兵部)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삼품으로 문종 때 설치하여 충렬왕 원년(1275)
 에 군부판서로 고쳤으며, 뒤에도 몇 차례 환원과 개칭을 거듭하였다.#5일괄 처리. 뜻풀이
 형식 통일
 #1병조섭#2북남#3%#4병-조섭(病調攝)[병:--][병조섭만[병:-섭-]]「명」몸을 보살피며 병 치

료를 잘함.¶누가 듣든지 손님 때문에 병조섭 못 하겠다는...소리로밖에 아니 들렸
다.<netc0501,477,염상섭,삼대>§#5북한어 처리. 인용 말뭉치에 근거
#1보테의법칙#2뜻수#3~J.D.)~n=6 인~해왕성과 명왕성에~#4~J. D.)~n=6인~해왕성에
~#5띄어쓰기 및 풀이 수정. 명왕성은 2006년 8월 국제천문연맹에 의해 행성에서 제외됨.
보테의 법칙이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거리를 계산한 법칙이라면 명왕성은 더 이상 행성
이 아니므로 제외되어야 함.

⑧ 용례 원문 대조 및 교열 작업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추가 및 수정된 용례의 원문 대조 및 교열
- 작업 결과: 추가 및 수정 용례 검토

☐ 작업 세부 사항

새로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올린 용례를 원문과 대조하고 교열하는 작업이다. 말뭉치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 앞뒤 문맥 보충이 필요한 용례에 대해, 원문과 대조하여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새로 추가한 용례에 대한 최종 교열 및 교정 작업도 진행하였다.

⑨ 한자 자문 회의 개최

☐ 회의 개요

- 자문 위원: 한자 관련 전문가 6명
- 회의 내용
 - 한자 검토 작업 시 발견된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 회의 개최
 - 최종 수정 내용 확정

☐ 회의 방식

한자 검토 작업 시 검토자가 독단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별도로 모아 놓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한 자문 회의이다. 한자 검토자의 의견과, 그 외 각종 한자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정리한 후 이를 자문 회의에 올려 최종 수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자문 위원에게 회의 전 자료를 발송하여 먼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자문 위원 간에 이견이 있는 것만 추려서 회의에 올려 최종 수정 내용을 결정하였다.

□ 작업 예시

표제어	현재 사전 풀이	문 제 점	자문의견
기념 /기념일	기념2(記念/紀念) 어떤 뜻 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함. 기념-일(記念日) 축하하거나 기릴 만한 일이 있을 때, 해마다 그 일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는 날.	현재 ‘기념’의 한자를 ‘記念/紀念’으로 제시하고 ‘기념일’ 등에서는 ‘記念日’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지? ‘기념’은 ‘紀念/記念’의 순서로 한자를 제시해야 하고 ‘기념일’은 ‘紀念日’로 적어야 하는 게 아닌지? ‘記’의 字意는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라면, ‘紀’는 연대, 세월 등 보다 장구한 시간을 기억하고 기린다는 뜻임. ‘開國紀年’, ‘開國紀元節’과 같은 표제어를 보더라도 ‘기념’의 한자는 ‘紀念’이 기본이어야 하고 ‘기념일’의 한자도 ‘紀念日’로 수정해야 할 듯함. 확인 필요함.	紀念/記念은 순서로 한자를 제시하고 ‘記念日’로 적는 데 동의함.
국조 오례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조선 시대에 세종의 명으로 허주(許稠) 등이 편찬에 착수하고, 세조 때 강희맹 등을 거쳐 신숙주, 정척 등이 완성한 예서. 길례(吉禮), 가례(嘉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흉례(凶禮)의 오례 가운데 실행하여야 할 것을 뽑아 도식(圖式)으로 엮었다. 성종 5년(1474)에 간행되었다. 8권 8책. 누오례의.	뜻풀이 중 ‘허주’는 ‘허조’가 아닌지? ‘稠’는 독음이 ‘조’임. <국사사전(교학사)>, <한국한자어사전(단대)>, <동아대백과사전> 등에서는 모두 ‘조’로 나옴. 국어사전들에는 ‘허주’로 나오는데 어느 것이 맞는 지?	稠는 ‘주’와 ‘조’ 두 가지 음이 있으며 ‘많다’로 읽는 경우 ‘주’로 읽는 것이 원칙이나 稠人廣坐를 대부분 ‘조인광좌’로 읽는 것을 보면 ‘조’가 맞을 듯. 단 姓名의 발음은 특수한 경우가 많으므로 陽川許氏 중종에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함.
기로 수필	기로-수필(騎驢隨筆) = 기려수필. 기려-수필(騎驢隨筆) 기려자(騎驢子) 송상도(宋相壽)가 대한 제국 말기부터 8·15 광복까지 활동한 애국지사들의 사적(史跡)을 모아 엮은 책. 원래 5권 5책의 정	단어 ‘기로수필’을 삭제해야 하는지? 또는 ‘기로수필’을 삭제는 하지 않고 뜻풀이를 ‘기려수필의 잘못’이라고 제시해야 하는지? ‘驢’는 독음이 [려]. 오른쪽 방의 ‘盧(로)’ 때문에 ‘로’로 誤讀한 게 아닌지? ‘기로수필’이란 표기는 <국사사전(이	는 ‘려’ 한 가지 음 뿐임. ‘驢’를 ‘로’로 읽은 것은 잘못. 기로수필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듯함. 驢子’는 ‘여자’로, ‘가마우지’가 아니라 ‘나귀’가 아닌지?

표제어	현재 사전 풀이	문 제 점	자문의견
	고본(整稿本)과 한 묶음의 기록지로 남아 있던 것을 1955년에 국사 편찬 위원회에서 간행하였다. 능기로수필	홍식 편)(1960년대 초판 간행)>에서 비롯된 듯한데 최근 연도에 발간된 사전들(<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아대백과사전> 등)에는 ‘기려수필’로 적고 있음. 이에 따른다면 ‘기려수필’만 맞고 ‘기려수필’은 틀린 말 같은데 확인 필요함. 아래 ‘驢子’도 독음 확인 필요함. 노자6(驢子) =가마우지	

⑩ 국사, 국악 문제 표제어 감수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국사와 국악 표제어 중 전문가의 감수가 필요한 항목 감수
- 작업 결과: 국사 216항목, 국악 379항목 감수

☐ 작업 세부 사항

국사와 국악 전문어 일부를 전문가에게 감수를 의뢰한 작업이다. 문헌 자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수합하여 전문가에게 감수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내용을 수정하였다.

☐ 작업 예시

표제어	현재 사전 풀이	문제점	감수 의견
생원 (生員)	[1]조선 시대에, 소과(小科)인 생원과에 합격한 사람. 능상사10(上舍). [2]예전에, 나이 많은 선비를 대접하여 이르던 말.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조선 시대’와 관련된 ‘생원(生員)’의 뜻풀이만 있음. 그러나 아래 ‘능생(廩生)’의 뜻풀이를 보면 ‘중국’과 관련된 뜻풀이도 있음. ‘중국’과 관련된 뜻풀이를 현재 ‘생원’의 뜻풀이에 추가해야 할지 감수 바람.	전근대 중국에서 원래 각급 학교에 선발된 “학생”을 의미. 후대에는 지방에서 시행하는 과거(초시)에 합격한 사람을 지칭함. 이들이 현학의 학생이 됨. * 원래 “학생”이라는 의미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능생 (廩生)	[1]중국 명나라 때, 관으로부터 녹미(祿米)를 받던 생원. [2]중국 청나라 때에 둔, 생원의 첫째 등급.	위와 같음	현재 풀이가 적절함

표제어	현재 사전 풀이	문제점	감수 의견
대언 (代言) ⁰²	고려 시대에, 밀직사에 속하여 왕명을 하달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승지를 고친 이름이다.	현재 뜻풀이에는 ‘고려 시대’의 벼슬 이름밖에 없으나 아래 제시된 ‘동부대언’의 뜻풀이에는 ‘조선 전기’ 승정원의 직위명으로 사용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의 뜻풀이를 “고려·조선 시대에, 밀직사와 승정원에 속하여 왕명을 하달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승지를 고친 이름이다. 공민왕 때 다시 승지로 고친 뒤 조선 태종 1년(1401)에 도로 고쳤다가 세종 15년(1433)에 승지로 고쳤다.”로 수정하는 것은 어떨지 감수 바람.	원래 고려시대 중추원의 정3품 승선(承宣)을 1310년(충선왕 2)에 중추원을 밀직사로 개칭하며 “대언”으로 고침, 1369년 대언을 승선(承宣)으로 고쳤으나 곧 대언으로 환원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승정원으로 독립하여 승지(承旨)라고 하였다. * 승선(承宣)과 승지(承旨)를 유의어로 표시하면 되겠음.

⑪ 사전 편찬 회의 운영

□ 회의 개요

- 회의 참석자: 사전 관련 원내외 작업 인력 전체
- 회의 내용
 - 원고 검토 결과 보완 및 수정
 - 원고 검토 시 발생하는 문제점 논의 및 해결
 - 기타 사전 전반에 관한 문제점 논의
- 회의 개최 횟수
 - 총 11회 개최

(5) 2007년

① 웹 사전 관리 시스템 구축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 개정 내용을 담기 위한 새로운 웹 사전 시스템 구축
 - 1차적으로 웹 사전 관리 시스템 구축

- 작업 결과
 - 내부 웹 관리 시스템 구축
 - 개정 내용 사전 입력 시스템 가동

② 한자 검토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사전의 한자 및 한자어 전반 검토
 - 작업 결과: 사전 2,120면 검토(누적 7,160면 검토 완료)
- 작업 세부 사항
 - 2006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작업을 완료하였다.

③ 원고 수정 사항 통합 작성 및 교열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모든 검토 원고 통합 후 최종 원고 작성 및 교열, 교정
 - 작업 결과
 - 수정 사항 통합 원고 작성 55,500건
 - 통합 원고 교열 43,700건
- 작업 세부 사항
 - 개괄

2006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작업을 완료하였다.

④ 관련어 교차 검토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수정된 동의어, 관련어 등 교차 확인 및 수정
 - 작업 결과: 수정된 항목에 대한 교차 검토 작업 완료
- 작업 세부 사항

사전 내용이 수정된 경우, 그에 따라 함께 수정되어야 할 여러 항목을 교차하여 검토하는 작업이다. 수정된 항목을 검토하여 그에 따라 동의어, 관련어, 참고어 등이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 교차하여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⑤ 최종 수정 원고 입력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최종 수정 원고 웹 사전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
- 작업 결과: 통합 원고 110,000건 입력 완료

☐ 작업 세부 사항

최종 확정된 수정 내용을 새로 구축한 사전 데이터 베이스에 직접 입력하는 작업이다. 출력지에 기입된 수정 내용을 새 사전 시스템을 통해 입력을 완료하였다.

⑥ 웹 사전 원고 1차 전체 교열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사전 원고 전체 1차 교열 및 교정
- 작업 결과: 289,000항목 교열 및 교정

☐ 작업 세부 사항

수정 내용이 입력된 사전 원고 전체를 출력하여 최종 교열·교정을 보는 작업이다. 전체 원고에 대한 교열·교정은 총 2회 이루어졌는데, 그중 1회에 해당하는 작업이다.

⑦ 1차 전체 교열 원고 입력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1차 교열 완료 원고 웹 사전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
- 작업 결과: 1차 교열 결과 및 추가 표제어 입력

☐ 작업 세부 사항

전체 원고를 출력하여 진행한 1차 교열 결과를 입력하는 작업이다. 교열이 끝나는 대로 입력원들이 사전 데이터 베이스에 수정 사항을 입력하였다. 또한 별도로 집필이 이루어진 새로 추가하는 표제어도 입력을 완료하였다.

⑧ 계열 어휘 검토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계열 어휘 표제어 등재 및 뜻풀이 일관성 검토

○ 작업 결과: 41개 부류 검토

□ 작업 세부 사항

일괄 처리 작업 시 처리가 되지 않은 계열 어휘 일부에 대해 추가로 이루어진 일관성 검토 작업이다. 훈장, 기념일 등 범위가 명백한 부류에 대해 표제어 추가 및 뜻풀이 수정 등이 이루어졌다.

□ 작업 예시

#1과학의날#2뜻수#3과학 기술의 자립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한 날. 1967년에 당시 과학 기술자가 개청(開廳)한 것을 기념하여 1968년부터 실시하였다. 4월 21일이다.#4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선 과학 기술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 1967년 과학 기술자가 발족한 일을 기념하여 1968년부터 실시하였다. 4월 21일이다.#5일괄 처리. 더 정확한 표현인 ‘발족한’으로 수정. 과학기술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하였음. 출처: 과학기술처 누리집-연혁, 법제처 누리집(종합법령정보-현행 법령), 행정자치부 누리집(열린정보-법령정보), 행정자치부 의정팀 전사무관 2007. 7. 29~30.

#1교정의날#2표추#3#4교정의 날(矯正-) 『고유』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와 재소자의 갱생 의지를 북돋우기 위하여 제정한 날. 1945년 10월 28일 일제(日帝)로부터 교정 시설을 접수한 날을 기념하여 정한 날로, 10월 28일이다.#5일괄 처리. 출처: 법제처 누리집(종합법령정보-현행 법령), 행정자치부 누리집(열린정보-법령정보), 행정자치부 의정팀 사무관 2007. 7. 29~30.

#1납세자의날#2표추#3#4납세자의 날(納稅者-) 『고유』 납세 의식을 높이고 국민의 성실 납세 및 협조에 감사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 1969년 국세청 발족을 기념하여 정한 날로, 3월 3일이다.#5일괄 처리. 출처: 법제처 누리집(종합법령정보-현행 법령), 행정자치부 누리집(열린정보-법령정보), 행정자치부 의정팀 사무관 2007. 7. 29~30.

⑨ 사전 편찬 회의 운영

□ 회의 개요

○ 회의 참석자: 사전 관련 원내외 작업 인력 전체

○ 회의 내용

- 원고 검토 결과 보완 및 수정
- 원고 검토 시 발생하는 문제점 논의 및 해결
- 기타 사전 전반에 관한 문제점 논의

- 회의 개최 횟수
- 총 8회 개최

(6) 2008년

① 웹 사전 원고 1차 전체 교열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사전 원고 전체 1차 교열 및 교정
- 작업 결과: 221,000항목 교열 및 교정, 전체 1차 교열 완료

☐ 작업 세부 사항

2007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1차 교열을 완료하였다.

② 1차 전체 교열 원고 입력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1차 교열 완료 원고 웹 사전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
- 작업 결과: 1차 교열 결과 입력

☐ 작업 세부 사항

2007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③ 웹 사전 원고 2차 전체 원고 교열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사전 원고 전체 2차 교열 및 교정
- 작업 결과: 510,000항목 교열 및 교정

☐ 작업 세부 사항

수정 내용이 입력된 사전 원고 전체를 출력하여 최종 교열·교정을 보는 작업이다. 전체 원고에 대한 교열·교정은 총 2회 이루어졌는데, 그중 2회에 해당하는 작업이다. 이로써 모든 교열 작업이 완료되었다.

④ 2차 전체 교열 원고 입력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2차 교열 완료 원고 새로운 웹 사전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
- 작업 결과: 2차 교열 결과 입력

☐ 작업 세부 사항

전체 원고를 출력하여 진행한 2차 교열 결과를 입력하는 작업이다. 교열이 끝나는 대로 입력원들이 사전 데이터 베이스에 수정 사항을 입력하였다. 또한 추가로 발생한 여러 수정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입력이 이루어졌다.

⑤ 한자 자문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한자 검토 작업 시 발견된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 위촉
- 작업 결과: 문제 사항 65항목 감수

☐ 작업 세부 사항

한자 자문 회의 이후 발생한 문제 사항에 대해 추가로 자문한 작업이다. 2명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결과를 통합·반영하였다.

⑥ 삽화 수정 및 추가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삽화 수정 및 추가 작업
- 작업 결과: 삽화 150항목 수정, 56항목 추가

☐ 작업 세부 사항

○ 개괄

사전에 올라 있는 삽화를 검토하여 보완하는 작업이다. 등재되어 있는 삽화 중 정보가 바뀌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수정하였고, 삽화가 필요한 표제어에 삽화를 추가하였다.

○ 부류별 작업 내용

- 삽화 수정

표제어 및 뜻풀이 정보 등이 바뀌면서 삽화 내의 그림이나 글자 등이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 삽화 추가

표제어를 이해하는 데에 삽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삽화에 대해 삽화를 추

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삽화는 크게 대여한 경우와 직접 제작한 경우로 나뉜다. 대여가 가능한 경우를 우선 분류하여 업체를 통해 대여하고, 대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전문 삽화가를 통하여 직접 제작하였다.

⑦ 사전 검색 시스템 개발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 외부 검색 시스템 개발
-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 개발

○ 작업 결과

- 외부 일반인 검색 시스템 개발 완료
- 내부 관리 시스템 보완 완료

⑧ 사전 편찬 회의 운영

□ 회의 개요

○ 회의 참석자: 사전 관련 원내외 작업 인력 전체

○ 회의 내용

- 원고 검토 결과 보완 및 수정
- 원고 검토 시 발생하는 문제점 논의 및 해결
- 기타 사전 전반에 관한 문제점 논의

○ 회의 개최 횟수

- 총 8회 개최

3. 예산 집행 내역

□ 총 예산: 1,637,810,000원

□ 기간: 2003년~2008년(6년)

(1) 2003년: 180,000,000원

- 상근 편찬원: 28,000,000원
- 원고 검토: 84,000,000원
- 미등재어 조사 및 말뭉치 정리: 40,000,000원
- 자료 구입비: 3,000,000원
- 자문 회의 운영 수당: 3,000,000
- 간담회비 2,000,000원
- 속담, 관용구 표제어 검토 15,000,000원
- 컴퓨터 구입: 4,800,000원
- 소모품 구입: 200,000원

(2) 2004년: 292,000,000원

- | | |
|------------|--------------|
| - 상근 편찬원 | 49,000,000원 |
| - 원고 검토 | 123,200,000원 |
| - 전문어 감수 | 67,440,000원 |
| - 미등재어 조사 | 32,000,000원 |
| - 한자 검토 | 15,000,000원 |
| - 자료 구입 | 360,000원 |
| - 자문 회의 수당 | 3,000,000원 |
| - 간담회비 | 2,000,000원 |

(3) 2005년: 273,800,000원

- 상근 편찬원: 48,000,000원
- 전문어 교열: 36,000,000원

- 한자 검토: 16,000,000원
- 속담·관용구: 9,600,000원
- 원고 검토: 97,560,000원
- 전문어 감수: 53,460,000원
- 미등재어 집필: 8,000,000원
- 회의수당: 3,000,000원
- 도서 구입 및 소모품 등 580,000원
- 간담회: 1,600,000원

(4) 2006년: 271,640,000원

- 상근 편찬원: 64,800,000원
- 북한어 검토: 16,000,000원
- 한자 검토: 16,000,000원
- 표제어 일관성: 16,000,000원
- 원고 검토: 80,800,000원
- 원고 교열 및 수정: 28,000,000원
- 미등재어 집필: 24,000,000원
- 용례 검토: 10,000,000원
- 회의수당: 2,400,000원
- 도서 구입 및 소모품 등 12,200,000원
- 간담회: 1,440,000원

(5) 2007년: 300,370,000원

- 상근 편찬원: 58,400,000원
- 한자 검토: 15,000,000원
- 동의어 등 검토: 28,800,000원
- 원고 통합 반영: 44,000,000원
- 원고 입력: 57,600,000원
- 입력 원고 1차 교열: 79,100,000원
- 계열어 체계 조사: 13,500,000원

- 자문 회의: 3,200,000원
- 간담회비: 440,000원
- 소모품: 333,000원

(6) 2008년: 320,000,000원

- 상근 편찬원: 60,800,000원
- 전체 원고 1차 교열: 55,000,000원
- 전체 원고 최종 교열: 127,500,000원
- 수정 원고 입력: 45,000,000원
- 삽화 구입 및 수정: 10,000,000원
- 자문 회의: 7,000,000원
- 홍보 및 백서: 13,000,000원
- 간담회비: 1,500,000원
- 소모품: 200,000원

4. 작업자 명단

(1) 원내 연구원

이름	참여 연도	작업 내용
조남호	2003~2005	총괄, 표제어 작업, 말뭉치 작업
양명희	2006	총괄, 표제어 작업
정희창	2007~2008	총괄, 표제어 작업
이운영	2003~2008	뜻풀이 작업, 기타 실무 총괄

(2) 원내 상근 편찬원

이름	참여 연도	작업 내용
방영심	2003~2006	검토 원고 수합 및 관리 등
이혜정	2003	말뭉치 관리, 미등재어 수집 관리 등
박선영	2005~2008	검토 원고 수합 및 관리 등
김경신	2006~2007	삼화 검토 및 관리 등
정다이	2007~2008	검토 원고 수합 및 관리 등
방부전	2008	입력 관리 등

(3) 외부 작업자

☐ 사전 편찬 전문 작업

○ 사전 원고 검토 작업

- 한용운, 장경현, 김길동, 이재춘, 김강출, 임보선, 이정미, 이설아, 이금희, 박선영

○ 미등재어 집필 작업

- 장경현, 정종수

○ 속담, 관용구 검토 작업

- 최영미

- 통합 원고 작성 및 교열 작업
 - 김길동, 박진혁, 유현숙, 이상신, 위진, 남미정, 조지연, 오정은
 - 전문어 교열 작업
 - 정수현, 김선희
 - 한자 검토 작업
 - 이현우
 - 교과서 비교 및 표제어 검토 작업
 - 유하라, 박혜진, 이해정, 서경숙
 - 오타기 검색 작업
 - 정수현
 - 일괄 처리 및 계열어 작업
 - 김길동, 김강출, 임보선, 정수현, 김선희, 이해정, 박진혁, 유현숙, 김희진
 - 북한어 처리 작업
 - 이정미
 - 전체 원고 교열 작업
 - 방영심, 남미정, 오정은, 이상신, 장경현, 정종수, 조지연, 정수현, 김선희, 송신지, 이윤경, 정수용
- 사전 편찬 단순 작업
- 말뭉치 정리
 - 박명순
 - 미등재어 수집
 - 김영미, 박혜진, 권혜진, 조수진, 장혜진, 이선영, 남주미, 최애주
 - 속담, 관용구 용례 수집
 - 성연숙, 이유미, 이지야, 정수진
 - 북한어 인터넷 검색 작업
 - 박혜진, 김미정, 박지영
 - 용례 검토 작업
 - 정숙, 노정민
 - 원고 입력

- 류유경, 원현정, 이경진, 전은지, 최경인

(4) 전문 분야 감수자

□ 전체 원고 감수

○ 전기

- 대한전기학회 추천
- 김정훈, 황유모

○ 생물

- 한국생물과학협회 추천
- 박은호, 김일희, 김영환, 오현승

○ 수학

- 대한수학회 추천
- 조용승, 김병학, 채영도, 김종수

○ 동물

- 한국생물과학협회 추천
- 박은호, 김익수, 김일희, 류재혁, 박정희, 조삼래

○ 식물

- 한국생물과학협회 추천
- 김영환, 김기중, 김영동, 박종욱, 선병윤, 최홍근

○ 의학

- 대한의사협회 추천
- 황건, 정인혁, 은희철

○ 화학

- 대한화학회 추천
- 이덕환, 박준우, 이후성, 윤석승, 고광희

○ 물리

- 한국물리학회 추천
- 장준성 이민호, 강주상

□ 문제 항목 감수 및 자문

○ 국사

- 국사편찬위원회 추천

- 이영춘

○ 국악

- 국립국악원 추천

- 주재근

○ 한자

- 이동환, 성택호, 안대회, 김남형, 김대현, 박헌순, 오재환

5. 주요 개정 내용

(1) 표제어 추가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표준국어대사전》에 새롭게 등재될 말을 조사하여 등재
- 추가 표제어: 약 3,600 표제어
 - 일반 미등재어: 2,500 표제어
 - 북한어 대응 표제어: 1,100 표제어

□ 추가 표제어 분류

① 단순 누락 단어

-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으나 단순히 누락된 표제어 추가
- 추가 대상 및 기준
 - 말뭉치에 나타난 고빈도 단어

거명(擧名)[거 : -]

「명사」 어떤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려 말함.

거명-되다[거 : -되-/거 : -뉘-]

「동사」 ⇒ 거명. 『국무총리 후보에 교수 몇 명이 거명되었다.』

거명-하다[거 : -]

「동사」 【…을】 ⇒ 거명. 『그는 후임자로 전문가 한 사람을 거명했다.』

내려-받다[---따]

[-받아, -받으니, -받느[반-]] 「동사」 『컴퓨터』 【…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파일이나 자료를 받아 내리다. 『파일을 내려받다/전용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하다.』

비밀-번호(秘密番號)[비 : ---]

「명사」 은행이나 컴퓨터 시스템 따위에서, 보안을 위하여 미리 약정하여 쓰는 개인 고유의 문자열.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돈을 찾을 수 없다./접속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

력해 주세요. 「참고 어휘」 패스워드(password).
애청-자(愛聽者)[애 : --] 「명사」 라디오의 특정 프로그램을 즐겨 듣는 사람. 『나는 심야 음악 프로그램의 애청자이다.
학생-회(學生會)[-생회/-생회] 「명사」 학생이 주체가 되어 어떤 일을 의논하여 결정하고 실행하는 조직이나 모임. 『학생회의 간부로 선출되다/그는 다낭 불교 학생회를 주관하고 지도했던 적도 있었다.《황석영, 무기의 그늘》/우리는 어떤 선생님은 친일파니까 내쫓아야 한다든가 어떤 선생님은 사임하면 안 된다든가 하는 걸 학생회에서 결정하려 들었다.《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 북한어로만 올라 있으나 이에 대응하여 남한에서도 쓰이는 단어

깻잎-장아찌[깻닙짬-] 「명사」 깻잎을 소금물이나 된장 따위에 넣어 만든 장아찌.
두붓-자루(豆腐-)[-부짜/-분짜-] 「명사」 순두부를 담아서 찌는 데 쓰는 자루.
투망-꾼(投網) 「명사」 투망으로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

② 문학 작품 등에 나타난 단어

- 문학 작품 등 조사 결과 쓰임 있으나 사전에 없는 단어
- 추가 대상 및 기준
 - 한국단편문학대계, 한국의 의복 등 문학 작품이나 대중적 교양 도서에 나타나 사전에 누락된 단어 중 방언이나 비표준어를 제외하고 의미가 분명한 단어

갈-옷[가름] 〔갈옷만[가론만]〕 「명사」 제주도 고유 의복의 하나. 뽕감의 뽕은 물을 짜내어 염색하여 만든다. 『두 대감도 칙칙한 갈옷을 끼워 입고 귀뺨이 가리는 휘양을 뒤집어쓰니 갈데없는 이 섬 고장 촌로 행색이 완연했다.《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

③ 체계상 필요한 단어

- 계열 어휘, 뜻풀이에 쓰인 단어 등 체계상 있어야 하나 누락된 단어

군위신강(君爲臣綱) 「명사」 삼강(三綱)의 하나. 신하는 임금에 섬기는 것이 근본임을 이른다.
유정-물(有情物)[유 : -] 「명사」 사람이나 동물과 같이 감각이 있는 것. 「반」 무정물.

④ 신조어

- 1999년 《표준국어대사전》 발간 이후 사용된 신조어
- 추가 대상 및 기준
 - 신어 자료집에 등재된 단어 중 모든 계층에서 4~5년 이상 쓰임이 널리 지속되고 있는 단어

피사-방(PC房) 「명사」 손님이 인터넷 따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용 컴퓨터를 갖추어 놓고 영업을 하는 곳.
누리-꾼 「명사」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 네티즌.
블로그(blog) 「명사」 『컴퓨터』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칼럼, 일기, 취재 기사 따위를 올리는 웹사이트. 『블로그에 여행 사진과 글을 올렸다. 【←web+log】
몰래-카메라(→camera) 「명사」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촬영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카메라. 또는 그런 방식. 『교통 신호 위반 차량을 몰래카메라로 찍어 보상을 타 내는 사람들이 있다.

⑤ 고유 명사

- 개요: 행정 지명, 기관명, 법령 등 새로 생긴 고유 명사 추가
- 추가 대상 및 기준
 - 1999년 발간 이후 폐지·신설되거나 수정되어 새롭게 등재하여야 할 행정 지명, 주요 기관명, 도로명, 법령 등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제 : --뽕--] 「명사」 『지명』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있는, 섬으로 이루어진 특별자치도.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승격하였다. 목축업, 농업, 임업, 수산업, 관광 사업이 발달하였으며 해녀와 말이 유명하다. 명승지로 백록담, 삼성혈, 용두암, 만장굴, 천지연 폭포 따위가 있다. 도청 소재지는 제주, 면적은 1,848.3km². ≡제주07(濟州).
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법률』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문화, 예술, 방송 행정, 간행물, 청소년, 체육, 출판, 해외 문화 홍보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2008년 2월 문화 관광부에서 이름이 바뀌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家族關係登錄等關法律) 『법률』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 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2008년 호적법 폐지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이다.

⑥ 국어 교과서 단어

- 개요: 초중고 국어 교과서 등재 단어 추가
- 추가 대상 및 기준
 - 초중고 국어 교과서에 쓰인 단어 중 《표준국어대사전》에 오르지 않은 단어 중 널리 쓰임이 나타나는 표준어

성냥팔이 「명사」 길에서 성냥을 파는 일. 또는 그런 사람. 『성냥팔이 소녀/ 성냥팔이를 하고 있는 꼬마. 성냥팔이-하다 「동사」 ⇒ 성냥팔이. 『성냥팔이하는 안쓰러운 아이의 모습.
종이-접기[---끼] 「명사」 종이를 접어서 학, 배, 비행기 따위의 모양을 만드는 일. 『사회 복지관에서는 여성들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종이접기 수강생을 모집한다./이곳에서는 다과상, 화분, 돛단배, 꽃 등 다양한 종이접기 작품을 전시한다.

⑦ 기타

- 파생어 중 널리 쓰이는 말
 - ‘-하다’, ‘-되다’, ‘-지다’ 등이 붙은 말 중 널리 쓰이는 말.
 - <예> 게을리하다, 각인되다, 가려지다 등
- 기타 파생 접사가 붙은 말 중 널리 쓰이는 말.
- <예> 공론화, 다용도실, 송년회 등

(2) 뜻풀이 검토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표제어의 뜻풀이 전반적 검토
- 수정 항목: 약 58,000 항목

□ 뜻풀이 검토 유형 분류

① 뜻풀이 수정

- 사전 뜻풀이의 보완 및 정밀화
- 수정 대상 및 기준
 - 말뭉치 등의 쓰임과 맞지 않는 뜻풀이 수정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후
가위밥	가위질할 때 생기는 형겉 쪼가리 .	가위질을 해서 생기는 부스러기 .
고혹적	아름다움이나 매력 따위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또는 그런 것.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름답거나 매력적인 또는 그런 것.
공랍	관람하게 함 또는 여러 사람이 보게 함. ‘돌려 봄’으로 순화.	여러 사람이 봄 또는 여러 사람이 보게 함. ‘돌려 봄’으로 순화.
땡고추	빨강게 잘 익은 고추 .	아주 매운 고추 .

- 문장이 어색한 뜻풀이 수정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후
고배02	「1」 쓴 술잔 .	「1」 쓴 술이 든 잔 .
곤녕지곡	조선 순조 28년(1828)에 자경전에서 왕세자가 제2작 을 드릴 때 연주하였던 반주 음악	조선 순조 28년(1828)에 자경전에서 왕세자가 두 번째 술잔 을 드릴 때 연주하였던 반주 음악.

- 일관성 없는 뜻풀이 수정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후
밀물	조수의 간만으로 해면이 상승하는 현상. 간조에서 만조까지를 이르며 하루에 두 차례씩 밀려 들어온다.	조수의 간만으로 해면이 상승하는 현상. 또는 그 바닷물. 간조에서 만조까지를 이르며 하루에 두 차례씩 밀려 들어온다.
썰물	달의 인력(引力)으로 바닷물이 밀려 나가서 해면이 낮아지는 현상. 또는 그 바닷물.	조수의 간만으로 해면이 하강하는 현상. 또는 그 바닷물. 만조에서 간조까지를 이르며 하루에 두 차례씩 밀려 나간다.

② 뜻풀이 삭제

○ 불필요한 풀이의 간명화

○ 삭제 대상 및 기준

- 말뭉치 등의 쓰임이 없거나 실제 쓰임과 맞지 않는 뜻풀이 수정.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후
건들리다	「1」 ‘건들다 「1」’의 피동사. 「2」 ‘건들다 「2」’의 피동사. 「3」 ‘건들다 「3」’의 피동사. 『지금까지 저 나쁜 놈에게 건들린 여자들만 해도 죽히 스물은 될 거야.』	「1」 ‘건들다 「1」’의 피동사. 「2」 ‘건들다 「2」’의 피동사.
냄새나다	「1」 신선하지 않고 오래된 맛이 있다. 「2」 어떤 일이나 사물에 몹시 싫증이 나다. 「3」 그 환경의 사람들에게만 공통적으로 있는 특징이 느껴지다.	「1」 신선하지 않은 생선이나 더러운 옷, 몸 따위에서 좋지 않은 기운이 나오다. 「2」 어떤 일이나 사물에 몹시 싫증이 나다.

③ 뜻풀이 추가

○ 개요: 실제 쓰임 검토에 따른 풀이의 세밀화

○ 추가 대상 및 기준

- 말뭉치 등에 많이 쓰이나 누락된 뜻풀이 추가

표제어	추가 전	추가 후
독대02	『역사』 벼슬아치가 다른 사람 없이 혼자 임금을 대하여 정치에 관한 의견을 아뢰던 일.	「1」 『역사』 벼슬아치가 다른 사람 없이 혼자 임금을 대하여 정치에 관한 의견을 아뢰던 일.

표제어	추가 전	추가 후
		「2」 뒷사람과 단둘이 만나는 일. 『사장님과과의 독대/내일로 예정된 큰스님과과의 독대는 가슴을 설레게 했다.
리콜	『운동』 요트 경기에서, 출발 신호보다 먼저 나간 요트를 불러들이는 일.	「1」 『경제』 =리콜제「1」. 『리콜 서비스/소비자가 리콜을 요구하다. 「2」 『운동』 요트 경기에서, 출발 신호보다 먼저 나간 요트를 불러들이는 일.
방화벽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어 세운 벽. 건물의 경계 지점이나 내부에 철근 콘크리트나 벽돌 따위로 설치한다. ≡화방벽·화방장.	「1」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어 세운 벽. 건물의 경계 지점이나 내부에 철근 콘크리트나 벽돌 따위로 설치한다. ≡화방벽·화방장. 「2」 『컴퓨터』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에서 통신 내용이 도용되거나 외부로부터 컴퓨터가 침범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업이나 조직 내부의 네트워크와 인터넷 간에 전송되는 정보를 선별하여 수용·거부·수정하는 능력을 가진 보안 시스템.
책갈피	책장과 책장의 사이. 『은행잎과 단풍잎을 책갈피에 끼워 놓았다./책갈피에서 옛날 사진이 나왔다./한 장 한 장 책갈피를 넘길수록 선명해지는 추억의 알록달록한 풍경...《박경리, 토지》	「1」 책장과 책장의 사이. 『은행잎과 단풍잎을 책갈피에 끼워 놓았다./책갈피에서 옛날 사진이 나왔다./한 장 한 장 책갈피를 넘길수록 선명해지는 추억의 알록달록한 풍경...《박경리, 토지》 「2」 읽던 곳이나 필요한 곳을 찾기 쉽도록 책의 낱장 사이에 끼워 두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책갈피를 찾아 놓다/읽던 부분을 책갈피로 표시해 두었다.
튜브	「1」 이진 약제나 치약, 채료(彩料) 따위를 넣고 짜내어 쓰는 용기. 『튜브를 짜다/치약 튜브를 중간부터 짜서 쓰지 마라. 「2」 자동차나 자전거 따위의 고무 타이어에 바람을 채우는 고무관. 『오페는 튜브에다 바람을 넣었다. 납작해진 타이어가 부풀어 오르면서...《서정인, 춘분》	「1」 이진 약제나 치약, 채료(彩料) 따위를 넣고 짜내어 쓰는 용기. 『튜브를 짜다/치약 튜브를 중간부터 짜서 쓰지 마라. 「2」 자동차나 자전거 따위의 고무 타이어에 바람을 채우는 고무관. 『오페는 튜브에다 바람을 넣었다. 납작해진 타이어가 부풀어 오르면서...《서정인, 춘분》 「3」 수영할 때 사용하는 물건. 보통 타

표제어	추가 전	추가 후
	「3」 『음악』 악기의 관(管) 또는 피리를 이르는 말. 「4」 『음악』 =관악기. 「5」 『지리』 측면은 매끄럽고, 단면은 타원형이나 원형인 동굴 속의 통로.	이처럼 생겼는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공기를 넣게 되어 있어서, 구멍에 몸을 끼우고 물에 들어가면 몸이 뜨게 된다. 물 위에 떠 있는 가지각색의 튜브/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튜브를 갖고 물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음악』 악기의 관(管) 또는 피리를 이르는 말. 「5」 『음악』 =관악기. 「6」 『지리』 측면은 매끄럽고, 단면은 타원형이나 원형인 동굴 속의 통로.

④ 기본 표제어 수정

○ 빈도에 따른 기본 표제어 재조정

○ 수정 대상 및 기준

- 동의 관계에 있는 두 표제어의 쓰임을 말뭉치 등을 검토하여, 쓰임이 더 많은 쪽을 기본 표제어로 삼아 뜻풀이 등재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후
되우 /되게	되-우 「부사」 아주 몹시. ㄴ되게 · 된통. 되-게 「부사」 =되우. 된-통 「부사」 =되우.	되-게 「부사」 아주 몹시. ㄴ되우 · 된통. 되-우 「부사」 =되게. 된-통 「부사」 =되게.
계삼탕 /삼계탕	계삼-탕(鷄蔘湯) 「명사」 어린 햇닭의 내장을 빼고 인삼, 대추, 찹쌀 따위를 넣어서 고아 만드는 보약. 삼복에 보신이 되고 원기를 돕는다. ㄴ삼계04 · 삼계탕. 삼계-탕(蔘鷄湯) 「명사」 =계삼탕.	삼계-탕(蔘鷄湯) 「명사」 어린 햇닭의 내장을 빼고 인삼, 대추, 찹쌀 따위를 넣어서 고아 만드는 보양 음식. 삼복에 보신이 되고 원기를 돕는다. ㄴ삼계04. ㄹ복날에 몸보신하려고 삼계탕을 먹었다. 삼계04(蔘鷄) 「명사」 =삼계탕.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후
	삼계04(參鷄) 「명사」 =계삼탕.	계삼-탕(鷄參湯) 「명사」 『한의학』 ‘삼계탕’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
밤느정 /밤꽃	밤-느정이 「명사」 밤나무의 꽃. ㄴ밤꽃 · 밤늦. 밤-꽃「명사」 =밤느정. 밤-늦「명사」 =밤느정.	밤-꽃 「명사」 밤나무의 꽃. ㄴ밤느정이 · 밤늦. 밤-느정이「명사」 =밤꽃. 밤-늦「명사」 =밤꽃.

⑤ 동의 관계 재정립

- 실제 쓰임 검토에 따른 풀이의 명세화
- 수정 대상 및 기준
 - 동의어로 되어 있으나 뜻풀이가 미세하게 차이 날 때 각각 뜻풀이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후
괘종시계 /벽시계	괘종-시계(掛鐘時計) 「명사」 시간마다 종이 울리는 시계. 보 통 벽에 걸어 둔다. ㄴ괘종 · 벽시계. 『 주인집 마루에 걸려 있는 낡은 괘종시 계가 게으른 소리로 세 시를 알렸다.』 한무숙, 어둠에 갇힌 불꽃들』 벽-시계(壁時計) 「명사」 =괘종시계. 『 벽시계를 벽에 걸 다/큰 벽시계가 무거운 추를 흔들며 다 섯 시를 알렸다.	괘종-시계(掛鐘時計) 「명사」 시간마다 종이 울리는 시계. 보 통 추가 있으며 벽에 걸어 둔다. ㄴ괘종. 『주인집 마루에 걸려 있는 낡은 괘종시 계가 게으른 소리로 세 시를 알렸다.』 한무숙, 어둠에 갇힌 불꽃들』 벽-시계(壁時計) 「명사」 벽이나 기둥 따위에 걸게 된 시 계. 『벽시계를 벽에 걸다.
예금자/예 금주	예금-자(預金者) 「명사」 금융 기관에 돈을 맡기는 사람. ㄴ예금주. 예금-주(預金主) 「명사」 = 예금자.	예금-자(預金者) 「명사」 금융 기관에 돈을 맡기는 사람. 예금-주(預金主) 「명사」 금융 기관에 예금을 한 경우, 해 당 예금 계좌의 주인이 되는 사람.

- 동일한 사물이나 개념이 각각 풀이되어 있을 때 동의 관계로 처리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후
대껍질/죽피	대-껍질 「명사」 대나무의 순(筍)을 싸고 있는 껍질. 죽피(竹皮) 「명사」 「1」 죽순을 싸고 있는 껍질. 「2」 「북」 대나무의 겉껍질.	대-껍질 「명사」 대나무의 순(筍)을 싸고 있는 껍질. 능죽피(竹皮). 죽피(竹皮) 「명사」 「1」 =대껍질. 「2」 대나무의 겉껍질.
포범/베돏	포범(布帆) 「명사」 베로 만든 돏. 베-돏 「명사」 베로 만든 돏.	포범(布帆) 「명사」 =베돏. 베-돏 「명사」 베로 만든 돏. 능포범.

⑥ 쉬운 용어로 뜻풀이 수정

- 개요: 쉬운 풀이에 따른 이해의 편리화.
- 수정 대상 및 기준
 - 뜻풀이에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나 전문어가 쓰인 경우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후
계범	‘불경04(佛經)’을 달리 이르는 말. 경전이 진리에 계합(契合) 하고, 미혹한 데서부터 깨달음의 길로 가는 규범을 담고 있다는 뜻이다.	‘불경04(佛經)’을 달리 이르는 말. 경전이 진리에 꼭 들어맞고 , 미혹한 데서부터 깨달음의 길로 가는 규범을 담고 있다는 뜻이다.
편평도	사력(沙礫) 의 형태에 관한 수치를 표시하는 방법의 하나. 사력이 편평한가, 공모양인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자갈의 형태에 관한 수치를 표시하는 방법의 하나. 자갈이 편평한가, 공모양인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강도끼장이	강-도끼장이(江---) 「명사」 예전에, 강대에서 때림도끼로 뗏목이나 장작을 패는 일을 업으로 하던 사람.	강-도끼장이(江---) 「명사」 예전에, 서울 주변 강가의 마을에서 때림도끼로 뗏목이나 장작을 패는 일을 업으로 하던 사람.

- 표제어에 없는 일반어가 쓰인 경우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풀이
대륙붕 자연 연장론	200해리 이원(以遠) 의 자연 연장선까지 연안국의 대륙붕 자원 관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200해리 이상의 자연 연장선까지 연안국의 대륙붕 자원 관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⑦ 최신 정보로 수정

- 지명, 기관명, 고유 명사, 법령 등 정보 내용이 변경된 경우 기준 시점에 맞게 뜻풀이 수정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후
국회 의원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현재 임기는 4년, 정원수는 299명이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한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현재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245인과 비례 대표 5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한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다.
태양계	태양과 그것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의 집합. 태양, 9개의 행성, 50개 이상의 위성, 화성과 목성 사이에 흩어져 있는 소행성, 태양 주위를 지나는 혜성, 긴 빛줄기를 만드는 유성 따위로 이루어져 있다.	태양과 그것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의 집합. 태양, 8개의 행성, 50개 이상의 위성, 화성과 목성 사이에 흩어져 있는 소행성, 태양 주위를 지나는 혜성, 긴 빛줄기를 만드는 유성 따위로 이루어져 있다.
우범 소년	죄를 범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성격이나 환경으로 보아 장차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	죄를 범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성격이나 환경으로 보아 장차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⑧ 외래어 표기법 적용

- 1999년 이후 제정된 러시아 어, 포르투갈 어, 네덜란드 어, 타이 어, 베트남 어, 말레이·인도네시아 어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관련된 표기 수정

언 어	개정 전	개정 후
타이 어	바트 사탕	밋 사팡
베트남 어	나트랑 호치민	냐짱 호찌민

언 어	개정 전	개정 후
말레이 · 인도네시아 어	롬보크 해협 몰루카 제도	롬복 해협 말루쿠 제도
러시아 어	차이코프스키 습호스	차이콥스키 소프호스
포르투갈 어	살바도르 플로리아노폴리스	사우바도르 플로리아노폴리스
네덜란드 어	라이덴병 오네스	레이던병 오너스

⑨ 계열어 정리

- 계열어 및 관련어 등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일괄적 처리
 - 처리 목록 및 기준
 - 계열 관계로 묶여 있으나 풀이와 형식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 <예1> 장애인 명칭을 법률 공식 명칭으로 정리

시각*장애인(視覺障礙人) 『사회』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청각*장애인(聽覺障礙人) 『사회』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청각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언어*장애인(言語障礙人) 『사회』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청각이나 발음 기관에 탈이 생기거나, 처음부터 말을 배우지 못하여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하반신*장애인(下半身障礙人) 『사회』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몸의 아래쪽 절반에 장애가 있는 사람.
척추*장애인(脊椎障礙人) 『사회』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척추에 장애가 있어 등이 굽고 큰 혹 같은 것이 볼록 튀어나온 사람.
성장*장애인(成長障礙人) 『사회』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또래의 평균 신장에 못 미치게 성장한 사람.
지적 장애인(知的障礙人) 『사회』 생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중추 신경 계통에 장애를 받아 정신 발달이 저지되거나 뒤져 있는 사람.

<예2> 기술표준원 지정 관용색명 추가 및 수정

: 호두색, 비둘기색, 레몬색 등

호두-색(--色) 「명사」 호두의 빛깔과 같은 탁한 황갈색
비둘기-색(---色) 「명사」 비둘기의 빛깔과 같은 회청색.
레몬-색(lemon色) 「명사」 레몬의 빛깔과 같은 노랑.

(3) 한자 및 한자어 검토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한자 및 한자어 전반적 검토
- 수정 항목: 약 2,800 항목

☐ 한자 검토 유형 분류

① 한자어의 원어 오류 수정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후
강정책	(強勳策)	(強硬策)
재심03	(齎心)	(齎心)
지고지순	(至高至順)	(至高至純)

② 뜻풀이에 쓰인 한자어 오류 수정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후
구16	격구(擊毬), 타구(打球), 모구(毛毬)를 할 때 쓰는 공. 나무, 마노(瑪瑙), 녹비, 저피(豬皮) 따위로 만든다. 늑채구01(彩毬) 「2」.	격구(擊毬), 타구(打球), 모구(毛毬)를 할 때 쓰는 공. 나무, 마노(瑪瑙), 녹비, 저피(豬皮) 따위로 만든다. 늑채구01(彩毬) 「2」.
등자02	=의자02(椅子).	=의자02(僑子).

③ 한자어의 뜻풀이 수정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후
사부07	근심이나 걱정이 있는 여자.	멀리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는 부인.
존옹	존귀한 남자 노인이라는 뜻으로, 남자 노인을 높여 이르는 말.	존귀한 남자 노인이라는 뜻으로, 남의 부친을 높여 이르는 말.

④ 기본 풀이 및 비유적 풀이 보완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후
농락	남을 교묘한 꾀로 휘잡아서 제 마음대로 놀리거나 이용함. 늑뇌롱(牢籠).	새장과 고삐라는 뜻으로, 남을 교묘한 꾀로 휘잡아서 제 마음대로 놀리거나 이용함. 늑뇌롱(牢籠).
목수04	더벅머리를 한 아이라는 뜻으로, ‘목동(牧童)’을 달리 이르는 말.	풀을 뜯기며 가축을 치는 더벅머리 아이라는 뜻으로, ‘목동(牧童)’을 달리 이르는 말.
저구지교	절굿공이와 확의 사괘이라는 뜻으로, 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괘를 이르는 말.	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괘를 이르는 말. 중국 한나라의 공사목(公沙穆)이 오우(吳祐)의 집에서 방아 찧는 품팔이를 했는데, 오우가 공사목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친교를 맺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4) 용례 검토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말뭉치에 근거하여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의 용례 전반적 검토
- 수정 항목: 약 27,000 항목

☐ 용례 검토 유형 분류

① 용례 수정

- 말뭉치, 원본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용례나 규정에 어긋나는 어휘 수정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후
개질01	『이눔, 최용욱과 너는 돈을 위하여 개질을 했다.《주요섭, 미완성》』	『이눔, 최용욱이 너는 돈을 위하여 개질을 했다.《주요섭, 미완성》』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후
노긱이	『……/계섬이는 뽕뽕하던 사지가 마디마디 노긱이 풀리는 것 같았다.《한설야, 탐》	『……/계섬이는 뽕뽕하던 사지가 마디마디 노긱이 풀리는 것 같았다.《한설야, 탐》
물렁물렁하다	『2』『……/자네도 아다시피 면내에서는 내 위치가 그렇게 물렁물렁하지 를 앓다네.《윤홍길, 완장》	『2』『……/자네도 알다시피 면내에서는 내 위치가 그렇게 물렁물렁하지 를 앓다네.《윤홍길, 완장》

② 용례 추가

- 실제 쓰임 제시를 위해 적절한 용례의 추가
- 추가 대상 및 기준
 - 용례 없는 표제어에 용례 추가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후
구들더께	구들-더께 「명사」 늪고 병들어서 방 안에만 들어 박혀 있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구들-더께 「명사」 늪고 병들어서 방 안에만 들어 박혀 있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미 구들더께 가 다 된 그의 할아버지는 손자의 간청을 혼연히 받아들였다.《김정한, 인간 단지》
다따가	다따가 「부사」 난데없이 갑자기.	다따가 「부사」 난데없이 갑자기.『제 궁리에 잠겨 있던 판에 다따가 먼 곳에서 찾아온 동무의 자태는 펍도 신선한 인상을 주었다.《이효석, 해바라기》
까팡이	까팡이 「명사」 질그릇의 깨어진 조각.	까팡이 「명사」 질그릇의 깨어진 조각.『바닥을 살펴도 깨어진 까팡이 한 조각 박혀 있지 않았다. 웅기점이 없어져 버린 지도 꽤나 오래된 듯했다.《김원일, 노을》
품밥	품-밥 「명사」 품을 사서 쓰고 먹이는 밥.	품-밥 「명사」 품을 사서 쓰고 먹이는 밥.『일년내 품밥 들여서 농사지은 것이 죄다 물에 씻기고 말았으니.《이기영, 고향》

- 작성한 예만 있는 표제어에 인용한 예 추가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후
괴벽하다	괴벽-하다 「형용사」 성격 따위가 이상야릇하고 까다롭다. 『 괴벽한 성미.	괴벽-하다 「형용사」 성격 따위가 이상야릇하고 까다롭다. 『 괴벽한 성미/차차 눈에 보이게 더욱더 동생을 미워하고 의심하는 동궁의 괴벽한 심사를 어찌하나.《김동인, 대수양》
택대령	택-대령(宅待令) 「명사」 대갓집에 불러 다니며 심부름 따위를 해 주는 사람이 한 집에 늘 대령해 있다시피 붙어 있는 것을 이르는 말. 『김 대감의 집에는 택대령 을 하고 모여 있는 사람이 늘 많았다.	택-대령(宅待令) 「명사」 대갓집에 늘 대령해 있다시피 붙어 있는 것을 이르는 말. 『김 대감의 집에는 택대령 을 하고 모여 있는 사람이 늘 많았다./좌청우축을 하러 권력자의 집 문턱이 닳도록 택대령 을 하는 것이 밋다는 것이다.《염상섭, 무화과》

③ 용례 교체

- 풀이와 용례를 비교하여 풀이에 적합한 용례 제시
- 교체 대상 및 기준
 - 뜻풀이와 맞지 않는 용례 교체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후
잡살뱅이	여러 가지가 뒤섞인 허름한 물건. 『 불 에 탄 뽕밭의 뽕나무는 뽕감으로도 못 쓸 잡살뱅이로 전락해 있었다.	여러 가지가 뒤섞인 허름한 물건. 『 큰 집 세 개는 운송부로 부치고, 양복하고 잡살뱅이 는 가방에 넣어서 들고 오다가 정거장에 맡겼지.《염상섭, 무화과》

- 임의로 작성한 예를 인용한 예로 교체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후
해정하다 01	글씨체가 바르고 똑똑하다. 『 그분의 글은 필법이 해정하여 깔끔해 보이고 알아보기도 쉽다.	글자의 획이 바르다. 『“ 지금 승무원 관원으로서 글자를 쓰는 자가 해정하지가 못하니 좋은 체(體)를 보지 못한 때문입니다. ”《번역 세종실록》
일요기	넉넉하지 못한 요기. 또는 대강 하는 요기. 『 그는 일이 바빠서 일요기도 못하고 중	넉넉하지 못한 요기. 또는 대강 하는 요기. 『 일요기나 제대로 하고 새벽길을 나서 읍 거리에 도착했는지…《김원일, 불의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후
	일 뛰어다녔다./우리는 식사 준비가 다 될 때까지 우선 떡으로 일요기 를 하고 기다렸다.	제전》/거기서는 일요기 만 하고 내친김 에 고산 강재팔이 주막까지 가세.《송기 숙, 녹두 장군》
안다미로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 ¶쌀을 안다미로 담아서 주다.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 ¶이야 기를 들었으면 그 값으로 술국이나 한 뚝배기 안다미로 퍼 오너라.《송기숙, 녹두 장군》

④ 용례 삭제

○ 잘 쓰이지 않는 표제어에 임의로 작성하여 올린 용례 삭제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후
무드러기	화투불이 꺼진 뒤에 미쳐 다 타지 않고 남아 있는 장작개비. ¶다 식은 화로에서 무드러기 를 굽어냈다.	화투불이 꺼진 뒤에 미쳐 다 타지 않 고 남아 있는 장작개비.
반자불성 하다	「1」⇒반자불성「1」. 「2」⇒반자불성「2」. ¶그는 무슨 일이든지 끝을 맺지 못하고 반자불성하는 습관이 있다.	「1」⇒반자불성「1」. 「2」⇒반자불성「2」.
발섭	「1」산을 넘고 물을 건너 길을 감. 「2」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님. ¶그는 어려 서 집을 떠나 발섭이 이미 30년이나 되 었다.	「1」산을 넘고 물을 건너 길을 감.「2」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님.

(5) 전문어 감수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표준국어대사전》 전문어 중 생물, 식물, 동물, 수학, 물리, 화
학, 의학, 전기 전문가 감수
- 작업 방식: 해당 분야 대표 학회나 협회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전문가에게
감수 의뢰

□ 감수 유형 분류

① 개정 용어 반영

- 의학: ‘필수의학용어집 제5집(2005)’의 의학 용어 및 전문가 감수 결과에 따라 표제어 및 뜻풀이 전면 수정
- 화학: 기술표준원의 화학 분야 용어 개정 고시 결과와 2007년 개정 교육 과정 교과서 편수 자료, 대한화학회의 화합물 명명법, 전문가 감수 결과에 따라 사전 표제어 및 뜻풀이 전면 수정

② 기타 분야 감수

- 기본 학문에 속하는 생물, 식물, 동물, 수학, 물리, 전기 전문어의 표제어, 뜻풀이 등 전체 내용 감수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후
가는 명아주	명아जू과의 한해살이풀. 높이는 50cm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고 피침 모양 또는 선 모양이다. 7~8월에 녹색 꽃이 피고 열매는 포과(胞果)를 맺는다. 함남 등지에 분포한다. (<i>Chenopodium stenophyllum</i>)	명아जू과의 한해살이풀. 높이는 50cm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고 피침 모양 또는 둥근 달걀 모양이다. 7~8월에 황록색 꽃이 이총상(總狀) 화서로 피고 열매는 포과(胞果)를 맺는다. 한국, 일본, 만주, 우수리 강 등지에 분포한다. (<i>Chenopodium virgatum</i>)
갈색 하이에나	하이에나과의 하나. 몸의 길이는 115cm, 꼬리의 길이는 20cm 정도이다. 줄무늬 하이에나와 비슷하지만 다소 작고 귀가 크며 끝이 뾰족하다. 현재 국제 보호 동물로 지정되어 있다. 육식 동물로 사바나에 사는데 로디지아, 모잠비크, 남아프리카 등지에 분포한다. (<i>Hyaena brunnea</i>)	하이에나과의 하나. 몸의 길이는 130cm, 꼬리의 길이는 20cm 정도이다. 줄무늬 하이에나와 비슷하지만 다소 작고 귀가 크며 끝이 뾰족하다. 몸에는 무늬가 없고 다리에만 가로줄 무늬가 있다. 현재 국제 보호 동물로 지정되어 있다. 육식 동물로 사바나에 사는데 짐바브웨, 모잠비크, 남아프리카 등지에 분포한다. (<i>Parahyaena brunnea</i>)

③ 국사, 국악 문제 표제어 감수

- 국사와 국악 관련 표제어 중 전문가 감수가 필요한 일부 단어 감수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후
가례색	조선 시대에, 왕 또는 왕세자의 가례를 준비하던 벼슬아치.	조선 시대에, 왕 또는 왕세자의 가례를 담당하던 부서.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후
오동고리	농악 판굿의 하나. 소고재비 위에 버꾸 재비, 그 위에 무동이 올라서며 다른 무동 둘이 각기 소고재비의 어깨에 한 발을 걸치고 맨 위 무동의 손을 잡고 선 다.	풍물놀이 판굿에서, 소고재비 위에 버꾸 재비, 그 위에 무동이 올라서며 다른 무동 둘이 각기 소고재비의 어깨에 한 발을 걸치고 맨 위 무동의 손을 잡고 서서 추는 춤.

(6) 교과서 비교 검토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교과서와 《표준국어대사전》의 일치율을 위한 검토 작업
- 검토 방식
 - 초·중·고 국어 교과서 및 교과서 단어 띄어쓰기 책자 조사
 - 조사 자료와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비교 검토
 - 차이점 파악 및 수정

□ 검토 유형 분류

① 교과서 단어 추가

명실-공히(名實共-) 「부사」 겉으로나 실제에서나 다 같이. 『명실공히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그 교수는 명실공히 한국 최고의 물리학자로 인정받게 되었다./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명실공히 세계 1위라 할 만하다.
기말-고사(期末考査) 「명사」 『교육』 각 학기의 끝에 학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 능기말시험. 『기말고사 대비/기말고사 범위/기말고사를 보다/기말고사를 앞두다.
돌담-집[돌 : -짚]〔돌담집만[돌 : -짚-]〕 「명사」 돌로 쌓은 담이 있는 집. 『길가 돌담집 처마 아래서 비를 피하고 서 있던 아낙 하나가 허둥지둥 차 문으로 뛰어들었다.《이청준, 살아 있는 늑》
단답-형(單答型)[-다평] 「명사」 『교육』 필기시험 문제 형식의 하나. 간단한 단어·구·절(節)·문장 등으로 답을 적도록 하는 형식이다.

② 교과서 띄어쓰기 일부 반영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후
고속도로	고속·도로(高速道路)	고속^도로(高速道路)
국회의원	국회·의원(國會議員)	국회^의원(國會議員)
담임선생	담임·선생(擔任先生)	담임^선생(擔任先生)

(7) 북한어 검토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북한어로 등재된 표제어의 남한 쓰임 확인하여 남한어로 수정
- 수정 항목: 약 9,600항목
- 검토 방식
 - 인터넷 검색하여 남한어 쓰임 조사
 - 말뭉치와 인터넷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쓰임이 확인된 북한어를 남한어로 수정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후
가정일	가정일(家庭) 「명사」『북』 ‘집안일’의 북한어.	가정·일(家庭)[-닐] 「명사」「1」=집안일「1」. 『아이의 교육은 물론 소소한 가정일까지 함께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2」=집안일「2」. 『이런 기회에, 모처럼 두만과 마주 앉은 기회에다 부친의 장례는 끝났고, 매형도 있는 자리이니만큼 가정일까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영만은 걱정만 한 것 같다.《박경리, 토지》
누덕바지	누덕바지 「명사」『북』 누덕누덕 기운 바지. 또는 몹시 험 바지. 『마대 조각으로 되는 대로 기워서 입은 누덕바지는 벌써 똥물에 죽이 되었다.《현대 조선 문학 선집, 선대》	누덕·바지[-빠-] 「명사」 누덕누덕 기운 바지. 또는 몹시 험 바지. 『마대 조각으로 되는 대로 기워서 입은 누덕바지는 벌써 똥물에 죽이 되었다.《최서해, 박돌의 죽음》/김 좌수가 낮잠을 깨고 일어나 중얼거리면서 방 안에 기어 다니다가 누덕바지를 집어들고 헤헤 웃었다.《김성한, 중생》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후
소금꽃	소금꽃 「명사」『북』 땀을 많이 흘렸을 때에, 옷이 젖은 다음 말라서 하얗게 생기는 얼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소금-꽃[-꽃] 「명사」「1」 염전에서 물기가 증발하고 남 은 영건 소금 결정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땀을 많이 흘렸을 때에, 옷이 젖은 다음 말라서 하얗게 생기는 얼룩을 비유 적으로 이르는 말.
콩바심	콩바심 「명사」『북』 거뒀들인 콩을 두드려 콩알을 털어 내는 일. 콩바심하다 「동사」『북』 ⇒ 콩바심.	콩-바심 「명사」 거두어들인 콩을 두드려 콩알을 털어 내는 일. 콩바심-하다 「동사」 ⇒ 콩바심.
도탕부화	도탕부화(蹈湯赴火) 「명사」『북』 끓는 물을 밟고 타는 불 속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어렵고 위험 한 것을 피하지 않고 맞받아 나가는 것 을 이르는 말.	도탕부화(蹈湯赴火) 「명사」끓는 물을 밟고 타는 불 속에 들 어간다는 뜻으로, 어렵고 위험한 것을 피하지 않고 맞받아 나가는 것을 이르는 말.『자식 된 도리에 사또 분부하시는 데 대하여 도탕부화라도 감히 사양하오리 까마는…』《이해조, 화의 혈》

(8) 오폭기 중 방언 검토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오폭기로 오른 표제어를 자료에서 검토하여 방언으로 수정
- 수정 항목: 오폭기 674항목 지역 확인 방언으로 수정
- 검토 방식
 - 각종 방언 자료 조사
 - 조사 결과 지역이 확인되는 표제어의 경우 지역을 명시하여 방언으로 처리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후
귀까리	귀-까리 「명사」 ‘귀때기’의 잘못.	귀-까리 「명사」『방』 ‘귀때기’의 방언(강원, 경북)
배챌-괘기	배챌-괘기 「명사」 ‘배추속대’의 잘못.	배챌-괘기 「명사」『방』 ‘배추속대’의 방언(함경)

6. 웹 사전 검색 시스템

□ 작업 개요

- 작업 내용: 새로운 사전 검색 시스템 구축
- 세부 개선 내용
 - 사용자가 보기 편하도록 사용자 화면 개편
 - 상세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다양한 검색 기능 강화
 - 이용 시 불편함이나 문제점을 바로 알리는 시스템 마련
 - 개인 서버에 받아서 누리집 접속 없이 항상 사용 가능
 - 개방 운영 프로그램 설치 기능 추가

① 검색 방식의 다양화

- 찾기, 따로 보기, 자세히 찾기 등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검색
 - 기본 검색 기능인 ‘찾기’와 사전 내용을 부문별로 따로 볼 수 있는 ‘따로 보기’, 상세한 조건을 설정하여 세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자세히 찾기’ 등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사전 검색이 가능하다.



〈기존의 《표준국어대사전》 웹 사전 기본 화면〉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 웹 사전 ‘찾기’ 화면〉

㉠ 검색조건 1: 표제어 ‘한글’ 찾기

‘한글’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2건)

한글01 [한 : -]

「명사」

우리나라 고유 문자의 이름. 세종 대왕이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하여 창제한 훈민정음을 20세기 이후 널리 이르는 것으로, 1446년 반포될 당시에는 28 자모(字母)였지만, 현재는 24 자모만 쓴다.

한글02 [한 : -]

「명사」 「책명」

한글 학회에서 내는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학술 기관지. 조선어 연구회에서 동인지 형식으로 1927년 2월에 창간하여 9 호까지 내었고, 1932년 5월 조선어 학회가 다시 <한글>을 창간하며, 주로 어학 논문과 언어 정책 따위의 논문을 게재하며 계간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44 1 99

〈검색 조건 1을 적용하여 찾은 결과 화면〉

따로 보기

- 관용구 >
- 속담 >
- 방언 >
- 북한어 >
- 고유어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전체 자세히 보기를 원하시면 표제어를 눌러 주십시오. 시작 문자

「나그네」(으)로 시작하는 속담(10건)

속담 나그네가 (도리어) 주인 노릇 한다
=나그네 주인 쏘는 격.

속담 나그네 국 맛 떨어지자[없자] 주인집에 잘 떨어진다
「북」 서로 이해관계나 처지가 우연히 같아진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즉나그네는 국을 안 먹는다 하고 주인은 고추장이 없다 한다.

속담 나그네 귀는 간짓대 귀
「1」 나그네는 알아듣는 것이 많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나그네는 주인에 대하여 신경을 쓰기 때문에 소곤소곤 하는 말도 다 들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즉나그네 귀는 석 자라.

속담 나그네 귀는 석 자라
=나그네 귀는 간짓대 귀 「2」.

속담 나그네는 국을 안 먹는다 하고 주인은 고추장이 없다 한다
「북」 =나그네 국 맛 떨어지자[없자] 주인집에 잘 떨어진다.

속담 나그네 말죽 먹이듯
「북」 한갓지 아니한 나그네가 타고 온 말에게 마지못해 죽을 먹이듯 한다는 뜻으로, 일을 건성건성 해치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속담 나그네 먹던 김칫국도 먹자니 더럽고 날 주자니 아깝다
=나 먹자니 살고 개 주자니 아깝다.

속담 나그네 보내고 점심 한다
「1」 인색한 사람이 말로만 대접하는 체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일을 제때에 처리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속담 나그네 얼굴 보아 가며 바가지로 밥을 주고 주인 모양 보아 가며 손으로 밥 주며 먹는다
「북」 상대편이 자기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살피고 거기에 맞추어 행동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속담 나그네 주인 쏘는 격
주객이 전도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즉나그네가 (도리어) 주인 노릇 한다.

44 1 99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 웹 사전 ‘따로 보기’ 결과 화면〉

🔍 검색조건 2: 속담 중 ‘나그네’로 시작하는 속담 찾기

② 검색 조건의 정교화

- ‘자세히 찾기’ 기능의 세분화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세밀하게 검색
- ‘여러 겹 찾기(다중 검색)’ 기능을 통해 사전 미리 구조와 관련된 조건을 세 가지까지 동시에 적용할 수 있어 원하는 정보를 쉽게 간추려 낼 수 있다.

(→ 검색 조건 3, 4)

- ‘다양하게 찾기(지정 검색)’ 기능을 통해 사전 거시 구조와 관련된 조건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 원하는 정보를 쉽게 간추려 낼 수 있다.(→ 검색 조건 5)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 웹 사전 ‘여러 겹 찾기’ 화면>

ㄹ 검색 조건 3: ‘학’을 포함하는 명사 표제어 찾기

‘학’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2499건)

가격제정학 (價格制定學)
 『명사』 『북한어』 『경제』
 가격을 정하는 데 이용되는 원리와 방법에 대하여 주로 연구하는 학문.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가공공정공학 (加工工程學)
 『명사』 『북한어』 『공업』
 가공 공정을 새로 연구하여 설계하고 발전시키며, 그 공정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공학.

가극문학 (歌劇文學)
 『명사』 『북한어』 『음악』
 ‘가극 대본’의 북한어.

가금공학 (家禽工學)
 『명사』 『북한어』 『농업』
 축산학의 한 분야.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의 알이나 고기를 공업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가금-학 (家禽學) [가금학만[--할-]]
 『명사』 『농업』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의 생물학적 특성을 밝히고, 사육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

가스지구화학이상마달 (gas地球化學異常--)
 『명사』 『북한어』 『광업』
 =대기지구화학이상마달.

가스지구화학탐사 (gas地球化學探査)
 『명사』 『북한어』 『광업』
 =대기지구화학탐사.

<검색 조건 3을 적용하여 찾은 결과 화면>

자세히 찾기 검색 도움말

여러 겹 찾기(다중 검색) 다양하게 찾기(지정 검색)

찾는 말 검색 대상 및 유형을 선택하세요.

표제어 포함문자 학 + 검색어 추가 - 몇 한글 입력기

그리고 전문어 교육 끝문자 과

품사 품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모든 품사를 대상으로 검색합니다.

☐ 감탄사	☐ 관형사	☐ 대명사	☐ 동사	☐ 명사
☐ 보조동사	☐ 보조형용사	☐ 부사	☐ 수사	☐ 어미
☐ 의존명사	☐ 접사	☐ 조사	☐ 형용사	☐ 감탄사-명사
☐ 관형사-감탄사	☐ 관형사-명사	☐ 대명사-감탄사	☐ 대명사-관형사	☐ 대명사-부사
☐ 동사-형용사	☐ 명사-부사	☐ 부사-감탄사	☐ 수사-관형사	☐ 의존명사-조사
☐ 수사-관형사-명사				

초기 화면 찾기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 웹 사전 ‘여러 겹 찾기’ 화면〉

🔍 검색 조건 4: ‘학’을 포함하는 교육 분야 전문어 중 ‘과’로 끝나는 용어 찾기

‘다중검색 조건’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8건)

기본^학과 (基本學科)
『교육』
여러 학과의 기본이 되는 학과. 초등학교 교육에서 국어, 수학 따위이다.

대학^예과 (大學豫科)
『교육』
예전에, 대학에서 학부에 들어가기 전에 거치던 예비 과정. 수업 연한은 2년이였다.

중학-과 (中學科)[-과]
『명사』 『교육』
여러 과정이 함께 있는 학교에서 중학 과정을 교수하는 과. ≒중학부.

특성화 학과 (特性化學科)
『교육』
실업계 학과 가운데 특정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학과.

학과01 (學科)[-과]
『명사』 『교육』
교수 또는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학술의 분과.

학과02 (學課)[-과]
『명사』 『교육』
학문이나 학교의 과정.

학무-과 (學務課)[항-과]
『명사』 『교육』
학사에 관한 사무를 맡은 과.

〈검색 조건 4를 적용하여 찾은 결과 화면〉

③ 사용자 의견 수렴 기능 추가

○ ‘의견 보내기’를 통해 사용자 의견 접수

- 기존의 《표준국어대사전》 웹 사전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그친 반면 개정판의 웹 사전에서는 사전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편찬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사전 정보의 오류를 수정하고 기술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사용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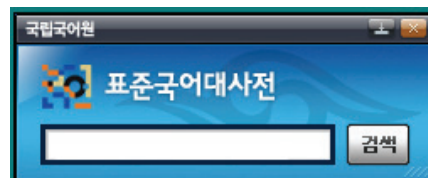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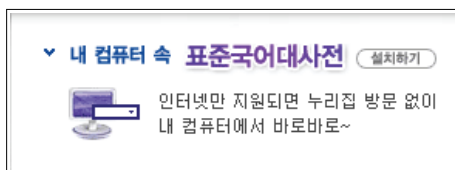
The screenshot shows the '표준국어대사전'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website. At the top, there is a header with '사전22' and '발음듣기 (辭典)'. Below this, there is a section titled '활용 정보:' (Usage Information).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명사』' (Noun) and contains text about the dictionary's structure and usage.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is a section titled '의견 보내기' (Send Opinion) which is circled in red. This section includes a form with fields for '작성자' (Author), '전자 우편' (Email), and '의견' (Opinion), and a '의견 보내기' (Send Opinion) button.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 웹 사전 의견 보내기 화면〉

④ 소형 사전 창 설치 기능 추가

○ ‘내 컴퓨터 속 《표준국어대사전》’ 설치를 통한 편리한 사전 사용

-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따로 접속하지 않아도 인터넷만 지원되면 작은 사전 창을 통해 사전 정보를 언제든지 찾아 볼 수 있는 소위 위젯(widget) 기능을 구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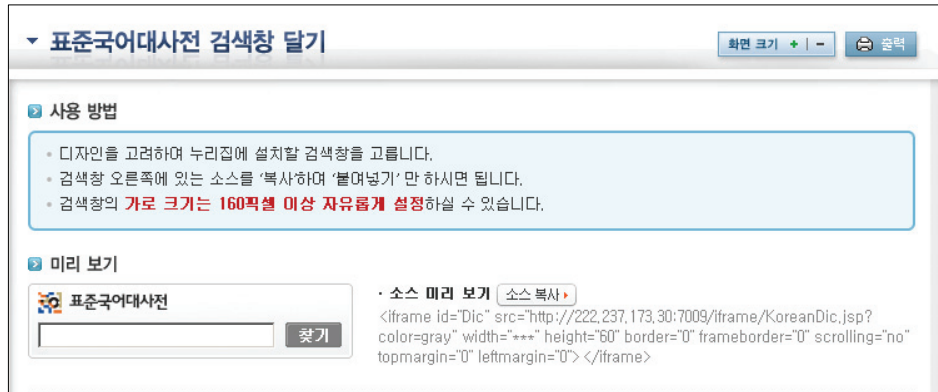
〈‘내 컴퓨터 속 《표준국어대사전》’ 설치 화면〉

〈‘내 컴퓨터 속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창〉

⑤ 개방 운영 프로그램 설치 기능 추가

○ 원하는 누리집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창 추가 가능

- 사용자가 운영하는 누리집에 사전 검색 기능이 필요할 때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창을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개방 운영 프로그램(Open API)을 제공함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창 달기 화면〉

대항목	소항목	1999	2008
검색 기능	표제어 찾기	○	○
	아무개 문자(?, *) 활용 찾기	×	○
	따로 보기 (관용구, 속담, 방언, 북한어, 고유어)	×	○
	여러 겹 찾기 (검색 조건 중복 적용)	×	○
	품사별 찾기	×	○
	자모별 찾기	×	○
	범위로 찾기	×	○
	자소로 찾기	×	○
사용자 환경	일러두기	○	○
	옛 한글 입력	○	○
	사용자 의견 수렴	×	○
	소형 사전 창 설치(위젯 기능)	×	○
	개방 운영 프로그램 설치(Open API)	×	○

〈《표준국어대사전》 웹 사전 1999와 2008 비교〉

부록 1

관련 지침 및 기준

- 미등재어 수집 방법
- 미등재어 선정 원칙
- 한자어 검토 지침
- 전문어 감수 절차 및 내용
- 전문어 감수 원고 파일 작성 지침
- 북한어 인터넷 검색 지침
- 북한어 검토 지침
- 뜻풀이 일괄 처리 목록 및 기준

미등재어 수집 방법

1. 단어 선정 기준

가. 《표준국어대사전》(이하 ‘사전’)을 기준으로 하여 사전에 없는 단어를 선정한다.

- (1) 사전 표제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전에 표기가 같은 것이 없는 단어
- (2) 사전에 표기가 같은 것이 있으나 완전히 다른 단어
- (3) 복합어로 보이는 것은 판단을 해야 한다. 하나의 단어로 인정이 될 것 같으면 선정한다.
- (4) 방언이든, 전문어이든, 옛말이든, 한글로 표기되기는 했지만 외국어처럼 보이는 단어이든 자료에서 나오고 사전에 없는 말은 모두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방언은 사전에 유사한 표기의 단어가 이미 있으면 선정하지 않는다.

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사전에 수록되어 있어도 선정한다.

- (1) 사전에 표기가 같은 것이 있으나 사전에 없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
- (2) 용례가 있으면 좋은데도 용례가 없는 단어. 단, 방언 등 용례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단어인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는다.
- (3) 사전에 북한어로 실려 있으나 남한어의 문맥에서 사용된 단어. 단, 북한어로 실린 단어가 단지 남한어와 맞춤법의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면 선정하지 않는다.
예) ‘뒤굽’의 예가 나오는데 사전에 ”‘굽’의 북한어”로 되어 있으며 남한 맞춤법의 표기에 따른 ‘뒷굽’은 사전에 없다. 이런 경우는 선정한다.
예) ‘부자집’의 예가 나오는데 사전에 ”‘부자집’의 북한어”로 되어 있으며 남한 맞춤법의 표기에 따른 ‘부자집’이 사전에 있다. 이런 경우는 선정하지 않는다.
- (4) 문법, 문장 호응 등에서 사전에 정보가 없는 특이한 쓰임도 선정한다. 예) ‘자욱 01’이 어근으로 사전에 올라 있으나 부사로 쓰였으므로 선정한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사전에 수록되지 않았어도 선정하지 않는다.

(1) 인명, 지명, 국명 등 고유 명사. 단, 고유 명사와 접사 등이 결합된 말인 경우 사전에 이미 유사한 예가 있으면 그에 준해 선정한다.

예) ‘일본제’가 있으므로 ‘홍콩제’도 선정한다.

(2) 사전에서 원칙에 따라 올리지 않은 파생어는 선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키다’, ‘-당하다’, ‘-쫓’, ‘-썰’, ‘-경’, ‘-여’ 등등은 사전에 접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 그 단어가 붙은 예들은 사전에 올리지 않았으므로 이들 접사가 붙은 말은 선정하지 않는다.

(3) 단순한 맞춤법 차이로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단어. 단, 맞춤법에 어긋나는 단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소에 자주 사용되는 것인데도 사전에 없는 것은 선정한다.

예) ‘배개’를 ‘배개’라고 잘못 표기한 예가 있는데 ‘배개’는 선정하지 않는다.

라. 기타

(1) 사전에 없는 속담, 관용구도 선정한다.

(2) 이미 선정된 단어가 계속 사용되었으면 3개 정도는 반복 제시한다. 단어의 뜻에 대한 풀이가 있거나 그 풀이를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면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예에서 메모를 남긴다.

(3) 다른 책에서 이미 선정한 것이 확실한 단어이면 굳이 3개 정도를 다시 반복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에는 한 번만 선정하고 메모를 남겨도 된다.

2. 파일 정리 방법

가. 파일 정리 프로그램은 아래아한글을 사용한다.(되도록 아래아한글97)

나. #1, #2, #3, #4, #5로 나눈다. 각 기호는 앞뒤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다. #1에는 선정한 단어를 기록한다.

(1) 사전에 오르는 기본형으로 제시한다. 한자나 숫자 등으로 표기된 것은 모두 한글로 표기한다.

- (2) 맞춤법(표준어 포함)에 어긋나는 표기는 그대로 기록한다. 그리고 #4에 메모를 남긴다.
속담이나 관용구인 경우에는 해당 구의 첫 단어를 적고 ‘(관용표현)’이라고 기록한다.
예) 콩(관용표현)
- (3) 이미 사전에 수록된 단어일 경우에는 표기가 같은 단어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어깨번호를 밝힌다. 어깨번호는 위첨자를 사용하지 말고 그냥 숫자로 표시하되 10이 안 되는 숫자는 ‘01, 02’ 등으로 표시한다.
- (4) 사전에서 사용된 ‘^, -’ 기호는 표기할 때 밝히지 않는다.
- (5) 조사한 자료에서의 띄어쓰기는 고려하지 않고 기본형으로 보이는 것을 표기한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도 붙여야 하면 붙여서 제시하고 되어 있지 않으면 않은 대로 필요한 기본형만 제시한다.
- (6) 조사한 자료에서 나오는 순서대로 기록한다. 반복해서 찾은 단어라 해도 책에서 나오는 순서대로 기록하며 반복해서 찾은 단어라고 연속해서 기록하지 않는다.

라. #2에는 책에서 나오는 예문을 기록한다.

- (1) 단어의 뜻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로 충분히 앞뒤 문맥을 기록한다.
- (2) 예문 내에서 해당 단어가 나오는 부분은 강조체로 표시한다.
- (3) 띄어쓰기, 표기는 조사한 자료에 나오는 그대로 반영한다. 임의로 수정하지 않는다.
- (4) 예문을 인용할 때 중간에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불필요한 쓸데없는 부분이 있으면 ‘-중략-’이라고 표시하고 생략한다.
- (5) 기호의 사용
말줄임표는 ‘...’을 사용한다.(전각 문자 3406) 점이 6개일 때는 2번 찍는다.

마. #3에는 출전을 기록한다.

- (1) ‘저자(연도), 서명, 출판사, 페이지’의 순서로 기록한다.
예) 김원일(1988), 마당 깊은 집, 문학과지성사, 11면
- (2) 출판 연도는 판이 바뀌었으면 초판과 바뀐 판을 함께 밝히고 책명 뒤에 몇 판인지를 ()에 밝힌다.
예) ○○○(1988/1990), ○○○○(2판), ○○○, 11면

(3) 페이지는 해당 단어가 있는 페이지를 기준으로 한다. 두 페이지에 걸치면 앞 페이지를 밝힌다.

바. #4는 참고로 알려줄 사항을 메모로 남긴다.

(1) #4는 적어야 할 것이 있을 때만 사용하며 적을 것이 없으면 #4는 생략한다.

(2) #4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

(가) 사전에 수록되었으나 용례가 없어 선정한 단어: ‘#4용례 없는 단어’라고만 표시한다.

(나) 이미 선정했으나 계속 나와 더 이상 선정할 필요가 없는 단어: ‘#4용례 예 더 있음’이라고만 표시한다.

☞ 이후로는 해당 단어는 선정하지 않는다.

(다) 맞춤법(표준어 포함)에 어긋나는 표기인 것으로 짐작되는 단어: ‘#4맞춤법에 따르면 ○○○이어야 할 듯함.’이라고 표시한다. ○○○ 자리에 짐작되는 단어를 적는다.

(라) 사전에 북한어로 되어 있는 단어: ‘#4북한어로 되어 있음’이라고만 표시한다.

(마) 의미가 다른 단어: ‘#4의미 다름’이라고만 표시한다.

(바) 원문에 띄어서 썼지만 하나의 단어로 올린 경우: ‘#4띄어쓰기 잘못’이라고만 표시한다.

(사) 예문의 표기가 잘 안 보이거나 짐작해서 기록한 경우: ‘#4예문 표기 추정’이라고만 표시한다.

(아) 맞춤법에 어긋나는 단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소에 자주 사용되는 것인데도 사전에 없는 것을 선정한 경우: ‘#4맞춤법에 어긋나지만 자주 사용되는 단어’라고만 표시한다.

(자) 기타 특기 사항: 사전에 없어서 올리기는 했지만 인쇄 과정에서 글자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면, 사전을 찾아 보니 참고할 필요가 있는 단어를 발견한 것이 있다면 등등 선정한 단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기타 특기 사항을 #4 다음에 자유롭게 기록한다.

(3) #4에 기록할 사항이 여러 개이면 ‘/’를 사용하면서 계속 기록한다. 기록할 사항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꼭 먼저 와야 하는 순서는 없다.

예) #4복한어로 되어 있음/의미 다름

- (4) #4에 기록할 사항이 있는데 그 단어가 반복해서 선정이 되면 그중 어느 하나에
서만 기록한다. 반복해서 기록하지 않는다.

사. #5에는 의미를 풀이한다.

- (1) #5는 적어야 할 것이 있을 때만 사용하며 적을 것이 없으면 #5는 생략한다.
(2) 예문에서 의미 풀이가 되지 않았지만 자료를 읽으면서 의미가 짐작이 되면 #5
다음에 기록한다. #4에 ‘의미 다름’이라는 메모를 남겼으면 어떻게 의미가 다른
지 #5 다음에 기록한다. 그렇지만 글로 표현하기 어려우면 굳이 의미 풀이를 기
록하지 않아도 된다.
(3) 단어만 보고 쉽게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의미 풀이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3. 기타

가. 파일은 책 단위로 만든다.

나. 제출 전에 #1, #2, #3의 개수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다. 파일 이름은 이름 영문 약자 3자+’3’+작성날짜 4자를 합하여 만든다.

예) lsy30714.hwp 2003년 7월 14일에 만든 파일

라. 파일 양식은 다음을 따른다.

편집용지 여백 - 위:19.99 머리말:15 왼쪽:25 오른쪽:25 제본:0 아래:15 꼬리말:15

서체 - 신명조

크기 - 10

줄 간격 - 160

내어쓰기 - 4

쪽번호는 ‘-1-(가운데)’로 단다.

미등재어 선정 원칙

1. 신어

- 국어의 어휘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 것만 선정한다.
 -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되거나 인터넷에서 확인했을 때 예가 많은 것
- 일시적인 유행어로 그칠 가능성이 있는 말은 제외한다.
 - 쓰이기 시작한 지 불과 2~3년 이내인 것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단, 쓰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다 해도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단어로 판단되면 올린다.
 - 널리 쓰이고 있다 해도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일시적으로 존재하여 유행어로 그칠 가능성이 있으면 제외한다.

2. 북한어

- 현재 북한어로 되어 있으며 방언으로만 쓰이는 것으로 보이면 북한어로 그대로 둔다.
 - 문학 작품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현재 사전에 북한어로 되어 있으며, 지위가 표준어에 들지 못한다고 보는 것도 북한어로 그대로 둔다.
- 남쪽에서도 많이 사용되고는 있으나 표준어로 인정되기 곤란한 것은 ‘잘못’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 남한 인터넷 등에서 예가 많이 나와서 남한어로 볼 수 있으나 남한어의 관점에서는 구로 보아야 하는 것은 삭제한다.
- 예전부터 쓰여 온 것으로 짐작되는 한자어라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둔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명백히 남북 분단 이전에 쓰였을 것이면 남한어로 돌린다. 단, 역사 전문어라 해도 남북 분단 이후 북한 역사학계에서 새로 용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단어만 남한어로 돌린다.

3. 외래어

- 일본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썼던 것은 원칙적으로 수록하지 않는다.
 - 널리 쓰이는 것이라 해도 국어의 단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면 올리지 않는다.
- 외래어(주로 영어계 외래어) 중에서 대체 가능한 말이 없고 널리 퍼졌다고 판단한 말 정도만 아주 제한적으로 올린다.

4. 전문어

- 전문어는 이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널리 쓰이는 것은 포함한다.
- 전문어 풀이 중에 나오는 미등재어의 처리
 - 과명 등 종 분류에서 사전에 없는 과명 등은 추가로 올리지 않는다.
 - 예시로 나열된 단어, 예를 들어 기계의 세부 종류나 같은 종에 속한 동식물 등은 일부 단어는 올라 있고 일부 단어는 없어도 올리지 않는다.
 - ☞ 단어 의미를 몰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문어 풀이에 나오는 말과는 달리 취급하였다. 일부 단어만 오른 경우도 각 단어를 올릴지 여부는 그 단어의 비중으로 판단할 사항이어서 예시로 나열된 단어가 모두 있거나 모두 없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풀이에 쓰인 말은 사전 시디에서 검색해서 많이 사용된 경우에는 단어를 추가한다. 한두 단어에서만 쓰인 것으로 검색이 되면 단어를 추가하지 않고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풀이를 고친다.
 - 풀이에서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여 두어 사전에 따로 오르지 않아도 의미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미등재어는 올리지 않는다.

5. 저빈도어

- 쓰임이 극히 적어(말뭉치나 인터넷에서 확인 불가) 의미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이번에는 올리지 않는다.

- 문학 작품에서 개인이 만든 말이거나 일시적인 만든 말(특히 한자어인 말에 많다)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은 올리지 않는다.

6. 방언

- 널리 쓰이지 않는 한 방언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은 이번에는 제외한다.
☞ 수정판 발간 이후 추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방언에서 출발했으나 이제는 표준어권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말은 별도의 검토를 거쳐 최종 수록 여부를 확정한다.

7. 계열 어휘

- 같은 계열을 이루는 단어들 중에서 빠진 것이 있을 때는 추가하거나 계열 전체 단어를 삭제한다. 단, 전문어의 경우에는 계열을 이룬 단어를 추가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빈도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하면 같은 계열을 이룬 단어라 해도 쓰임이 많은 것만 추가한다.
예) ‘도미’가 사전에 있으므로 ‘도일’도 사전에 추가한다. 그런데 ‘도한’은 빈도가 낮다고 판단되므로 추가하지 않는다.

8. 오타기

- 널리 쓰이나 표준어로 인정이 되지 않을 것은 되도록 올리지 않는다.
- 널리 사용되는 말은 별도의 검토를 거쳐 최종 수록 여부를 확정한다.

9. 구

- 구로 보이는 것은 제외한다. 단, 단어로 쓰임이 바뀌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별도의 검토를 거쳐 최종 수록 여부를 확정한다.

10. 파생어

- ‘-하다, -되다’가 빠졌으면 추가하되 ‘-되다’는 거의 ‘-되다’와 결합한 형태만 쓰일 경우에 제한적으로 올린다.
- ‘여(女)-’ 등 1음절 한자어, 접사 등이 붙어 새로 생긴 말들도 널리 쓰인다고 판단하면 표제어로 올린다.

11. 의성 의태어

- 의성 의태어는 표기만 약간씩 다른 것이 꽤 있으며 북한어로 올라 있는데 인용 말뭉치에서 나오는 것도 많다. 대부분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두는 쪽으로 한다. 북한어이면 북한어 그대로 두며, 사전에 오르지 않았으면 이번에도 올리지 않는다. 이미 사전에 오른 유사한 단어가 없고 널리 쓰인다고 보이는 극히 일부만 올린다.

12. 기타

- 검토자도 알 정도로 많이 쓰이거나 말뭉치, 인터넷 등에서 예가 많이 나오나 사전에 없는 것은 올린다.

한자어 검토 지침

1. 표제어의 원어란에 제시된 한자 검토

- 잘못된 한자를 수정한다.
- 동일한 한자의 여러 이체자가 나타날 경우 통일하여 수정한다.

2. 한자어의 뜻풀이 보완

- 한자 원래의 뜻이 있고 거기에서 파생된 비유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비유적인 의미만이 실려 있고 원래의 뜻이 빠진 경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원래의 의미를 추가한다.

3. 많이 쓰이지 않는 한자어의 뜻풀이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검토자의 의견을 검토 사항으로 남긴다.

4. 뜻풀이에 쓰인 한자 검토

- 뜻풀이 내에 나타난 한자가 잘못된 경우 이를 수정한다.

5. 검토 사항 처리

- 검토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 일괄적으로 자문 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긴다.

〈원고 작성 양식〉

※ 명확하게 틀린 경우

#1표제어#2유형#3현재 사전 내용(오류 부분)#4수정된 내용#5메모

예) #1기념일#2한자#3記念日#4紀念日#5둘 다 쓰이나 紀가 훨씬 일반적임.

※ 검토가 필요한 경우

#1표제어#2유형#5메모

예) #1표제어#2뜻풀이#5뜻풀이가 이상함. ○○ 등에서는 이와 다르게 되어 있음.

〈#1표제어〉

1. #1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표제어를 적는다.
2. 표제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기호(-, ^, ·)도 쓰지 않으며, 어깨번호만 쓴다. 어깨번호는 CD를 기준으로 하며 항상 두 자리로 한다.
예) #1가계06#2용추#3%#4{가계를} 잇다/~\$#5%
3. #1에는 주표제어와 부표제어만 들어갈 수 있다. 속담이나 관용구에 대한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에 해당 표제어를 넣고 #5에 속담이나 관용구 표제어를 써서 표시한다.

〈#2유형〉

1. #2유형에는 ‘한자’와 ‘뜻풀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적는다.
2. 각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는다.
 - 한자: 원어의 한자가 잘못된 경우에는 ‘한자’라고 적는다.
 - 뜻풀이: 위의 경우 외에 뜻풀이 내용이나 뜻풀이에 나오는 한자 등이 잘못된 경우에는 모두 ‘뜻풀이’라고 적는다.

〈#3현재 사전 내용〉

1. #3에는 현재 잘못된 부분이 있는 사전의 내용을 그대로 적는다. 즉 오류 사항을 적는다.
2. 각 유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는다.
 - 한자: 잘못된 원어의 한자를 현재 사전 그대로 적는다.
 - 뜻풀이
 - 한자 원래의 뜻이 들어가야 하는데 빠진 경우에는 #3에 % 표시를 한다.
 - 한자 원래의 뜻이 들어가 있으나 잘못된 경우에는 잘못된 사전의 내용 그대로를 적는다.(사전 시디에서 복사하면 됨)
 - 뜻풀이에 들어 있는 한자가 잘못된 경우에는 잘못된 한자가 들어 있는 부분을 앞뒤 한 단어 정도씩 함께 적어 준다.

〈#4수정된 내용〉

1. #4에는 수정된 내용을 적는다.
2. 각 유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는다.
 - 한자: 맞는 한자를 적는다.
 - 뜻풀이
 - 한자 원래의 뜻이 들어가야 하는데 빠진 경우에는 #4에 들어갈 내용을 적는다. 이는 후에 내부에서 다시 교열할 것이므로 내용만 이해할 수 있게 적으면 된다.
 - 한자 원래의 뜻이 들어가 있으나 잘못된 경우에는 맞는 내용을 적는다.
 - 뜻풀이에 들어 있는 한자가 잘못된 경우에는 잘못된 한자가 들어 있는 부분을 앞뒤 한 단어 정도씩 함께 적어 주고, 잘못된 한자는 맞는 한자로 수정하여 적는다.

〈#5메모〉

1. #5에는 자유롭게 검토자의 의견을 적는다.

2. 원고를 수정한 경우와 검토로만 남긴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는다.
- 원고를 수정한 경우: 수정한 근거나 이유, 출처 등을 적는다. 후에 왜 수정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내용을 적는다.
 - 검토로만 남긴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과 그에 대한 이유, 그리고 대안 등을 최대한 상세히 적는다.

전문어 감수 절차 및 내용

1. 감수 절차

감수 의뢰된 항목을 순서에 따라 감수

2. 감수 방식

(1) 감수 항목을 사전 시디에서 확인

- 표제어 검색, 간이 검색, 상세 검색 등 활용

(2) 출력물에 감수를 한 항목 표시

- 항목 앞에 펜 등으로 감수 표시(사인)

(3) 수정 사항을 출력물에 반영

- 출력된 원고에 펜 등으로 직접 기입
- 일정량씩 감수 결과 제출
- 매월 말 감수 결과 확인 후 감수 비용 계좌로 입금

3. 감수 내용

(1) 영역 분류의 타당성

- 해당 영역의 용어인지 확인
- 여러 영역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기본이 되는 영역의 것으로 처리

(2) 항목 선정의 타당성

- 일반 국어사전에 오를 만한 항목인지 판단. 너무 전문적인 항목의 경우 삭제 표시
- 같은 정도의 비중을 가진 항목들이 동일하게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 현재 사용되지 않는 항목은 삭제. 단,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전문어는 유지

(3) 풀이 정보의 정확성

- 풀이에서 제시된 정보가 맞는지 확인
- 한자나 영어 등 제시된 원어가 맞는지 확인
 - ☞ ‘하다’로 끝나는 말에는 원어가 없음. ‘하다’가 빠진 말에 제시되어 있음.
- 관련되는 항목 간에 상호 지시(동의어, 참고어 처리)가 맞게 제시되었는지 확인
- 상호 지시가 된 말의 경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말에서 풀이가 되었는지 확인.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이 사용되는 표제어를 제시하고 그쪽에서 풀이하라는 내용을 남김.
- 풀이가 잘못되어 대폭 수정해야 할 것은 ‘대폭 수정 필요’만 표시
 - ☞ 아래의 추가 항목과 함께 추후 별도의 인원이 처리

(4) 항목 추가

- 현재 사전에 없으나 일반인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항목 추천(최신 용어 포함)
 - ☞ 사전에 추가할 단어의 결정 및 풀이는 추후 별도의 인원이 처리

(5) 북한어 확인

- 북한어로 되어 있으나 남한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인지 확인 바람.
- 남한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인 경우, 남한어로 처리하라는 감수 내용 남김.
- 뜻풀이 검토 결과 그에 해당하는 남한어가 있을 경우, 대응 남한어 제시함.

(6) 이미지 확인

- 사전 설명을 보완하기 위한 이미지가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

☞ 시디 화면 우측 상단 부분에 카메라 모양이 활성화되면 이미지가 있는 것임.
카메라 모양을 누르면 이미지가 나옴.

4. 기타 유의 사항

(1) 표제어를 수정할 경우

- 수정된 표제어가 이미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함. 등재되어 있다면 기존 표제어를 수정할 것이 아니라 삭제를 해야 함.

예) ‘활동일주기’를 ‘일주기’로 수정하라고 감수했으나, 일주기는 별도 뜻풀이 되어 이미 사전에 있음.

(2) 동의어를 추가할 경우

- 어떤 항목에 대해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다른 용어를 추가해서 제시할 경우, 추가하는 용어가 이미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 등재되어 있다면 양쪽 용어 중 어떤 쪽에서 뜻풀이를 해 주어야 하는지 표시해야 함.

예) ‘단핵세포’에 ‘단핵구’를 동의어로 추가하라고 감수했으나, ‘단핵구’는 의학 전문어로 별도 뜻풀이되어 이미 사전에 있음.

(3) 북한어 표제어 감수 시 유의 사항

- 현재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바뀐 경우에는 북한어 표제어라도 수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남한에서는 안 쓰이지만 북한에서 용어가 바뀌었다는 내용을 함께 남김.
- 남한에서도 해당 용어가 쓰이는 경우는 남한에서도 쓰이는 용어라는 내용을 남김.
- 북한어 표제어에 대응하는 남한 표제어를 제시할 경우, 남한 표제어가 사전에 있는지 확인. 사전에 있다면 대응 남한 표제어만 제시하면 되지만 사전에 없다면 대응 남한 표제어를 추가하고 뜻풀이를 하라는 내용을 함께 남김.

예) 북한어 ‘말린표본’을 남한에서는 ‘건조표본’이라고 감수. ‘건조표본’은 사전에 없음. ‘건조표본’을 추가하고 ‘말린표본’의 뜻풀이를 ‘건조표본’에 실어

주리는 감수 내용을 남김.

※ 의학/화학 전문어 처리 세부 기준

① 의학 용어

- 바뀐 의학 용어를 새로 추가한다.
- 의학용어집에서 두 가지를 다 허용한 경우는 기존 용어와 새 용어를 동의어로 처리한다.
- 의학 감수 결과 쓰지 않기로 하여 의학용어집에도 올리지 않은 용어는 원칙적으로 ‘전 용어’로 처리한다. 단 널리 쓰인다고 판단된 경우는 동의어로 처리한다.
- 기타 세세한 사항은 감수자 의견을 반영한다.

② 화학 용어

- 편수자료에서 바뀐 용어를 모두 추가한다.
- 기존 용어와 새 용어를 동의어로 처리한다.
- 널리 쓰이는 용어 및 편수 자료에서 두 가지를 허용한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서 풀이하고, 뜻풀이 내에서도 기존 용어를 사용한다.
- 화학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는 새 용어에서 풀이하고, 뜻풀이 내에서도 새 용어를 사용한다.
- 화학 분야가 아닌 분야에 쓰인 것은 가급적 기존 용어를 그대로 둔다.
- 화학 분야가 아닌 표제어에서는 기존 용어를 기본으로 하고, 화학 분야 표제어 중에서도 일반어처럼 쓰이는 표제어에서는 기존 용어를 기본으로 한다.

전문어 감수 원고 파일 작성 지침

1. 표제어 관련 사항

(1) 표제어 수정, 수정 검토

- ① 북한어라도 감수자가 표제어를 수정했다면 그대로 따른다. ‘표수’로 처리하고 #5에 반드시 “북한어”라 남긴다.

예) #1가는짜지발#2표수#3가는짜지발#4가는짜지말#5감수자 의견. 북한어.

- ② 삭제한 표제어의 부표제어, 동의어, 관련 어휘, 참고 어휘는 반드시 교차 확인 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 표제어의 삭제나 수정 때문에 연쇄적으로 어깨번호를 수정한 경우에는 #5에 “관련 정보 모두 수정 요망”이라 메모 남기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예) #1지근06#2표수#3지근06#4지근05#5‘지근05’ 표제어 삭제에 따름. 관련 어휘 모두 수정 요망.

- ③ 감수자가 표제어 수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맞춤법에 관련하여 표준성이 의심되면 표수검으로 남긴다.

예) #1누운갯버들#2표수검#5감수자는 ‘눈-갯버들’로 제시하였으나 표준성이 의심됨.

☞ ‘눈/누운’은 관련된 모든 어휘를 일괄적으로 검토해야 함. 일일이 메모 남기지 않았음.

- ④ 표제어의 IC분석이 의심스러운 경우 ‘표수검’으로 남기고 #5에 현재의 분석과 수정 바라는 분석을 자세하게 남긴다.

예) #1갈미뺨의다리#2표수검#5IC분석 검토 요. 지금은 ‘갈미뺨의-다리’로 분석하고 있으나 ‘뺨의다리’가 표제어로 있음. ‘갈미-뺨의다리’로 수정 검토 요망.

(2) 표제어 추가, 추가 검토

- ① 북한어라도 감수자가 표제어를 추가했다면 그대로 따른다. ‘표추’로 처리하고 #5

에 반드시 “북한어”라 남긴다.

예) #1원형질류동#2표추#3%#4원형질류동(原形質流動)「명」「북」『생』‘원형
질 유동’의 북한어.#5%

- ② 감수자가 현재 북한어로 올라 있는 표제어에 대응하는 남한어를 참고 어휘로 제시했을 경우, 해당 남한어를 표제어로 추가하여 처리한다. 거기에 대응하는 북한어는 “‘○○’의 북한어.”로 뜻풀이를 수정한다.

예) #1유전체돌연변이#2표추#3%#4유전체^돌연변이(遺傳體突然變異)『생』자연
적이거나 인공적인 작용에 의하여 어떤 생물의 염색체 수가 변화하여 생
기는 돌연변이.능계놈 돌연변이.#5%

#1계놈갑작변이#2뜻추#3~생기는 돌연변이.#4‘계놈 돌연변이’의 북한어.#5전
체 수정.

- ③ 뜻풀이에 쓰인 미등재어는 표추검으로 남긴다.

예) #1비단풀과#2표추검#5‘가시비단풀’의 뜻풀이에 쓰인 미등재어.

- ④ 감수자가 관련 어휘가 없는 단어를 제시하고 표제어 추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뜻
풀이 질문을 하지 않고 ‘표제어 추가 목록’에 남긴다.

(3) 표제어 삭제

- ① 북한어라도 감수자가 표제어를 삭제했다면 그대로 따른다. ‘표삭’으로 처리하고
#5에 반드시 “북한어”라 남긴다.

예) #1가는뿌리#2표삭#3%#4%#5감수자 의견. 북한어.

(4) 북한어 남한어로 집필

감수자가 북한어를 남한어로 돌릴 경우 인정하고 ‘북남’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표제어가 외래어일 경우, 수정 파일에는 ‘북남검’으로 남기며 반드시 북한 용어
와 남한 용어를 비교하여 ‘외래어 표기법 검토 목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예) #1기관배양#2북남#3%#4기관^배양(器官培養)『생』기관의 전부나 일부를 떼
어 내어 생체 밖에서 기르는 배양 방법.#5%

#1과쥐배제#2북남검#5북남 처리 요. 그러나 외래어 표기법 검토 요.

2. 원어 관련 사항

- ① 학명이 곧 표제어일 때, 지금 사전에서는 원어의 첫 자를 모두 소문자로 시작하고 있으나 감수자들은 주로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이는 모두 ‘원검’으로 입력하고 #5에 “첫 자를 대문자로 수정/첫 글자를 대문자로”라고 메모를 남긴다. 그러나 반영할지는 후에 결정하기로 한다.

예) #1클로렐라#2원검#5첫 글자를 대문자로.

- ② 학명이 곧 표제어일 때, 원어를 이탤릭체로 고치라는 감수 내용은 ‘원검’으로 처리하고 #5에 “원어가 학명이므로 이탤릭체로 수정”이라고 메모를 남긴다. 그러나 반영할지는 후에 결정하기로 한다.

- ③ 표제어는 같으나 한자 원어만을 수정하였을 경우 ‘원검’으로 처리하고 #5에 “한자 전문가 검토 필요함.”이라는 메모를 남긴다.

예) #1귀목나무#2원검#5감수자는 ‘櫟木--’를 ‘橫木--’로 수정하라고 하였으나 ‘櫟木’도 표제어로 있음. 한자 전문가 검토 필요함.

3. 뜻풀이 관련 사항

(1) 원고 관련 사항

- ① 감수자가 수정한 뜻풀이에 현재 사전에 실리지 않은 단어가 쓰여 뜻풀이를 이해하기 힘든 경우, 감수자에게 질문하여 좀 더 쉽게 풀어 쓴다. 그러나 그렇게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단어를 파일에는 ‘표추검’으로 남기고 내부에서 검토한다.
- ② 감수자가 학명 수정을 한 경우에는 모두 반영하여 입력한다. 그러나 학명은 후에 일괄 검토가 필요하므로 #5에 “학명 수정”이라는 메모는 반드시 남겨야 한다.
- ③ 감수 내용 중, 뜻풀이에 학명이 쓰인 경우 이탤릭체로 바꾸는 사항은 그대로 반영하나 #5에 “학명은 이탤릭체로”라는 메모를 남긴다. 이를 반영할지는 후에 결정하기로 한다.

(2) 뜻풀이 관련 사항

- ① 감수자가 뜻풀이 중 “‘○○’의 잘못.”을 수정한 경우 모두 ‘뜻수검’으로 남겨야 한다.
예) #1장고새#2뜻수검#5지금은 “‘장구채02’의 잘못.”인데 감수자는 ‘장구채02’의 동의어로 수정함. 동의어로 고치면 ‘장구채02’ 뜻풀이도 수정.
- ② 한 표제어 안에서 뜻풀이를 둘로 나누어 뜻풀이 「1」에서는 개체, 뜻풀이 「2」에서는 꽃, 열매를 나누어 풀이할 경우 꽃과 열매는 일반어로 처리해야 한다.
- ③ ‘○○의 한 분야’라는 뜻풀이는 없다. 모두 ‘~ 학문. ○○의 한 분야이다.’ 수정한다.
- ④ “~의하여”라는 표현은 되도록 쓰지 않고 “~따라서” 등의 말로 바꾸어 풀이한다.
- ⑤ 뜻풀이에 해당 표제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 현상으로~”, “이것은~” 등으로 돌려 풀이한다.
- ⑥ 뜻풀이 마지막에 제시하는 학명을 이탤릭체로 바꾸는 내용은 종이 사전에서는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처리하지 않는다.
- ⑦ 뜻풀이에 쓰이는 용어는 동의어가 아닌 기본 표제어를 사용해야 한다.
- ⑧ ‘편평’은 모두 ‘평평’으로 수정한다.
- ⑨ ‘붙어산다’는 일괄 검토 하여 ‘기생’의 의미가 아닌 것은 ‘붙어 산다’로 모두 띄어 쓴다.

4. 참고 어휘 관련 사항

참고 어휘는 반드시 균형(맞대응)을 맞추어야 한다. 어떤 표제어의 참고 어휘가 표제어 삭제하여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감수자에게 반드시 그 사항을 알려 대응 참고 어휘를 처리하도록 한다.

5. 관련 어휘 관련 사항

‘이형’, ‘동형’과 같이 관련어가 있는 표제어들은 관련어 또한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수자가 ‘이형’은 표제어 삭제하였으나 ‘동형’은 그대로 둔 경우 감수자에게 질문하여 ‘동형’을 남길 것인지 삭제할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삽화 관련 사항

삽화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삽수검’으로 남긴다.

예) #1삽수03#2삽수검#5기본 표제어 수정에 따라 ‘개삽수’로 옮길 것.

※ 한 삽수 원고의 입력이 끝나면 완성해야 하는 파일

수정 입력 파일, 질문지, 표제어 추가 목록, 뜻풀이를 대폭 수정해야 하는 표제어 목록, 외래어 표기법 검토해야 할 표제어 목록.(아래의 예시는 ‘식물’ 상위 분야 아래의 ‘균류’, ‘조류’의 예)

① 수정 입력 파일

- 파일명: 분야명_삽수자

예) 균류_김영환

② 질문지

- 파일명: 질문_삽수자(분야명)

예) 질문_김영환(균류)

③ 표제어 추가 목록

- 상위 분야의 폴더에서 하나의 파일로 합쳐 작성한다.

- 파일명: 상위분야명_표추목록

예) 식물_표추목록

- 형식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표제어	비고
판야과	‘바오바브나무’ 뜻풀이에 쓰임. 삽수자가 표제어 추가 요망함.(김영동)
수국과	‘고광나무’의 수정된 뜻풀이에 쓰임. 삽수자가 표제어 추가 요망함.(김영동)

④ 뜻풀이를 대폭 수정해야 하는 표제어 목록

- 상위 분야의 폴더에서 하나의 파일로 합쳐 작성한다.

- 파일명: 상위분야명_대폭수정

예) 식물_대폭수정

- 형식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표제어	비고
나팔버섯	지금은 동의어로 있는 ‘피꼬리버섯’과 전혀 다른 종이라 함.
흰우산버섯	지금은 동의어로 있는 ‘흰털우산독버섯’과 전혀 다른 종이라 함.

⑤ 외래어 표기법을 검토해야 할 표제어 목록

- 상위 분야의 폴더에서 하나의 파일로 합쳐 작성한다.
- 파일명: 상위분야명_외래어표기
예) 식물_외래어표기
- 형식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수정 전	수정 후	원어	비고
바이로이드	비로이드	viroid	학계에서는 ‘비로이드’로 통일하였다고 함.(병류)
에르비니아속	에르위니아속	「독」 Erwinia屬	감수자 의견.(균류)

북한어 인터넷 검색 지침

1. 검색 방법

◎ 배포된 작업용 파일의 단어의 가나다순대로 검색한다.

작업용 파일에는 뜻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사전에서 뜻을 확인한 후 검색하도록 한다.

- 맞춤법의 차이로 인한 것은 검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렬하다’는 “가열하다”의 북한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지 맞춤법만 다를 뿐 남한어에 그에 대응하는 말이 있으므로 검색하지 않는다. 그러나 ““암생 식물”의 북한어”처럼 ‘~의 북한어’로 되어 있어도 맞춤법의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닐 때는 검색한다.
- 다의어이어서 일부 의미만 북한어인 것은 검색에서 제외한다. 단, 남한어의 쓰임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일부 의미만 북한어인 것도 검색한다.
- 기본이 되는 단어가 검색 결과가 없으면 그로부터 나온 파생어나 복합어도 당연히 검색 결과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하가03’에 해당되는 단어를 찾지 못했다면 그로부터 나오는 ‘하가되다, 하가하다’도 당연히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 파생어나 복합어는 검색을 하지 않는다.
- ‘#4비고’에 ‘조사제외’라고 표시된 것들이 있다. 이것들은 별도로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둔 것이다. 검색에서 제외한다.

◎ 네이버에서 검색한다.

- 작업의 일관성을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할 사이트는 네이버로 한정한다.
- ‘통합 검색’으로 검색한다.
- 검색 결과가 지나치게 많으면 고급 검색 방법을 써서 검색 결과를 줄이도록 한다. 그래도 지나치게 많으면 50건까지만 확인한다.(웹 페이지 기준) 50건 이내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검색 결과가 없는 것으로 한다.
- ☞ 검색 엔진이 검색어를 오분석하여 지나치게 검색 결과를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 오분석으로 인한 예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 50건까지 확인하지 않아

도 된다.

◎ 검색어 선택

- 검색단어로 제시된 것을 그대로 검색하되(숫자는 제외) 경우에 따라 검색어를 조정하여 검색하도록 한다.
- 검색 결과가 지나치게 많으면 한자나 외국 문자를 이용해서 검색해도 된다.
- ☞ 검색 결과가 있는 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 검색 중에 검색단어로 찾는 단순한 방법 이외의 방법을 사용했으면 ‘#4비고’에 밝혀둔다.
- 동사나 형용사는 활용형을 감안하여 검색어를 선택한다.
- 남북한의 맞춤법 차이로 인해 표기가 달라진 것은 남한식 표기로 검색한다. 예를 들어 ‘퇴명산봉’은 남한식 표기로는 ‘뇌명산봉’이므로 ‘뇌명산봉’으로 검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풀이 끝에 남한식 표기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그것으로 검색하면 된다.

2. 검색 결과 정리

- ◎ ‘#1검색단어: , #2검색어: , #3검색결과: , #4비고: ’의 형식에 맞춰 정리한다.
 - 새로운 단어를 검색할 때는 한 줄을 비우고 시작한다. 이미 형식으로 제시되었으니 그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 ‘:’ 뒤에 한 칸씩 띄어 쓰는 것에 주의한다.
 - 위의 형식은 나중에 자료 결과를 정리할 때 중요하므로 형식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 #1검색단어:
 - 연구원 사전에 올라 있는 단어가 적혀 있다. 한글과 숫자만 적혀 있다. 그대로 둔다.
- ◎ #2검색어:
 - 실제로 인터넷에서 검색한 단어를 적는다. 여러 개가 있으면 ‘;’로 구분하면서

한 줄에 나열한다.

- 검색하지 않고 넘어간 단어에는 여기에 ‘%’로 표시한다.

◎ #3검색결과:

- 그 단어의 용법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사례를 5개까지 제시한다. URL까지 기록한다.
☞ 대체로 검색 결과 창에 나온 것을 통째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 검색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북한어를 소개한 것이거나 북한 문헌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사례로 제시하지 않는다.
- 사례별로 줄을 바꾸어 한 줄 비우고 제시한다.
- 표 등에서 간단히 나올 경우에는 단어만 제시할 수도 있다.
- 검색 결과는 백과사전, 뉴스, 지식 검색 등 어디서 해당 단어가 나오더라도 상관 없다. URL을 밝힐 수 없는 정보일 때는 ‘백과사전, 오픈 지식’ 등처럼 출처를 알 수 있게 밝히면 된다. 뉴스의 경우에는 뉴스 출처(예, 세계일보 [생활/문화] 2004.05.07 (금) 오후 4:51)를 밝히면 된다.
- 검색 결과가 없을 때는 ‘%’를 제시한다.
- 사전에 풀이된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된 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용법이 발견되면 사례를 제시한다. 그리고 ‘#4비고’에 그런 내용을 밝힌다.

◎ #4비고:

- 검색에서 제외했을 때 사유를 밝힌다. 아래 중에서 하나를 밝힌다.
‘부분의미’: 일부 의미만 북한어이어서 제외한 것
‘맞춤법차’: 맞춤법의 차이로 제외한 것
‘검색통과’: 기본이 되는 단어에서 검색 결과가 없어 거기에 딸린 파생어나 복합어를 검색하지 않은 것
‘조사제외’: ‘북남대역사전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한 것에 표시. 작업자용 파일에 표시해서 배포했음.
- ‘고유명사’: 북한의 지명이나 건축물 등 북한에 고유한 것을 조사에서 제외했을 때
- 검색 중의 특기 사항을 기록한다.

- 사전에 풀이된 것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검색 결과를 제시했으면 ‘다른 의미로 사용된 예들 있음. 4~5번째 예문’이라고 하여 그런 예가 있음과 몇 개의 예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밝힌다.
- 여러 정보를 나열할 때는 ‘/’으로 구분하면서 밝힌다.
- 특기 사항이 없으면 ‘%’로 표시한다.

3. 주의 사항

- 제출에 앞서 ‘#1, #2, #3, #4’의 개수를 헤아려 개수가 맞는지 확인한다.
- 파일 제출
 - 주일마다 500개 범위로 작업을 하여 카페 자료실에 올린다. 제출하지 못할 때는 제출 못하는 사유를 올린다.
empas 카페(북한어, nkoreaword)
 - 제출하는 파일은 앞에 ‘결과’라는 말을 덧붙여 제출한다. 배포된 파일 중에 500개 이상인 것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파일 이름 뒤에 ‘01, 02....’의 순서로 붙여 파일을 만든다.
예) 북한08.hwp => 결과북한0801.hwp, 결과북한0802.hwp
 - 자료실에 파일을 올리면서 파일이름, 검색 결과를 글로 남긴다.
예) 결과북한0801.hwp
조사: 350
부분의미: 50
맞춤법차: 50
검색통과: 25
조사제외: 25
- 의문사항이 있으면 카페 ‘자유게시판’에 올리고 게시판에 글 올렸음을 메일로 알린다.
- 아래아한글 2002로 작업을 한다.

북한어 검토 지침

1. 북한어 검토 대원칙

- 1)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 북한어로 올라 있는 표제어를 각종 자료에서 검색
※ 1999년 편찬 당시 북한어 등재 기준
- 조선말대사전(1992)에 올라 있는 표제어 중에서 당시 기존의 국어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표제어
- 2) 말뭉치, 인터넷, 각종 전문 사전 등에 해당 표제어가 나타나면 남한어로 처리
- 3) 전문어 감수자의 검토 결과 남한어로 돌린 것 반영

2. 북한어 검토를 위한 참조 자료

1) 말뭉치 자료

- 사전 개정 작업을 위하여 문학 작품, 신문, 잡지 등의 말뭉치 구축
- 사전 인용이 가능한 문학 작품 위주의 말뭉치 1,000만 어절
- 쓰임 참조가 가능한 각종 자료 말뭉치 7,000만 어절

2) 인터넷 자료

- 네이버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북한어 표제어 쓰임 확인
- 해당 표제어가 들어간 자료 파악, 출전 등 명시

3) 전문어 감수자 감수 결과 및 전문어 사전

- 동물, 식물, 생물, 의학, 화학, 물리, 수학, 전기 분야는 원고 전체 감수
- 감수 결과 감수자가 남한어로 판단한 것은 남한어로 처리
- 그 외 남한 쓰임 의심되는 북한어 전문어 사전 검토 및 남한어 처리

3. 세부 작업 과정

1) 말뭉치 자료 확인

(1) 말뭉치 자료에서 해당 북한어 표제어가 나타나면 남한어로 처리

<처리 예>

#1영덩똥#2북남#3%#4「부」 별로 하는 일 없이 엄병덤병하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감을 이르는 말.『해는 어찌 그리 {영덩똥} 지나가는지 어느새 저녁이 되고 말았다.《현진건, 무영탑》#5조선말대사전의 용례가 현진건의 용례이므로 남한어로 수정함.

#1여섯새#2북남#3%#4여섯-새[-선새] 「명」 날실 120올로 천을 짜던 일. 또는 그렇게 짠 천. ㄴㅅㅅ새02.『이 절 탑들은 꼭 자네나 나같이 {여섯새} 무명옷을 입은 시골 무지렁이 행색일세.《송기숙, 녹두 장군》#5뜻풀이가 ‘예전에 ○○을 짜던 일’로 되어 있고 말뭉치에 예가 있어 남한어로 수정함.

#1부역장#2북남#3%#4부역-장(賦役場)[부:-짱] 「명」 예전에, 부역을 시키던 장소.『장산곶 {부역장에서도} 이제 죽는 사람이 생길 모양이다.《황석영, 장길산》#5남한 용례 있음

(2) 해당 북한 표제어가 단순 구인 경우 표제어 삭제(남한어의 구로 판단)

#1구걸외고#2표삭#3%#4%#5인터넷에 용례가 나오나 단순 구임. 표제어 삭제함.

#1런결동작#2표삭#3%#4%#5북한어 처리. 남한에서도 쓰임이 다양하게 보임. 무용이나 춤에서만뿐만 아니라 각종 스포츠에서도 ‘연결하는 동작’이면 모두 사용하고 있음. 단순 구로 보아 삭제함.

#1녹두깍지#2표삭#3%#4%#5단순 구. 표제어 삭제함.

(3) 문학 작품은 작가의 출신지를 고려하여 판단

2) 인터넷 자료 확인

(1) 인터넷 자료에 해당 북한어 표제어가 나타나면 남한어로 처리

<처리 예>

#1미생물상#2북남#3%#4미생물-상(微生物相)[---짱] 「명」 『생』 토양, 물, 공기, 동물체와 식물체의 겉면 및 동물과 사람 몸의 여러 부분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의 종류와 수를

통틀어 이르는 말.#5북한어 처리. 인터넷 자료에 근거

#1안전항#2북남#3%#4안전-항(安全港)「명」『해』배가 정치적으로 또는 지리적으로 아무런 제약이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항구.#5북한어 처리.인터넷 자료에 근거. 교통 전문어로 된 것을 해양 전문어로 고침

#1안정도#2북남#3%#4안정-도(安靜度)「명」소란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가 유지되는 정도.#5북한어 처리. 인터넷 자료에 근거

#1권양력#2북남#3%#4권양-력(捲揚力)[귀:냥녕]〔권양력만[귀:냥녕-]〕「명」기중기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짐의 정량(定量).#5북한어 처리. 인터넷 자료에 근거

(2) 인터넷 자료의 신뢰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는 신중히 검토

- 북한의 영향을 받거나 북한의 자료를 다룬 사이트
- 중국 교포 사이트
- 개인 누리집(작성자의 출신 및 성향에 따라)

3) 전문어 감수 결과 및 전문어 사전 확인

(1) 동물 등 8개 분야 전문어 감수 결과 남한어로 처리한 것 반영

<처리 예>

#1가는다리에기좀진드기#2북남#3%#4가는다리에기좀-진드기「명」『동』좀진드기류의 하나. 암컷은 매우 작으며, 흰색이다. 집게발의 안쪽에는 작은 이빨이 있다.(Hypoaspis kimunwani)#5%#6전문어.

#1적외선건판#2북남#3%#4적외선-건판(赤外線乾板)『물』파장이 700nm 이상인 복사선을 감광하는 사진 건판. 망원 사진, 측지 사진, 항공 사진 따위를 촬영하는 데 쓴다.#5%#6전문어.

#1생장물질#2북남#3%#4생장-물질(生長物質)『생』「1」생물의 생장에 관계되는 물질. 개별적 기관들의 신장과 비대, 발육과 생장 따위를 조절한다. 지베렐린, 시토키닌 따위의 화합물이 있다. 「2」 적은 양으로 식물의 생장과 발육을 빠르게 진행시켜 주는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5%#6전문어.

#1바위수염#2북남#3%#4바위-수염(-鬚髯)「명」『식』갈조류 바위수염과의 해조류. 식물체는 둥근기둥 모양의 가는 사상체인데 가지를 치지 않으며 함께 뭉쳐나서 포기 모양을 이룬다. 높이는 8~15cm이고 직경은 1mm 가량 된다. 밑부분은 누런빛 밤색, 윗부분은 검은빛 밤색을 띤다. 조건대 상부의 바위나 들에 무리를 지어 자라는데 한국의 동해와 남해, 중국과 일본 연해, 오�호츠크 해에 분포한다.(Myelophycus simplex)#5%#6전문어.

(2) 원고 검토 중 의심되는 북한 전문어 전문어 사전 참고하여 남한어로 처리

<처리 예>
 #1굳은납#2북남#3%#4굳은-납〔굳은납만[-납-]〕「명」『공』 납땀에 쓰는 납의 하나.
 납과 아연, 알루미늄 따위의 합금으로, 녹는점은 450℃ 이상이다.≡경납「2」.#5‘금속재료대사전’ 참조
 #1익기02#2북남#3%#4익기02(益氣)[-끼]「명」『한』=보기07(補氣).#5한의 전문어 사전에 동의어로 올라 있음.
 #1착색력#2북남#3%#4착색-력(着色力)[-쌩녁]〔착색력만[-쌩녕-]〕『화』 단위 염료의 색이 진한 정도 또는 일정 조건에서 염색했을 때 염료가 스며드는 농도.#5전문어 사전과 인터넷을 참고하여 수정함.

4) 기타

- 북한어와 맞춤법 차이가 나는 남한어 쓰임이 있는 경우에는 남한 형태를 표제어로 추가하고 북한어 뜻풀이 조정

<처리예>
 #1가압여과기#2표추#3가압^여과기(加壓濾過器)『화』 압력을 가하여 불순물을 걸러 내는 기계.#5인터넷 자료에 근거. ‘가압여과기’의 남한 대응어
 #1가압여과기#2뜻수#3~기계.♣가압 여과기.#4‘가압 여과기’의 북한어.#5‘가압 여과기’ 추가에 따름.
 #1녹액#2표추#3%#4녹액(綠液)〔녹액만[노갱-]〕「명」『공』 소다 펄프나 유산염 펄프를 생산할 때 약품 회수를 위하여 배수로에서 나오는 묽은 흰 액에 풀어서 얻어지는 풀색의 용액.#5북한어 처리. 인터넷 자료에 근거.‘록액’의 남한 대응어
 #1록액#2뜻수#3소다 펄프나~용액. ‘풀색액’으로 다듬음.♣녹액.#4‘녹액’의 북한어.#5북한어 처리. ‘녹액’의 추가에 따름

- 기타 남한어로 판단할 수 있는 구 구성 표제어(#5에 근거 명시)

<처리 예>
 #1감광성유리#2북남#3%#4감광성^유리(感光性琉璃)『화』=감광 유리.#5단순 생략 관계
 #1접판용수철#2북남#3%#4접판^용수철(-板龍鬚鐵)『공』=접판 스프링.#5번역 관계의 남한 대응어 있음
 #1구라과공동시장#2북남#3%#4구라과^공동^시장(歐羅巴共同市場)『경』‘유럽 공동 시장’의 음역어.#5음역 관계의 남한 대응어 있음

뜻풀이 일괄 처리 목록 및 기준

※ 2006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항목에 따라 최종 처리가 달라진 경우가 일부 있음.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껌, 사탕, 과자	껌을 과자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지. 과자는 ‘밀가루나 쌀가루에 설탕, 우유 따위를 섞어 굽거나 기름에 튀겨서 만든 음식. 주로 간식으로 먹는다.’라고 뜻풀이되어 있는데 뜻풀이에 따른다면 과자라고 하기 어려울 듯하다. 그런 점에서 ‘사탕’도 마찬가지로 과자라고 볼 수 없다. ‘껌’이나 ‘사탕02’ 모두 ‘과자’의 사전적 의미에 완전히 부합된다고 볼 수 없음. ‘껌’, ‘과자’, 사탕02’ 풀이 검토하여 수정. 관련된 단어들도 필요하면 검토하여 수정. 그러나 모든 과자, 사탕, 껌류를 할 필요는 없을 듯.	- 예전에는 주식 이외에 먹는 간식을 대부분 ‘과자’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밀가루와 같은 곡물가루가 들어간 것만을 ‘과자’라고 하여 다른 종류의 간식거리와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사탕이나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은 과자에서 제외해야 한다. - 주재료가 설탕이나 물엿인 경우는 사탕으로 처리함. - 주재료가 밀가루이거나 밀가루가 들어간 것은 과자로 처리함. 따라서 솜사탕, 아이스크림, 젤리, 캐러멜, 껌 등은 과자에서 제외함. - ‘*정과’의 경우 55개 중 3개만 과자로 뜻풀이되어 있고 나머지는 ‘-설탕이나 꿀에 졸인 음식’이나 ‘-한 정과’로 뜻풀이되어 있어 3개만 ‘-한 음식’으로 수정함.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 명칭 추가 및 뜻풀이 수정 검토. 관련 파일 있음. 표제어 추가 검토	- 관련 파일에 있는 서양의 결혼기념일을 모두 올릴 필요가 없어 우리가 축하하는 기념일만 추가함. - 기념으로 주는 선물의 종류가 현대적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패션 잡화, 보석 등으로 확대된 경우가 많아 그런 경우는 전형적인 것(‘~으로 된 선물’로 뜻풀이)만을 제시함. - 뜻풀이 형식은 ‘서양 풍속에서, 결혼 ○주년을 기념하는 의식. 부부가 서로 ~따위의 선물을 주고받는다.’로 통일함 - 기존 사전에는 동일한 기념일에 대한 명칭이 두 개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두 기념일을 동의어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선물의 종류가 다른 경우: 견혼식, 사파이어혼식/상아혼식, 진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주혼식)와 동의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금강 혼식, 다이아몬드혼식)로 나뉨
낚시	‘*낚시’ 표제어 일괄 검색 하여 뜻풀이 일관성 있게 수정해야 함.	- 낚시의 의미가 ‘[1] 미끼를 꿰어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작은 쇠갈고리’의 뜻일 경우는 ‘낚싯바늘’로 뜻풀이하고 ‘[3] =낚시질’의 의미일 때는 ‘낚시질’이나 ‘낚는 방법’, ‘낚는 일’로 뜻풀이함. 그리고 ‘[2] 모두 갖추어진 한 벌의 고기잡이 도구’일 때에는 ‘낚는 도구’, ‘고기잡이 도구’로 뜻풀이함. <운영> ‘낚시질 도구’도 사용함. - ‘*낚시’가 ‘도구’의 의미를 갖는 경우와 ‘낚시질’의 의미를 갖는 경우와 도구와 낚시질의 의미를 다 갖는 경우를 구별하여 뜻풀이함.
때기	현재 접미사 ‘-때기’는 신체 부위 명칭에 붙어 비하의 뜻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불’, ‘송판’ 등에 ‘-때기’가 붙은 말도 속되게 이르는 말로 풀이가 되어 있음. 다만 물건의 경우에는 ‘속되게’, ‘낯잡다’ 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비하의 의미 없이 그냥 뜻풀이되어 있는 것도 있음. ‘-때기’가 들어간 단어 전체를 검색하여 뜻풀이를 검토한 후, 일괄적으로 수정할 필요 있음. 그리고 이에 따라 접미사 ‘-때기’의 풀이도 수정할 필요 있음.	- 표제어가 사람이든 물건이든 ‘~속되게 이르는 말’로 뜻풀이된 것과 ‘~낯잡아 이르는 말’로 뜻풀이된 것이 모두 있으나 대체적으로 사람과 관련된 것은 ‘속되게 이르는 말’로 뜻풀이되어 있으므로 뜻풀이 형식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통일함. - 물건의 경우는 비하의 의미가 있는 경우는 ‘~속되게 이르는 말’로 뜻풀이하고 비하의 의미 없는 경우(가마니때기: 험 가마니 조각, 거적때기: 험 거적 조각, 나무때기: 조금 길고 가는 다란 나뭇조각)는 그냥 뜻풀이함.
웃놀이	웃놀이 관련 표제어의 뜻풀이가 전혀 일관성이 없음. 시디 뜻풀이 검색에서 ‘웃’ 검색한 후, 관계된 표제어 모두에 대해 일괄 검토해야 함.	- 민속대백과사전 참조함. - 뜻풀이가 ‘웃놀이’와 관련된 것 중 전문어 영역이 운동(『운』)으로 된 것을 민속(『민』)으로 수정함. - 뜻풀이가 ‘웃놀이’와 관련된 것은 민속 전문어 영역(『민』) 추가함. - 뜻풀이에서 ‘웃가락’을 기본 표제어 ‘웃 짹’으로 뜻풀이함. - 웃짹이 ‘짹혀지다’는 ‘젓혀지다’로 통일함.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 옷을 세는 단위로 가락, 짝, 개가 혼용된 경우 ‘개’로 통일함. - 옷판에서 말이 오는 자리(도, 개, 걸, 옷, 모 ... 뒷도, 찌도, 날도 등)는 ‘~번째 자리’로 뜻풀이 형식 통일함. 단 옷판의 꺾이는 자리를 지나는 경우 ‘옷판의 둘레를 따라 처음부터 ~번째 자리’로 자세히 뜻풀이함. - 전문어 영역이 겹칠 경우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영역을 표시함. 예를 들어 ‘옷놀이’나 ‘고누, 장기 따위에서~’로 뜻풀이된 경우 ‘옷놀이’나 ‘고누’는 민속이고 ‘장기’는 운동이지만 전문어 영역은 민속으로 처리함. - 기존 사전에서는 ‘앞발, 뒷발, 짤발, 날발’이 각각 ‘모, 뒷모, 찌모, 참먹이’의 동의어로 처리되어 있는데 민속대백과사전에서는 ‘도’자리부터 ‘모’자리까지가 앞발이고 ‘뒷도’자리부터 ‘뒷모’ 자리까지가 뒷발이고 ‘찌도’부터 ‘찌모’까지가 짤발이고 ‘날도’부터 ‘참먹이’까지가 날발이다. 기존 사전의 뜻풀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 백과사전의 뜻풀이에 따름
외과, 내과, 안과	- ‘외과’ ‘내과’ ‘소아과’ ‘안과’ 등의 뜻풀이가 일관성이 없음. 모두 찾아서 일관성 있게 뜻풀이 수정해야 함. - 뜻풀이가 ‘~의학의 한 분야’, ‘~의학의 한 분과’, ‘~의학의 한 부문’, ‘~의술의 한 부문’, ‘~하는 학문. 의학의 한 분야이다’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분과: 각 전문 과목이나 업무에 따라 나눔. 또는 그렇게 나누어진 과목이나 업무 - 분야: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범위나 부분 - 부문: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	- 대부분의 표제어가 ‘의학의 분과’와 ‘병원의 부서’의 뜻이 모두 있으므로 ‘~하는 의학. 또는 병원의 그 부서’로 뜻풀이함. - 표제어가 의학 분과의 또 다른 하위 분과일 경우 ‘~하는 상위 분과’로 뜻풀이함. 가령 ‘뇌신경외과’는 ‘~하는 외과’로 뜻풀이함. - 표제어가 ‘병원의 그 부서’에 해당하는 의미는 없고 ‘치료 방법’, ‘치료 요법’에 해당하는 의미만 있을 경우에는 ‘~하는 치료 방법’으로 뜻풀이함. 예: 냉동외과, 냉동외과 - 병을 ‘다스리다, 고치다, 치료하다’를 병을 ‘치료하다’로 통일함.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하거나 나누어 놓은 낱말의 범위나 부분 - 부서: 기관, 기업, 조직 따위에서 일이나 사업의 체계에 따라 나뉘어 있는, 사무의 각 부문.	
고혈압/ 고혈압 증	‘고혈압/고혈압증’처럼 ‘증’이 붙은 것과 그렇지 않은 병명 등에 대해 일괄 검토 하여 처리해야 함. 의학 전문어 감수 결과 참조 필요. 의학 전문어 감수 결과가 ‘X증’ 형태가 기본 표제어인지 확인 필요함.	‘X’ 형태와 ‘X증’ 형태가 같은 병명일 경우 ‘X’ 형태를 기본 표제어로 삼아 뜻풀이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일관성이 없는 《표준국어대사전》의 ‘X’와 ‘X증’ 표제어는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X’ 형태와 ‘X증’ 형태가 같은 병명인데 ‘X’ 형태가 기본 표제어일 경우: 그대로 ‘X’ 형태를 기본 표제어로 두고 동의어 처리함. (2) ‘X’ 형태와 ‘X증’ 형태가 같은 병명인데 ‘X증’ 형태가 기본 표제어일 경우: ‘X’ 형태를 기본 표제어로 삼고 동의어 처리함. (3) ‘X’ 형태와 ‘X증’ 형태가 같은 병을 가리키는데도 각각 뜻풀이된 경우(고혈압:고혈압증, 빈혈:빈혈증): ‘X’ 형태를 기본 표제어로 삼고 동의어 처리함. (4) ‘X증’ 형태가 ‘X’ 형태의 북한어일 경우: 그대로 둠. (5) ‘X’ 형태가 ‘X증’ 형태의 북한어일 경우: 그대로 둠. (6) ‘X증’ 형태는 의학 전문어이고 ‘X’ 형태는 한의 전문어로 전문어 영역이 다르고 뜻풀이도 조금 다를 경우: 그대로 둠. (7) ‘X증’ 형태는 병이나 증상이고 ‘X’ 형태는 그러한 병이나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 또는 원인 물질일 경우: 그대로 둠. (8) ‘X증’ 형태만 병명이고 ‘X’ 형태는 일반어일 경우: 그대로 둠. (9) ‘X증’ 형태는 의학 전문어(병명)이고 ‘X’는 다른 영역의 전문어일 경우: 그대로 둠. (10) 병명으로 ‘X증’ 형태에 대해 ‘X’ 형태가 가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능한데 없는 경우 표제어 추가함. (예)임신 중독-임신 중독증.
바라밀	‘~바라밀’ 일괄 검색 하여 뜻풀이 일관성 있게 수정해야 함. 검색 결과 17개 표제어 추출됨. 이 중에서 ‘바라밀’, ‘선나바라밀’, ‘인옥바라밀’, ‘지혜바라밀’은 동의어로 돌려져 있음. 다른 ‘~바라밀’처럼 기본 표제어 수정해야 할 듯함. 그것부터 처리하고 뜻풀이 일괄 수정할 것. ‘수행’의 가짓수에 따라 ‘사바라밀’, ‘육바라밀’로 나뉨. 뜻풀이 중 어떤 것이 ‘사바라밀’의 하나이고, ‘육바라밀’의 하나인지 신중히 검토 후 처리할 것. 홍법원의 <불교대사전> 참고할 것.	(1) 표제어 - ‘X’와 ‘X바라밀’이 모두 표제어로 있을 때에는 ‘X’ 형태를 기본 표제어로 정한다. 그러나 ‘X’는 기존 사전이나 불교 사전에 없고 ‘X바라밀’만 있을 경우에는 ‘X바라밀’만을 표제어로 한다. 이에 따르면 ‘바라밀’의 하위 표제어는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① ‘사바라밀’의 하위 바라밀은 ‘<u>X바라밀</u>(상바라밀, 낙바라밀, 아바라밀, 정바라밀)’ 형태를 기본 표제어로 잡는다. ‘사바라밀’은 ‘X(상, 낙, 아, 정)’ 형태는 기존 사전이나 불교 사전에 모두 없고 ‘X바라밀(상바라밀, 낙바라밀, 아바라밀, 정바라밀)’ 형태가 불교 사전에 있으므로 ‘X바라밀’ 형태를 기본 표제어로 삼는다. ② ‘오바라밀, 육바라밀, 십바라밀’의 하위 바라밀은 ‘X’ 형태를 기본 표제어로 잡는다. ‘오바라밀, 육바라밀, 십바라밀’의 하위 바라밀은 ‘사바라밀’ 하위 바라밀과는 달리 ‘X’ 형태는 기존 사전이나 불교 사전에 모두 있으나 ‘X바라밀’은 기존 사전에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다. 그러므로 ‘X’ 형태를 기본 표제어로 삼는다. 또한 ‘X’ 형태와 동의어인 ‘X바라밀’을 표제어로 추가하고 동의어 처리한다. 다만, ‘십바라밀’의 하위 바라밀 중 ‘<u>X바라밀</u>’ 형태만 불교 사전에 있는 표제어가 있는데, 이들은 ‘X바라밀’ 형태를 표제어로 추가한다. (2) 뜻풀이 - 바라밀의 하위 바라밀 뜻풀이는, ‘사바라밀의 하나’ 또는 ‘오바라밀의 하나’와 같이 풀이지 않고 ‘사바라밀’, ‘오바라밀’, ‘십바라밀’ 등을 참고 어휘로 제시한다. 만약, ‘X바라밀’이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오바라밀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육바라밀의 하나이고 십바라밀의 하나라면, 뜻풀이에 ‘오바라밀의 하나, 육바라밀의 하나, 십바라밀의 하나’ 등으로 뜻풀이하지 않고, ‘오바라밀, 육바라밀, 십바라밀’을 참고 어휘로 제시한다.
주의자	‘*주의자’ 전문어 영역 표시 및 뜻풀이 일관성 있게 처리해야 함. =>개별 판단을 하되, 일반적인 ‘*주의자’는 되도록 일반어로 처리함. 예) 속명론=운명론. 속명론자: 속명론을 믿고 주장하는 사람. 운명론자: 모든 일은 미리 정하여진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나므로 인간의 의지로는 바꿀 수 없다는 주의를 믿거나 주장하는 사람.(‘운명론’의 뜻풀이를 반복함)	(1) 뜻풀이 ① ‘X주의/X론’이 <u>사상이나 이론</u>일 경우 ‘X주의자/X론자’는 ‘X주의/X론을 믿거나 주장하는 사람’으로 뜻풀이하고, ‘X주의/X론’이 <u>경향이나 태도</u>일 경우 ‘X주의자/X론자’는 ‘X주의/X론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으로 뜻풀이한다. ② 다만, ‘X주의자/X론자’가 ‘X주의/X론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으로 뜻풀이하기 어려울 경우 ‘~하는 사람’으로 뜻풀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사전의 풀이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둔다. (2) 문어 영역 ① ‘X주의자/X론자’에는 전문어 영역 표시를 하지 않고 일반어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비관론자, 낙관론자) ② 다만 ‘X주의자/X론자’가 일반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완전히 특수한 분야에서만 사용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전문어 영역을 표시한다. 이때 전문어 영역은 ‘X주의/X론’과 동일하게 표시한다. 예) 편재론자:편재론자:『기2』 편재론을 믿거나 주장하는 사람.(‘편재론’의 경우 ‘그리스도 편재론/편재론자’와 같이 기독교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가톨릭 인·지명	- 기독교 열두 사도 이름 및 뜻풀이 일관성 검토. 또한 이에 해당하는 천주교식 이름이 일부만 올라 있고 뜻풀이도 일관성 없음. 이 또한 일괄 검토 하여	(1) 인명, 지명, 편명이 기독교식과 천주교식이 다른 경우: 기독교식 인명, 지명, 편명에서 뜻풀이하고 천주교식 인명에서는 ‘ <u>가톨릭에서 ~을 이르는 이름</u> ’으로 뜻풀이하고 지명, 편명에서는 ‘ <u>가톨릭에서 ~을 이르는 말</u> ’로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모두 올려야 함. 예) ‘마태오’, ‘바울로’는 있고 ‘요왕’은 없음. 또 ‘마태오’와 ‘바울로’의 뜻풀이도 달리 되어 있음. - 기독 및 가톨릭 인명, 지명 표기, 뜻풀이, 표제어 등재 등 일관성 없음. 모두 검토해야 함. - 따로 추출한 파일 있음. 성서인·지명 목록과 우리 사전 목록을 비교 검토 한 후 기준을 정하여 처리해야 함.	뜻풀이함. (2) 십이 사도나 비중 있는 인명 중 기독교식 인명만 있는 경우: 천주교식 인명 추가. 뜻풀이는 ‘가톨릭에서 ~을 이르는 이름’으로 뜻풀이함. 기독교식 인명에서는 천주교식 인명을 참고 어휘로 제시함. (3) 기독교식 지칭어만 있는 경우: 천주교식 지칭어 추가. 뜻풀이는 ‘가톨릭에서 ~을 이르는 말’로 뜻풀이함. 기독교식 지칭어에서 천주교식 지칭어를 참고 어휘로 제시함.(야훼/여호와) (3) 십이 사도의 뜻풀이가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 ‘십이 사도의 한 사람’ 등 일관성 없음: ‘십이 사도의 한 사람’으로 뜻풀이함. (4) 기독교식 편명만 있는 경우: 천주교식 편명 추가. 뜻풀이는 ‘가톨릭에서 ~을 이르는 말’로 뜻풀이함. 기독교식 편명에서는 천주교식 편명을 참고 어휘로 제시함.(예: 마가복음) (5) 편명의 뜻풀이가 바로 위의 상위 개념으로 뜻풀이되기도 하고 그보다 더 위의 상위 개념으로도 뜻풀이될 경우: 바로 위의 상위 개념의 하나로 뜻풀이함. 마가복음: 마가가 쓴 신약 성경의 한 편. → 복음서 가운데 하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신약 성경의 한 권→사대서한 가운데 하나. (사대서한: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6) 인명, 지명, 편명 이외(기도명, 행사명 등)의 기독교식 용어와 천주교식 용어가 짝을 이루는 경우 기독교식 용어에서 천주교식 용어를 참고 어휘로 제시한다. 천주교식 용어에서는 ‘가톨릭에서 ×를 이르는 말’ 또는 ‘가톨릭에서, 예전에 ×를 이르던 말’로 뜻풀이한다.(사도 신경/종도 신경)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7) 편명에서 같은 계열의 단어 중 빠진 표제어: 표제어 추가함.('미가서' 추가: 12개의 소예 언서들 중 미가서만 빠져 있음.) (8) 편명에서 일정한 부류로 묶을 수 있는 서로 연관된 표제어들이 뜻풀이에서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없을 때: 상위 개념어 추가함.(예: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으로 묶을 수 있으므로 '목회 서신'을 표제어로 추가함.) (9) 편명에서 하위어의 뜻풀이: '상위어의 하나'로 뜻풀이함.(디모데 전서: 목회 서신의 하나) (10) '×천신(天神)'류의 IC 분석이 일관성 없음. '×^천신'으로 분석된 표제어를 '×-천신'으로 수정함.(구품^천신/권품-천신 등) (11) '×천사(天使)'류의 IC분석 일관성 없음. '구품^천사'만 띄어 쓰고 모든 천사류는 붙여 쓰고 있음. '×^천사'로 분석된 표제어를 '×-천사'로 수정함.(구품^천사/권품-천사 등)
도라지/ 도랏	'도라지'와 '도랏'이 결합하는 단어의 문제 '도랏나물', '도랏생채' 등은 '도라지나물', '도라지생채'의 준말로 등재되어 있고 '도랏저냐', '도랏정과' 등은 '도라지저냐', '도라지정과' 등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이들만 표제어로 있음. 인터넷 등에서는 '도랏저냐', '도라지저냐'가 모두 나옴. ☞ 추가 가능한 표제어 수집, 뜻풀이 검토, 기준 마련.	(1) '도랏-' 형태를 '도라지-' 형태의 준말로 뜻풀이한다. (2) 사전에 '도라지-' 결합 형태만 있고 이에 대해 '도랏-' 결합 형태가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은 경우 준말로 추가한다.('도라지장아찌'에 대해 '도랏장아찌' 추가) 다만, '도랏-' 결합 형태가 음식 사전이나 인터넷 등 어디에서도 그 쓰임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추가하지 않는다. (3) 사전에 '도랏-' 결합 형태만 있고 이에 대해 '도라지-결합' 형태가 없는 경우 기본 표제어로 추가한다.('도랏저냐'에 대해 '도라지저냐' 추가) (4) '길경-' 결합 형태는 '도라지-' 결합 형태의 동의어로 처리함. (5) 음식백과사전에 나오는 음식명 추가(도라지산적, 도라지김치, 도라지식초 등)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색채명	‘연주황색’을 ‘살색’으로 바꾼 것을 포함하여, 2005년 5월 18일에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 고시한 색채 명칭 참조하여 사전의 색채 명칭 정비해야 함.	1. 기본색 이름 ① 기술표준원에서 제시한 15가지(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분홍, 갈색, 하양, 검정, 회색) 색 외에 ‘기본색의 하나’로 뜻풀이되어 있는 것(뜻풀이 「2」가 미술 전문어로 ‘기본색의 하나’로 뜻풀이된 경우: 감청, 굴색, 남보라, 노랑연두, 녹색, 바다색, 붉은보라, 연지)은 그대로 기본색으로 둔다. ② ‘X’가 ‘X 색’과 ‘X 빛’과 동의어인 경우 대부분 X 색과 X 빛을 주표제어로 삼고 있으므로 그대로 둔다. - ‘X’와 ‘X 색’이 동의어일 경우 ‘X 색’을 주표제어로 삼는다.(주황:주황색, 분홍:분홍색 등에서 ‘주황색, 분홍색’에서 뜻풀이함.) - ‘X’와 ‘X 빛’이 동의어일 경우 ‘X 빛’을 주표제어로 삼는다.(주황:주황빛, 분홍:분홍빛 등) ③ 기술표준원에서 기본색을 ‘녹색’에서 ‘초록’으로 ‘흰색’에서 ‘하양’으로 수정함에 따라 ‘녹색’과 ‘초록색’(X’에 대해 ‘X 색’처럼 ‘-색’이 붙은 표제어를 주표제어로 삼음에 따라 초록에 대해 초록색을 주표제어로 삼음), ‘흰색’과 ‘하양’을 동의어로 처리하되 ‘초록색’과 ‘하양’을 기본 표제어로 삼는다. ④ 기본색 중 삼원색과 검정, 하양은 빛과 색을 다 나타내는 ‘-ㄴ 빛깔이나 물감’으로 뜻풀이한다. ⑤ 표제어가 ‘X 색’, ‘X 빛’인 경우는 ‘-색’, ‘-빛’으로 뜻풀이한다. ⑥ 뜻풀이가 ‘-색. 또는 그 물감’, ‘-색. 또는 그런 물감’, ‘-색. 또는 그런 색의 물감’ 등으로 형식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 ‘-색. 또는 그런 색의 물감’으로 뜻풀이한다. ⑦ 표제어 ‘X 색’과 ‘X 빛’의 뜻풀이 형식이 ‘-와 같이 -색’ 또는 ‘-와 같이 -빛’처럼 ‘부사+명사’ 구조로 된 경우는 관형사+명사 구조로 바꾼다.(‘-와 같은’으로 뜻풀이하는 것은 뒤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에 관형형이 오지 않고 직접 색 이름이 왔을 경우 ‘와 같은 검정’은 가능하나 ‘와 같이 검정’은 불가능하므로) ⑧ 기존 사전에서 표제어 X에 대해 ‘X색’과 ‘X빛’ 서로 관련성이 없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초록:초록색:초록빛, 주황:주황색:주황빛, 보라:보라색:보라빛, 자주:자주색:자주빛 등) 동의어 처리함. ⑨ 모음교체에 따라 파생된 색깔을 참고 어휘로 제시한다(노랑:누렁, 파랑:퍼렁). ⑩ 표제어 ‘색’과 표제어 ‘-빛’은 비슷한말로 제시한다.(빨간색:빨간빛, 붉은색:붉은빛, 남색:남빛) ⑪ ‘X색’ 형태는 표제어에 있는데 ‘X’가 없는 경우 ‘X’가 표준기술원에서 제시한 관용색 이름일 경우 표제어로 추가한다.(‘꽃분홍색’은 표제어에 있고 ‘꽃분홍’은 표제어에 없음.) ⑫ 주표제어 수정에 따라 뜻풀이에 쓰인 ‘녹색’은 ‘초록색’으로 ‘재색’은 ‘회색’으로 ‘젯빛’은 ‘회색빛’으로 수정한다. 2. 계통색 이름 ① 계통색 이름 중 기본색 이름의 앞에 수식어(명도(밝은/어두운), 채도(선명한/탁한), 색상(빨간/파란)을 나타내는)를 넣어 표현하는 경우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므로 표제어로 올리 지 않으나(빨간 주황, 노란 하양, 진한 연두 등) 하나의 단어인 경우는 표제어로 올린다.(황회색, 회보라, 회적색, 회록색, 회청록, 회자주, 회분홍, 적회색, 갈회색) ② 계통색 이름 중 북한어로 된 것은 남한어로 돌린다.(회황색) 3. 관용색 이름 ① 기술표준원에서 발표한 관용색 모두 추가하기로 한다. ② 뜻풀이 방식은 기존 관용색 풀이 방식을 그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대로 따른다. - 관용색 이름이 ‘○○색’인 경우 ‘○○’가 표제어에 있으면 그 뜻풀이는 ‘○○의 빛깔과 같은 계통색 이름’으로 뜻풀이한다. 계통색 이름은 기술표준원 자료를 따르되, 우리 사전에서 ‘○○색’을 기본으로 하여 돌린 경우는 기본 표제어로 풀이한다. 예> 사과색: 사과의 빛깔과 같은 진한 빨강. 예> 진달래색: 진달래의 빛깔과 같은 밝은 자주색. - 계통색에 ‘흰 분홍’, ‘노란 주황’ 등과 같이 올라 있는 경우는, ‘하얀빛을 띤 분홍색’ ‘노란빛을 띤 주황색’ 등과 같이 풀이한다. 그리고 이때에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앞에도 ‘○○와 같은’ 대신에 ‘○○와 같이’로 수정한다. 예> 진주색: 진주의 빛깔과 같이 분홍빛을 띤 하양. - 뜻풀이는 기술표준원 자료의 계통색 이름을 최대한 반영하되, 국어사전의 풀이 방식과 다른 표제어와의 차별 풀이 등을 위하여 사전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풀이한다. ③ 이미 올라 있는 관용색 중 기술표준원 자료와 풀이가 다른 경우, 기술 표준원의 계통색을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문맥이 자연스럽게 수정함. ④ 이미 표준사전에 미술이나 화학 전문어로 올라 있는 경우 - 일반 색상어 이름을 뜻풀이 「1」에 추가하고 전문어를 뜻풀이 「2」로 돌림. 하나의 풀이에 ‘물감 또는 그런 색’과 같이 포괄적으로 풀이된 경우는 다의어로 분할하여 동일하게 처리함. - 일반어를 추가했으므로 표제어 띄어쓰기는 붙이는 것으로 수정. 예> 프러시안*블루 → 프러시안-블루 - 전문어 영역은 원래의 것을 따르고, 확실한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화합물의 경우 ‘화학’으로 한다.
전문어 의 방언	- 지침에 따르면 전문어에서는 옛말, 방언을 등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자료는 언어 영역에서 옛 자모 앞에 전문어 영역을 주고 있다. - 또한 일부 표제어는 <u>옛말에 전문어 영역을 주고 있고</u>, 대다수는 주지 않고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여 일관성 있게 수정해야 한다. - 방언의 경우는 더해서 해당 표준어가 전문어인 경우 방언에도 동일하게 전문어 영역 표시를 주고 있다. 검토해야 한다.	1. 원칙적으로 옛말에는 전문어 영역을 주지 않는다. 즉, 전문어에서 뜻풀이 형식이 ‘-의 옛말’인 경우 전문어 영역을 삭제한다. 뜻풀이가 ‘-의 옛말’로 된 것(8342개) 중 전문어 영역(53개)이 있는 것만 검토한 결과 옛말이면서 전문어인 경우는 1개(염교01)뿐이다. (‘상세검토’에서 ‘표제어뜻풀이, 포함할 문자, 의 옛말, 그리고, 전문어, 정보 있음, 식물’ 따위로 53개 전문어 영역을 검토함. ※사전 시디에서 전문어 영역을 동물로 검토할 때 언어로 검색됨) 2. 뜻풀이 형식이 ‘「옛」-의 옛말’인 경우는 전문어 영역을 삭제하고 고어 용례가 반드시 들어간다. 따라서 고어 용례가 있는 표제어는 뜻풀이 형식을 ‘「옛」-의 옛말’로 수정한다. 3. 뜻풀이 형식에 ‘옛’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경우는 옛말 영역 표시 ‘「옛」’이 없고 뜻풀이 형식이 ‘-의 옛말’이 아니므로 전문어 영역을 줄 수 있다. 4. 원칙적으로 방언에는 전문어 영역을 주지 않는다. 즉, 전문어에서는 뜻풀이 형식이 ‘「방」-의 방언’인 경우 전문어 영역을 삭제한다.
친족 호칭어	호칭어, 지칭어, 높임말, 낮춤말, 평어 등 풀이에 일관성 없음. 정보 자체가 틀린 것도 많음. 기초 단어 풀이 수정에 따라 한자어 동의어도 일괄 수정해야 함.	1. 친족어는 그 호칭어와 지칭어를 ‘-을 부르는 말’과 ‘-을 이르는 말’로 구별하여 뜻풀이한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는 호칭어와 지칭어로 가능하나 그 동의어인 조부는 지칭어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형수, 제수, 며느리, 장인은 지칭어만 가능하고 호칭어는 될 수 없다. 그리고 아가(시부모가 며느리에게)는 지칭어는 될 수 없고 호칭어로만 가능하다. 2. 지방에 따라 지칭어와 호칭어가 다른 경우 표준화법에 준하여 그 호칭어와 지칭어를 정하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고 나머지는 지방에 따라 방언으로 뜻풀이한다.(평양 지방에서 장인을 부르는 말을 ‘아버님’이고 함북에서는 ‘장인’, 함남에서는 ‘아버지(님)’ 평남에서는 ‘가시아바지’, ‘장인어른’이고 황해도에서는 ‘장인어른’이고 충북에서는 ‘장인어른, 아버님, 빙부님’이고 전북에서는 ‘쟁인어른, 빙장님, 아버지(님)’, 전남에서는 ‘빙장씨, 쟁인어른, 아버지’ 등이다.) 3. 표제어가 지칭어이면서 호칭어인 경우 ‘<u>이르거나 부르는 말</u>’로 뜻풀이하지만 지칭어와 호칭어를 묶을 수 없는 경우는 하나의 표제어 안에서 명사와 감탄사로 구별하여 뜻풀이한다. 4. 지칭어의 뜻풀이 형식이 ‘-을 이르는 말’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가능한 ‘-을 이르는 말(지칭어)’ 또는 ‘<u>이르거나 부르는 말(지칭어이면서 호칭어일 때)</u>’로 통일한다. 5. 나를 기준으로 부모나 조부모 등(직계 조상)은 성별을 기준으로 반대말로 처리한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단, 표제어가 ‘친(親)-’ 계열과 ‘외(外)-’ 계열로 대립되는 단어는 예외이다. 즉, 친할머니의 반대말은 친할아버지가 아니라(성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외할머니이다. 단, 표제어가 ‘시(嫗)-’ 계열과 ‘친정(親庭)-’ 계열로 대립되는 단어도 예외이다. 즉, 시어머니의 반대말은 시아버지가 아니라(성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친정어머니이다. 6. 나를 기준으로 직계 조상이 아닌 경우는 성별을 기준으로 참고 어휘로 처리한다. 장인: 장모 7. 표제어가 뜻풀이에 들어가는 말을 참고 어휘로 제시하는 경우 표제어의 반대말이 들어가는 말을 참고 어휘로 제시하지 않는다. 8. 각각 반대말이 들어간, 뜻풀이 형식이 같은 표제어들은 반대말로 처리함. 즉, 두 표제어가 반대말인 경우 두 표제어가 각각 들어가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는 같은 형식으로 뜻풀이된 표제어는 반대말로 제시한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반대말인 경우 선대부인과 선대인은 반대말로 처리한다. 9. 같은 계열의 단어(항렬이 같은 형제, 자매)들의 뜻풀이 형식을 통일하고(언니, 오빠, 누나, 누이, 형) 서로 참고 어휘로 제시한다. 10. 참고 어휘로 제시하는 같은 계열의 단어란 항렬이 같으면서 서열(손위나 손아래나)이 다른 경우이다. 따라서 성별이 다른 경우는 참고 어휘로 제시할 수 없다.(큰아버지에 대해 큰어머니는 참고 어휘가 될 수 없다.) 11. 촌수가 같은 손위 서열과 손아래 서열은 참고 어휘로 제시한다. 12. 표제어가 ‘친(親)-’ 계열과 ‘외(外)-’ 계열이면서 뜻풀이가 ‘아버지의.’ 계열과 ‘어머니의.’ 계열인 경우 서로 반대말로 제시한다(친삼촌외삼촌, 친손녀, 외손녀, 친손자:외손자, 친할머니:외할머니). 단 뜻풀이가 ‘아버지의.’ 계열: ‘어머니의.’ 계열인데 표제어가 ‘친(親)-’ 계열: ‘외(外)-’ 계열이 아닌 경우는 참고 어휘로 제시한다(고모: 이모). 13. ‘내종×, 외종×’은 ‘~을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풀이하고, ‘고종×, 이종×’은 서로 참고 어휘로 제시한다. 14. 높임말이나 낮춤말이 있는 경우 관련 어휘에서 보여 준다.(아버지에서 높임말로 아버님과 낮춤말로 아버를 보이는 것처럼) 15. 표제어의 짝이 맞지 않는 경우 새 표제어 추가한다.(작은아버지에 대해 큰아버지는 있는데 작은아비에 대해 큰아비는 없다.)
품계, 관직	품계, 관직 등을 나타내는 역사 전문어 일괄 검토(상대등~힐지) 참고문헌: 정신문화연구원, 한민족대백과사전	1. 우리나라의 기관명, 관직명과 품계명만 수정한다.(중국의 관직명과 품계명이 표제어마다 뜻풀이가 맞지 않는 경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음.) 2. 표제어가 우리나라의 관직, 품계이면서 중국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의 관직, 품계일 경우 다른 표제어의 뜻풀이를 참조하여 중국 관직, 품계의 뜻풀이를 추가함.(가능한 경우만 추가함.) 이때 중국의 관직명과 품계명은 뜻풀이 형식과 체계를 맞출 수 있는 데까지만 수정함. 3. 달리 이르는 말이 여럿일 때 서로 참고 어휘로 보여 준다. 4. 한쪽 뜻풀이에서 관련성을 제시한 경우 다른 쪽에서 참고 어휘로 제시한다. 5. 같은 비중을 가지는 관직명이나 품계명이 표제어로 다 오르거나 다 빠진 경우는 그대로 두지만 일부만 오르고 일부만 빠진 경우, 빠진 것을 추가한다. 6. 뜻풀이 형식을 통일한다. ① 명칭(또는 그 해당 기관, 관직 등)이 없어진 경우 뜻풀이 형식은 ‘-년에 없앴다’로 통일한다. ☞ ‘폐하였다’류(63개)보다 ‘없앴다’류(254개)의 표현이 훨씬 많음 ② (관아나 벼슬의) 말은 업무에 대한 뜻풀이 형식은 ‘말아보다’로 통일한다. ☞ ‘말아 하다’류보다(280개) ‘말아보다’류(1704개)의 표현이 훨씬 많음 ③ 명칭(또는 그 해당 기관, 관직 등)이 처음 생긴 경우 ‘관아’는 ‘설치하다’로 뜻풀이하고 ‘벼슬’은 ‘두다’로 뜻풀이한다. ④ 같은 계열의 표제어는 뜻풀이 형식을 통일한다(일품~구품).
어원의 기호 사용	불교 음역어의 경우 어원란에 보이는 산스크리트어 앞에는 < 기호를 써야 하나 빠진 것이 많음. 나무 등.	#1나무04#2어수#3<산Namas#4<&산Namas#5일괄 처리. 어원 앞에 꺾쇠(<) 넣어 줌.
미크론/ 마이크 미터	‘생물’ 분야에서 단위 ‘미크론(μ)’은 현재 사용되지 않음(감수자 의견)	‘미크론’은 모두 ‘마이크로미터(μm)’로 수정함. 풀이에서 기호는 앞에서 한 번만 제시함.
풀이에 서의 중,	뜻풀이에 ‘중’, ‘스님’, ‘승려’가 혼재됨. 현재 ‘중’은 비하하는 의	- ‘중’을 ‘승려’로 고치는 경우는 『불교』, 『역사』, 『인명』 등의 전문어이다. 일반어의 경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스님, 승려	미가 있다고 뜻풀이되어 있고 ‘스님’은 ‘중’의 높임말로 되어 있으므로, 가장 중립적인 ‘승려’로 일관되게 수정해야 함.	우도 고쳐서 어색하지 않다면 ‘승려’로 고치는 것이 원칙이나, 표제어 자체가 낯잡는 말이라면 ‘중’으로 두는 게 맞다. 또한 ‘땡추중’과 같이, 표제어 구성 성분이 ‘OO중’이고 풀이를 ‘승려’로 대체할 수 없다면 ‘중’으로 두어야 한다. - 속담, 관용구 풀이에 쓰인 ‘중’은 ‘승려’로 고치지 않는다. 속담이나 관용구 본래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글 맞춤법 정보	‘비루스’, ‘그래프’ 등이 들어간 북한어에서, 맞춤법 정보가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음	- ‘○의 북한어’로 풀이된 ‘○’가 표제어로 있으면, 정보가 중복되므로 한글 맞춤법 정보는 삭제한다. - 사이시옷, 두음법칙 등 남북한 표기가 다른 데서 오는 한글 맞춤법 정보는 제시한다.
쓰여지 다, 씩어지 다	‘쓰여지다’, ‘씩어지다’ 일괄 검토하여 ‘쓰이다’, ‘씩다’ 등으로 수정해야 함. 오타기 검토 작업 시 ‘쓰여진’만 검토했음. ‘쓰여진’을 제외한 다른 유형도 나옴	상세검색 → 검색대상: 표제어뜻풀이 → 정보유형: 포함할 문자 → 검색정보: 쓰여져, 쓰여지, 쓰여질, 쓰여졌, 씹어져, 씹어지, 씹어진, 씹어질, 씹어졌. ☞ ‘쓰여’, ‘쓰이지’, ‘쓰인’ 등으로 일괄 수정.
머리가 슴부-> 두흉부	뜻풀이에 북한어 ‘머리가슴부’가 쓰인 경우가 많음. 목록 확보하여 모두 수정해야 함. 기본 표제어를 아예 ‘머리가슴부’로 바꾸자는 검토자 메모 내지 집필자가 있으나, 동물 감수자가 ‘머리가슴부’를 그대로 북한어로 두었으므로 모두 ‘두흉부’로 바꾸어야 함.	뜻풀이 상세 검색하여 ‘두흉부’ 쪽으로 일괄 수정함.
날/생	‘날-’과 ‘생-’으로 시작되는 단어들 뜻풀이 일괄 검토 할 것. 많은 경우 ‘날감자=생감자’처럼 동의어 처리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또 동의어라 해도 기본 표제어 일관성 없음. 검토하여 처리 필요	1) ‘날05’, ‘생06’의 뜻풀이는 현재의 뜻풀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날X’, ‘생X’류 표제어들을 검토한 결과 여기에서 확인되는 의미 중 누락된 다른 의미가 있었으므로 이를 ‘날05’, ‘생06’의 뜻풀이에 추가하였다. #1날05#2뜻추#3%#4「5」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경험이 없어 어떤 일에 서투른, 익숙하지 못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날뜨기】/{날짜}.#5일괄 처리. ‘날뜨기’, ‘날짜02’ 등의 단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들 어휘에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붙어있는 ‘날.’의 뜻풀이가 없음. 따라서 이를 추가함. #1생06#2뜻추#3%#4「7」((고기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얼리지 아니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생고기}/{생갈치}.§#5일괄 처리. 음식점의 차림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고기의 ‘생.’은 ‘날고기’의 ‘날.’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며, 기존의 ‘생06’ 뜻풀이에 도 없는 것이어서 추가.). ‘날05’, ‘생06’의 뜻풀이를 수정하지 않은 이유는 아래와 같다. <수정 사유> ‘날05’의 뜻풀이 ‘「1」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아니한’을 ‘생06’과 맞추어 ‘말리거나 익히지 아니한’, ‘가공하지 아니한’으로 뜻풀이 분할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였으나, ‘날.’과 결합한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본 결과 이들이 별도의 의미로 배타적으로 쓰인 예가 발견되지 않고 적어도 둘 이상의 의미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생06’과 균형이 맞지 않아도 기존 사전의 처리를 그대로 두었다. 2) ‘날X’, ‘생X’류의 뜻풀이에 쓰는 술어는 ‘날05’, ‘생06’의 뜻풀이를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뜻풀이의 통일성을 기하고, 각 단어들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 포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들 단어의 해당 분야에 따라 특수한 의미 기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날05’, ‘생06’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술어를 달리 쓰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생.’과 결합한 단어 중 ‘생새우’, ‘생도라지’ 등이 예외적으로 ‘날05’의 뜻풀이「1」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들이었는데, 이 경우도 ‘생06’에 맞추어 뜻풀이를 분할하지 않고 ‘날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05'와 같이 처리하였다. 3) '날X', '생X'류 단어의 처리 기준 (1) '날X, 생X'가 모두 표제어로 올라 있는 경우, ① '날X', '생X'의 의미가 같고 어느 한쪽의 빈도가 현저하게 높으면, 빈도가 높은 쪽을 기본 표제어로 하여 풀이한다. ② '날X', '생X'의 의미가 같고 두 표제어의 빈도가 유사한 경우, 순우리말 표제어인 '날X'를 기본 표제어로 하여 풀이한다. ③ 뜻풀이의 일부만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뜻풀이 중 빈도가 높은 쪽에서 뜻풀이를 한다. ④ '날X, 생X'의 의미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풀이한다. (2) '날X', '생X' 중 어느 하나만 표제어로 올라 있는 경우, ① 실제로 '날X' 또는 '생X' 형태로 대응되는 동의어가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실제 쓰임이 확인되면 표제어를 추가한다. 기본 표제어 설정과 뜻풀이는 위 3)의 기준에 따른다. ② 대응되는 날X', '생X' 동의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대로 둔다. (3) 날X'이나 '생X'가 북한어로 올라 있으나 전문 사전 등을 참고한 결과 남한어임이 확실할 경우에는 남한어로 표제어를 수정한다. 또한 이에 대응되는 '날X'나 '생X'가 있을 경우 기본 표제어 설정과 뜻풀이는 위 3)의 기준에 따른다.
직(職)	'-직(職)'으로 끝나는 단어 뜻풀이 검토 필요. 일관성 없음.	1) '직06'의 뜻풀이 처리: '직(職)'이 결합한 'X직(職)'류 표제어에서 접사적인 성격을 보이는 '직(職)'은 접미사 표제어로 추가하지는 않고 '직06'의 뜻풀이에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문법 정보를 주고 뜻풀이를 추가한다.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직06’에 수정, 추가된 뜻풀이> ① 직06 「3」 은 ‘직책’과의 동의 관계를 끊고 ‘맡은 직위나 직무’로 독자 풀이한다. 기존 뜻풀이에는 ‘직책’만 올라 있었으나 ‘직책’은 엄밀히 말해 ‘직무상의 책임’이지 ‘직위’ 그 자체인 것은 아니며, ‘직위’의 경우에는 ‘직책’과 달리 ‘-를 다하다’와 공기하지 않으므로 ‘직위’ 자체의 의미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따라 ‘직위’와 ‘직책’을 엄밀히 구분해 쓰기로 한다. ②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직무’, ‘직분’, ‘직업’, ‘직위’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추가한다. 2) ‘X직’류 표제어의 뜻풀이 처리 ‘X직’에서 ‘직’이 ‘직무, 직업, 직분, 직책, 직위’ 중 하나에만 해당할 경우 ‘~하는 A.’로 풀이한다. 둘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뜻풀이를 분할하지 않고 하나로 하여 ‘~하는 A(이)나 B.’의 형태로 통일한다. ① ‘직업상 맡은 일’에 해당하면 ‘직무’로 한다. ② ‘종사하는 일’에 해당하면 ‘직업’으로 한다. ③ ‘직업상 본분’에 해당하면 ‘직분’으로 한다. ④ ‘직무상 책임’에 해당하면 ‘직책’으로 한다. ⑤ ‘직무상 규정된 위치’에 해당하면 ‘직위’로 한다.
‘*-계(界))’ 일관성	‘-계(界)’로 끝나는 단어들 뜻풀이 일관성 없음: ‘-하는 활동 영역’, ‘-하는 사람들, -하는 사회 분야’ 등등.	1) ‘계19’의 뜻풀이 처리: ‘X계(界)’류 단어의 뜻풀이를 검토하고 여기에서 확인되는 ‘-계’의 의미를 ‘계19’의 뜻풀이와 비교한다. 그 결과, 계19의 뜻풀이 술어 ‘범위’를 ‘영역’으로 수정하였다. <수정 사유> ‘범위’는 ‘계19’의 기존 뜻풀이에 들어가 있으나 실제 ‘X계’류 표제어들의 뜻풀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범위’가 ‘테두리가 정하여진 구역’의 뜻이라는 점에서 ‘계19’와의 연관성이 있기는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하지만, ‘활동 분야’, ‘활동 영역’의 개념이 오히려 ‘계19’의 의미와 보다 가까우며, ‘영역’ 자체가 ‘활동, 기능, 효과, 관심 따위가 미치는 일정한 범위’의 뜻으로서 ‘범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범위’를 빼고, 이를 ‘영역’으로 바꾸었다. 2) ‘X계’류 표제어의 뜻풀이 처리 ‘계19’의 해당 뜻풀이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이후의 일괄 처리는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1) ‘-계’가 ‘분야, 영역, 범위, 사회’의 의미일 때는 뜻풀이를 분할하지 않고, ‘분야’로 통일하여 일괄적으로 바꾼다. 따라서 ‘~하는 사람들의 사회’는 ‘~하는 사람들의 활동 분야’로, ‘~활동 영역’은 ‘활동 분야’로 바꾼다. 그러나 ‘-계’에 ‘분야, 영역, 범위, 사회’ 외에 ‘세계’의 의미가 더 있을 경우에는 뜻풀이를 분할하여 제시한다. (2) ‘X계’의 ‘X’가 표제어로 있고 ‘X’가 전문적인 직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X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 분야’로 풀이한다. 다만 ‘조직체’나 ‘집단’의 개념이 필요한 경우에는 ‘X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조직체나 개인의 활동 분야’로 풀이한다. (3) ‘X계’의 ‘X’가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거나, X가 동음이의어나 다의어여서 ‘X에 관련된 ~’으로 풀이하면 뜻풀이가 모호해질 수 있는 경우에는 ‘X’에 해당하는 의미를 풀어서 제시한다. (4) ‘X가 전문적인 직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2)와 같은 형식으로 풀이했을 때 뜻풀이가 어색할 경우에는 적절하게 앞뒤 문맥에 맞게 뜻풀이를 조정한다.
서술격 조사	조사 등과 결합하여 형태가 변하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에 문제가	(1)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할 때에는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주격 조사 ‘이’가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결합형	있음. 일괄 검토 하여 수정해야 함.	결합할 때에는 형태가 달라지는 표제어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부가 설명을 덧붙인다. <u>‘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을 때에는 ‘XX’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주격 조사 ‘이’가 붙을 때에는 ‘YY’로 형태가 바뀐다.</u> (2) 그 외에 조사 결합에 대한 정보는 ‘《표준국어대사전》 지침(II-2) 곡용 정보와 곡용 관련 형태(p112)’를 따른다. 아래와 같은 지침 원칙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수정한다.
장애인 관련 명칭	‘맹인’, ‘농아’ 등 장애인 관련 명칭 모두 수정해야 함.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등. 표제어 추가 함께 고려해야 함.(사회적 소수 계층 포함)	1. ‘장애인’ 관련 명칭 일괄 처리 1) 표제어 추가: 장애인들에게 비하, 소외감을 줄 수 있는 명칭들을 모두 보건복지부(2005) 규정 용어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규정 용어에 올라 있지 않은 명칭들은 장애인 단체에서 널리 쓰이는 것을 택한다. - 관련 장애인도 표제어 추가하여(사회 전문어) 그쪽에서 풀이한다(예.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 척추 장애인, 지적 장애인, 하반신 장애인, 성장 장애인). 2) 표제어 추가 시 ‘X아(兒)’류의 명칭들은 ‘아이’를 지칭하는 말로 한정한다. 3) 기존의 명칭은 그대로 두되, ‘XX장애인을’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뜻풀이를 수정하여 이것이 비하,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는 명칭임을 밝힌다. 4) 기존 명칭과 동의어로 처리되어 있는 한자어의 경우, 이를 새로 추가한 ‘XX장애인’의 동의어로 처리하지 않고, 가치 중립적인 한자어를 기본으로 삼아, “‘XX장애인’을 달리 이르는 말.”로 처리하고(일반어), 다른 한자어를 모두 동의어(일반어)로 처리한다. 예> 맹인(盲人):고인08(瞽人), 고자10(瞽者), 맹안01(盲眼), 맹자03(盲者), 몽고03(瞽瞍), 실명자(失命者) - 일반 풀이에 쓰인 ‘장님’, ‘귀머거리’, ‘병어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리', '앉은뱅이', '곰사등이', '난쟁이', '정신 병자', '절름발이', '문둥이' 등은 '맹인(盲 人)', '농인(聾人)', '아자(啞子/啞者)', '좌객 (坐客)', '구배(僂背)', '왜인(矮人)', '광인(狂 人)', '기기(踦跂)', '나환자(癩患者)' 등으로 고친다.
명사/ 부사	부사 또는 부사적으로 쓰이는 명 사의 사전 처리	1) 단독형으로만 나타나는 경우 (1) 명사-부사 통용어 처리 - 기존에는 명사로만 처리되었으나, 다음의 기준 을 만족하면 명사, 부사의 다의어로 처리한다. (사전 처리 지침 '6-5'의 '1') ① 단독으로 어순 변경이 가능하고, 문장 내에서 서술어, 부사, 문장 수식의 기능을 수행할 때. ② 부사로써 쓰일 때 격 조사 결합이 불가능한 경우. ③ 부사로써 쓰일 때 동일형의 명사와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 처리 자료: 결국, 구구절절, 다년간, 대판, 무작정, 생전, 생래, 십상, 오매불망, 온종일, 제일, 종내, 혼자 (2) 명사로만 처리 - 기존 처리가 부사이나 명사로만 처리되는 경 우는 없다. 그러므로 기존 처리에서 명사이지 만 부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를 검토한다. - 이들 명사가 부사적으로 쓰이더라도 단독형에 대응하는 '-에, -으로' 결합형이 존재하고 양자 의 의미가 차이가 없으면 이를 부사로 처리하 지 않고 기존의 처리를 준용한다. 따라서 이들 은 일괄 처리의 집필 대상이 되지 않는다.(사 전 처리 지침 '6-5'의 '3-1') ⇒ 해당 자료: 개중, 금시01, 낙역부절, 단박, 단통, 당장, 당초, 든손, 본디, 본시, 만약, 만일, 무망중, 무심중, 무심중간, 무연중, 무의식중, 불철주야, 부지중, 애초, 원래, 어마지두, 연락부절, 은연중, 일견, 종당02,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통째, 허위단심 (3) 부사로만 처리 - ‘-이다’ 결합도 불가능하고, 주격, 대격 등의 격 조사가 결합하지 못하면 부사로 처리한다. ⇒ 처리 자료: 한폴 2) 조사 결합, 명사 수식류의 경우 (1) 명사로만 처리 - 단독형과 조사 ‘-에, -으로’ 결합형만 보이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만족시키면 명사로 처리한다. 이때, 조사 ‘-에, -으로’ 결합형은 ‘((XX에(으로)의 꼴로 쓰여))’를 문법 정보에 추가한다. 이 문법 정보가 기존에 이미 있는 경우는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이들 조사를 제외한 단독형이 명사로 쓰이는 예가 확인될 때. ② 선행 명사의 속격형과 통합할 수 있거나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때. ③ 기존 사전에서 명사로 처리한 사례가 대부분일 때. ⇒ 처리 자료: 건공대매, 단박03, 땃바람, 뜯눈, 무망중, 무심중간, 무연중, 무의식중, 미구, 미기02, 미연01, 바람결, 변11, 자유자재, 중국, 종당 -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피수식 명사에 ‘-하다’가 붙어서 동사, 형용사로서도 쓰일 수 있는 경우에는 부사적 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부사로서 볼 수 없는 잠재적 성격의 용법이므로 ‘부사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들은 대개 단독형으로는 잘 쓰이지 않으므로 뜻풀이는 일괄 ‘((일부 명사 앞에 쓰여))’를 앞에 붙이는 것으로 통일하되, 개중에 단독형으로도 쓰이는 경우는 ((주로 일부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명사 앞에 쓰여))를 붙인다. ⇒ 처리 자료: 각개, 강경05, 개별, 극력, 급속, 기습, 긴급, 다량, 다수, 단순02, 단신01, 무단, 불완전, 소량02, 수시08, 영구01, 완전01, 일제01, 자연01, 자진01, 잠정, 장기10, 전면01, 정밀02, 특별 (2) 부사로만 처리 - 조사 ‘-에’ 또는 ‘-으로’ 결합형만 나타나고, 이들 조사를 제외한 단독형이 명사로 쓰이는 예가 확인되지 않으면 -에, -으로 결합형 전체를 부사로 인정한다. 만일 기존 처리에서 명사 단독형이 함께 등재되어 있으면 이를 삭제한다. ⇒ 처리 자료: 거무하, 고래, 자고02, 자고이래, 자래04 등
관형사/ 접두사, 접미사/ 격 조사	접두사와 관형사, 접미사와 격 조사 비교 검토	1) 관형사-접두사 - 동일 형태가 관형사, 접두사로 모두 올라 있는 경우임. - 기존 사전 처리 지침에 근거, 형태가 동일하더라도 양자의 의미 차가 있고 쓰임이 다르면 현행과 동일하게 양자를 모두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따라서 이 경우는 일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기존 사전에서 그 의미 차나 용례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 그 뜻풀이 차이와 용례를 분명히 제시하도록 함. (연04: 연22 / 총06: 총09) 2) 격 조사-접미사 (1) 격 조사, 접미사가 모두 등재된 경우 - 양자의 의미 차가 분명하고, 그 쓰임도 다른 경우에는 기존 사전의 처리를 준용함. 따라서 일괄 처리 작업 대상에서 제외됨. ⇒ 과(課), 실(室), 부(部) 등 행정, 사무 부서를 가리키는 어휘들은 접사적 기능을 인정하여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일괄 처리.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 ‘식04: 식09’ 역시 양자를 모두 인정하되, 식04의 격 조사 풀이를 보다 세밀하게 해 주는 것으로 처리. (2) 격 조사만 등재되어 있으나 접미사적 쓰임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 접미사적 용법이 현저한 경우는 접미사를 별도로 등재함. ⇒ 결04: 접미사 ‘결16’를 새로 추가. - 띄어쓰기 등 실제 사용에 있어 혼란이 없을 정도로 양자의 쓰임과 인식이 구별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등재하지 않는 것으로 함. 3) 명사-접사 (1) 명사-접두사: 명사로 처리되어 있으나 접두사적 용법이 현저한 경우의 처리 문제. - 명사 단독형의 경우와 의미 차이가 현저하고, 일부 명사에 붙어 그 분포가 제한적인 경우는 별도의 접두사로 인정. ⇒ 먹01: 접두사 ‘먹03’을 새로 추가. ⇒ 반07: 접두사 ‘반17’을 새로 추가. (2) 명사-접미사 ① 명사만 올라 있으나 접미사적 용법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의 처리 문제 - 반지기, 빔, 불(佛), 명(名), 용품(用品), 용수(用水) 등의 예가 있으나, 이들은 모두 현행과 동일하게 명사만 인정하고 접미사로 추가 등재하는 처리는 하지 않기로 함. 돋보기(추가 설명)를 이용하거나, 또는 그 뜻풀이와 용례를 분명히 제시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쪽으로 처리. ② 명사-접미사가 모두 올라 있는 경우의 처리 문제 - 기존 사전의 지침과 마찬가지로 양자의 의미와 용법상 차이가 분명하면 종래의 처리를 준용. 단, 용법이나 뜻풀이가 그 차이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분포 환경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및 용법을 고려하여 뜻풀이를 좀 더 세밀하게 기술.
덩이/ 덩어리	‘덩이’, ‘덩어리’가 결합한 복합어 의 뜻풀이 일관성 없음.	(1) 표제어 ‘덩어리’와 ‘덩이’의 풀이 실제로 현재 비유적인 세 번째 뜻풀이는 동 일함. 따라서 ‘덩어리’와 ‘덩이’의 세 번째 풀이는 동의어로 처리함.(이는 결합한 말에 도 동일하게 적용) (2) ‘○○덩어리’와 ‘○○덩이’의 풀이 ① 비유적인 의미가 아닌 경우에는 ‘~한 덩어 리’, ‘~한 덩이’를 기본으로 통일하되, 이러 한 풀이가 어색한 경우에는 개별 표제어에 따라 적절하게 풀이함. ② 비유적인 의미의 경우에는 둘을 동의어로 처리함.(이는 ‘덩어리’와 ‘덩이’ 비유적 의 미의 동의어 처리와 같은 맥락임) 단 기본 표제어는 어느 한 쪽으로 통일하지 않고 더 많이 쓰이는 쪽을 택함. (3) 일관성 없는 상위 언어 풀이 => ‘덩어리’, ‘덩이’의 비유적인 풀이에서 상위 언어 풀이는 원칙적으로 ‘비유적으로’로 통 일함. 다만 사람과 관련된 뜻풀이로 되어 있 고 그 의미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 우는 ‘~속되게’로 통일함. => ‘덩어리’, ‘덩이’의 비유적인 풀이에서 ‘~이 라는 뜻으로,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풀이 한 경우는 ‘~이라는 뜻으로,’ 풀이된 부분이 그 뜻풀이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경우는 삭제함. => ‘덩어리’, ‘덩이’의 비유적인 풀이에서 ‘~로 이르는 말’로 뜻풀이한 경우는 ‘~비유적으 로’의 뜻풀이를 추가하여 ‘~비유적으로 이 르는 말’로 통일함. (4) ‘○○덩어리’와 ‘○○덩이’가 하나만 실린 경우 => 말뭉치와 직관에 따라 많이 쓰이는데 빠진 표제어는 추가하고, 상기한 규칙에 따라 풀 이함.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5) 북한어의 경우도 뜻풀이 수정함. 남한어의 대응어가 있을 경우에는 표기를 남한어로 고쳐서 표제어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그에 해당하는 뜻풀이가 남한어에는 없고 북한어에서만 보이는 쓰임이라면 ‘~의 북한어’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둠. 이때 뜻풀이 형식은 ‘~속되게’나 ‘~비유적으로’로 통일함. (6) 북한어의 경우 ‘~라는 뜻으로 ~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뜻풀이된 표제어가 있음. 이 경우 ‘~라는 뜻으로’를 제외한 뜻풀이가 여러 개면서 그 의미가 같은 경우 한쪽을 기본으로 해서 동의어 처리하였다. [예)뿔덩이, 텃덩이.] 또한 같은 단어인데 남북한 표기만 다르고 용례가 모두 발견되는 경우는 북한어 쪽에서 ‘~의 북한어.’로 뜻풀이를 수정함. (7) 미처리한 표제어 => ‘속되게’ 쪽이 더 나은 표제어- 고깃덩어리, 간덩이, 담덩어리, 골칫덩이, 몸덩이 => ‘비유적으로’ 쪽이 더 나은 표제어- 걱정덩어리, 달덩어리 「2」, 불덩어리 「2」·「3」, 비젯덩어리 「2」, 뿔덩어리 「2」, 달덩이 「2」, 매주덩이 「2」, 복덩이, 쇠덩이 「2」, 쇠덩이 「2」, 풍년풀덩이 => 전문어 「농업」과 관련된 표제어- 맵쌀이덩이, 벼락덩이, 벼덩이, 벼밥덩이, 세섯덩이, 수숫잎덩이 => ‘덩이’는 ‘흙덩이’를 뜻함.
북한어 ‘~을 달리 이르는 말’	북한어 중에서 ‘○○를 달리 이르는 말’로 뜻풀이되어 있는 것을 검색하여 일괄 처리 해야 함. 회의에서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다면 동의어로 돌리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달리 이르는 것인지 풀이를 보충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회의록(제25차) 다시 확인하여, 지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수정	(1) 북한어 중에서 대응 남한어가 있는 경우에는 ‘○○의 북한어’로 뜻풀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현재 ‘○○을 달리 이르는 말’로 뜻풀이되어 있는 북한어를 일괄 검색 하여 아래의 두 가지 형식으로 처리한다. ① ‘○○’이 남한 표제어일 경우에는 ‘○○의 북한어’의 형식으로 뜻풀이를 수정한다. 이때 만약 유래가 분명한 ‘부가 설명’이 있다면 ‘~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해야 함.	라는 뜻으로~을 이르는 말'로 형식을 통일한다. 부가 설명의 뜻풀이 형식은 '~라는 뜻이다.'로 정한다. ② '○○'이 북한 표제어일 경우에는 뜻풀이 상세 검색을 통하여 해당 남한 표제어가 있는지 확인한 후 ㄱ. '○○'과 완전 동일한 남한 표제어가 있으면 '○○의 북한어'로 수정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뜻풀이가 비슷하다고 하여 지나치게 뜻풀이를 돌리지는 않는다. 완전히 동일하다고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ㄴ. 유래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 북한어'로 수정한다. (2) 전문어 가운데 '식물, 동물, 물리, 화학, 의학, 수학'에 해당하는 표제어는 제외한다. 예) 단호박, 돈벌레02, 물코끼리, 벼보리, 사시화, 양위증 그러나 한의학 전문어는 남북한 같이 쓸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동의학 사전(여강 출판사)》을 검토한 결과 《표준국어대사전》에 북한 한의 전문어인 표제어들이 《동의학 사전》에서는 기본 표제어로 설정되어 뜻풀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남한 한의학 사전에 표제어로 설정되어 있는 북한어는 '남한어'로 바꾸고 해당 남한어는 동의어로 수정하였다. (3) 미처리 표제어 씨05 -남한어에서 '말07'은 '고누, 윷 따위의 판에서 놀이의 도구로 쓰는 물건. 누알01「8」'이라고 하고 북한어에서는 '씨05'의 뜻풀이에 '고누 놀이에 쓰는 말이나 바둑돌을 달리 이르는 말'로 되어 있는데 '바둑돌'도 말의 의미로 쓰이므로 남한 대응어를 찾기 어려움.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약담배밭 - 남북한 농업용어 비교집, 서울대학교 출판부에도 없는 단어이므로 ‘○○의 북한어’로 돌릴 수 없음.
십이율 뜻풀이 수정	‘동양 음악에서’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는 비정상적인 문장. ‘육려’에 해당하는 표제항이 모두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함께 고려 바람. 뜻풀이 머리에 ‘~에서,’로 처리하던 관련 분야 제시 형식을 뜻풀이 문장에 포함시킬지, 별도의 형식으로 볼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문장에 포함되는 것처럼 인식되기 쉬움. 뜻풀이에서 ‘십이율’ 검색하면 됨.	(1) ‘십이율’ 중 ‘육률’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맞춘다. - 동양 음악에서, 십이율의 ○째 음. 육률의 하나로 방위는 ○, 절후는 음력 ○월에 해당한다. (이때 방위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행하고 ‘월’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십이율’ 중 ‘육려’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맞춘다. - 동양 음악에서, 십이율의 ○째 음. 육려의 하나로 방위는 ○, 절후는 음력 ○월에 해당한다. (‘육률’과 마찬가지로 방위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행하고 ‘월’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 ‘《표준국어대사전》 지침 IIp295’에서 ‘음 이름’의 뜻풀이는 ‘서양 음악의 7음 체계에서 ~번째 음이름.’ 형식으로 맞추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표준국어대사전》의 서양 음 이름은 이 형식으로 뜻풀이가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동양 음악의 음 이름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맞추기 어렵고, 기존 뜻풀이의 대부분이 ‘동양 음악에서 ~째 음.’과 유사한 형식으로 풀이되어 있어서 위와 같이 통일하였다.
자음의 뜻풀이 형식	자음의 뜻풀이 형식이 일관성이 없음. ‘~에서와 같이 종성으로 쓴다.’의 형식과 ‘~에서와 같이 종성으로 쓰인다.’의 형식이 있는데 하나로 통일해야 함.	(1) 자음의 뜻풀이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맞춘다. (《표준국어대사전》 지침 IIp277 참고) - 한글 자모의 ○째 글자. ○○이라 이르며, ‘○’에서와 같이 초성으로, ‘○’에서와 같이 종성으로 쓰인다. ~ (부가 설명). - 한글 자모 ‘○’을 어울려 쓴 글자. ‘쌍○○’이라 이르며, ‘○’에서와 같이 초성으로, ‘○’에서와 같이 종성으로 쓰인다. / ‘○’에서와 같이 초성(종성)으로만 쓰인다. (초성 또는 종성만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가능할 경우)~ (2) 모음의 뜻풀이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맞춘다. - 한글 자모의 ○째 글자. ‘○’라고 이르며, ‘○, ○’에서와 같이 중성으로 쓰인다.~ - 한글 자모 ‘○’과 ‘○’을 어울려 쓴 글자. ‘○’라고 이르며, ‘○, ○’에서와 같이 중성으로 쓰인다. ※ ‘《표준국어대사전》 지침Ⅱp277’에서는 “모음도 한글 자모의 몇째 글자. ‘○’라 이르며, ‘○○’에서와 같이 초성으로, ‘○○’에서와 같이 중성으로 쓰인다.”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전의 풀이에는 “한글 자모의 ○째 글자. ‘○, ○’에서와 같이 중성으로 쓰인다.” 형식이 대부분이므로 이와 같은 형식으로 뜻풀이를 맞추었다. (3) 자모의 이름 뜻풀이는 “한글 자모 ‘○’의 이름.”과 같은 형식으로 맞춘다. 모음을 어울려서 쓴 경우 일부 뜻풀이가 “한글 합성 자모 ‘○’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모두 ‘한글 자모’로 통일한다. ‘합성 자모’ 풀이가 일관되게 되어 있지도 않고 《표준국어대사전》 지침에서도 이를 따로 뜻풀이에서 밝히는 형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미술 전문어 ‘육법(六法)’ 풀이 형식	‘기운생동’ 같은 경우, 뜻풀이가 호응이 안 되게 되어 있음. 뜻풀이 중 ‘육법의 하나’가 들어간 표제어들 모두 검토하여 호응 되도록 일괄 수정해야 함.(격영위치, 수류부채 등)	‘화론 육법’의 ‘기운생동 골법용필(骨法用筆) 응물상형(應物象形) 수류부채 경영위치 전이모사’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정한다. - 동양화에서 육법의 하나. ~하는 것을 말한다. ※ ‘화론 육법’은 구체적인 미술 기법이라기보다는 회화에서 중요시되어야 하는 점을 제시한 것이어서 《표준국어대사전》 지침p252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의 ‘기법’ 뜻풀이 형식처럼 ‘~에서, 어떻게 하는 기법.’으로 풀이할 수 없다. ‘어떠한 느낌이 나게’, 또는 ‘어떠하게’ 그려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므로 ‘~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으로 뜻풀이를 맞추었다.
육십갑자의 풀이 형식	‘육십갑자에서*’가 포함된 31개 표제어 뜻풀이 일괄 수정 할 것. 육십갑자 풀이 일관성 없음.	(1) ‘납음’의 뜻풀이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통일한다. - 육십갑자의 ○○(한자)·○○(한자)에 붙이는 <u>납음(納音)</u>. (부가 설명)~다는 뜻이다. ※ ‘납음’의 뜻풀이가 ‘육십갑자에서~’ 형식으로 되어 있었으나 ‘납음’이 ‘궁 상 각 치 우의 오음(五音)을 육십갑자에 맞추어 오행(五行)으로 나타내는 말.’이고 《대유학당, 편해매화역수, p345》의 표를 보면 ‘납음’은 육십갑자의 표 중에서 두 개(○○과 ○○)에 해당하는 곳에 붙이는 명칭으로 보이므로 ‘육십갑자에서~’보다는 위와 같은 형식이 적절함. (3) ‘납음’의 표제어 중 잘못 올라 있는 것은 삭제하고 미등재어는 추가한다. 《대유학당, 편해매화역수, p345》 참고하였음. 30가지의 대정수표와 사전에 올라온 육십갑자와 관련된 표제어를 대조 검토함. 예) 금봉금, 노방토/ 평지목, 노중토 (4) 육십갑자의 뜻풀이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통일한다. - ‘<u>육십갑자의 몇째.</u>’로 뜻풀이를 맞춘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 지침Ⅱp256’의 “표제어가 육십갑자 중의 하나일 때 ‘육십갑자(六十甲子)의 몇째’로 정의하고 다른 부가 설명은 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는데 이중 ‘육십갑자’에 한자를 제시하지 않은 형식으로 정한다. 지침과 달리 사전 뜻풀이에는 육십갑자 대부분이 한자 없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다.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고갑자의 풀이 형식	상세 뜻풀이 검색하여 ‘고갑자에 서*’가 포함된 표제어 뜻풀이 일괄 수정할 것.	(1) ‘고갑자’ 중에서 ‘천간’ 또는 ‘십간’에 해당하는 표제어는 아래와 같이 뜻풀이를 정한다. - <u>고갑자(古甲子)에서, 천간(天干)의 ○째인 ○(한자)을/를 이르는 말.</u> (2) ‘고갑자’ 중에서 ‘지지’, ‘십이지’에 해당하는 표제어는 아래와 같이 뜻풀이를 정한다. - <u>고갑자(古甲子)에서, 지지(地支)의 ○째인 ○(한자)을/를 이르는 말.</u> ※ ‘고갑자’, ‘천간’, ‘지지’에는 한자어를 넣고, ‘천간/십간’, ‘지지/십이지’에서는 기본 표제어인 ‘천간’, ‘지지’를 사용하여 풀이함. ‘《표준국어대사전》 지침Ⅱp66’에는 ‘고갑자 십간(十干) 첫째. 갑(甲戌)과 같다.’ 형식으로 뜻풀이가 제시되어 있으나, 현재 사전의 풀이는 이에 맞지 않고 일관성도 없음. 또한 ‘고갑자에서, ~○째. ○와 같다.’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고갑자에서 ~째.’로 풀이할 경우 문장의 호응이 어색함.
비잔틴/동로마	‘비잔틴’이 뜻풀이에 나와 있는 경우, ‘동로마’로 바꾸는 것 정밀히 검토해야 함. 현재 ‘비잔틴’ 단독은 표제어로 없고 구 형태로만 나옴. 풀이 중에서 적합하지 않은 쓰임을 보인 ‘레오 삼세01’, ‘로도스 섬’, ‘성화 상 논쟁’ 등의 ‘비잔틴’을 검토하여 수정해야 함. ‘비잔틴’으로 뜻풀이 검색하여 확인한 후 ‘동로마’로 수정 필요.	(1) 뜻풀이에 ‘비잔틴’이 ‘비잔틴 제국’의 의미로 쓰인 것은 모두 ‘<u>동로마 제국</u>’으로 수정한다. 현재 ‘비잔틴’과 ‘동로마’는 표제어로 없고 ‘비잔틴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 표제어로 올라 있다. 그런데 뜻풀이에 ‘비잔틴 제국’의 의미로 ‘비잔틴’이 사용되는 예가 있다. 이는 모두 기본 표제어인 ‘동로마 제국’으로 수정한다. (2) 또한 뜻풀이에 쓰인 ‘비잔틴 시대’는 ‘<u>동로마 제국 시대</u>’로 수정한다. (3) 그러나 현재 뜻풀이에 ‘비잔틴 시대’로 나와 있는 것은 굳이 기본 표제어 ‘동로마 제국’으로 수정하지는 않는다.
굴류성/향류성	‘굴류성’과 ‘향류성’은 동의어로 되어 있는데, ‘굴수성’과 ‘향수성’은 참고 어휘로 처리되고 있다.	(1) 표제어, 뜻풀이, 동의어 관계 등에 관한 처리는 전적으로 전문어는 감수자의 의견을 따랐다.(식물 감수 목록1. 조류, 용어-전문어 감수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현재 ‘굴*성’으로 된말과 ‘항*성’으로 된 말이 일관성있게 처리되고 있지 않다. ‘굴광성-「참」항일성, 굴기성=항기성, 굴류성=항류성, 굴상성=굴작성, 굴수성-「참」항수성, 굴일성=항일성, 굴축성=항축성’ 전문가의 감수에 따라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더불어 이 표제어들에 제시된 관련 어휘, 참고 어휘들이 모두 검토 필요. 단 대부분 감수한 전문어이므로 전문어 원고 참조하여 일관성 있게 수정해야 함.	자 전문어 파일 참조) 감수자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남한어 ‘항*성’ 표제어는 감수자가 대부분 삭제함.(쓰이지 않은 용어로 분류함) 따라서 대응되는 ‘굴*성’ 표제어와의 일관성 없는 동의어 또는 참고어 관계는 대부분 삭제됨. 예) 항기성, 굴농성, 굴창성, 속습성, 굴한성, 항축성, 항수성, 항습성. ② 다만, 감수자가 남한 표제어 중에서 ‘굴일성=항일성’을 그대로 두었으므로 이에 준하여 ‘항*성’이 남한 표제어로 있으면서 삭제되지 않았고 ‘굴*성’과 의미가 동일해 보일 때에는 동의어로 처리함. 예) 굴화성/항화성 ※ 다만 ‘굴광성/항광성’은 따로 뜻풀이되어 있는 현재대로 둔다. 감수자가 수정 의견을 보내지도 않았고 다른 전문 사전 등을 통해서도 이 둘의 관계가 동의어라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항*성’ 계열이 북한어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뜻풀이를 보면 대부분 대응되는 ‘굴*성’과 의미가 동일해 보이므로 이들은 “대응 남한 ‘굴*성’의 북한어”로 뜻풀이를 수정함.
뽕/뽕 바깥	‘뽕 + OO’ 형과 ‘뽕 + OO’ 형의 처리 문제	(1) ‘뽕’, ‘바깥’, ‘뽕’은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의 처리를 그대로 유지한다. ‘뽕X’형과 ‘바깥X’형이 동의어로 처리된 경우가 있어서 이에 비추어 본다면 ‘뽕=바깥’으로도 볼 수 있으나 뜻풀이 검토 결과 ‘뽕’과 ‘바깥’은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뽕X=바깥X’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합성의 의미가 동일하다는 것이지 반드시 ‘뽕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바깥'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밖'과 '바깥'은 각각 따로 뜻풀이되어 있는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밭'의 접두사 처리도 현재대로 둔다. (2) '밖X'형, '밭X'형, '바깥X'형 중 두 형태 이상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의미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을 동의어로 처리한다. 기본 표제어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밭X'형과 '바깥X'형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바깥X'형을 기본 표제어로 정한다. 현재 '밭X'와 '바깥X'가 모두 표제어로 올라 있으면서 이 둘의 관계가 준말과 본말의 관계로 설정된 경우도 있으나 '밭'이 '밖'에서 온 것이고 '바깥'은 '밖겉'에서 온 것으로 어원 정보가 올라 있으므로 '밭'이 '바깥'의 준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밭X'형이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빈도가 높은 쪽을 기본 표제어로 삼는다는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② '밖X'형과 '밭X'형이 있을 경우 '밭X'형을 기본 표제어로 정한다. 또한 《학회》에 올라 있는 일부 '밖X'형 표제어들이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들의 쓰임이 전문어 서적 등에서 확인되면 표제어로 등재하여 '밭X'와 동의어로 처리한다. ☞ 《금성》에 '밭X'형이 올라 있고 《학회》에 '밖X'형이 올라 있는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은 《금성》을 따라 '밭X'형만 인정했음. 《학회》의 '밖X'형 표제어가 직관상 표제어로 등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으나 직관이라는 이유 외에는 표제어로 오르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임. 그러므로 다른 사전, 전문 서적 등에서 쓰임이 확인될 경우에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는 표제어로 추가함. ③ 세 유형이 모두 등재된 경우에도 ‘발X’형을 기본 표제어로 정한다. ④ 다만, 이 유형들 사이에 어감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동의어로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엉덩*/ 궁둥*	‘궁둥이’와 ‘엉덩이’ 관련 단어들 전체적으로 조정 필요. 예를 들어 ‘궁둥춤-엉덩춤’ 같은 것. ‘엉덩*’, ‘궁둥*’으로 검색하여 검토	(1) ‘골반에 이어져 있는 볼기의 윗부분’은 ‘엉덩이’, ‘엉덩이의 아랫부분. 앉으면 바닥에 닿는 근육이 많은 부분’은 ‘궁둥이’이다. ‘엉덩-’과 ‘궁둥-’이 신체의 부위를 나타내는 말일 때에는 ‘엉덩-’과 ‘궁둥-’을 동의어로 처리하지 않고 각각의 부위에 맞게 따로 뜻을 풀이를 한다. 그러나 ‘엉덩-’, ‘궁둥-’이 ‘엉덩이와 궁둥이’를 구별하지 않고 전체로 하는 어떤 행동을 나타내거나 비유적인 의미를 나타낼 경우는 ‘엉덩-’과 ‘궁둥-’을 동의어로 처리한다. 이때 직관상 더 많이 쓰이는 쪽을 기본 표제어로 정한다. (2) ‘궁둥-’, ‘엉덩-’과 결합된 합성어가 말뭉치에서 쓰임이 많이 나타나는데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표제어를 추가함. (3) 전문어 가운데 ‘식물, 동물, 물리, 화학, 의학, 수학’에 해당하는 표제어는 제외. 예) 궁둥살, 궁둥이뼈, 엉덩관절염, 엉덩등뼈, 엉덩뼈, 엉덩신경, 엉덩신경덫불, 엉덩이뼈, 엉덩자리. (4) 방언으로 분류된 표제어인데 말뭉치에 여러 작가의 다양한 작품에서 사용되고 있고 해당 지역 방언 사전에도 올라 있지 않을 경우 (1)의 기준으로 처리한다. 예) 궁둥방아 (5) 북한어 가운데 남한 대응어가 있는 경우는 ‘~의 북한어’의 형식으로 풀이함. 예) 엉덩이걸음.
쌀/미/밀 /맥/보리	‘~米’, ‘~밀’ 모두 검색하여 전문어 일관성 있는지 검토한 후 처	(1) 《표준지침Ⅱ》 p241-243쪽 참조하여, ‘○○미, ○○쌀, ○○밀, ○○맥’이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리해야 함. 농업 전문어로 할지 말지 결정 필요. 결정하면 일괄 수정. 예를 들어 ‘굳은밀’은 일반어로 되어 있고, 동의어인 ‘경질소맥’은 농업 전문어로 되어 있음. 일괄 검색 하여 전문어 영역 일관성 있게 수정 필요.	① 품종인 경우, ② 전문적인 가공 과정을 거친 후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농업 전문어로 처리한다.(‘현미’ ‘백미’와 같은 일반적인 도정만을 거친 경우는 일반어로 분류한다.) ※ 식물의 열매는 일반어로 처리한다는 지침에 따라 ‘쌀’, ‘보리쌀’, ‘○○미’ 등은 기본적으로 일반어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벼나 쌀의 종류를 나타내거나 전문적인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일반어로 분류하기 힘들어 농업 전문어로 분류하였다. (2) 그러나 ‘○○미, ○○쌀, ○○밀, ○○맥’이 ① 낱알 또는 알이나 열매인 경우, ② 국가나 지방에서 나온 명칭인 경우(예: 안남미, 왜미 등) ③ 쌀이나 보리 등의 품질 등급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일반어로 처리한다. (3) 식물 전문어는 제외한다. (4) 농촌진흥청, 《한글농업 용어집》을 참고하였다.
행정 부서 줄어든 말	행정 부서를 줄여 이르는 말 중에서 현재 ‘건교부’만 올라 있는 것으로 보임. 관련된 모든 단어를 검토하여 일괄적인 표제어 제시 원칙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일괄 검토 해야 함(행자부, 문광부 등은 표제어로 없음). ‘행정 기관’으로 검색. 청와대 누리집 ‘정부 조직도’ 참고	(1) 표제어 추가 행정 기관 중 줄여서 이르는 명칭이 표제어로 오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표제어로 등재한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건설교통부’를 줄여 이르는 ‘건교부’만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 행정 기관의 명칭은 ‘재정경제부/재경부, 과학기술부/과기부’와 같이 줄여 이르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아래 <참고>의 정부 행정 기관 명칭 중 ‘줄여 이르는 명칭’이 신문, 방송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면 표제어로 추가한다.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 2006년 1차 수정 후 2008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전면 2차 수정함. 줄여 이르는 말은 그대로 실음. (2) 뜻풀이 약어일 경우 ‘○○을/를 줄여 이르는 말.’로 뜻풀이하고, 약어가 아닐 경우에는 동의어로 처리한다.
간토대 지진/관 동대지 진	‘관동 대지진/간토 대지진’과 같은 유형이 현재 표제어에 어떤 방식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검토 필요. 둘 다 등재되어 있는지 하나만 등재되어 있는지. 현재 이 경우는 ‘간토 대지진’만 올라 있음. 이대로 갈 것인지 ‘관동 대지진’도 올릴 것인지 정해야 함.	(1) 표제어 등재 원칙 ① 13차 회의 결정 사항에 따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으로 뜻풀이된 한자어가 포함된 표제어의 경우, <u>원어와 한자음 모두를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 이에 따라 ‘간토 대지진’과 같이 원어만 있고 우리 한자음에 해당하는 ‘관동 대지진’이 표제어로 없는 경우에는 ‘관동 대지진’을 표제어로 추가한다. ② 다만, 《표준국어대사전》에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만 올라 있는 표제어의 경우, 그것이 <u>신해혁명 이전의 것(중국의 경우)이면 원어에 해당하는 표제어를 추가하지 않고, 신해혁명 이후의 것이면 원어에 해당하는 표제어를 추가한다.</u> (2) 뜻풀이와 기본 표제어 설정 원어와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모두가 등재되는 경우에는 ‘원어’를 <u>기본 표제어로</u> 정하여 원어에서 뜻풀이하고, 우리 한자음에 해당하는 표제어의 뜻풀이는 ‘○○을/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형식으로 한다. (이는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 두 형식 모두가 올라 있는 경우의 뜻풀이 형식을 따르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원어와 우리 한자음 모두가 올라 있는 경우에는 원어를 기본 표제어로 하여 뜻풀이하였다.) ※ 13차 회의 결정 사항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으로 뜻풀이된 한자어가 포함된 표제어의 경우, 원어와 한자음 모두를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도 협약’과 같이 우리 한자음으로만 올라 있는 경우는 현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예)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등재되어 있음. (1) 원어로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간토 대지진’만 있고 ‘관동 대지진’은 없음. ‘뤄양 유적’만 있고 ‘낙양 유적’은 없음. ‘도쿄 조약, 도쿄 재판’ 등만 있고 ‘동경 조약, 동경 재판’은 없음. (2) 우리 한자음으로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간도 협약’ 있고 ‘젠다오 협약’은 없음. ‘적벽전’만 있고 ‘츠비전’은 없음. (3) 둘 다 등재되어 있는 경우 ‘봉천 사건/펑텐 사건’ 모두 올라 있음. ‘북경 원인/베이징 원인’, ‘북경 의정서/베이징 의정서’, ‘북경인/베이징 인’, ‘북경 인류/베이징 인류’, ‘북경 조약/베이징 조약’ 모두 올라 있음. ‘천안문 사건/텐안먼 사건’ 모두 올라 있음. ‘상해 사변/상하이 사변’, ‘명치유신/메이지 유신’ 모두 올라 있음. ⇒ 원어와 한자음을 모두 등재하는 것(3)을 원칙으로 정했으므로 우리 한자음이 없는 (1)의 예들은 모두 ‘관동 대지진’, ‘낙양 유적’ 등을 표제어로 등재한다. 그러나 (2)와 같이 원어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우리 한자음만 등재된 경우는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중국 음식	중국 음식 이름 일괄 검토 및 수정 필요. 풀이 및 표기, 그리고 표제어 추가에 일관성이 없음. 예를 들어 현재 ‘간짜장’은 없는 식임. 많이 쓰이는 것 추가 필요. 다만	(1) 뜻풀이는 ‘~중화요리의 하나. (부가 설명)’ 형식으로 통일한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의 중국음식의 뜻풀이는 ‘~중국 음식의 하나, ~중국 요리의 하나, ~중화요리의 하나’로 되어 있어 일관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추가할 때 표기 부분에 대해서는 외래어 표기법 및 기타 규정 등과 관련하여 약간의 논의 필요. 일단 수집해서 집필하되, 표제어 표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내부 논의 등 거쳐야 함.(한국일보 자료 있음)	성이 없다. 이 중 ‘중화요리’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고 ‘요리’가 ‘음식’을 일정한 방법으로 만들. 또는 그 음식’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중화요리’로 풀이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일관성이 없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중화요리 표제어 뜻풀이는 모두 수정한다. (2) 표제어 추가 여부 ① 내부 논의를 거친 표제어 추가 목록: 간자장, 울면, 양장피, 오향장육(五香醬肉) ② 내부 논의를 거친 미추가 목록: 부추잡채, 간쇼새우, 간풍새우, 해삼주스, 라조육(辣子肉), 간풍육(乾烹肉). 라조기, 간풍기와 요리법은 같지만 닭고기 대신 돼지고기를 쓰는 중화요리이다.
역사 전문어 의 시대 구분	시기를 나누는 역사 전문어 중고, 근고, 근세, 중세, 고대, 근대, 현대 등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각 뜻풀이 사이에도 모순이 있다. 관련된 용어를 모두 추출하여 전체적으로 스펙트럼 상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또 구분 기준이 다른 것이 혼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문 의견 필요.	(1) 시대 구분과 시대 표제어의 뜻풀이: 1) 시대 구분은 역사 시대구분에 따라 ‘고대=>중세=>근세=>근대=>현대’의 순으로 구분한다. 2)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표제어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뜻풀이한다. 특히 표제어 ‘근세’와 ‘근대’의 뜻풀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구분을 명확히 제시한다.(아래 참고의 국사편찬위원회 의견을 따랐음.) <시대 표제어의 뜻풀이> <u>역사 시대 구분의 하나로 ~시대(시기). (부가 설명)의 형식으로 일괄 처리 한다.</u> 3) 아래의 참고에 따르면 ‘근세’는 주로 동양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시기를 말하므로 서양사와 관련된 표제어 뜻풀이에 나오는 근세는 ‘근대’로 수정한다. 4) ‘고대’의 하위 부류로 뜻풀이되어 있는 ‘상고, 중고, 근고’의 뜻풀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있지 않아 그 구분을 명확히 제시한다. 특히 표제어 ‘근고’의 뜻풀이를 다시 제시하고 표제어 뜻풀이에 ‘근고’의 설명이 들어간 경우도 수정된 ‘근고’의 풀이에 따라 일괄 처리한다. ※<국사편찬위원회 -이영춘 연구원 의견> ① 근대는 이른바 근대화의 물결이 닥쳐온 시대부터를 말하는데 서양에서는 중세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로서 나라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대개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이후를 지칭한다. 한국사에서는 1876년의 개항 이후 근대화가 시작된 시대를 근대라고 표현하고 그중에서도 제일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3.1운동이 시작된 1919년 이후를 현대라고 부른다. ② 근세는 동양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서양식 근대라고는 하기 어렵지만 봉건 시대적 중세라고 하기도 어려운 15세기-19세기 중엽 시기를 편의상 지칭하는 시기이다. 시대적 성격은 일단 접어두고 근대와 가까운 시대로 본다. 중국의 명·청대, 한국의 조선 시대를 근세라고 한다. ③ 근고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 안확의 <조선문명사>에서 상고·중고에 대한 대칭한 말로 사용하였다. 상고시대는 단군---삼한시대, 중고는 삼국---통일 신라 시대(남북조시대), 근고를 고려 시대라 한다. ④ 중세 시대는 흔히 고려 시대를 지칭하지만, 삼국 시대부터를 중세로 보는 시각도 있다. (2) 표제어의 시대적 특성을 타나낼 때 1) 뜻풀이에 시대적 특성을 나타낼 때에는 원칙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 따른다. ※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Ip72 제한 표현 표제어의 시대적 특성을 나타낼 때: ‘…때/시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대(에), ...던 말' - 고조선 때에, - 삼국 시대에(삼국을 통칭할 때만), - 고구려 때, 신라 때, 가야 때, 발해 때, - 후삼국 시대에, - 통일 신라 시대에, - 고려 시대에, - 조선 시대에, - 고려·조선 시대에, - 일제 강점기에, - 예전에, 2) 1)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구체적인 시기를 꼭 밝혀 주어야 할 경우에는 ‘조선 초기에, 중기에 말기에, 대한제국 때에,’ 따위로 제시한다. 다만, ‘전기/후기’, ‘초기/중기/후기 또는 말기’와 같이 2분법과 3분법이 《표준국어대사전》에 혼용되어 있어 혼란스러우나 이를 수정하지 않는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 역사 분야에서 2분법과 3분법이 학자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서 이를 임의로 하나로 통합할 수는 없을 듯하다. ※ 조선 시대의 구분: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이분법적 구분으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나누기도 하고, ‘조선 초기, 조선 중기, 조선 후기’는 3분법적 구분으로 ‘조선 건국부터 15세기까지를 조선 초기, 16·17세기를 조선 중기, 18·19세기를 조선 후기’로 나누고 있다. 또한 ‘조선 말기’는 ‘19세기부터’를 이른다. <국사편찬위원회 이영춘연구원> 3) 두 시기를 함께 나타내는 경우에는 ‘고려 말기 조선 초기에’, ‘고려 조선 시대에’, ‘조선 초기...중기에’ 따위로 제시한다.(《표준국어대사전》 지침 p286)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역사 전문어(관직명, 기관명, 품계명 등)의 술어 일관성	일관성 없는 풀이 모두 통일하고, 뜻풀이의 ‘뒤에’ 등은 구체적인 연도로 수정해야 함.	~(이름을) 고쳤다, ~개칭되었(하)다, ~바뀌었다⇒~고쳤다. ~바꾼 것이다⇒고친 것이다. ~폐하였다⇒없었다.
역사 전문어 의 직제 등에 쓰인 고종, 순종과 연호	‘고종’, ‘순종’을 ‘광무’, ‘융희’ 등 으로 고치고 ‘연도(숫자)’, ‘원년’ 등으로 제시해야 함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연도표 참조하여 일괄 수정 함.
‘첩어+ 이’ 부사어	‘땀땀이’, ‘집집이’ 등과 같은 형 태의 부사어 검토, ‘이’를 제외한 명사만 올라간 것, 명사, 부사 모 두 올라간 것, 부사만 올라간 것 등 일괄 검토 필요	1) ‘첩어+이’ 결합형만 나타나는 경우: 첩어 ‘명 사’ 표제어를 삭제하고 ‘첩어+이’만 부사로 등재한다. 2) ‘첩어’와 ‘첩어+이’가 모두 나타나는 경우: ① ‘첩어’가 명사인데 부사적 용법도 보이면, 부 사를 추가하고 ‘첩어+이’와 동의어로 처리한다. ② ‘첩어’가 부사인데 명사적 용법이 보이면 명 사를 추가한다. ※ 명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에 대한 판단은 아래 《표준국어대사전》 지침을 따른다. (1) 표제어에서 ‘명사+조사’가 결합한 단어는 아 래와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한다. (21 차 회의록) ① ‘명사+조사’의 결합형만 쓰이고, 명사 단독으 로나 다른 조사와의 결합형으로는 전혀 쓰이 지 않는 경우: 명사 표제어를 삭제하고 ‘명사 +조사’ 결합형만 부사로 등재한다. 예) 말말/말말이 ② ‘명사+조사’의 결합형 외에 명사가 다른 조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사와도 결합이 가능한 경우: 명사만 표제어로 인정하고, ‘명사+조사’형은 표제어로 등재하지 않는다. 다만, 명사 표제어에 ((흔히~꼴로 쓰여))라는 문법 정보를 넣고 다양한 쓰임을 용례로 제시한다.
세계문화유산 뜻풀이	현재 ‘한라산’, ‘설악산’ 등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풀이되어 있는 것이 오류가 있음. ‘한라산’, ‘설악산’은 세계 문화유산이 아니고, 지정 연도도 다르다고 함. 유네스코 한국 누리집에 들어가서 모두 확인할 필요 있음. 풀이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있는 것을 찾아 모두 내용 검토하여 수정해야 함. 또한 2005년 11월 25일경 ‘강릉단오제’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음. 이 사항도 필히 반영해야 함.	- 유네스코 누리집에서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을 모두 찾아 표준의 항목과 비교 대조함. -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해 유네스코 누리집과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누리집(http://www.unesco.or.kr)을 모두 확인하였음. ☞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7곳: 창덕궁, 화성,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경주 역사 유적 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 한국의 세계 무형 유산(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3점: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 한국의 세계 기록 유산 4건: 훈민정음, 조선 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하권), 승정원일기. ※ 위의 문화유산 중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표제어는 추가함. -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는 뜻풀이에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제시한다. (뜻풀이)~. ○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무형 유산/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국보(보물/사적) 제○호. ※ 문화유산의 역사적 정보나 문화재 정보는 문화재청(http://www.cha.go.kr)의 문화재 지식정보 센터에서 검색하여 확인 참조함. 뜻풀이 수정 시에 유네스코와 문화재청에서 확인한 정보는 #5에 특별히 수정의 근거를 기록하지 않았음. 기타 자료를 참고한 경우에는 #5에 기록하였음.
문화재 명칭과	문화재 명칭 모두 재검토해야 함. 명칭이 바뀐 것도 있고, 현재 정	(1) 문화재의 경우: ①문화재청 문화재 지식센터(info.cha.go.kr) 지정 종목 문화재 자료와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뜻풀이	보가 잘못된 것도 있음. ‘고적’ 전문어 일괄 검토 필요. 현재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단은 현재도 단순 오류가 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잡을 필요 있음. 수정 작업은 하고 있다고 해도 결과물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태.	비교·검토하였음. ② 행정 구역명 등 더 확인이 필요한 자료는 각 시도·군청 누리집의 자료를 참조하였고 절에 있는 문화재인 경우 절 누리집 자료를 참고하였음. ③ 문화재 명칭이 잘못 기재된 경우 간단한 것은 바로잡았고 그 외에는 뜻풀이에 문화재 정식 명칭 정보를 추가하였음. ④ 해당 표제어가 국보나 보물인 경우에는 뜻풀이의 맨 마지막에 ‘국보 제○호’와 같은 형식으로 정보를 제시하였음. ※ 《표준국어대사전》 지침에서는 ‘라) 문화재: 정의+설명+’…문화재 제…호’, ‘다) 문화재로 지정된 표제어는 뜻풀이 맨 뒤에 지정 호수를 밝혀주는데 서술형으로 표현한다.(p256)’로 정하고는 있으나 실제 사전에서는 서술형이 아니라 ‘국보 제○호’로 대부분 나오므로 이 형식을 택하였다. ⑤ 문화재 정식 명칭 정보를 줄 경우에는 ‘국보 제○호’ 바로 앞에 ‘국보 정식 명칭은 ~이다.’ 형식으로 제시한다. 또한 국보 정식 명칭은 굳이 표제어로 추가하지 않는다. ⇒ 이에 따라 문화재의 뜻풀이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맞춘다. <u>(뜻풀이)정의+부가 설명. 국보 정식 명칭은 ~이다. 국보 제○호(국보의 경우)</u> (2) 천연기념물의 경우: 동식물 뜻풀이와 학명은 따로 감수한 자료가 있으므로 재검토하지 않고 천연기념물 관련 정보만 검토하였음.
행정 기관, 기타 각종 기관	행정 기관, 기타 각종 기관·위원회 등 정보에 변동 사항이 있을 만한 부류를 모두 찾아서 정보 비교·검토해야 함. ‘교통’에서도 새로 생긴 도로(서해안 고속 도로), 이름 바뀐 도로 등 추가·수	1. 행정 기관, 위원회 및 기타 기관 명칭 1) 1차 검토 및 수정 ① 행정자치부 2005 행정 자치 통계 연보의 중앙 행정 기관 현황, 정부 위원회 현황에 나와 있는 정부 조직을 사전에서 찾아 검토하고, 2차로 사전 뜻풀이/표제어 검색에서 ‘행정 기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정 필요 그 외에도 ‘기방기상청’은 ‘지리’, 절 이름은 ‘불교’ 등으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각 전문 분야에 관련된 기관 등은 해당 전문 분야로 들어가 있음. 따라서 지침에서 각 전문 분야에서 포괄하고 있는 용어의 범위를 확인하여, 이 중 정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모두 찾아서 검토해야 함. 필요하다면 아르바이트 등을 동원하여 모든 분야에 대해 ‘법률’과 같은 1차 선별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음. ‘법률’ 중 검토 필요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목록 확보함.	관’, ‘위원회’, ‘자문’ ‘연구원[소]’ ‘사무소’ ‘박물관’ 등으로 찾아 검토 ② 행정 기관 종전 명칭의 경우 바뀐 명칭이나 개편 과정을 뜻풀이에 넣기도 하고 넣지 않기도 한 상태. 찾은 것은 모두 정보를 뜻풀이에 추가하였음. 일관성 없는 뜻풀이도 수정함. ③ 정부 주요 기관 중 사전에 없는 ‘교육 인적 자원부’와 ‘여성 가족부’ ‘소방 방재청’을 표제어 추가하였음. ④ 위원회는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으므로 사전에 올라 있는 위원회의 명칭 및 뜻풀이를 검토하고 새롭게 추가하지는 않음. <참조 자료: 행정자치부 2005 행정 자치 통계 연보, 각 기관 및 위원회 누리집> 2) 2차 검토 및 수정 2008년 행정 조직 개편에 따른 수정 사항을 추가로 모두 반영함. 최종적으로 2008년 2월 기준으로 중앙 행정 기관 정보 갱신함. <참조 자료: 청와대 누리집, 각 기관 누리집> 2. 도로 및 철도명 ① 도로는 뜻풀이 검색. 검색어-고속도로 ② 철도는 상세 검색. 전문어 영역 지정-교통& 뜻풀이 검색 -철도 ※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고속 도로 중 누락된 것은 선별하여 2007년 기준으로 새로 추가함. <참조 자료: 건설교통부 2005년 도로 현황, 한국도로공사 노선 안내, 한국철도공사 한국 철도 역사, 건설교통부 건설 교통 통계 연보 2005 전국 철도 현황,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업 현황, 국토해양부 누리집 등> 3. 법률 및 법률 용어 법률 및 법률 용어 검토 ※ 폐지된 법령은 삭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법률 내용이 거의 같으면서 명칭이 바뀐 경우는 표제어를 수정하고, 새로운 법령으로 통합된 경우에는 뜻풀이를 수정하여 밝혔다. 정식 명칭이 너무 길거나 사전에 올라 있는, 정식 명칭이 아닌 표제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일 경우 표제어를 정식 명칭으로 수정하지 않고 뜻풀이에 밝혔다.(예: 국정 감사법 - 뜻풀이에 정식 명칭이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임을 밝힘) <참조 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현행 법령, 연혁 법령 검색. 필요에 따라 각 정부 기관 누리집의 관계 법령 정보 참조 법률 용어의 경우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법조문을 찾아 확인함. ※ 2008년 1월 호적법 폐지에 관련된 모든 사항 별도로 추가 수정함. ※ 40차 회의록 전문어에서 예전 명칭만 올라 있고 바뀐 명칭이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은 경우 ‘표추’로 분류하여 바뀐 명칭을 표제어로 추가한다. 그러나 ‘전파 관리법’을 삭제하지 않고 뜻풀이를 “‘전파법’의 전 용어.”로 수정할 수도 있으나 전문어에서 전 용어가 많이 쓰이지 않을 경우 현재의 용어 뜻풀이에 전 용어에 대한 정보를 주고 전 용어는 삭제한다. 전문어 표제어가 모두 등재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명, 행정구역명	면적, 승격 정보, 관광지 등 달라진 정보 확인해서 풀이 수정해야 함.	- 각 도청, 시청, 구청에 전화하여 담당자와 통화 후 처리. - 각 해당 기관의 누리집 자료실 열람하여 처리.
서양 지명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지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명을 모두 검토	- Merriam Webster's Geographical Dictionary 3rd Edition 참조하여 면적, 길이, 원어, 주도, 수도, 외래어 표기, 주요 정보 수정.
인명	- 한국 인명의 생물 연도, 호, 자, 한자 표기 등 오류 많음. - 서양 인명의 생물 연도, 원어	- 한국 인명: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 정보마당>-‘한국의 역대인물’ 검색하여 일괄 수정함. - 서양 인명: (1) 서구 인명의 원어는 《Merriam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오류 많음.	Webster's Biographical Dictionary(1995, Merriam Webster 출판사)》에 따라 일괄 처리한다. 주로 서구 인명의 원어, 연도 등을 수정한다. (2)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 에 따라 서구 인명의 원어는 제시 원칙은 아래와 같다.(p127-131 참조) ① 인명을 밝히는 경우 성을 먼저 쓴다. 서구 인명의 경우는 성을 앞에 두고, ‘;’ 뒤에 이름을 전체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서양 이름(인명, 지명)에서 접두어나 관사류가 붙는 말일 경우 아래의 처리를 따른다. 가) 영국이나 미국의 인명이 De, Van, Von 따위를 포함하고 있을 때는 이를 표제어로 등재하고, 연결 요소의 첫 자는 대문자로 제시한다. 나) af, ten, till, van, van de, van den, van der, vom, von, von dem, von den, von der, von und zum, zu, zum, zur와 같은 연결 요소를 갖고 있는 스웨덴 어, 독일어, 네덜란드 어 따위 언어의 인명은 이를 이름과 함께, 성 뒤에 제시한다. 다) di', do, du, la, le, les 따위의 연결 요소는 표제어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 연결 요소의 첫 자는 소문자로 제시한다. ③ 두 가지 이상의 요소로 이루어진 복합 인명은 한 가지 요소로만 이루어진 단순 인명과 같이 처리한다. 특히 스페인 어와 포르투갈어의 y와 e를 포함하는 합성적 성(姓)은 이 요소 앞에 있는 성분까지를 성으로 본다. (3) 러시아 인(지)명의 로마자 표기 원칙 1. ‘i/ii’는 ‘y’로 고치는 쪽으로 함. 기존 사전이 일관성이 없었음. 외래어 용례집도 일관성이 없었음. 따라서 외래어 담당자와 협의 결과 고치기로 함. 2. ‘예’ 발음이 나는 경우, ‘e’를 ‘ye’로 고친 것은 ‘e’로 다시 돌림. 이것은 일괄적으로 모두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e’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칠 이유가 없음. 웹 스터에서는 영어식으로 ‘ye’로 했으나, 우리 외래어 용례집이나 기존 자료가 일괄적으로 ‘e’로 되어 있고, 현재 고친 것이 전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통일성을 저해함. 따라 서 이것은 ‘e’로 통일함.
북한어 중 ‘말’로 끝나는 조류	‘X말’(水生植物, 藻類) 류 어휘들 의 전문어 분류 수정 필요 식물 임에도 『생』으로 처리된 예들 이 있고, 아예 전문어 표시가 없 는 예들도 있음.	- 『생』으로 처리된 ‘X말’ 류 어휘들을 『식』 으로 수정. - 전문어 표기가 없는 ‘X말’ 류 어휘들에 『식』 을 넣어줄 것.
표제어 ‘들이-*’ 의 일관성	‘들이’로 시작하는 단어 뜻풀이 및 표제어 등재 검토할 필요 있 음. 접두사 ‘들이’가 ‘마구’와 ‘안 쪽으로’의 두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정리되어 등재 되어 있지 않음.	사전에 올라 있는 ‘들이03’ 외에 ‘안쪽으로’, ‘속으로’의 뜻을 가지는 접미사 ‘들이04’를 표제 어로 추가하였음. 한편 ‘마구’의 뜻을 지닌 ‘들 이03’의 파생형(예: 들이뛰다01)과 ‘안쪽으로’의 뜻을 지닌 ‘들이04’의 파생형(예: 들이뛰다02)이 모두 대립적으로 사전에 실려야 하는 당위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말뭉치에서 용례를 확 인하여 그 용례가 확인되지 않으면 ‘들이뛰다 01/들이뛰다02’처럼 양쪽 모두를 등재하는 방식 은 가급적 피하였음.
방위 관련 표제어	‘동북쪽/동북, 남동쪽/남동, 서남/ 남서’ 등 풀이 일관성 없음. 표제어 등재 일관성도 검토해야 함. 많이 쓰이는 ‘중서부’, ‘동북 부’ 사전에 없음	(1) ‘동서(쪽)’과 ‘동남(쪽)’ ① 동서/북남/남북 ‘동서04’ 등의 뜻풀이는 ‘[1] =동서쪽 [1]. [2] =동서쪽 [2].’의 형식으로 통일하였고, ‘동서쪽’ 등의 뜻풀이는 ‘[1] 동쪽과 서쪽 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동쪽에서 서쪽으 로 향하는 방향.’의 형식으로 통일함. ※ ‘서동’, ‘서동쪽’은 말뭉치에도 없고 실제 쓰 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가하지 않음. ② 동남/동북/남동/남서/서남/서북/북동/북서 ‘동남04’ 등의 뜻풀이는 ‘[1] =동남쪽 [1]. [2] =동남쪽 [2].’의 형식으로 통일하였고, ‘동남쪽’ 등의 뜻풀이는 ‘[1] 동쪽과 서쪽 을 아울러 이르는말. [2] 동쪽을 기준으로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동쪽과 남쪽 사이의 방위.’의 형식으로 통일함. (2) ‘동서방’과 ‘동남방’ ① 동서방/북남방/남북방 ‘동방과 서방을 아울러 이르는 말.’의 형식으로 통일함. ※ ‘서동방’은 말뭉치에도 없고 실제 쓰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가하지 않음. ② 동남방/동북방/남동방/남서방/서북방/북동방/북서방 ‘동남방’의 계열 어휘를 표제어 추가하고, 뜻풀이를 ‘[1] 동방과 남방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동쪽과 남쪽 사이의 방향.’의 형식으로 통일함. (3) ‘동향’, ‘동북향’의 계열 어휘를 표제어 추가하고, 뜻풀이를 ‘동쪽으로 향함. 또는 그 방향.’의 형식으로 통일함. (4) ‘중동부’의 계열 어휘를 표제어 추가하고, 뜻풀이를 ‘[1] 중부와 동부를 아울러 이르는 말. [2] 중부를 중심으로 중부와 동부 사이의 부분.’의 형식으로 통일함. (5) ‘동서부’와 ‘동북부’ ① 동서부/북남부/남북부 ‘동부와 서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의 형식으로 통일함. ※ ‘서동부’는 말뭉치에도 없고 실제 쓰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가하지 않음. ② 동남부/동북부/남동부/남서부/서북부/북동부/북서부 ‘동북부’의 계열 어휘를 표제어 추가하고, 뜻풀이를 ‘[1] 동부와 북부를 아울러 이르는 말. [2] 동부를 중심으로 동부와 북부 사이의 부분.’의 형식으로 통일함.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6) ‘동남간’의 계열 어휘를 표제어 추가하고, 뜻 풀이를 ‘동쪽을 기준으로 동쪽과 남쪽 사이’의 형식으로 통일함. (7) ‘동북단’의 계열 어휘를 표제어 추가하고, 뜻 풀이를 ‘동남쪽의 끝’의 형식으로 통일함. (8) ‘동남동’의 계열 어휘를 표제어 추가하고, 뜻 풀이를 ‘동쪽을 기준으로 동쪽과 남동쪽 사이의 방위’의 형식으로 통일함. (9) ‘동동북’의 계열 어휘를 표제어 추가하고, 뜻 풀이를 ‘동쪽을 기준으로 동쪽과 동북쪽 사이의 방위’의 형식으로 통일함. ※ ‘서서남’, ‘서서북’은 기존 사전, 말뭉치에도 없고 실제 쓰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가하지 않음. (10) ‘동풍’ 뜻풀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형식으로 통일함. 일반어로 처리함.
식물명 다의어 처리	개체 의미와 열매나 뿌리 등의 부분체 의미를 다의어로 처리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음. 또한 식물명과 꽃 이름도 일관성이 없음.	<꽃 이름 회의 결정 사항> 다음의 ‘개나리/개나리꽃’과 같이 처리 개나리 「명」 「1」 『식』 ~여러해살이풀. 「2」 ‘「1」’의 꽃. 개나리꽃 「명」 = 개나리 「2」. ===== ‘마름’이나 ‘메밀’ 등과 같이 “「2」, 「1」의 열매”처럼 뜻풀이되어 있는 경우 ‘~의 열매’ 외에 ‘~의 꽃’을 뜻풀이 추가할 수도 있겠으나 ‘마름’이나 ‘메밀’이 일차적으로 꽃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열매’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의 꽃’은 뜻풀이에 추가하지 않았음. ‘함박꽃나무, 흰참꽃나무’의 두 표제어는 ‘함박꽃, 흰참꽃’이 동의어로 올라 있으나 ‘당자리꽃나무, 부계꽃나무’ 등의 경우는 ‘당자리꽃, 부계꽃’이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후자와는 다르게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뜻풀이를 달리하였음. 곧, ‘함박꽃’과 ‘흰참꽃’은 둘 다 나무를 가리킬 수도 있고, 그 나무의 꽃을 가리킬 수도 있으므로 ‘함박꽃’과 ‘흰참꽃’을 기본 표제어로, ‘함박꽃나무’와 ‘흰참꽃나무’를 부표제어로 처리하였음.
문법 정보의 수사 정보 수정	‘길06’과 같은 유형의 단어를 뽑아서 정말 고유어 수사, 또는 한자어 수사와 어울려 쓰이는지 확인하여 문법 정보 수정해야 함.	(1) 인용, 기타 말뭉치를 확인하여 고유어, 한자어 수사와의 결합 빈도를 추출함. 이를 통해 ‘주로~’나 ‘흔히~’ 등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정보 수정함. 말뭉치상에서 ‘주로~’는 80% 이상, ‘흔히~’는 60% 이상 쓰였는지 살핌. ‘주로~’나 ‘흔히~’로 수정할 경우 용례 추가를 같이 하여 문법 정보 수정의 근거로 제시함. (2) 기존 사전과 <교학사, 한한대사전>도 수정 근거로 삼음.
‘-꾼’ 파생어 풀이 일관성	‘-꾼02’로 끝나는 파생어가 500여 개인데 이들의 뜻풀이가 일관성 없음. 전체 목록 검토하여 뜻풀이 수정할 필요 있음. (이에 따라 접미사 ‘-꾼02’ 뜻풀이도 수정할 필요 있음. 일단 뜻풀이 수정 및 추가를 통해 2개 뜻풀이를 5개로 세분화했음.)	① ‘어떤 일을 전문적이거나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의 의미가 살아 있는 경우와, ‘어떤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뜻이 포착되는 경우, ‘~일꾼’으로 뜻풀이되어 있는 경우에 ‘~는 사람’ 뜻풀이 형식을 택함. 단, 표제어 IC가 ‘O-일꾼’으로 된 경우는 수정하지 않음. ② ‘낮잡아~이르는 말’과 ‘속되게~이르는 말’, ‘놀림조로 이르는 말’ 등은 모두 ‘낮잡아~이르는 말’ 쪽으로 통일시킴. 또한 파생된 의미가 긍정적인 경우에는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쪽을 유지함(‘과수꾼」2」 참조). ③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되는 ‘~시대에, ~이르던 말’은 넓게 ‘~이르는 말’에 포함되므로 특별히 수정하지 않고 넘어감. 다만 ‘예전에~’와 ‘『역』’이 뜻풀이에 함께 들어간 경우 한쪽의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일반어이면서 뜻풀이에 ‘임금, 궁궐’ 등 현재 존재하지 않는 대상과 관련되는 표제어의 경우 ‘예전에’를 뺌(편찬 지침2:52). ④ 단일어로 되어 있는 표제어에 ‘-꾼02’ 뜻풀이 추가와 관련되는 용례가 많이 발견되면 적극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적으로 뜻풀이 추가하여 다의어 처리함(‘일꾼’ 참조). ⑤ ‘예전에’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koreanhistory’에서 검색하고 관련 서적에서 출처 확인함.
시기명 (대한 제국, 한말, 조선말, 조선 후기) 통일	대한 제국 발표(1897) 이후의 시대는 ‘조선 후기’가 아니라 ‘대한 제국’ ‘한말’ 등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현재 사전에 일관성이 없이 처리되어 있으므로 한꺼번에 검토 필요함.	(1) 참고 자료 ① [한국역사통합정보시스템(koreanhistory)] ② [국사편찬위원회 누리집] ③ [고려출판사, 한국사대사전] ④ [조선왕조실록] ⑤ [세광음악출판사 국악대사전] ⑥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사전] ⑦ [고려출판사, 세계인명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한 제국(1897~1910) 때의 것이 확실한 제도, 책명, 인명, 고적 등은 ‘대한 제국’ 쪽으로 수정하고 연도가 불분명한 경우는 ‘조선 후기’ 쪽으로 둬. (2) 뜻풀이에 ‘구한말’이 쓰인 표제어라도 해당 제도, 책명 등의 연도가 대한 제국 시기(1897~1910)에 설치·편찬된 것이라면 ‘대한 제국’ 쪽으로 수정함. 또한 ‘조선 후기’라고 뜻풀이되어 있는 인명이라도, 그 주요 활동 시기가 구한말(조선 말기~1910)에 속한다면 ‘구한말’ 쪽으로 수정함. (3) 웹 문서의 쓰임에서 ‘구한말’과 ‘한말02’이 동의어처럼 보이거나 [한국언론정보학회, 구한말(1881~1910) 지방 신문에 관한 연구], [청와대, 구한말 한반도 주변 정세와 한국의 외교] 등 여러 학술 논문을 검토한 결과,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가 틀리지 않음을 확인함.
‘당(當)’으로 시작하는 한자어	뜻풀이 일관성 없음. 전체 검토하여 일괄 처리 필요 예) 당일: 일이 있는 바로 그날, 당계: 이 시기. 또는 이 계절.	(1) 「1」 ‘그~’, 「2」 ‘이~’로 뜻풀이가 분할된 것과 하나로 합쳐진 것이 있음. 그러나 예가 없어 의미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하나의 형식으로 통일할 수는 없음. 이에 따라 뜻풀이 분할은 아래의 세 가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뜻풀이		지 형식으로 크게 구분하여 정함. ① ‘그~’와 ‘이~’가 용례에서 모두 나타나면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뜻풀이를 「1」, 「2」로 분할한다. 이때 ‘그~’를 먼저 제시한다.(예: 당세01) ② ‘그~’와 ‘이~’가 용례에서 나타나긴 하지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경우, 하나의 뜻풀이에서 설명한다. 이때에는 뜻풀이에서 ‘바로 그~ 또는 바로 이~’로 순서를 정한다.(예: 당가) ③ 다만, ‘그~’를 용례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만 풀이한다. ‘이~’만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와 의미가 동일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한 뜻풀이 안에서 제시하되 ‘이~ 또는 우리~’로 형식을 맞춘다. (2) 뜻풀이 형식은 ‘(일이 있는) 바로 그~ 또는 이~’ 형식으로 통일함. 다만, ‘어떤 일이 일어나다’의 주어-서술어 관계가 설정되지 않거나 ‘일이 있는’을 뜻풀이에 넣어 봤을 때 어색한 것은 ‘바로 그~ 또는 이~’의 형식으로 통일함.(예: ‘당각’, ‘당방’, ‘당사04’ 등) [교학사, 한한대사전 15211쪽]을 보니 ‘當’을 “그 당(其也). 일이 일어난 때나 장소를 가리킨다.”라고 뜻풀이하고 있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當’은 대부분 ‘그~, 또는 현재~(지금)’으로 뜻풀이되어 있음. 상황적 맥락을 앞에다 밝혀주는 것이, 단순히 ‘그해’와 같이 뜻풀이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임. (3) 또한 뜻풀이에서 ‘현재~’는 ‘지금~’으로 통일함.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당10 「1」’ 뜻풀이에 착안한 것임. (4) 고유어가 동의어로 있을 경우에는 고유어에서 뜻풀이를 하고 ‘當’은 뜻풀이를 기본 표제어로 돌림.(예: 당세02)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오륜(五 倫), 요일, 하나둘 씩	(1) 오륜(五倫) 뜻풀이 일관성 없음. 검토 필요. (2) ‘화, 수, 목, 금, 토’ 요일 뜻풀이와 오행 뜻풀이가 일관성이 없음. 예) 목10「명」 「1」 ((주로 요일을 열거할 때 쓰여)) ‘목요일’을 이르는 말. 「2」 『민』 오행(五行)의 하나. 방위로는 동쪽, 계절로는 봄, 빛깔로는 청색이다. 금05「명」 ((주로 요일을 열거할 때 쓰여)) ‘금요일’을 이르는 말. 금07「명」 『민』 오행의 하나. 방위로는 서쪽, 계절로는 가을, 빛깔로는 흰색을 가리킨다. (3) 뜻풀이와 용례에 나오는 ‘하나둘씩’의 띄어쓰기가 일관성이 없음. 예) 저물다: 하나둘씩(2개) 기상09: 하나 둘씩(29개)	(1) 오륜(五倫)의 하위어 뜻풀이는 기준을 ‘군신유의’로 하여 ‘오륜(五倫)의 하나. ~와 ~의 도리는 ~에 있음을 이른다.’ 형식으로 맞춤. ‘삼강’도표제어를 추가하고 이 형식에 맞추어 뜻풀이함. (2) 요일과 오행에 해당하는 뜻풀이가 동음이의어 또는 다의어로 일관성 없게 처리되어 있음. 이를 아래와 같이 동음이의어로 처리함.(‘화07’, ‘화08’ 형식으로 맞춤)이들을 다의어로 처리할 경우, 영역이 다를 뿐만 아니라 표제어를 합치면 다의어에 딸려 있을 수 있는 동의어, 참고 어휘 등 수정할 사항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임. 오류 최소화해야 함. ① 요일과 오행에 해당하는 뜻풀이는 동음이의어로 처리함. 이때 표제어 배열 순서는 ‘요일’을 앞에, ‘오행’을 뒤에 배치함. ② ‘오행’의 뜻풀이는 ‘오행(五行)의 하나. 방위로는 ~쪽, 계절로는~, 빛깔로는 ~색을 가리킨다.’로 통일함. 빛깔에 해당하는 색채명은 한자로 통일함. (3) ‘하나둘’은 현재 미등재어이나, ‘한둘’이 표제어로 있기 때문에 ‘한둘’을 ‘하나둘’의 준말로 본다면 ‘하나둘’을 붙여 쓰는 것에 무리가 없음. 이에 대한 표제어 집필은 아래에서 따로 하였음. ‘하나둘씩’을 ‘하나씩 둘씩’으로 대체했을 때 이상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상품 이름, 상품명, 상표명	현재 뜻풀이에 ‘상품 이름’, ‘상품명’, ‘상표 이름’, ‘상표명’ 등이 같은 맥락에서 일관성 없이 쓰이고 있음. 하나로 통일할 필요 있음.	(1) ‘상품명’과 ‘상표명’은 의미 차가 있으므로 뜻풀이에서 이 둘을 구분하고 ‘상품명’, ‘상표명’으로 형식을 통일하였다. 약품이나 화학 제품은 ‘상품명’이지 ‘상표명’이 아님. 반면 실이나 직물, 섬유는 ‘상표명’이지 ‘상품명’이 아니다. 따라서 ‘상품명’과 ‘상품 이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름'은 '상품명'으로, '상표명'과 '상표 이름'은 '상표명'으로 통일한다. (2) 상품명의 풀이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통일한다. ① 출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경우의 상품명 뜻풀이는 '<u>~(의 하나). ~의 상품명이다.</u>'로 통일함. 현재 상품명 뜻풀이는 '<u>~의 상품명(이다)</u>', '<u>~의 상품명에서 유래한다(나온, 유래한 말이다)</u>', '<u>상표명은~이다</u>', '<u>상표 이름에서 유래하였다</u>' 등 일관성이 없음. 이를 '<u>~(의 하나). ~의 상품명이다</u>' 쪽으로 통일함. 만약 '염산프로카인'이라는 고유의 약품이 있고 그 상품명에 '노보카인'이라면 해당 약품 "OO의 상품명이다"로 뜻풀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또한 '<u>~에서 온 말이다, 유래한 말이다</u>' 등으로 뜻풀이된 표제어는 약품의 발음과 상품명 표기가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마이카나이트'의 뜻풀이를 '미국의 회사 마이카 인슐레이터의 상품명이다.'로 수정해도 큰 문제가 없음. 그러나 반대로 '노보카인'의 뜻풀이를 '상품명 염산프로카인에서 온 말이다.'로 뜻풀이하면 인과관계가 전혀 엉뚱해지는 결과가 발생함. ② 출처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뜻풀이 맨 끝에 '<u>상표명에서 나온 말이다.</u>'를 부가 정보로 넣는다. 유래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①과 같은 형식으로 맞추기 어려움. 그러나 표제어가 상품명에서 유래했다는 정보를 삭제하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제시함. (3) 상표명 뜻풀이도 '상품명'에 준해 다음의 두 가지로 통일한다. ① 출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경우의 상표명 뜻풀이는 '<u>~(의 하나). ~의 상표명이다.</u>'로 통일함. 현재 '상표명~에서 유래하였다',

처리 목록	문제점	처리 기준
		‘상표명은~이다’, ‘상표명에서 온 말로~’, ‘상표명에서 유래한다’ 등 일관성이 없음. 이를 모두 ‘~(의 하나), ~의 상표명이다’ 쪽으로 통일함. ② 출처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뜻풀이 맨 끝에 ‘<u>상표명에서 나온 말이다</u>’를 부가 정보로 넣는다. 이유 ‘상표명’과 동일함. (4) 상품명이나 상표명이 표제어로 있는 경우에는 상품명이나 상표명 표제어의 뜻풀이에서 부가 정보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① ‘상품명/상표명’ 표제어와 유래 처 표제어의 뜻풀이 모두에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유래 처의 뜻풀이에서는 삭제하였음. (‘~의 상품명이다/상품명은 ~이다’와 같이 양 표제어에 모두 정보가 있을 때는 ‘상품명은 ~이다’를 삭제함.) ② 상품명이나 상표명이 미등재어이고 유래 처만 표제어로 있으면서 ‘상품명/상표명은 ~이다’라는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삭제함. ‘상품명/상표명’이 미등재어이고 굳이 들어야 할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함. (5) 구체적인 상품명이나 상표명이 뜻풀이에 없으나 관련 서적과 인터넷 검색에서 유래 정보가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록 2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지침

(붙임1) 《표준국어대사전》 원고 수정 양식

(붙임2) 문제점 유형 약호 목록

I. 기본 방향

1.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 6)의 잘못된 사항은 모두 교정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여 집필자가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검토 사항으로 분류하여 메모를 남긴다.
2. 교정 사항은 파일과 교정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파일명, 파일 작성 형식, 문제점 유형, 약호 등은 (붙임 1), (표 1)을 참조한다.
3. 기호 사용
 - ★: 새로 추가한 사항
(2, 5, 8, 9, 10, 11, 12, 15, 20, 26, 29, 33, 34, 38, 42, 44, 77, 78, 80, 81, 85, 86, 89, 91, 95, 103, 117)
 - ◆: 편찬 지침과 달라진 사항
(52, 68, 69, 93, 103, 104, 108~116)
 - ※: 《표준》의 내용.
 - ☞: 설명

II. 집필 지침

1. 표제어

1.1. 원칙

1. 표제어 선정 원칙, 표기 방식, 배열 순서 등은 ‘《표준》 편찬 지침 I - I. 표제어’ 항목의 원칙을 그대로 따른다.
2. 널리 쓰여서 표제어로 올릴 만한 가치가 있는데 《표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어휘는 적극적으로 추가를 검토한다.

6) 이하 ‘《표준》’이라고 명시한 것은 기존의 《표준국어대사전》을 가리킨다.

3. 《표준》에 북한어로 올라 있으나 남한어 쓰임이 발견되는 표제어는 남한어로 바꾸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4. 《표준》의 표제어 정보 중에서 잘못된 것은 수정한다.

★5. 외래어의 표기는 원칙적으로 2002년에 출간된 《외래어 표기 용례집(지명, 인명, 일반 용어)》을 따른다. 이후 2004년에 출간된 《동남아시아 3개 언어 외래어 표기 용례집》, 2005년에 출간된 《외래어 표기 용례집(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도 따른다. 용례집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발간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1.2. 세칙

1. 아래와 같은 경우 《표준》의 표제어 정보를 수정한다.

1) 북한어 수정 원칙

《표준》에 북한어로 등재되어 있는 표제어가 말뭉치나 인터넷 등에서 남한어 쓰임이 발견되면 ‘북남’, ‘북남검’, ‘표삭검’의 방법으로 처리한다⁷⁾.

(1) 아래와 같은 경우 ‘북남’으로 집필한다. ‘북남’으로 분류하였을 때는 #3에 정보 없음 표시(%)를, #4에 표제어(IC 분석 포함), 원어, 발음, 활용, 품사, 문형 정보, 문법 정보, 전문어 영역, 뜻풀이, 용례, 관련 어휘, 참고 어휘를 모두 순서대로 집필한다.

① 북한어로 분류된 표제어 중, 인용 말뭉치에서 남한어 쓰임이 보이고 집필자도 남한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북남’으로 분류하여 남한어로 집필한다.(그러나 인용 말뭉치에서 그 예가 보이더라도 특정한 작가의 작품에서만 나타날 경우에는 ‘북남’으로 바로 집필하지 않고 ‘북남검’으로 하여 검토 사항으로 남긴다.)

7) ‘북남검’과 ‘표삭검’으로 남긴 항목은 차후 일괄 처리를 통하여 최종 수정 여부를 결정하였다.

예1) #1가동음#2북남#3%#4가동-음(稼動音)「명」 기계나 공장 설비들이 작동할 때 나는 소리.『점심시간이 되자 공장 {가동음}이 멈췄다./문득 주차장 쪽에서 엔진 {가동음들이} 요란하게 들려온다.<NKVAA480,401,홍성원,육이오>§#5남한 용례 있음.

예2) #1거짓스럽다#2북남#3%#4거짓-스럽다[거:진쓰-따] [-스러워, -스러우니] 「형」 보기에 거짓을 부리는 태도가 있다.『너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단순한 욕망 때문에 {거짓스러운} 몸짓을 한 적이 있다./말이란 소란스럽고 {거짓스러운} 것이라 믿었던 그녀는 말 대신 침묵이 있는 글쓰기를 택했다.§#5남한어 용례 확인되고 실제로 쓰이므로 남한어로 집필함. ‘거짓스레’도 남한어로 바꿈.
#1거짓스레#2북남#3%#4거짓스레[거:진쓰-] 「부」 ⇒ 거짓스럽다.#5‘거짓스럽다’를 남한어로 수정한 것에 따름. ‘*스레’는 표제어 분석하지 않음.

※ 거짓스럽다 「형」 『북』 보기에 거짓을 부리는 태도가 있다.

② 《표준》에 주표제어와 부표제어가 모두 북한어로 분류되어 있는 표제어 중에서, 주표제어의 남한어 쓰임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부표제어가 인용 말뭉치의 다양한 작품에서 나타나고 집필자도 남한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부표제어를 ‘북남’으로 집필하고 이에 대응하는 주표제어도 ‘북남’으로 분류하여 집필한다.

예) #1길쭉길쭉하다#2북남#3%#4길쭉길쭉-하다[--깁--] 「형」 ⇒ 길쭉길쭉. 『염색한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었으나 {길쭉길쭉한} 사나이의 육체는 매력적이었다.<netc3703,062,강신재,해방촌 가는 길>§#5%
#1길쭉길쭉#2북남#3%#4길쭉-길쭉[--깁-] 「부」 여럿이 다 시원스레 조금 기름한 모양.#5부표제어 ‘길쭉길쭉하다’를 남한어로 수정함에 따름.

※ 길쭉길쭉 「부」 『북』 여럿이 다 시원스레 조금 기름한 모양. 『애기는 뼈마디가 모두 {길쭉길쭉} 뿔혀서 키가 상당히 커질 듯싶다.<선대>§
길쭉길쭉하다 「형」 『북』 ⇒ 길쭉길쭉.

③ 《표준》에 ‘-하다’, ‘-되다’ 등이 결합한 형태가 북한어 주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나 말뭉치에서 해당 어휘의 남한어 쓰임이 나타날 때, 남한어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북남’으로 분류하여 집필하고, 이에 대응하는 주표제어를 ‘표추검’ 항목으로 분류하여 집필한다.

예1) #1길쭉하다#2북남#3%#4길쭉-하다「형」⇒길쭉.『광채가 번쩍이는 두 눈에다 얼굴이 {길쭉한} 이 사나이는, 말에 상당한 자신을 가진 듯해 보였다.<NBNA000,007,김동리,사반의 십자가>§#5‘길쭉’의 부표제어로 수정되므로 표제어 재배열할 것.

#1길쭉#2표추검#5‘길쭉하다’가 남한어로 수정되었으므로 ‘길쭉하다’의 어근으로 추가할 것.

※ 길쭉하다「형」『북』 시원스레 조금 기름하다. 『{길쭉한} 말상을 한 사나이<<선대>>/성이라도 난 듯 셀쭉한 표정을 지으며 따지고 드는 국화의 {길쭉한} 얼굴과 짙은 눈썹은 바라볼수록 귀엽고 사랑스러웠다.<<잊지 못할 겨울, 선대>>§

예2) #1감송하다#2북남#3%#4감송-하다「형」 「1」 잔털 따위가 드물게 나서 까무스름하다. ‘감송하다’보다 센 느낌을 준다.『아궁이에 왕겨를 한 줍씩 던지느라 주름살 많은 {감송한} 얼굴을 옥 오그린다.<NKTA000,57,현덕,남생이>§ 「2」 『북』 ~#5말뭉치에 예들이 있어 남한어 뜻풀이를 추가하고 ‘감송하다’, ‘검송하다’에 맞춰 뜻풀이함. 어근 ‘감송’도 반드시 추가해야 함.

#1감송#2표추검#5‘감송하다’를 남한어로 고쳤으므로 ‘감송하다’의 어근으로 추가해야 함.

※ 감송하다「형」『북』 좀 까무스름하다. 『강아지의 {감송한} 몸뚱이/얼굴이 {감송해지다}.§

★④ 식물인 ‘○○’이 식물과 식물의 일부(열매나 꽃 등)’를 모두 뜻하는 다의어로 풀이되어 있고 ‘○○나무(꽃)’는 북한어로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말뭉치에서 ‘○○나무(꽃)’의 남한어 용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나무(꽃)’를

‘북남’으로 분류하여 남한어로 바꾸고 ‘○○’의 뜻풀이를 수정한다.

☞ 식물과 식물의 일부에 대한 뜻풀이와 전문어 영역은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북한어를 남한어로 바꿀 때에도 이에 맞추어야 한다.

‘○○’을 ‘[1] 『식』 ~식물. [2] [1]의 꽃.’과 같은 형식의 다의어로 뜻풀이한다. 이때 [1]은 식물 전문어로, [2]는 일반어로 분류한다.

‘○○꽃’은 ‘=○○ [2].’와 같은 형식으로 뜻풀이한다.

예) #1머루나무#2북남#3%#4머루-나무「명」『식』 [1]=머루01 [1]. [2]=머루01 [2]. #5남한어 쓰임이 발견되어 남한어로 집필함.

#1머루01#2뜻수#3「명」『식』 [1] 포도과의~. [2] 포도과의~분포한다. ≒목룡. [4]=왕머루.#4「명」 [1]『식』 포도과의~. ≒머루나무 [1]. [2]『식』 포도과의~분포한다. ≒머루나무 [2]. 목룡·산머루. [4]『식』=왕머루.#5‘머루나무’를 남한어로 집필한 것에 따라 뜻풀이 수정함. [3]은 식물 전문어가 아니므로 [3]을 제외한 뜻풀이 번호 각각에 전문어 영역을 넣어줌. [3]에는 동의어 ‘산머루’도 추가함.

※ 머루나무「명」『북』『식』 ‘머루01’의 북한어.

머루01「명」『식』 [1] 포도과의 왕머루, 까마귀머루, 새머루, 개머루, 털개머루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산머루. [2] 포도과의 낙엽 덩굴나무. 왕머루와 비슷하나 잎 뒷면에 붉은색을 띤 갈색 털이 있으며, 흑자색 열매가 달린다. 울릉도에 분포한다. ≒목룡. (Vitis coignetiae) [3] 머루의 열매. ≒산포도01 [1]·야포도 [2]. [4]=왕머루.

⑤ 북한어로 등재된 표제어 중에서 북한어 뜻풀이와는 다른 의미의 남한어 쓰임이 발견되면 ‘뜻추’나 ‘뜻추검’으로 분류하지 않고 ‘북남’ 또는 ‘북남검’으로 하여 남한어로 돌리고 뜻풀이를 추가한다.

예) #1보호막#2북남검#5보호-막(保護膜)[보:--]〔보호막만[보:-망-]〕「명」 [1] 사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표면을 덮고 있는 막. 새끼는 연약한 몸을 보호하기 위해

서 든든한 {보호막으로} 싸여 있다./자외선 코팅으로 CD에 {보호막을} 씌운다.
§ 「2」 『북』 ~. 기타 말뭉치.

※ 보호막(保護膜) 「명」 『북』 『의』 ‘점막02(粘膜)’의 북한어.

(2) 아래와 같은 경우 ‘북남검’으로 분류하여 집필한다. ‘북남검’으로 집필할 때에는 #1에 표제어, #2에 ‘북남검’, #5에는 메모를 남긴다.(검토 사항으로 집필할 때는 #3과 #4 항목은 삭제한다. 이에 따라 파일에는 ‘#1#2#5’만 입력해야 한다.) 이때 참고가 될 만한 말뭉치나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를 #5에 복사하여 남긴다.

① 말뭉치에서 남한어 용례가 보이나 특정한 작가의 작품에만 나와서 표준성이 의심스러운 것은 ‘북남검’으로 분류하여 집필하고 해당 표제어의 표준성을 검토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이때 ‘표사검’ 항목을 따로 만들지 않는다.

예1) #1개물01#2북남검#5‘개물’이 남한어로도 쓰이나 이것이 표준어인지, 방언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음. 검토 바람.

※ 개물01 「명」 『북』 「1」 ‘개밥’의 북한어. ¶{개물을} 주다.§ 「2」 ‘개죽(-粥)’의 북한어.

예2) #1게질게질#2북남검#5기타 말뭉치에 ‘게질게질하다’가 나옴. ¶밥상을 앞에 놓고 {게질게질하면서} 하도 분통을 돋우기에, “너 자꾸 그러면 아빠, 터져”라고 위협하면, 밥을 문 이쪽을 쏘아...§ ‘게질게질, 게질거리다, 게질대다’의 두 번째 뜻은 남한어로 보아야 할 듯하다. 남한어 표준어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 게질게질 「부」 『북』 「1」 질깃한 물건을 보기 흉하게 입을 놀리며 자꾸 씹는 모양. 「2」 내키지 않는 음식을 자꾸 억지로 먹듯 하는 모양.

② 《표준》에 북한어로 등재된 의성 의태어 중에서 말뭉치에는 용례가 나타나지 않

지만 논리적으로 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표제어는 ‘북남검’으로 분류하여 #5에 쓰임이 보이지는 않으나 남한에서도 파생이 가능한 단어라는 메모를 남긴다.

- ③ 옛말 투의 한자어나, ‘예전에, ~’로 풀이된 북한어는 그 쓰임이 말뭉치에서 발견되지 않더라도 ‘북남검’으로 분류하고 #5에 남한어로 검토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예1) #1노비윤삭공#2북남검#5정치색과 무관한 역사 전문어인데 북한어로 되어 있음. 남한에서도 쓰일 법한 용어.

※ 노비윤삭공(奴婢閏朔貢)「명」『북』『역』 노예살이를 하지 않는 노비들이 윤달에 공물로 바치던 쌀이나 천.

예2) #1금삼01#2북남검#5옛 제도와 관련된 한자어.

※ 금삼01(禁蔘)「명」『북』 예전에, 인삼의 수출을 금지하던 일. 또는 그 인삼.

- ④ 북한 전문어 중에서 남한어 쓰임이 보이지만 전문가 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북남검’으로 분류하여 집필하고 #5에 전문가 감수가 필요하다는 메모를 남긴다.(그러나 북한 전문어라고 하더라도 각 전문어 사전을 통해 남한어임이 확실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남한어로 집필할 수 있다.)

예) #1발성기관#2북남검#5발성기관(發聲器官)「1」『동』=발음 기관「1」.「2」『어』=발음 기관「2」.『위로라면 그저 보통의 병어리처럼 귀머거리를 겸한 것이 아니라, {발성 기관의} 이상으로 말을 못할 뿐이라는 정도일까.<NADAD001,156,이문열,황제를 위하여>§남한에서도 쓰임이 발견되나 표준성 검토, 전문어 감수 필요함. 또는 구 구성으로 보아 삭제할 수도 있음.

※ 발성기관(發聲器官)「명」『북』『동』 ‘발음 기관「1」’의 북한어.

- (3) 《표준》의 북한 표제어 중에서 남한어가 확실한 듯하나 단순 구여서 표제어로

등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표삭검’으로 분류하여 집필한다. 이때 해당 표제어와 관련된 어휘가 있으면 관련된 어휘도 함께 검토하라는 메모를 #5에 남긴다.

예) #1녹두깍지#2표삭검#5북한어인데 남한어의 구 ‘녹두 깍지’와 같은 뜻임. ‘녹두 깍지’를 삭제할 경우 동의어 ‘녹두깍대기’도 같이 삭제할 것. 『벗집이나 가랑잎을 태운다 여린 불빛이 노르스름하다 콩깍지 {녹두깍지} 술가래를 태운다./식은 땀은 메밀가루 한 줌을 노랗게 볶아 물에 달여 마시면 즉시 회복된다. 또 {녹두깍지를} 진하게 달여 마셔도 잘 듣는다.§

※ 녹두깍지(綠豆-) 「명」 『북』 녹두알을 털어 낸 깍지. 녹두깍대기.

(4)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북한어에 대응하는 남한 표제어를 추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① 한글 맞춤법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북한어는 반드시 말뭉치와 인터넷 등에서 대응 남한어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대응 남한어가 발견되면 한글맞춤법 정보에 제시된 형태를 ‘표추검’으로 남기고, 남한어를 추가할 경우 북한어의 뜻풀이를 수정하라는 메모를 남긴다.(예1) 그러나 만약 대응 남한어가 단순한 구구성으로 판단되면 ‘표삭검’ 메모로 남긴다.(예2)

예1) #1되박쌀#2표추검#5현재 ‘되박쌀’만 북한어로 등재되어 있으나 기타 말뭉치에 쓰임이 발견됨. ‘되박쌀’을 표제어로 추가할 경우 ‘되박쌀’의 뜻풀이를 ‘되박쌀’의 북한어로 수정해야 함. 『농민들의 먹고 살 곡식마저 반나마 빼앗아 가고 나니 혹 암거래되는 말쌀이나 {되박쌀이} 있다 해도 그건 너무나 비싸서...§

※ 되박쌀 「명」 『북』 되박으로 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양의 쌀. 『강화도의 주민들은 세상에 이름난 돛자리와 초물 제품을 가지고 왔고 연백 사람들은 쌀 고장에서 사는 것만큼 가난한 살림에도 {되박쌀을} 꿇져 들고 장으로 갔었다.《우리 마을, 선대》§ 솥되박쌀.

예2) #1련결동작#2표삭검#5대응하는 남한어 ‘연결 동작’ 말뭉치에 다수 나타남. 『주서봉의 {연결동작이} 얼마나 빨랐는지 마유신과 검진이 부딪친 순간에 그의 묵운신검은 그의 손을 떠나 검진에 이 <D96ADA23,금 강,절대지존(중)>/가장 급진적이었고, 활동적이었던 이본 레이너(Yvonne Rainer)에 의해, 기존 현대춤에서 발견되어지는 춤의 {연결동작이나} 그것의 전개와 클라이맥스, 리듬, 형내, 다이내믹 같은 변형의 요소들, 인물, 공연서...<D950908,김태원,후기현대춤의 미학과 동향>§ 구 구성으로 보아 ‘련결동작’을 삭제하거나, ‘연결 동작’을 표제어로 추가한 다음, ‘련결동작’의 뜻풀이를 “‘연결 동작’의 북한어”로 수정해야 함.

※ 련결동작(連結動作)「명」『북』『예』 춤의 토막과 마디 사이를 이어 주거나, 기교 동작을 수행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동작을 통틀어 이르는 말. **쑈연결 동작.**

★② 직접 뜻풀이가 되어 있는 북한어 중에서 대응 남한어가 있는 경우에는 ‘표추검’으로 분류하여 대응 남한 표제어 추가를 검토한다. 이때 #5에 해당 표제어가 추가될 경우 관련된 북한어의 뜻풀이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메모를 남긴다. 또한 해당 북한어는 ‘뜻수검’ 항목을 남겨 대응 남한어가 추가될 경우 뜻풀이를 수정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예1) #1씻가락#2표추검#5씻가락(詩--). 기타 말뭉치에 자주 나옴.『첫 시집 「자작나무 내 인생」이 적요롭고 농밀한 내면의 산책길을 열어 보이며 전통적인 {씻가락의} 현대적 변용을 시도했다면 이 시집에서는 시인의 고통스런 자기 부정 그리고 새로운 출발에...<4BJ01001,bookoo.com,서평>/글 솜씨가 뛰어나고 시적인 감흥이 남달랐다면 한 구절의 아름다운 {씻가락이} 흐를 만도 한데 그쪽으론 영 솜씨가 없는지라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을 단지 환상적이다...<4BJ01001,bookoo.com,신불평원의 가을 단상>§ ‘씻가락’을 추가할 경우 북한어 ‘시가락’의 뜻풀이를 “‘씻가락’의 북한어”로 수정해야 함.
#1시가락#2뜻수검#5‘씻가락’이 표제어로 추가될 경우 “‘씻가락’의 북한어”로 풀이 수정해야 함.

※ 시가락(詩-) 「명」 『북』 「1」 시를 읊을 때의 곡조 「2」 저속한 시를 낮잡아 이르는 말.

③ 운동 경기나 동식물 명칭 같은 표제어 중에서 《표준》에는 북한어로만 등재되어 있으나 남한에서도 같은 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표제어는 ‘뜻수검’으로 분류하여 대응 남한어가 있는지 검토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예2) #1로라호케이경기#2뜻수검#5내용상으로 볼 때 남한에서도 하는 경기로 보임.
대응 남한어가 있는지 전문가 감수 필요.

※ 로라호케이경기(roller hockey競技) 「명」 『북』 『운』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하는 하키 경기. 스피드롤러 하키 경기.

(5) 북한어 관련 기타 사항

★① 다의어의 뜻풀이 중 일부가 북한어로 되어 있는 것을 남한어 쓰임이 확인되어 남한어로 바꿀 때에는 ‘북남’이 아니라 ‘뜻수’로 분류하여 수정한다.

☞ 이와 같은 경우 표제어는 남한어이고 뜻풀이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북남’ 또는 ‘북남검’이 아니라 ‘뜻수’, ‘뜻수검’ 항목으로 구분한다.

예1) #1몽두리#2뜻수#3 「2」 『북』 여자가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쓰던 것.#4 「2」 여자가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쓰던 것.#5남한 쓰임이 확인되어 남한 뜻풀이로 수정함.

#1몽두리#2용수#3 「2」 『머리에 뒤집어썼던 {몽두리를} 벗어제끼고 우증이 쪽으로 몸을 돌렸다.<높새바람, 선대>§#4 「2」 『왕자 부인과 나인에게는 얼굴에 {몽두리를} 씌우게 하여 일본 군사들에게 여자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NDPAC031,304,박종화,임진왜란>§#5 남한어 뜻풀이로 바꾸고 용례를 남한 용례로 수정함.

※ 몽두리(蒙頭里) 「명」 「1」 『예』 조선 시대에, 궁중에서 기녀가 춤출 때에 입던

옷. 보통 초록색 두루마기와 비슷한데, 어깨와 가슴에 수를 놓고 붉은 띠를 매었다. <몽두의. 「2」 『북』 여자가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쓰던 것. 『머리에 뒤집어썼던 {몽두리}를 벗어제끼고 우증이 쪽으로 몸을 돌렸다. <늬새바람, 선대> § 「3」 『북』 ‘몽두01(蒙頭)’의 북한어. 『{몽두리}』 쓰다.』

★② 다의어 중에는 ‘○○의 잘못’이면서 동시에 ‘○○’의 북한어로 뜻풀이가 올라 있는 표제어가 있다. 이 중에서 남한어 쓰임이 보이는 것은 표제어를 ‘표사점’으로 분류하여 표준어 사정을 검토하고 표준어로 바꿀 경우 동일한 북한어 뜻풀이를 삭제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③ 북한어를 남한어로 수정할 때에는 #4에 표제어(IC 분석 포함), 원어, 발음, 활용, 품사, 문형 정보, 문법 정보, 전문어 영역, 뜻풀이, 용례, 관련 어휘, 참고 어휘 등을 사전의 형식에 맞게 입력한다. 특히 뜻풀이는 유형별 뜻풀이 형식에 맞게 제시해야 하고, 북한어에서의 뜻풀이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를 살펴 만약 남한어에서의 쓰임과 차이가 있다면 뜻풀이를 조정하여 제시한다. 다만 뜻풀이를 조정할 때 집필자가 확신할 수 없어 전문가의 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5에 전문가 감수가 필요하다는 메모를 남긴다.

예) #1단선04#2북남#3#4단선04(單選) 「명」 『정』 ‘단독 선거’를 줄여 이르는 말.『드디어 5·10 단독 선거는 강행되고 {단선}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조리 경을 쳐야만 했다.<netc3108,296,김정한,슬픈 해후>/마을마다 돌아다니며 밤잠 안 자고 {단선} 반대 운동을 한 일을 생각하니 얼굴이 뜨거워질 판이다.<NGYAA052,315,이병주,지리산>』#5말뭉치에 여러 예가 있어 남한어로 수정. #1단독선거#2북남#3#4단독^선거(單獨選舉) 『정』 일부 지역에서 단독으로 실시하는 선거.『마침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나서 일 년을 바라볼 무렵이었다.<NDNAA002,232,박완서,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5말뭉치에 여러 예가 보여 남한어 구로 수정함. 북한에서 ‘단독 선거’를 부정적으로 보아 풀이를 수정함.

※ 단선04(單選) 「명」 『북』 『정』 =단독선거.

단독선거(單獨選舉)「명」『북』『정』 전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부 지역에서 단독으로 실시하는 선거. ㄴ단선04(單選).

★④ 북한어의 뜻풀이에 한글 맞춤법 정보가 빠져 있을 때에는 ‘뜻수’로 분류하고 ‘ㄴ(문자표:347f)’ 표시를 한 후에 한글 맞춤법 정보를 넣어 준다.

예) #1다듬랑#2뜻수#3%#4ㄴ다듬양.#5한글 맞춤법 정보 추가함.

★⑤ 같은 언어로 제시된 표제어이면서 남북한의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에 따라 표기가 다른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 정보를 넣어 주고 원어 자체가 달라서 표기가 다른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 정보를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어긋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뜻수점’으로 분류하여 내용과 해당 단어가 결합한 표제어들을 일괄적으로 검토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예1) #1분코스#2뜻수점#5‘ㄴ분코스’가 현재 한글 맞춤법 정보가 들어 있으나 북한어 ‘코스’는 독일어이고 남한어 ‘코스’는 영어로, 언어가 다르므로 한글 맞춤법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없음. ‘코스’가 결합한 표제어들을 일괄적으로 검토하여 한글 맞춤법 정보 삭제.

예2) #1분배폴라로그래프법#2뜻수점#5현재 한글 맞춤법 정보가 없으나 ‘그래프’와 ‘그래프’는 원어는 같고 표기만 다른 것이므로 한글 맞춤법 정보를 넣어야 함. ‘그래프’가 결합한 표제어를 모두 한글 맞춤법 정보를 추가해야 함.

2) 기본 표제어의 설정

(1) 준말, 본말, 동의어의 관계에서 자주 쓰이는 것을 기본 표제어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자주 쓰이지 않는 표제어가 《표준》에 기본 표제어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주 쓰이는 단어로 기본 표제어를 수정하고 수정한 사항을 #5에 메모로 남긴다. 다만 기본 표제어 수정은 말뭉치에 나타나는 비율이나 실제 쓰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정하도록 한다. 또한, 기본 표제어를 수정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양쪽 표제어의 뜻풀이를 모두 수정한다.(기본 표제어 수정은 뜻풀이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표수’

가 아니라 ‘뜻수’ 항목으로 분류한다.)

예1) #1음영02#2뜻수#3「1」 어두운 부분. ㄴ그늘「1」.#4=그늘「1」.#5기본 표제어를 ‘그늘’로 수정함.

#1그늘#2뜻수#3「1」=음영02(陰影)「1」.#4「1」 어두운 부분. ㄴ음영 02(陰影)「1」.#5기본 표제어를 ‘그늘’로 수정함.

※ 음영02(陰影)「명」「1」 어두운 부분. ㄴ그늘「1」.

그늘「명」=음영02(陰影)「1」.

예2) #1기연가미연가#2뜻수#3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지 않은 모양. ㄴ기연미연.#4‘긴가민가’의 본말.#5‘긴가민가’를 기본 표제어로 수정함.

#1기연가미연가하다#2관수#3%#4「준」 긴가민가하다.#5뜻풀이 수정에 따름.

#1긴가민가#2뜻수#3‘긴가민가하다’의 어근.#4「부」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지 않은 모양. ㄴ기연미연「Ⅱ」. 『골짜기에서 물 흐르는 소리란 그냥 꾸며 낸 말이었으므로 아씨는 되레 놀라면서 {긴가민가} 귀를 기울였다.<NDNAD080,353,박완서, 미망>§#5‘긴가민가’가 ‘기연가미연가’보다 많이 쓰이고 ‘-하다’와 결합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쓰이므로 ‘긴가민가’를 기본 표제어로 수정하고 어근에서 부사로 수정.

#1긴가민가#2관수#3%#4「본」 기연가미연가.#5뜻풀이 수정에 따름.

#1긴가민가하다#2뜻수#3‘기연가미연가하다’의 준말.#4⇒긴가민가.#5‘긴가민가’를 기본 표제어로 수정한 것에 따름.

#1긴가민가하다#2관수#3%#4「본」 기연가미연가하다.#5뜻풀이 수정에 따름.

#1기연미연#2뜻수#3=기연가미연가.#4「Ⅱ」=긴가민가.#5‘긴가민가’를 기본 표제어로 수정한 것에 따름.

※ 긴가민가 ‘긴가민가하다’의 어근.

긴가민가-하다「형」【…이】【-ㄴ지】 ‘기연가미연가하다’의 준말.

기연가미연가(其然未然)「부」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지 않은 모양. ㄴ기연미연.

기연가미연가-하다【…이】【-니지】「형」⇒기연가미연가.

(2) 자주 쓰이는 단어를 표제어로 정한다는 (1)의 원칙은 순화어와 순화 대상어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순화 대상어가 순화어보다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순화 대상어를 기본 표제어로 삼는다.

(3) 전문어의 기본 표제어는 빈도와 상관없이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단, 감수자가 기본 표제어를 수정한 경우는 감수자 의견을 따른다.)

3) 표제어 단순 수정

(1) 표제어의 IC 분석이 잘못되었거나 표기가 틀리거나 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수’로 분류하여 수정한다. 다만 집필자가 확신할 수 없을 경우에는 ‘표수검’으로 분류하여 #5에 메모를 남긴다⁸⁾.

예1) #1마뜡찮다#2표수#3마뜡찮다#4마뜡잡다#5폐쇄음 ‘ㄱ’앞에서 ‘ㅎ’이 떨어져 줄어들기 때문에 ‘마뜡지않다<마뜡잡다’가 바른 표기. 표제어 수정에 따라 발음, 활용 정보 모두 수정해야 함.

예2) #1내환어음#2표수검#5‘내환-어음’과 같이 명사로 분석돼 있는데, 참고 어휘인 ‘외환 어음’은 ‘외환^어음’으로 구(句) 처리돼 있음. ‘내국환^어음’의 준말이 ‘내환 어음’이라는 점과, ‘외환^어음’의 표제어 일관성에 비추어 볼 때, ‘내환-어음’도 구로 처리해야 할 듯함. 처리 시 발음 정보, 품사 정보도 함께 수정해야 함.

★(2) 외래어 표제어의 표기가 맞는지 확인하여 잘못된 것은 수정한다. 같은 대상에 대해 여러 언어 표기가 표제어로 등재된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교차로 검토하여 지침에 맞게 뜻풀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8) ‘표수검’으로 남긴 항목은 표제어 담당자나 내부 회의를 통하여 차후에 일괄 처리 하였다.

예1) #1랭군02#2표수#3랭군02#4랑군#5외래어 용례집 확인 결과, ‘랑군’의 잘못임.
수정했을 경우 표제어 배열을 다시 할 것.

※ 랭군02(Rangoon) 『지2』 ‘양곤(Yangon)’의 옛 이름.

예2) #1마줄리카#2뜻수검#5naver 백과사전(~이탈리아 사람이 마줄리카라고 부른 데서 이 이름이 생겼다. 마울리카(maiolica)라고도 한다.)과 《표준》의 뜻을 보면 ‘마줄리카’와 ‘마울리카’는 동의어로 보임. ‘마울리카’와 같은 것임.

※ 마줄리카(majolica) 「명」 『수3』 중세 말기 이후 이탈리아 각지에서 만들어진 채화 도기. 백색 불투명의 주석 채약을 칠한 것이다.
마울리카(&이maiolica) 「명」 『수3』 15세기경에, 이탈리아에서 발달한 도자기. 보통 흰 바탕에 여러 가지 그림물감으로 무늬를 그린 것이 특징이다.

2. 아래와 같은 경우, 표제어 추가를 검토한다. 표제어 추가는 모두 검토 사항으로만 집필한다. 이에 따라 파일에는 ‘#1표제어#2표추검#5해당 사항’과 같은 형식으로 입력한다. 이때 추가할 표제어의 뜻풀이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표제어가 추가되어야 할 근거를 #5에 자세히 기술한다9).

1) 표준어

(1) 인용 말뭉치나 기타 말뭉치 등에서 그 쓰임이 확인되고 일반적으로도 널리 쓰여 등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어가 《표준》의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표추검’으로 분류하고, 추가 근거가 되는 용례를 말뭉치에서 복사하여 #5에 붙여 둔다.(예1)) 다만 추가하고자 하는 단어의 표준성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표준성을 검토하라는 메모를 #5에 남긴다.(이때, ‘표사검’ 항목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예2))

예1) #1준비물#2표추검#5準備物.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임. ¶여행 {준비물}/출산 {준비물}/내일 학교에 가져갈 미술 {준비물}을 가방에 넣었다.§

9) ‘표추검’으로 남긴 항목은 차후 표제어 담당자가 일괄 처리 하였다.

예2) #1봄동#2표추검#5봄동. 봄배추와는 의미가 다름. 봄배추는 봄에 파종을 하지만, 봄동은 김장용 배추를 심었다가, 결구(結球)가 되지 않은 배추를 뽑아서 쪼등으로 덮거나, 그대로 노지(露地)에서 겨울을 보내게 내버려 둬. 그 때문에 속이 짝 차지 않고 퍼진 모양임. 인용 말뭉치에서 용례가 발견되나, 송기숙의 작품이 대부분임. 표준성 검토한 후 추가 바람. ‘얼같이배추’와 같은 것인지도 확인 필요함.『“그냥 묵어라. {봄동} 맛이 꿀맛일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몸이 성한 게 이만치래도 곡기 구경을 한다...”<NAGAA081,230,송기숙,녹두 장군>/반찬은 배우 {봄동} 무침하고 묵은 김치 두 가지였다. “쌀을 조개 더 넣제 그랬소?” <NAGAA081,230,송기숙,녹두 장군>§

(2) 《표준》 출간 이후 새롭게 등장하여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단어나, 새로 생긴 건물 명칭, 사물 명칭 중에서 표제어로 등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어는 ‘표추검’으로 분류하고 추가를 검토하라는 메모를 #5에 남긴다.

예1) #1비밀번호#2표추검#5秘密番號. 많이 쓰이는 단어임. 『컴퓨터 {비밀번호}/{비밀번호를} 입력하다/6자리 숫자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만들었다.§

예2) #1인천국제공항#2표추검#5仁川國際空港. 2001년에 김포 국제공항의 국제선을 옮겨 세운 국제 공항.

(3) 《표준》의 뜻풀이에 미등재어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미등재어를 ‘표추검’으로 분류하고, 어떤 표제어의 뜻풀이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5에 밝혀 적는다. 또한 미등재어가 포함된 뜻풀이는 가능한 한 미등재어가 사용되지 않은 문장으로 수정한다. 이는 전문어의 뜻풀이에든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전문어 뜻풀이의 경우에는 뜻풀이를 이해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거나 지나치게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표추검’ 메모를 남기지 않아도 된다.

예1) #1중료#2표추검#5衆寮. ‘파침가’의 뜻풀이에 나옴. 불교 전문어로 보임.

※ 파침-가(把針架)「명」『불』 중들이 바느질하는 곳. 중료의 뒤에 있다.

예2) #1한리학관#2표추검#5漢吏學官. ‘이문학관’의 뜻풀이에 쓰임. 역사 전문어로 추가 검토

※ 이문-학관(吏文學官)[아:--관]「명」『역』 조선 시대에, 승문원에 속하여 외교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중종 19년(1524)에 둔 것으로, 뒤에 한리학관으로 고쳤다. ㄴ학관01「1」.

예3) #1점각#2표추검#5‘개미불이’의 뜻풀이에 나옴.

※ 개미-불이[개:-부치]「명」『동』 개미불잇과의 곤충. 몸의 길이는 9mm 정도이고, 몸은 붉은 갈색 털로 덮여 있고 점각이 촘촘히 있다.

(4) 《표준》의 용례에 미등재어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미등재어를 ‘표추검’으로 분류하고, 어떤 표제어의 용례에 사용되었는지를 #5에 밝혀 적는다.(만약 해당 미등재어가 표준성이 의심스러울 때는 표준성을 검토하라는 메모를 함께 남긴다.) 또한 미등재어가 사용된 용례는 최대한 다른 용례로 교체한다.

예1) #1간동거리다#2표추검#5‘거운하다’의 용례에 있는 단어. 표준성 검토 후 추가 바람.『일만은 나뭇짐을 다독이고 {간동거리} 매끼 질러 작대기로 거운하게 받쳐 세운 다음...《이문구, 장한몽》§ 현재 《표준》에 ‘간동’, ‘간동하다’, ‘간동간동’, ‘간동간동하다’는 등재되어 있음. 추가할 경우, 단순 동의어 ‘간동대다’도 함께 추가해야 함.

※ 거운-하다[-우타-]「형」=거우듬하다. 『일만은 나뭇짐을 다독이고 간동거리 매끼 질러 작대기로 {거운하게} 받쳐 세운 다음...《이문구, 장한몽》§

예2) #1발매다#2표추검#5‘빠지직빠지직하다1[1]「4」’의 용례에 있음. 『발 매는 어머니의 이마에 땀방울이 {빠지직빠지직하니} 안타깝다.§ ‘발 매는’으로 띄어져 있으나, ‘발매기’는 있는데, ‘발매다’는 없는 것은 체계상 어색함. ‘논매다’만큼 많이 쓰이는 단어.

※ 빠지직빠지직-하다[----지카-]「동」 [1]「1」~.「2」~.「3」~.「4」 ⇒빠지직빠지
직「4」.¶발 때는 어머님의 이마에 땀방울이 {빠지직빠지직하니} 안타깝다.§

- (5) 《표준》에 접두사로만 등재되어 있으나 말뭉치에서 관형사적 쓰임을 보이고 집 필자의 판단에도 관형사로도 등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표제어는 ‘표추검’으로 분류하고, 관형사로도 표제어 추가를 검토하라는 메모와 근거가 되는 예문을 #5에 남긴다.

예) #1구#2표추검#5‘구(舊)’는 현재 접두사로만 처리되어 있으나 ‘구 대한 청년단’에서의 ‘구’는 접두사 ‘구-24’와는 차이가 있음. 의미에 따라 ‘묵은’, ‘낡은’ 등의 의미는 접두사로, ‘지금은 없는’, ‘지금은 아닌’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관형사로 보아야 할 듯함.

- (6) ‘-감(感)’, ‘-식(式)’, ‘-용(用)’, ‘-성(性)’, ‘-스럽다’, ‘-쟁이’ 등 생산적인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 중에서 《표준》에는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말뭉치에 자주 나타나 표제어로 등재해야 할 듯한 단어는 ‘표추검’으로 분류하고 추가 근거가 되는 용례를 #5에 복사하여 붙여 둔다.

예1) #1동질감#2표추검#5同質感. 기타 말뭉치에 용례 보임.¶{동질감을} 지니다/민족 {동질감}/소비층에 {동질감과} 개인적 자긍심을 주고...§

예2) #1간이식#2표추검#5간이-식(簡易式). 기타 말뭉치에 용례 나옴.¶주요 도시 중심부에 {간이식} 목조 상점들이 들어선다./그녀는 {간이식} 마루방에 잠든 아이 옆에 누웠다./교장이 있을 때는 방 두 개와 {간이식} 부엌이 딸린 사택이었다./화장실도 {간이식으로} 되어 있고 수도물도 나오지 않는 바캉스 촌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다.§

예3) #1여성스럽다#2표추검#5많이 쓰이는 단어. ¶{여성스러운} 느낌/{여성스러운} 모습/{여성스러운} 스타일/{여성스러운} 원피스/{여성스러워} 보인다/그녀는 {여성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이다./옷차림이 {여성스럽다}.§ 추가 시 ‘남성스럽

다’도 같이 수정해서 두 단어의 관계 반의어나 참고 어휘로 제시할 것.

예4) #1고자질쟁이#2표추점#5‘고자질-쟁이」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잘 일러바치는 사람을 낚잡아 이르는 말. ㄴ고자쟁이.『아이들이 나더러 선생님께 떠드는 사람을 말했다고 {고자질쟁이라고} 놀려요./너 엄마한테 내가 꽃병 깨뜨린 거 말했다지. 이 {고자질쟁이야}!§ ‘고자질쟁이’가 표제어로 올라가면 ‘고자질쟁이’를 기본 표제어로 하고, ‘고자쟁이’는 동의어로 처리해야 할 듯.

★(7) 문법 형태소 중 빈도가 높고 표제어로 올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표추점’ 메모를 남긴다.

예) #1ㄴ다더라#2표추점#5‘내일 온다더라’, ‘일찍 잔다더라’에서의 ‘ㄴ다더라’는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 자주 쓰이고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 추가 검토 아울러 ‘-다더라’, ‘-는다더라’도 함께 검토할 것.

2) 방언

방언 중에서 《표준》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널리 쓰이고 있고 표제어로 올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어는 ‘표추점’으로 분류하여 표제어 추가를 검토한다. 이때 #5에는 방언 지역, 대응하는 표준어 등 그 방언에 관련된 정보를 메모로 남긴다.

예) #1옹심이#2표추점#5기타 말뭉치에 많이 나옴. 현재 사전에는 ‘옹시미’만 올라 있으나, ‘옹심이’가 자주 나옴. <한민족 언어정보화 통합 검색시스템>에서도 확인됨.『잡쌀 {옹심이} 단팥죽/{옹심이} 칼국수/술을 걸고 화암 약수로 지어 파는 가마 술밥과 구수한 누룽지를 맛볼 수 있다. 콧등치기 국수, 콩깅이, 감자 {옹심이},…§ 옹심이는 ‘옹시미’로 쓰기도 하는데, 모두 ‘새알심’의 사투리(방언)이다.

3) 부표제어

(1) 《표준》에는 부표제어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말뭉치에 자주 나타나는 부표제어는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따라서 말뭉치에서 그 쓰임이 자주 보이

고 집필자가 표제어로 등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러한 부표제어를 ‘표추검’으로 분류하고 추가해야 할 근거가 되는 말뭉치를 #5에 복사하여 붙인다.

예1) #1게첩하다#2표추검#5‘게첩’이 ‘내어 걸어 붙임’이므로 부표제어가 있어야 할 듯하며 인용 말뭉치에 ‘게첩하다’가 나옴. 추가 시 ‘게첩되다’도 같이 검토 바람. 『방리(坊里)마다 효시문(梟示文)을 {게첩하는} 등 백방으로 엄금하는 판이 어서 송파에서 양주(楊州)의 평구(平邱) 장터를 드나들며 소몰이를….<bexx0010, 김주영, 객주>/놀랍게도 흠차제독(欽差提督) 정여창의 명의로 승례문과 종가 곳곳에는 포고문이 {게첩되었다}. 대원군이 중전을 시해하였다는 말이 중국의 조정에까지 미치어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해….<bexx0011,김주영,객주>§

※ 게첩(揭帖)[게:-]〔게첩만[게:첩-]〕「명」내어 걸어 붙임. 또는 그런 문서. ‘내붙임’으로 순화.

예2) #1가동되다#2표추검#5인용 말뭉치, 기타 말뭉치에 자주 나옴. 『기계가 {가동되다}/에어컨이 {가동되다}/히터가 {가동되다}.§

※ 가동07(稼動)「명」사람이나 기계 따위가 움직여 일함. 또는 기계 따위를 움직여 일하게 함. 『공장의 기계들은 {가동을} 멈추고 기술자들은 손을 놓고 있다./기한에 맞추려면 기계의 {가동}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예3) #1쫓쫓거리다#2표추검#5인용 말뭉치에 예문 나옴. ‘쫓쫓’의 부표제어로 등재되어야 할 듯함. 추가시 단순 동의어인 ‘쫓쫓대다’도 함께 추가할 것. 『노인에게 불손하게 대한 젊은이에게 행인들이 {쫓쫓거리며} 한마디씩 했다.//아들의 하는 짓을 보고 혀를 {쫓쫓거리다}/김가가 다시 신틸을 메기 시작하자, 노파가 혀를 {쫓쫓거리면서} 우거지 죽 한 사발을 주었다.《오영수, 은넷골 이야기》§

※ 쫓쫓[쫓쫓]「부」연민을 느끼거나 마음에 못마땅하여 자꾸 가볍게 혀를 차는 소리.

(2) 주표제어의 쓰임은 발견되지 않고, ‘-하다’, ‘-되다’ 등이 결합한 부표제어만 말뭉치에서 발견될 경우에는 ‘-하다’, ‘-되다’가 결합한 부표제어를 ‘표추검’으로 분류하여 집필하고 #5에 관련된 주표제어도 ‘표추검’으로 검토 바란다는 메모를 남긴다.(주표제어의 ‘표추검’ 항목을 따로 만들지 않는다.)

예1) #1녹선하다#2표추검#5錄選-. ‘녹선(錄選)’은 쓰임이 없으나 부표제어인 ‘녹선하다’가 조선왕조실록 및 사전 뜻풀이에 많이 나옴. ¶“청백리의 선발은 곧 우리 조종의 양법입니다만 숙묘(肅廟) 갑술년(1605) 이후 {녹선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시다.”<번역 순조실록>/“시종(侍從)을 {녹선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니, 한 사람을 취사하는 것도 소장(消長)에 관계되는 것입니다.”<번역 중종실록>§ ‘녹선하다’를 추가할 경우 ‘녹선’을 명사나 어근으로 표제어 추가를 검토해야 함. 아울러 ‘녹선되다’도 같이 추가 검토할 것.

예2) #1대관하다#2표추검#5貸館-. ¶극장을 {대관하다}/연습실을 {대관하다}/공연장을 {대관하다}/체육관을 {대관하다}/장기로 미술관을 {대관하다}.§ ‘대관하다’ 추가 시 주표제어 ‘대관04(貸館)’도 추가 검토

예3) #1거명되다#2표추검#5擧名-. ¶총리 후보로 {거명되다}/하지만 이에 대해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그렌넬 대변인은 “유엔 사무총장 후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훌륭한 관리자이면서 개혁자이냐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대륙별 순번제, 즉 아시아 순서론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다. 불탄 대사도 같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유엔 안팎에서는 폴란드의 알렉산데르 크바시니에프스키 전 대통령과 라트비아의 여성 정치인 바이라 비케 프라이베르 대통령 등도 {거명되고} 있다.§ ‘거명되다’를 추가할 경우, ‘거명하다’와 주표제어 ‘거명’도 추가 검토

예4) #1데데거리다#2표추검#5‘데데하다’와 다른 뜻으로 쓰인 용례 보임. 빠르게나 급하게 말하는 것과 관련 있음. ¶코에 걸리는 듯한 베이스 음성으로, 뜬금없이 저력 있게 울리는 이 말소리는 {데데거리고} 급한 제호의 말소리와는 일토당토 않다.<netc14,043,채만식,탁류>/그 {데데거리는} 말끝마다 빠트리지 않는 군

가락 ‘제기할 것!’ 소리와….<netc14,034,채만식,탁류>/늘 바쁜 걸음으로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를 불러내어 콩 볶듯 숨넘어가게 한참을 {데데거리고는} 쟁싸게 가버리곤 했던 고추대장. “저 고추 대장은 무신 님의 바쁜 일도 저래 많은지.<NCKAA000,087,김원일,노을>§

- (3) 같은 계열의 어휘인데 부표제어 등재 여부에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등재되지 않은 부표제어를 ‘표추검’으로 분류하고 계열 어휘에 맞추어 부표제어를 추가 검토하라는 내용을 #5에 메모로 남긴다.

예) #1걸쳐뜨기하다#2표추검#5‘걸쳐뜨기’의 부표제어로 ‘걸쳐뜨기하다’가 가능한지 검토. 뜨개질 용어 중 ‘가로뜨기’, ‘걸뜨기’ 등은 ‘하다’가 결합한 부표제어가 등재되어 있으나 ‘걸쳐뜨기’, ‘가터뜨기’, ‘고무뜨기’, ‘곰보뜨기’, ‘꼬아뜨기’ 등은 ‘하다’가 결합한 부표제어가 등재되지 않음. 계열 어휘 ‘*뜨기’ 모두 검토 필요함.

4) 한자어

원어 한자음과 우리 한자음이 다른데 《표준》에 원어 발음에 따른 표기만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 한자음에 따른 표기를 ‘표추검’으로 구분하여 추가를 검토한다. 그러나 ‘간도 협약’과 같이 우리 한자음에 따른 표기만 올라 있는 경우는 현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원어 발음에 따른 표기를 추가하지 않는다.

예1) #1관동대지진#2표추검#5關東大地震 ‘간토 대지진’의 우리 한자음.

예2) #1황하문명#2표추검#5黃河文明. ‘황허 문명’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3. 아래와 같은 경우, 표제어 삭제를 검토한다. 표제어 삭제는 모두 검토 사항으로만 집필한다. 이에 따라 파일에는 ‘#1표제어#2표삭검#5해당 사항’과 같은 형식으로 입력한다. 이때 해당 표제어가 삭제되어야 할 근거를 #5에 자세히 기술한다.

1) 비표준어/방언

- (1) 《표준》에는 ‘○○의 잘못’으로 등재되어 있으나¹⁰⁾, 말뭉치에 그 사용 예가 전혀 보이지 않고 집필자의 판단에도 쓰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표제어는 ‘표삭검’으로 분류하고 삭제해야 할 이유를 #5에 메모로 남긴다.

예) #1쿠편#2표삭검#5‘품02’의 잘못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말뭉치에 예 없음.

- (2) ‘○○의 방언’은 그 쓰임이 말뭉치에서 확인되지 않더라도 《표준》의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다.

2) 한자어¹¹⁾

- (1) 한자어 표제어 중에서 말뭉치에서 그 쓰임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집필자의 판단에도 해당 단어가 표제어로 등재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표삭검’으로 분류하고 삭제 이유를 #5에 메모로 남긴다. 다만 해당 한자어의 쓰임을 <조선왕조실록>까지 최종 확인 한 후 삭제 검토를 결정한다.

예1) #1요이02#2표삭검#5한자어. 말뭉치에 예 없고 들어본 적 없음.

※ 요이02(聊爾)「명」말이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함.

- (2) 한자어 표제어 중에서 일본에서만 쓰는 한자어로 보이는 표제어는 ‘표삭검’으로 분류하고 삭제해야 할 이유를 #5에 메모로 남긴다.

예2) #1목월#2표삭검#5한자어. 우리나라나 중국 쪽 사전에는 보이지 않고 일본 <대한화사전>에 등재된 단어.

※ 목월(睦月)「명」음력 정월을 달리 이르는 말.

10) ‘○○의 잘못’은 개정 사전에서 ‘→○○’으로 풀이 형식이 바뀌었다.

11) 한자어 관련 검토 사항은 차후 한자 전문가가 일괄 처리 하였다.

3) 전문어

전문어, 인명, 지명은 말뭉치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빈도가 낮게 나타나더라도 그대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필자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표삭검’으로 분류하여 #5에 삭제 이유를 메모로 남긴다.

4) 용례 없는 표제어¹²⁾

《표준국어대사전》에 뜻풀이만 되어 있고 용례가 없는 표제어는 반드시 말뭉치에서 그 쓰임을 확인하여, 용례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집필자가 판단하기에도 표제어로 등재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단어는 ‘표삭검’으로 분류하고 #5에 삭제를 검토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예) #1가량03#2표삭검#5어근인데 ‘가량하다’ 용례가 말뭉치에서 안 보임. 쓰임 본적 없음. ‘가량하다’와 같이 삭제해야 함.

※ 가량03(佳良) ‘가량하다’의 어근.

가량-하다[가:---]「형」 이름답고 착하다.

★5) 파생이 어색한 부표제어

주표제어의 뜻풀이와 쓰임에 관련해 볼 때 부표제어의 파생이 어색하거나 품사가 맞지 않아 보이는 경우에는 ‘표삭검’으로 메모를 남긴다.

예1) #1가면허하다#2표삭검#5말뭉치에 용례 없고 ‘가면허’가 동작성이 없어 매우 어색함.

※ 가-면허(假免許)[가:--]「명」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정식 면허가 나올 때까지 임시로 주는 면허.

가면허-하다[가:---]「동」【…을】가면허를 내준다.

12) 용례 없는 한자어는 삭제를 검토할 항목으로만 남기고 이번 개정 작업에서는 삭제하지 않고 대부분 그대로 두었다.

예2) #1부판하다01#2표삭검#5‘부판02’의 부표제어로 ‘매우 비통하다’인 형용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부판02’의 뜻풀이상 형용사가 파생되기 힘들고 기존 사전 어디에서도 부표제어 파생을 찾아볼 수 없음. 삭제 검토

※ 부판02(負板/負版)[부:-]「명」 슬픔을 나타내려고 상복(喪服)의 등 뒤에 늘어뜨리는 베 조각.

부판-하다01[부:---]「형」 매우 비통하다.

4.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표제어 합침을 검토한다. 표제어 합침은 모두 검토 사항으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파일에는 ‘#1표제어#2표합검#5해당 사항’과 같은 형식으로 입력한다. #5에는 표제어를 합쳐야 할 이유를 자세히 기술한다.

1) 《표준》에 동음이의어로 분류된 의성 의태어 중에서, 두 표제어의 의미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 통합해도 될 것처럼 보이는 것은 ‘표합검’으로 분류하고 #5에 표제어 통합을 검토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2) 한자 원어는 다르지만 쓰임에 차이가 없는 동음이의어는 ‘표합검’으로 분류하고 #5에 표제어 통합을 검토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예1) #1동유07#2표합검#5‘동유06(童幼)’의 동의어. 표제어 통합 후 원어 병기 할 것이 아닌지 검토 바람.

※ 동유06(童幼)「명」 나이가 어린 아이. ≍동아05(童牙)「1」·동유07(童孺). 동유07(童孺)「명」 =동유06(童幼).

3) 같은 유형의 표제어들이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사이에서 일관성이 없이 처리되어 있는 것 중에서 동음이의어가 아니라 다의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표제어는 ‘표합검’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일관성 있게 처리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예2) #1걸자락02#2표합검#5‘걸자락02’을 삭제하고 ‘걸자락’에 이 풀이를 가져와 다

의어로 처리하는 것 검토할 것. 반의어 ‘안자락’이 그렇게 돼 있고, 일반어 ‘걸자락01’과 단청 무늬에 해당되는 ‘걸자락02’이 의미적으로 멀다고 볼 수 없음.

※ 걸-자락01[걸짜-]〔걸자락만[걸짜랑-]〕「명」 두루마기, 치마, 저고리 따위를 여 밑 때 걸으로 나오는 옷자락.

걸-자락02[걸짜-]〔걸자락만[걸짜랑-]〕「명」『건』단청에서, 기둥머 리 바깥 쪽 가장자리를 옷자락처럼 돌려 그린 무늬.

5. 아래와 같은 경우 표제어 분할을 검토한다. 표제어를 분할할 때는 ‘표분’, ‘표분검’으로 분류하지 않고, 원래의 표제어에서는 ‘뜻삭검’이나 ‘뜻수검’으로 집필하고 새롭게 추가하는 표제어는 ‘표추검’으로 분류하여 집필한다. 이때 양쪽 모두를 ‘검토 사항’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5에 메모를 남긴다.

1) 《표준》에 다의어로 뜻풀이되어 있으나, 의미적인 연관성이 없어 동음이의어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표제어는 직접 표제어를 분할하거나 표제어 분할을 검토한다.(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판별은 《표준국어대사전》편찬 지침 1. 3.2. 동음이의어와 다의어(p8~10) 참조)

예1) #1감01#2뜻삭검#5「2」=감물02.로 되어 있으나 두 번째 뜻풀이는 표제어를 달리해야 한다. ‘감물02’는 ‘썰물 때 바닷물이 가장 낮아지는 일’로, 이들을 다의어로 볼 수는 없다. 동음이의어로 처리해야 한다. 뜻풀이 삭제하고 동음이의어로 추가할 경우 ‘감물02’의 뜻풀이도 수정해야 함.

#1감#2표추검#5감02. =감물02. ‘감01’의 두 번째 뜻 ‘감물02’는 표제어를 추가하여 뜻풀이해야 한다. ‘감나무의 열매’와 ‘썰물 때 바닷물이 가장 낮아지는 일’을 다의어로 할 수는 없다.

※ 감01[감:]「명」 감나무의 열매. 모양은 둥글거나 둥글넓적하고 빛이 붉다. 익기 전에는 떫은맛이 나지만 익으면 단맛이 나며 그대로 먹기도 하고 껍질을 벗겨 꽃감을 만들기도 한다. ≡단과01(丹果)「2」. ㄱ[감] 두 점/{감을} 따다/{감이} 떨어지다/{감이} 열다/{감이} 익다.§ 「2」=감물02.

감-물02[감-]「명」썰물 때 바닷물이 가장 낮아지는 일. ㄴ감01「2」.

예2) #1다지다#2뜻삭검#5뜻풀이 중 [1]「4」(고기, 채소, 양념감 따위를 여러 번 칼질하여 잘게 만들다)는 표제어를 달리하여 동음이의어로 처리해야 함.

#1다지다#2표추검#5다지다02. ‘다지다’ [1]「4」는 표제어를 새로 추가 하여 뜻풀이해야 함.

6. 아래와 같은 경우, ‘표사검’으로 분류하고 표준어 사정을 검토한다¹³⁾.

1) 《표준》에 방언으로 분류되어 있는 표제어 중에서, 예전에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하던 어휘였으나 현재는 전국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표준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표사검’으로 분류하여 #5에 표준어 사정을 검토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예) #1과메기#2표사검#5‘과메기’는 경북 방언으로 분류돼 있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표준어가 없으므로 표준어 사정을 검토해야 함.

※ 과메기「명」「방」콩치를 차게 말린 것(경북).

★2) 《표준》의 전문어 중에서 “○○”의 잘못’으로 뜻풀이되어 있으나 해당 전문영역에서는 많이 쓰이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표사검’으로 분류하여 #5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메모를 남긴다.

7. 표제어 수정, 추가 검토, 삭제 검토 시에 주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표제어를 수정했을 때에는 해당 표제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수정해야 한다. 검토 사항으로 남기지 않고 직접 수정한 것들은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수정한 항목의 #5에 메모로 남기지 않는다.

예) #1단위생식#2표수#3단위-생식#4단위^생식#5‘생식’이 결합한 다른 표제어들(난

13) ‘표사검’으로 남긴 항목은 국어 심의회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이어서 이번 개정 작업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편 생식, 단성 생식, 동정 생식, 무성 생식, 반복 생식...)은 모두 구로 처리했는데, ‘단위생식’만 단어로 처리했음. ‘단위생식’만 단어로 처리할 이유가 없어 구로 수정함. 표제어 중에서 ‘정상성 단위 생식’, ‘주기성 단위 생식’은 구로 처리했고, ‘반수성 단위생식’, ‘배수성 단위생식’, ‘선택성 단위생식’, ‘인공 단위생식’, ‘자연 단위생식’은 단어로 처리했음.

#1반수성단위생식#2표수검#5‘단위-생식’을 ‘단위^생식’으로 수정함에 따라 ‘반수성 단위생식’, ‘배수성 단위생식’, ‘선택성 단위생식’, ‘인공 단위생식’, ‘자연 단위생식’의 띄어쓰기도 검토하여 수정해야 한다. ‘정상성 단위 생식’, ‘주기성 단위 생식’은 이미 구로 처리되어 있다.

- 2) 사이시옷 오폭기는 표제어로 추가하지 않는다. 다만 ‘대폿값/대표값’과 같이 사이시옷을 넣지 않은 잘못된 유형이 말뭉치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경우에는 ‘표추검’으로 분류하고 #5에 ‘대표값의 잘못’으로 추가를 검토하라는 메모를 남긴다¹⁴⁾.

예) #1대표값#2표추검#5‘대폿값’의 잘못으로 추가 검토 사이시옷을 넣지 않은 잘못된 유형이 말뭉치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옴.

- 3) 한자어를 표제어로 추가할 경우에는 해당 한자를 #5에 밝혀 준다.

예1) #1건재상#2표추검#5건재상(乾材商). 조제하지 않은 그대로의 약재를 파는 가게. 또는 그런 사람. 기타 말뭉치에 나옴. ¶이들 약재는 굳이 {건재상을} 찾지 않아도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살 수 있으며...§

예2) #1감염#2표추검#5감염(減鹽). 기타 말뭉치 예 있음. ¶그 반대로 최근에는 {감염} 붓을 타고서 염화나트륨의 대용으로 염화칼륨을 사용한 식염 등이 팔리고 있다.§

14) 최종적으로 사이시옷 오폭기는 일괄적으로 추가하지 않았다.

- 4) 표제어를 추가할 때에는 추가하고자 하는 표제어가 이미 사전에 등재된 표제어의 오폭기나 방언, 동의어 등이 아닌지 확인한다.
- 5) 표제어를 두 개 이상 추가할 때는 표제어 배열 순서를 지켜서 집필한다.
- 6) 표제어 추가 검토 항목에 근거로 제시하는 #5의 용례는 교정을 보지 않아도 된다.
- 7) ‘표추검’을 집필할 때에는 #1에 어깨번호를 넣지 않는다. 또한 추가하고자 하는 표제어가 구(句)이더라도 #1에 적을 때에는 띄어 쓰지 않는다.

2. 원어

2.1. 원칙

1. 원어의 제시 범위, 제시 방법 등은 《표준》의 원칙을 그대로 따른다.
2. 《표준》에 제시된 원어 정보 중 명백한 오류는 수정하고 오류로 보이거나 집필자가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토 사항으로 분류하여 메모를 남긴다.
3. 원어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도 수정 사항으로 분류하여 집필한다.(‘원추’, ‘원추검’으로 분류하지 않고 ‘원수’ 또는 ‘원검’으로 분류한다.)

2.2. 세칙

1.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원어를 수정한다.
- 1) 《표준》의 원어 정보 중 잘못된 것은 ‘원수’로 분류하여 수정한다.

예1) #1오티스#2원수#3Otis, Elisha Graues#4Otis, Elisha Graves#5%

※ 오티스#2(Otis, Elisha Graues) 「명」 『인』 미국의 발명가(1811~1861). 로프가 끊어져도 안전한 엘리베이터를 발명하였으며, 오티스 엘리베이터 회사를 설립하여 전기 엘리베이터를 고안하였다.

예2) #1자이크#2원수#3Zaire#4Zaire#5%

※자이크(Zaire) 「명」 『지2』 ‘콩고 민주 공화국’의 전 이름.

- 2) 《표준》에 원어 정보가 빠진 표제어 중에서 집필자가 원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원수’로 분류하고 #3에 정보 없음 표시(%)를 한 후에 #4에 원어 정보를 넣어 준다.

예) #1긴썩덩목대장#2원수#3%#4(---大將)#5‘목대장과’의 원어가 ‘-大將科’이므로 ‘긴썩덩목대장’의 원어도 이에 따라 수정해야 함.

※ 긴썩덩-목대장[긴:-평-때-] 「명」 『동』 목대장과의 곤충. 몸의 길이는 9mm 정도이며 갈색이다. 더듬이와 다리는 짧은 적갈색이고 딱지날개는 등 쪽에 회색 털이 드문드문 뭉쳐서 얼룩덜룩하다. 머리는 거의 앞가슴에 숨어 있고 겹눈 사이는 조금 오목하다. 한국, 일본, 사할린 등지에 분포한다. 늑썩긴썩덩벌레. (Scotodes nipponicus)

2.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원어 수정을 검토한다.

- 1) 원어가 있어야 할 듯한데 아예 제시되지 않은 표제어 중에서 집필자가 원어를 확신할 수 없는 것은 ‘원검’으로 분류하고 #5에 원어 추가를 검토하라는 메모를 남긴다¹⁵⁾.

예) #1경주자작#2원검#5‘주자작’이 북한어 표제어로 올라 있으나 인터넷 등을 보면 남한어인 ‘수자작’과 동의어로 대부분 쓰이고 있음. 그리고 여기서 ‘경’은 ‘경사’ 즉 ‘날실’을 얘기하는 것으로, ‘경주자-작’은 ‘겉면이 경사로 덮인 주자작’의 의미라고 볼 수 있음. 이렇게 되면 IC 분석도 ‘경-주자작’이 되어야 하고, 한자 원어도 들어가야 함. 더불어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씨실이 겉면에 나오는 ‘위-주자작’도 함께 등재 검토해야 함.

15) ‘원검’을 비롯한 각종 검토 사항은 차후 일괄적으로 처리하였다.

※ 경주자-직 「명」 『수3』 천의 겉면이 날실로 덮인 수자 조직.

- 2) 동일 계열의 한자어 표제어이면서도 표제어의 한자가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원검’으로 분류하고 #5에 메모를 남긴다.

예) #1긴은점표문나비#2원검#5현재 사전에 ‘무늬’라는 한자 원어로 ‘文’과 ‘紋’ 두 가지가 쓰이고 있으나 일관성이 없음. (‘文’으로 쓰인 표제어: 긴은점표문나비, 큰표문나비, 각선문, 각화문기, 감화문기 등, ‘紋’으로 쓰인 표제어: 구름표문나비, 암검은표문나비, 은줄표문나비, 표문02 등, 복수로 제시된 표제어: 각문02.) 예전에는 ‘文’이 ‘글월’과 ‘무늬’라는 뜻을 모두 가지고 있다가 ‘무늬’는 ‘紋’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므로(昏/婚도 마찬가지로 현재 혼인의 의미로는 ‘婚’이 사용됨. 참고) ‘무늬’의 한자는 ‘紋’으로 통일하는 것이 옳을 듯함.

※ 긴은점표문나비(-銀點豹文-) 「명」 『북』 『동』 메나빋과의 곤충. 왕은점표문나비와 비슷하나, 앞날개 뒷면의 바깥 가장자리의 풀색 부분이 좁고 뒷날개 뒷면의 은색 무늬만 더 긴 것이 다르다.

★3. 북한 한자어의 원어가 대응 남한어와 다른 경우 북한어의 한자는 《조선말대사전》에 따른다.

★4. 비표준어, 오폭기에서도 원어를 밝힌다. 단, 외래어의 오폭기는 원어가 같고 표기만 다른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원어를 밝히지 않는다.(다만 「북한어」와 잘못된 다의어로 등재된 경우는 원어를 밝힘.)

★5. 뜻풀이에 나타난 원어 중, 단어 구성 방식이 혼종어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원어를 제시한다.

- 1) 주표제어가 명사이고 관련어도 명사 혼종어이면, 관련어에서 원어를 삭제한다.

예) #1의장01#2관수#3「비」 옷장02(-櫥).#4「비」 옷장02.#5혼종어 원어 처리

- 2) 주표제어가 명사이고 부표제어가 ‘○○하다’형 용언으로 있으면, 주표제어에서만 원어를 제시하고, 부표제어에서는 원어를 제시하지 않는다.

예) #1탈모01#2관수#3「반」 발모.#4「반」 발모(發毛).#5혼종어의 원어 처리. 명사에
서만 원어 보여 줌

#1탈모하다01#2관수#3「반」 발모하다(發毛—).#4「반」 발모하다.#5혼종어 원
어 처리. 명사에서만 원어 보여줌

- 3) 주표제어가 어근이고 부표제어가 ‘○○하다’형 용언으로 올라 있으면, 부표제어
에서만 원어를 제시한다.

예) #1희미하다01#2관수#3「비」 애연하다03(曖然—);은미하다「1」.#4「비」 애연하
다03;은미하다(隱微—)「1」.#5혼종어 원어 처리. ‘애연하다03’의 주표제어는 명
사. ‘은미하다’의 주표제어는 어근.

- 4) 합성 용언이고 관련어가 합성 용언 혼종어이면, 관련어에서 원어를 삭제한다.

예) #1죄주다#2관수#3「반」 죄반다(罪—).#4「반」 죄반다.#5혼종어 원어 삭제.

- 5) 부표제어에 ‘-’로 돼 있던 짧은 붙임표는 ‘—’ 긴 붙임표로 수정한다.

3. 발음

3.1. 원칙

1. 발음 규범 및 표시 원칙, 발음 제시 방법 등은 《표준》의 원칙을 그대로 따른다.
2. 《표준》에서 제시한 발음 정보 중에서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한다. 다만
집필자가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토 사항으로 분류하여 메모를 남긴다.
3. 《표준》에 발음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도 수정 사항으로 분류하여 집필한다.(‘발

추’, ‘발추검’으로 분류하지 않고 ‘발수’, ‘발수검’으로 분류한다)

3.2. 세칙

1. 《표준》에 제시된 발음 정보가 잘못된 경우에는 ‘발수’로 분류하고 발음 정보를 수정한다.

예) #1꽃갯길경#2발수#3[꼇갯길-/꼇갯길-]#4[꼇갯길-/꼇갯길-]#5발음 오류

2. 《표준》에 발음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발수’로 분류하여 #3에는 정보 없음 표시(%)를 한 후에 #4에 발음 정보를 넣어 준다.

3. 《표준》에 제시된 발음 정보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나 집필자가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 ‘발검’으로 분류하고 해당 사항을 #5에 메모로 남긴다.

4. 북한어를 남한어로 집필할 때 발음 표시가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표시 원칙에 맞게 발음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한다. 특히 한자어의 첫 음절이 장음인지 단음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발음에 대해 집필자가 확신할 수 없을 때에는 ‘북남’ 처리 후 따로 ‘발검’ 항목을 남겨 ‘북한어를 남한어로 처리함에 따라 발음 정보를 넣었으나 재검토 바람’과 같은 메모를 남긴다.

4. 활용 정보

4.1. 원칙

1. 활용 정보는 기본적으로 《표준》의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다.
2. 《표준》에서 제시한 활용 정보 중에서 명백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활용 정보를 수정한다.
3. 활용 정보를 추가할 경우에도 수정 사항으로 분류하여 집필한다.(‘활추’, ‘활추검’으로 분류하지 않고 ‘활수’, ‘활검’으로 분류한다.)

4.2. 세칙

1. 《표준》에서 제시한 활용 정보 중에서 잘못된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활수’로 분류하고 활용 정보를 수정한다.
2. 《표준》에 활용 정보가 누락되어 활용 정보를 추가할 경우에도 ‘활수’로 분류하여 #3에는 정보 없음 표시(%)를 한 후 #4에 추가할 활용 정보를 입력한다.

예) #1덩그맣다#2활수#3%#4〔덩그매, 덩그마니, 덩그맣소[--마쓰〕] #5활용 정보 추가함.

※ 덩그맣다[--마타]「형」((주로 ‘덩그맣게’ 꼴로 쓰여))홀로 떨어져 있다.

3. 《표준》에서 제시한 활용 정보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거나 집필자가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활검’으로 분류하고 해당 사항을 #5에 메모로 남긴다.

5. 품사 정보

5.1. 원칙

1. 품사 정보란에 제시되는 정보의 범위나 제시 방법은 기본적으로 《표준》을 그대로 따른다.
2. 《표준》에서 제시한 품사 정보 중에서 명백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품사 정보를 수정한다.
3. 품사 정보를 새로 추가할 경우에도 수정 사항으로 분류하여 집필한다.(‘품추’, ‘품추검’으로 분류하지 않고 ‘품수’, ‘품검’으로 분류한다.)

5.2. 세칙

1. 아래와 같은 경우에 ‘품수’로 분류하여 품사 정보를 수정하거나 ‘품검’으로 분류하여 수정을 검토한다.

1) 《표준》의 품사 정보 중 명백히 잘못된 것은 수정한다. 다만 집필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품검’으로 분류하여 #5에 품사 정보 수정을 검토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예) #1말놀이02#2품수#3「동」#4「명」#5품사 오류.

※ 말·놀이02[말:로리]「동」말을 주고받으며 즐기는 놀이. 새말 짓기, 끝말잇기, 소리 내기 힘든 말 외우기 따위가 있다.

예) #1각근하다01#2품검#5‘각근히’는 ‘각근하다01’가 형용사라야 가능. ‘-히07’ 참조, ‘같은 고아의 처지로 오랜 시일 서로 의지하고 정을 나눈 {각근한} 연분은 유다른 바가 있었다.<netc3212,222,김성한,전화>/면천한 뒤로는 여기 어르신의 {각근하신} 은덕으로 오늘날에 다달았으매…<NHYAB080,421,이문구,오자룡>’ 등의 인용 용례 참조.

※ 각근01(恪勤)[-곤]「명」정성을 다하여 부지런히 힘씀. ⇨근각03(勤恪).

각근·하다01[-곤-]「동」 【…을】 ⇒각근01.

각근·히[-곤-]「부」⇒각근하다. 『자네 선친하고는 참 세의도 있고 해서 마름을 맡겼은즉 남의 집 일이라도 {각근히} 봐야 하겠고…<이기영, 고향>』

★2) 주표제어의 뜻풀이 내용이 부표제어의 품사 정보와 맞지 않을 때에는 주표제어의 뜻풀이를 수정하거나 부표제어의 품사를 수정한다. 이때 반드시 기존 사전을 확인하여 임의로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예) #1감능#2뜻수#2「1」일을 감당하여 넌.#4「1」일을 감당하여 넌 만할.#5‘감능하다’가 형용사인 것이 맞는 것으로 보아 주표제어의 ‘감능’ 뜻풀이를 수정함.

※ 감능(機能)「명」 「1」 일을 감당하여 냄. 「2」 일을 감당하여 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감능-하다「형」 ⇒ 감능「1」 .

- 3) 부사에 ‘-하다’가 결합한 표제어 중, 《표준》에서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를 인정하여 뜻풀이하였으나 집필자의 판단으로 형용사의 쓰임만 보이는 표제어는 ‘품검’으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5에 메모로 남긴다.

예) #1끈적끈적하다#2품검#5‘끈적끈적하다’가 동사와 형용사로 되어 있으나 형용사로만 쓰이는 듯하다. <선대>에는 형용사로, <우리말큰사전>에는 <표준>처럼 되어 있음.

2. 품사를 수정하거나 수정을 검토할 때 주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품사를 수정했거나 수정을 검토해야 할 이유를 #5에 반드시 메모로 남긴다.
- 2) 품사와 용례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품사와 용례 중 어느 한쪽을 집필자가 최대한 판단하여 수정하고, 사항과 이유를 메모로 남긴다.

6. 전문어 영역

6.1. 원칙

1. 전문어의 영역 명칭과 구분 기준은 《표준》의 원칙을 그대로 따른다.
2. 《표준》에서 제시한 전문어 영역이 명백히 잘못된 것은 ‘전수’로 분류하여 수정하고 전문어 영역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나 확신할 수 없을 때에는 ‘전수검’으로 분류하여 전문어 영역의 수정을 검토하도록 한다.
3. 《표준》에서는 전문어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뜻풀이로 보아 전문어로 분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표제어는 ‘전추검’으로 분류하여 전문어 영역 추가를 검

토한다.

4. 《표준》에서는 전문어로 분류되어 있으나 뜻풀이로 보아 일반어로 판단되는 표제어는 ‘전삭검’으로 분류하여 전문어 영역 삭제를 검토한다.

6.2. 세척

1. 아래와 같은 경우 전문어 영역을 수정하거나 수정을 검토한다.

1) 전문어 영역이 분명하게 잘못되었을 때에는 ‘전수’로 분류하여 직접 수정한다.

예) #1무른납#2전수#3『광』#4『공』#5원래 북한어였던 것이라 북한 사전 분류 기준에 따른 것. 상대 개념어라 볼 수 있는 ‘경납’은 공업 전문어.

※ 무른-납〔무른납만[--납-]〕「명」『광』 순도가 높은 부드러운 납. 450℃ 아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쉽게 녹기 때문에 납땀하는 데 널리 쓰인다.

- 2) 《표준》에서 제시한 전문어의 영역을 수정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표제어는 ‘전수검’으로 분류하고 해당 사항을 #5에 메모로 남긴다.

예1) #1내금03#2전수검#5북한 농업 전문어인데 동물 전문어로 처리해야 하지 않는지 검토 바람. 내용이 생물학적인 내용에 더 가까워 보임.

※ 내금03(內金)「명」『북』『농』 가금에서 모래주머니의 안쪽 면에 있는 막(膜). 알곡 먹이나 모래 따위를 소화시키며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하여 외벽 자체가 소화되는 것을 막고 자극성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게 한다.

예2) #1부모은중경#2전수검#5불경이므로 『불』로 바꾸어야 할 듯함. 전문어 영역을 수정할 경우 동의어인 ‘은중경’의 영역도 수정할 것.

※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명」『책』 중국 수나라 말기에서 당나라 초기에 간행된 불교의 경전.

2. 아래와 같은 경우 전문어 영역 추가를 검토한다. 전문어 영역 추가는 모두 검토 사항으로만 집필한다. 이에 따라 파일은 ‘#1표제어#2전추검#5해당 사항’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1) 《표준》에 일반어로 분류되어 있으나 같은 계열의 어휘들을 살펴보았을 때 전문어로 등재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표제어는 ‘전추검’으로 분류하고 이유를 #5에 메모로 남긴다.

예1) #1경조전신환#2전추검#5『경』 추가 검토 ‘전신환’이 경제 전문어로 되어 있다. 전신환의 한 종류인 ‘경조전신환’도 경제 전문어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 경조-전신환(慶弔電信換)[경:---]「명」 경조전보에 곁들여서 축하금이나 조의금을 부치는 전신환.

예2) #1돌새김#2전추검#5기본 표제어인 ‘돌을새김’이 미술 전문어이므로 ‘돌새김’도 미술 전문어로 처리할 것.

※ 돌-새김[-새-]「명」=돌을새김.

돌을-새김「명」『미』 조각에서, 평평한 면에 글자나 그림 따위를 도드라지게 새기는 일. ≍돌새김·릴리프(relief)·부각05「2」·부상각·부상조·부조05(浮彫)·숫을새김·철조01·초각02(峭刻).

2) 《표준》에 일반어로 분류되어 있으나 뜻풀이를 살펴보았을 때 전문어로 등재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표제어는 ‘전추검’으로 분류하고 이유를 #5에 메모로 남긴다.

예1) #1경선매매#2전추검#5내용상으로는 법률 전문어로 보임.

※ 경선-매매(經先賣買)「명」 거처야 할 절차를 밝기 전에 하는 매매. 소송 중에 있는 전답 따위를 판결 전에 매매하는 일 따위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예2) #1위안02#2전추검#5역사 전문어 처리 검토 바람.

※ 위안02(位案)「명」 관리의 품위(品位)를 기록한 문서.

3. 아래와 같은 경우 전문어 영역 삭제를 검토한다. 전문어 영역 삭제는 모두 검토 사항으로만 집필한다. 이에 따라 파일에는 ‘#1표제어#2전삭검#5해당 사항’과 같은 형식으로 입력한다.

1) 《표준》에 전문어로 분류되어 있으나 전문적 의미가 사라지고 일반적 의미만 남아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삭검’으로 분류하고 #5에 전문어 영역 삭제를 검토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전삭검’으로 집필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어 사전을 확인한 후 처리한다.

예) #1교두보#2전삭검#5「1」과「2」는 군사 전문어로 볼 수 있으나 「3」은 군사 전문어로 보기 어려움. 「3」은 일반어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 교두-보(橋頭堡)「명」『군』「1」다리를 엄호하기 위하여 쌓은 보루(堡壘). ≡ 다리 파수막·다릿목 병참. ¶그들은 철제 교량이 파괴된 어딘가의 {교두보에} 숨어 있었다.≪박영한, 머나먼 송바 강≫§「2」상륙·도하(渡河) 작전에서 적군이 점령하고 있는 강기슭이나 해안선의 한 모퉁이를 점거하고 그곳에 마련한 작은 진지. 「3」침략하기 위한 발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일제는 한반도를 중국 침략의 {교두보로} 삼았다.§

★2) 1)과 달리, 전문적 의미에서 일반적 의미가 파생되기는 했지만 전문적 의미가 아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전문어 뜻풀이는 그대로 두고 일반적 의미를 ‘뜻추’로 분류하여 뜻풀이를 추가한다. 다만 집필자가 일반적 의미의 뜻풀이 추가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뜻추검’으로 분류하여 #5에 일반적 의미 추가를

검토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예1) #1대방06#2뜻추#3%#4「1」 규모가 큰 방. 「2」=큰방「1」.『안방 치장이 소란
깨나 피우며 산다는 대갓집의 {대방} 치장에 비길 바가 아니었기 때문이었
다.<bexx0011,김주영,객주>§「3」『불』~.#5%
#1큰방#2뜻추#3「1」~거처하는 방.「2」~늑대방06(大房).#4「1」~거처하는
방.늑대방06(大房)「2」.「2」~늑대방06「3」.#5‘대방06’에 일반어 의미 추가
함에 따라 수정함.

※ 대방06(大房)[대:]「명」『불』=큰방(-房)「2」.

큰방(-房)「명」「1」 집안의 가장 어른이 되는 부인이 거처하는 방. 「2」
『불』 절에서 여러 중이 함께 거처하며 식사하는 방. 늑대방06(大房).

예2) #1독대02#2뜻추#3%#4「1」 「명」『역』~.「2」 윗사람과 단둘이 만나는 것.『
사장님과 {독대}/내일로 예정된 큰스님과 {독대는} 가슴을 설레게 했
다.§#5현대어 의미 추가함. 부표제어 ‘독대하다’도 추가해야 함.
#1독대하다#2뜻추#3%#4「1」 「동」『역』⇒독대02「1」.「2」⇒독대02
「2」.#5‘독대02’ 뜻풀이 추가에 따름.

※ 독대02(獨對)[-때]「명」『역』 벼슬아치가 다른 사람 없이 혼자 임금을 대하여
정치에 관한 의견을 아뢰던 일.「참」 소대04(召對); 윤대01(輪對).
독대-하다[-때-]「동」『역』⇒독대02.

4. 전문어 영역을 검토할 때 주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전문어 표제어 추가를 검토할 경우에도 ‘표추검’으로 분류하여 입력하고 #5에 해
당 전문어 영역을 설명으로 남긴다.(‘전추검’ 항목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

예) #1겸임교수#2표추검#5교육 전문어로 추가해도 될 듯.

2) 주표제어의 전문어 영역 추가나 삭제를 검토할 경우 그에 딸린 부표제어의 전문어 영역도 함께 검토하라는 메모를 남긴다.(부표제어의 항목을 따로 만들지 않는다.)

예) #1감청03#2전삭검#5군사 전문어. 수사 기관 등에서도 쓰이므로 군사 전문어로 보기 힘들. ‘감청03’을 일반어로 돌릴 경우 ‘감청하다02의 전문어 영역 삭제도 검토 바람.

☞ ‘#1감청하다02#2전삭검#5’ 항목을 따로 만들지 않는다.

※ 감청03(監聽)「명」『군』 군사 기밀을 보호하고 여러 참고 자료를 얻기 위하여 아군이나 적군의 통신 내용을 엿듣는 일.
감청-하다02「명」『군』【…을】⇒감청03.

3) 특정 지역에서만 쓰이는 전문어의 뜻풀이는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예를 들면, ‘날흔’이 ‘제주에서, 죽은 지 삼 년이 채 안 되는 이의 넋을 이르는 말’로 민속 전문어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러한 표제어는 현 체제대로 둔다.

★4) ‘○○’과 ‘○○꽃’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고 ‘○○’이 ‘○○’과 ‘○○의 꽃’이라는 다의어로 제시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은 식물 전문어로 처리하고 ‘○○의 꽃’은 일반어로 처리한다.

- (1) ○○: ‘「1」『식』~식물.「2」「1」의 꽃.’과 같은 형식의 다의어로 뜻풀이한다. 이때 「1」은 식물 전문어로, 「2」는 일반어로 분류한다.
- (2) ○○꽃: =○○「2」’와 같은 형식으로 뜻풀이한다.

★5) ‘○○주의’에 대응하는 ‘○○주의자’는 원칙적으로 일반어로 처리한다. ‘○○론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다만 반드시 전문 영역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자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전문어 영역을 제시할 수 있다.

예) #1합리주의자#2뜻수#3「명」『철』합리주의를~.#4「명」합리주의를~.#5%
 #1유리론자#2뜻수#3「명」『철』「1」~.「2」~.#4「명」「1」~.「2」~.#5%

※ 합리주의-자(合理主義者)[합나-의/합나-이-]「명」『철』 합리주의를 신봉하고
 실천하는 사람. 즉유리론자「2」.

유리론-자(唯理論者)「명」『철』「1」 동양 철학에서, 유리론을 주장하는 사람.
 「2」=합리주의자.

6) 전문어의 학명은 《표준》의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다¹⁶⁾.

7. 문형 정보

7.1. 원칙

1. 문형 정보는 《표준》의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준》에 제시된 문형 정보 외에 추가해야 할 문형이 보이는 경우에는 문형 정보를 추가하거나 추가를 검토한다.
2. 《표준》에서 제시하는 문형 정보와 말뭉치에 나타난 문형 정보가 다를 경우, 확실하게 수정이 가능한 것은 직접 수정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메모로 남긴다.

7.2. 세칙

1. 아래와 같은 경우 ‘형수’로 분류하여 문형 정보를 수정하거나 ‘형수검’으로 분류하여 문형 정보 수정을 검토한다.
 - 1) 《표준》의 문형 정보 중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형수’로 분류하여 직접 수정하거나 ‘형수검’으로 분류하여 수정을 검토해야 할 이유를 #5에 메모로 남긴다.

16) 단, 전문가가 학명을 수정하라고 남긴 감수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따른다.

예1) #1꿀딱거리다#2형수검#5뜻풀이상 ‘【…을】’은 「2」에는 해당 안 됨.

※ 꿀딱-거리다[--꺼-]「동」【…을】「1」 적은 음식물 따위를 목구멍으로 한꺼번에 삼키는 소리를 자꾸 내다. 늑꿀깍대다「1」. 「2」 그릇의 물이 조금씩 자꾸 넘치다. 늑꿀깍대다「2」.

예2) #1낙찰되다#2형수검#5‘누구에게 낙찰되다’가 되므로 ‘…에’를 ‘…에/에게’로 수정해야 함. 『그보다 낮은 값으로 다른 중매인(仲買人)에게 {낙찰(落札)된} 경우라도 항의(抗議)를 받아들일 수 없고<BDXX0001,고대 민족문화연구소,한국민속대관1>§

※ 낙찰-되다[--되-/---뒹-]「동」『경』【…에】【…으로】「1」⇒낙찰. 『교량 공사가 우리 회사에 {낙찰되었다}.//이번 입찰은 특정 기업체로 {낙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다.§ 「2」 경매나 경쟁 입찰 따위에서 물건이나 일이 일정한 가격으로 결정되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다}/그 화가의 그림이 일억 원에 {낙찰됐다}.//저가로 {낙찰되다}/애초에 놀라 자빠지도록 썩 공사비로 {낙찰되어} 순전히 회사의 예산으로 착공한 바나 다름없는 간석지 공사는…:《황석영,객지》§

2) 《표준》에 제시된 문형 정보와 말뭉치에 나타난 문형 정보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직접 ‘형수’로 분류하여 수정하거나 ‘형수검’으로 분류하여 해당 사항과 근거가 되는 말뭉치 자료를 #5에 남긴다.

예) #1고별하다#2형수검#5【…에/에게】로 되어 있지만 말뭉치상에서는 【…과】가 우세. 제시되어 있는 용례는 주로 임의적으로 작성하거나 다른 문형의 용례를 제시된 문형에 맞게 임의로 조작한 것임. 이는 각각 다음 용례로 대체하고 문형도 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1」『어제 찰리사 황기연, 제주 군수 홍희, 정위 홍순명, 참위 김존성(金尊成)과 {고별하더니}, 새벽에 홍정의, 김 판관, 송대정이 찾아왔다.<NAFAA002,345,현기영,변방에 우짖는 새>/~§ 「2」『집결한 노동자들은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이미 유명을 달리한 한 노동자와 {고별하고} 있

었다./~§

※ 고별-하다「동」【…에/에게】「1」⇒고별「1」.『오래 사귀던 친구에게 {고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울적해졌다./사람들은 그제야 술 한 병에 삶은 닭을 들고 와 정중히 {고별했다}.《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2」⇒고별「2」.『그들은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이미 유명을 달리한 동료에게 {고별하고} 있었다./선왕조에서 발인할 때에 주상이 {고별하는} 자리를 경복궁인 경우 도총부 앞뜰에 설치하였다고 하는데…《번역 광해군일기》

2. 아래와 같은 경우 ‘형추’로 분류하여 문형 정보를 추가하거나, ‘형추검’으로 분류하여 문형 정보 추가를 검토한다.

1) 《표준》에 올라 있는 문형 정보 외에 말뭉치에 자주 나와서 문형 정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접 ‘형추’로 분류하여 수정하거나 ‘형추검’으로 분류하여 #5에 설명과 말뭉치의 예문을 메모로 남긴다.

예1) #1간역하다#2형추검#5【…을】 정보를 추가해야 할 듯함. 말뭉치에 ‘…을’이 많이 나옴. 『대궐서 전각 들보 대패를 맥이라니까 역사를 {간역하는} 대신이 지내나다가 대패질하구 있는 나를 유심이 디려다보드니…<NDPAF000,44,박종화,아랑의 정조>/더욱이 별장 건축을 {간역하는} 약혼자의 옆에서는, 장래 그 집의 주부로서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할 것이 아닌가?<NICAA000,28,이태준,화관>/정히가 당신이라 부르는 것이나 청사진을 쥐인 것을 보아 별장 건축을 {간역하다} 나온, 정히의 약혼자가 틀리지 않다.<NICAA000,33,이태준,화관>

※ 간역02(看役)〔간역만[가녀-]〕「명」『건』토목이나 건축의 공사를 돌봄.
간역-하다[가녀카-]「동」『건』⇒간역02.

예2) #1호출되다#2형추검#5【…에/에게】【…으로】를 추가해야 할 듯.『온 몸이 땅바닥으로 착 깔리는 듯 무거웠으나, 회진 파출소로 {호출되어} 간 사람들의 소식이 궁금하여 동청으로 나왔다가 거기에 모여 앉은 마을 어른들의 틈에 끼었

다.<NKMAA021,176,한승원,해일>//진범인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하여 박병 일 씨의 부인이 경찰에 {호출되었다} 함은 기보한 바이어니와 그 부인과 자칭 진범인 김여해와의 극적 대면은….<NECAD000,045,현진진,적도>§

※ 호출되다[--되/--뒀-]「동」 「1」 ⇒ 호출 「1」. ¶그가 인사계 앞으로 {호출되어} 갔을 때 신 상사는 다짜고짜 이렇게 물었다.<신상웅, 심야의 정담>§ 「2」 ⇒ 호출 「2」. ¶증인으로 {호출되다}.

2) 말뭉치의 용례에는 보이지 않으나 논리상 문형 정보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추검’으로 분류하고 #5에 메모를 남긴다.

예) #1홀구하다#2형추검#5용례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기본 표제어 ‘구홀하다’에 준해 ‘【…을】’ 정보를 추가해야 할 듯.

※ 홀구(恤救)「명」=구홀(救恤).
홀구-하다「동」⇒홀구.

3.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문형 정보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검토한다.

1) 《표준》에 제시된 문형 정보 중에서 그 쓰임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집필자 판단에도 어색한 문형 정보로 보일 경우에는 직접 ‘형삭’으로 수정하거나 ‘형삭검’으로 분류하여 삭제해야 할 이유를 #5에 메모로 남긴다.

예) #1검쓰다#2형삭검#5「2」의 문형에 맞는 용례를 찾을 수 없음. 임의 작성례가 하나 있었으나 삭제함.

※ 검-쓰다[검:--] [-써, -쓰니]「형」 「1」 맛이 비위에 거슬리도록 몹시 거세고 쓰다. ¶차에 무엇을 섞었는지 {검써서} 마실 수가 없다. 「2」 【…이】 마음에 맞지 않아 언짢고 씹쓰레하다. ¶그는 부하의 흐느적흐느적하는 태도가 {검써서} 견딜 수 없는 모양이었다.§

- 2) 다른 계열 어휘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형 정보를 삭제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형삭검’으로 분류하여 문형 정보 삭제를 검토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예) #1개사냥하다#2형삭검#5의미상으로는 타동사처럼 보이거나 ‘총사냥하다’나 ‘매사냥하다’는 자동사임. 검토 필요함.

※ 개사냥[개:~]「명」 개를 부려 짐승을 잡는 일.
개사냥-하다[개:~]「동」【…을】⇒개사냥.

4. 문형 정보를 검토할 때 주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논리상 동일하게 묶일 수 있는 단어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의 문형 정보가 반드시 같다고 할 수는 없다. 문형 정보는 말뭉치를 기준으로 하여 각 단어별로 보여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을】’ 문형 정보는 자동사/타동사 구분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이므로 타동사 정보가 말뭉치에서 나타나지 않더라도 넣어 준다. 다만 실제 용례에는 ‘【…을】’이 성분 생략 되어 정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타동사 표지는 문형 정보로 제시한다.
- 3) 잘 쓰이지 않고 말뭉치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없는 표제어에 어색한 작성례가 들어가 있어서 집필자가 작성례를 삭제할 경우에, 해당 표제어의 문형 정보가 있으면 문형 정보의 처리도 함께 검토한다.

예) #1강직하다01#2용삭#3『그는 이번 인사에서 부장으로 {강직하였다}.//김 부장을 이번에 대기 발령으로 {강직했다}.#4%#5말뭉치에도 없고, 잘 쓰이지 않으며, 실제로 내용 자체도 현실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므로 삭제함.

#1강직하다01#2형삭검#5용례 삭제에 따라 문형 정보도 함께 삭제하는 것 검토

바람.

※ 강직02[강:-] [강직만[강:장-]] 「명」 직위가 낮아짐. 또는 직위를 낮춤.
강직-하다01[강:지카-] 「동」 【(…을) …으로】 ⇒ 강직02. ¶ 그는 이번 인사에서 부
장으로 {강직하였다}.// 김 부장을 이번에 대기 발령으로 {강직했다}.

4) 기본 표제어와 동의어의 문형 정보는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8. 문법 정보

8.1. 원칙

1. 문법 정보 제시 방식은 《표준》의 원칙을 그대로 따른다.
2. 《표준》에 나오는 문법 정보는 반드시 말뭉치에서 그 정보가 올바른 것인지 확
인한다. 만약 말뭉치에 나타난 현상과 《표준》에 제시된 문법 정보가 다를 경우
에는 말뭉치에 근거하여 수정한다.
3. 《표준》에는 문법 정보가 나와 있지 않으나, 말뭉치 검색에서 해당 단어가 특정
한 꼴로만 나타나고, 집필자의 직관으로도 그 어형만이 사용된다고 판단될 때는
문법 정보를 적극적으로 추가한다.

8.2. 세칙

1.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문법 정보를 ‘법수’로 분류하여 문법 정보를 수정하거나
‘법수검’으로 분류하여 문법 정보 수정을 검토한다.
- 1) 《표준》에서 제시한 문법 정보와 말뭉치에서 나타난 현상이 다를 경우 ‘법수’로
분류하여 집필자가 최대한 수정한다.(이때의 ‘주로’, ‘흔히’ 등의 용어 사용과 용
례 제시 방법은 ‘2. 문법 정보 추가’ 설명 참조) 문법 정보를 수정했을 때에는 반
드시 이에 맞게 용례도 수정해야 한다. 다만 집필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수검’으로 분류하여 #5에 해당 사항을 메모로 남기고 참고가 될 만한 말뭉치

자료를 복사하여 붙여 둔다.

예1) #1녹록하다#2법수#3((주로 뒤에 부정어와 함께 쓰여))#4((흔히 뒤에 부정어와 함께 쓰여))#5말뭉치에 ‘남에게 녹록하게 보이다’, ‘녹록하게 대해줄지 의문이다’ 등 부정어와 함께 쓰이지 않은 유형이 나와서 문법 정보를 수정함.

#1녹록하다#2용추#3%#4¶~않겠다./내가 그 사람에게는 {녹록하게} 보였나 보
다./교주는~§#5문법 정보를 ‘흔히’로 바꾸고 부정어와 쓰이지 않은 예를 추가함.

※ 녹록-하다[농노카-]「형」 「1」 ~. 「2」 ((주로 뒤에 부정어와 함께 쓰여)) 만만하
고 호락호락하다. ¶{녹록하지} 않은 사람/나도 이제 {녹록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교주는 여전히 침착하고 깨끗하게 응대했다. 그제서야 {녹록지} 않은 상
대를 만났다는 걸 알아차린 황제는 애써 분기를 억제하며 말했다.<이문열, 황제
를 위하여>§

예2) #1구사일생#2법수#3((주로 ‘구사일생으로’ 꼴로 쓰여))#4((흔히 ‘구사일생으로’
꼴로 쓰여))#5말뭉치 쓰임 참조

#1구사일생#2용추#3%#4¶~/상주에서 패한 장수 이일이 옷통 벗고 머리 풀어
진 채로 {구사일생이} 되어 단기로 충주읍 안으로 들어와서...<NDPAC012,443,
박종화,임진왜란>§#5문법 정보 변경과 관련된 용례

※ 구사-일생(九死一生) [---쌍] 「명」 ((주로 ‘구사일생으로’ 꼴로 쓰여)) 아홉 번 죽
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
을 이르는 말. ≍백사일생.¶{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다/그는 징용에 끌려갔
다 가 광복이 되어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다.§

2) ‘((고유어 뒤에 쓰여))’, ‘((고유어 뒤에 붙여))’라는 문법 정보가 있는 표제어 중에
서 고유어뿐만 아니라 한자어 뒤에도 붙는 표제어는 ‘법수검’으로 분류하고 #5에
메모를 남긴다.

예) #1길06#2법수검#5‘고유어 뒤에 쓰여’라는 문법 정보가 있으나 ‘천 길’과 같이

한자어 뒤에도 쓰임.

※ 길06「의명」((고유어 수 뒤에 쓰여))「1」길이의 단위. 한 길은 여덟 자 또는 열자로 약 2.4미터 또는 3미터에 해당한다. 「2」길이의 단위. 한 길은 사람의 키 정도의 길이이다. ㉠트럭에 실린 통나무는 굵기는 한 아름이 넘고 길이는 열 {길이} 넘었다.§

◆3) ‘명사+조사’가 결합한 단어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한다.

① ‘명사+조사’의 결합형만 쓰이고, 명사 단독으로나 다른 조사와의 결합형으로는 전혀 쓰이지 않는 경우: 명사 표제어를 삭제하고 ‘명사+조사’ 결합형만 부사로 등재한다.

예) #1말말#2표삭검#5인용 말뭉치를 보면 말말이’로만 나타남. ‘말말 끝’도 있기는 하나, ‘말말끝’ 자체가 합성어로 사전에 등재돼 있으므로 이는 다른 문제임. ‘말말이’로만 나타난다면 문법 정보를 추가할 것이 아니라 ‘말말’을 삭제하고 ‘말말이’를 표제어로 등재해야 함. 기존 사전 중에 <선대>와 <학회>는 ‘말말「명사」’, ‘말말이「부사」’ 모두 등재하고 있음.

※ 말-말[말:]「명」 이런 말 저런 말.

② ‘명사+조사’의 결합형 외에 명사가 다른 조사와도 결합이 가능한 경우: 명사만 표제어로 인정하고, ‘명사+조사’ 결합형은 표제어로 등재하지 않는다. 다만 명사 표제어에 ‘((흔히 ~꼴로 쓰여))’라는 문법 정보를 넣고 다양한 쓰임을 용례로 제시한다.

㉠ 이는 “((주로 명사 앞에 쓰여))”라는 문법 정보가 있는 표제어 중에서 도구격 조사 ‘로’가 붙는 형태가 말뭉치에 자주 나오는 경우, 비록 그것이 자연스럽다 하더라도 《표준》의 정보를 그대로 둔다. 이는 후에 자문 회의를 거쳐 일괄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한다.’라는 지침을 고친 것이다.

2. 아래와 같은 경우 ‘법추’로 분류하여 문법 정보를 추가하거나 ‘법추검’으로 분류

하여 추가를 검토한다.

- 1) 《표준》에는 문법 정보가 나와 있지 않으나, 말뭉치 검색에서 해당 단어가 특정한 꼴로만 나타나고, 집필자의 직관으로도 그 어형만이 사용된다고 판단될 때는 ‘법추’로 분류하고 ‘((‘○○’ 꼴로 쓰여))’라는 문법 정보를 추가한다. 이때 용례는 이 ‘○○ 꼴’ 형태만 제시되어야 한다.
- 2) 《표준》에는 문법 정보가 나와 있지 않으나, 말뭉치 검색에서 해당 단어가 90% 이상 특정한 꼴로만 쓰이고, 다른 어형들은 한두 번 정도만 나타날 때는 ‘법추’로 분류하고 ‘((주로 ‘○○’ 꼴로 쓰여))’라는 문법 정보를 추가한다. 이때 용례는 ‘○○ 꼴’ 형태만 제시되어야 한다.
- 3) 《표준》에는 문법 정보가 나와 있지 않으나, 말뭉치 검색에서 해당 단어가 70% 정도는 특정한 꼴로 나타나되 다른 어형으로도 쓰이고 있을 때에는 ‘법추’로 분류하고 ‘((흔히 ‘○○’ 꼴로 쓰여))’라는 문법 정보를 추가한다. 이때 용례에는 다양한 형태를 제시한다.
- 4) 어떤 표제어가 다른 용례 없이 관용구나 속담에서만 쓰이는 경우, ‘법추’로 분류하여 ‘((관용구에만 쓰여))’ 또는 ‘((속담에만 쓰여))’라는 문법 정보를 추가한다. 다만 다의어의 뜻풀이 중 하나로 관용구나 속담에만 쓰이는 의미가 들어 있을 때는 해당 뜻풀이를 삭제할 수 있다.
3. ‘((‘○○’ 꼴로 쓰여))’ 형식의 문법 정보가 들어 있는 표제어는 모두 말뭉치에서 실제로 그 꼴로만 쓰이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 꼴로 쓰여))’라는 문법 정보가 제시되었으나 말뭉치에서 용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경우에는 ‘법삭검’으로 분류하고 #5에 문법 정보 삭제를 검토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예) #1눈길다#2법삭검#5‘((주로 ‘눈길게’ 꼴로 쓰여))’라는 문법 정보가 있으나 용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말뭉치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확인할 수 없음. 삭제 검토

※ 눈-길다「형」((주로 ‘눈길게’ 꼴로 쓰여)) 시선이 좌우로 꼭 차다.

4. 문법 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때 주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문법 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형식에 맞게 기술한다.

예) #1극도01#2법추#3%#4((주로 ‘-로, -에, -의’ 앞에 쓰여))#5말뭉치에 세 가지 결합만이 나타나므로 기타 문법 정보 추가함.(×)

⇒#1극도01#2법추#3%#4((주로 ‘극도로’, ‘극도에’, ‘극도의’ 꼴로 쓰여))#5말뭉치에 세 가지 결합만이 나타나므로 기타 문법 정보 추가함.(○)

2) 문법 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했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용례도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예) #1명목02#2법수#3「2」((주로 ‘명목으로’ 꼴로 쓰여))#4「2」((흔히 ‘명목으로’ 꼴로 쓰여))#5말뭉치에 다른 꼴도 나옴

#1명목#2용추#3%#4「2」『-/그렇다고 아무 죄 없는 며느리를 아무런 {명목도} 없이 친절으로 쫓을 도리도 없지 않은가.<NGVAA000,066,이무영,농민>/김홍근
이의 입을 틀어막느라고 돈 천 원을 {명목} 없이 준 것은 웬 까닭이
냐...<netc0602,712,염상섭,무화과>§#5기타 문법 정보를 ‘주로’에서 ‘흔히’로 바꾸고 다른 형태로 쓰인 용례를 추가함.

※ 명목02(名目)〔명목만[-몽-]〕「명」「1」 겹으로 내세우는 이름. ≡명호01(名號)「1」. 『남인들은 자연히 {명목만} 있고 실권은 없는 벼슬로 물리게 되었다.《김동인, 운현궁의 봄》/그의 직책은 명목뿐인 이사였다.§「2」((주로 ‘명목으로’ 꼴로 쓰여))구실이나 이유. 『그는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기자를 내쫓았다./공사관이며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파견할 것이고...《유주현, 대한 제국》

9. 뜻풀이

9.1. 원칙

1. 《표준》의 모든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를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뜻풀이의 오·탈자와 잘못된 표현은 수정하고 새로운 의미는 첨가한다. 또한 집필자가 잘 모르는 단어나 뜻풀이는 말뭉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쓰임이 있는지, 그 쓰임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9.2. 세칙

1. 일반 원칙

- 1)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뜻수’로 분류하여 뜻풀이를 직접 수정하거나 ‘뜻수검’으로 분류하여 뜻풀이 수정을 검토한다.
 - (1) 《표준》의 뜻풀이에 오표기나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 비표준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뜻수’로 분류하여 수정한다.

예1) #1목다01#2뜻수#3 「2」 방이나 논 따위가#4 「2」 밭이나 논 따위가#5%

※ 목다01[-따]〔목어, 목으니〕「동」 「1」 일정한 때를 지나서 오래된 상태가 되다.
「2」 방이나 논 따위가 사용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다.

예2) #1우기동조#2뜻수#3한 마곳간에 매여 있다는 뜻으로,#4한 마구간에 매여 있다는 뜻으로,#5%

※ 우기동조(牛驥同皁)「명」 「1」 느린 소와 천리마가 한 마곳간에 매여 있다는 뜻으로, 불초(不肖)한 사람과 준재(俊才)를 같이 취급함을 이르는 말. 느소말한우리.
「2」 소나 말과 같이 취급되어 대단히 냉대받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2) 《표준》의 뜻풀이에 의미상 적절하지 못한 단어가 사용되었거나 성분 호응이

잘못된 경우, 조사와 어미의 사용이 잘못된 경우, 동의 중복, 외래 어법의 남용, 피동법과 사동법이 잘못 사용된 경우가 발견되면 ‘뜻수’로 분류하고 뜻풀이를 수정한다.(《표준》 편찬 지침Ⅱ 2-2-8. 주의해야 할 문장 표현(p53~57) 참조)

예1) #1생일02#2뜻수#3태어난 날을 기리는 해마다의 그날.#4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해마다의 그날.#5‘기념하다’가 더 적절한 표현임.

※ 생일02(生日)「명」세상에 태어난 날. 또는 태어난 날을 기리는 해마다의 그날.
능생세일. ¶{생일을} 맞다/말에는 {생일에} 친구들을 초대해 잔치를 열었다.§

예2) #1간접범#2뜻수#3스스로 범죄를 실행하지 아니하고 남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행한 범죄.#4스스로 실행하지 아니하고 남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행한 범죄.#5‘범죄를 실행하지 아니하고 행한 범죄’는 통사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뜻풀이를 수정함.

※ 간접-범(間接犯)[간:-뻘]「명」『범』스스로 범죄를 실행하지 아니하고 남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행한 범죄. 또는 그런 범인. 교사범(敎唆犯), 간접 정범 따위가 있다.

예3) #1간접반칙#2뜻수#3경기 규칙에 맞지 않게 행동하여 어기게 된 반칙.#4경기 규칙에 맞지 않게 행동하여 저지른 반칙.#5《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도 이와 같지만, 의미적으로 호응이 되지 않는 문장임. ‘규칙’을 어기는 것이지 ‘반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므로 뜻풀이를 수정함.

※ 간접반칙(間接反則)「명」『북』『운』농구 따위에서, 상대방의 몸에 직접 부딪치지 않는으나 경기 규칙에 맞지 않게 행동하여 어기게 된 반칙.

예4) #1강제저축#2뜻수#3물가가 오를 때 화폐 소득이 오르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가 되므로#4물가가 오를 때 화폐 소득이 오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가 되므로#5일본어 투입.

※ 강제^ㄱ저축(強制貯蓄)『경』 물가의 상승으로 소비 지출이 절약되어 이루어지는 저축. 물가가 오를 때 화폐 소득이 오르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가 되므로, 소비를 줄여 오히려 저축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이른다.

(3) 《표준》의 뜻풀이 중에서 옛 명칭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뜻수’로 분류하여 수정한다.

예) #1국가보훈처#2뜻수#3원호 대상자나 애국지사 및 그 유족, 월남 귀순자에 대한 원호와 군인 보험 따위에 관한#4보훈 대상자나 애국지사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과 군인 보험 따위에 관한#51985년 ‘원호처’가 ‘국가보훈처’로 개칭되었고 기존 ‘원호’ 개념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포함하는 ‘보훈’ 개념으로 전환됨.

※ 국가^ㄱ보훈처(國家報勳處)『법』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호 대상자나 애국지사 및 그 유족, 월남 귀순자에 대한 원호와 군인 보험 따위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4) 《표준》의 뜻풀이에 북한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뜻수’로 분류하여 뜻을 남한어로 수정한다. 북한어 중에서 직접 뜻풀이가 되어 있는 표제어의 뜻풀이에도 원칙적으로 북한어를 쓸 수 없다.

예) #1도화돈#2뜻수#3띠돈의 하나.#4뗏돈의 하나.#5‘띠돈’은 북한어임.

※ 도화-돈「명」「옛」띠돈의 하나.

(5) 뜻풀이가 해당 표제어나 다른 표제어의 뜻풀이와 모순이 없는지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수정한다.

예) #1기나주#2뜻수검#5‘기나’는 ‘기나나무’의 ‘기나’와 원어가 같고 ‘기나염’, ‘기나정기’, ‘기나파’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나주’ 역시 ‘기나나무’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뜻풀이에는 ‘기나나무’나 ‘기나파’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기존 사전에는 ‘기나 엑스’라는 것이 뜻풀이 맨 처음에 나오는데 이 것이 현재 뜻풀이에는 없다. 인터넷이나 백과사전 등을 참조하여 뜻풀이를 수정 검토

※ 기나주(幾那酒) 「명」 굴껍질 퉁크, 설탕 따위를 섞어 만든 술. 붉은 갈색으로 쓴 맛이 나며 향기가 있고, 건위제와 강장제로 쓰인다.

(6) 뜻풀이에 지나치게 어려운 낱말이 들어간 경우에 ‘뜻수’로 분류하고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수정한다.

예) #1강빈옥사#2뜻수#3~인조 24년(1646)에 소의(昭儀) 조 씨(趙氏)를 저주하고 어선(御膳)에 독약을 넣었다는 무고로 사사되었다.#4~인조 24년(1646)에 소의(昭儀) 조 씨(趙氏)를 저주하고 임금에게 올리는 음식에 독약을 넣었다는 무고로 사사되었다.#5‘어선’이 어려운 단어여서 풀어서 뜻풀이함.

※ 강빈^옥사(姜嬪獄事) 『역』 조선 시대에, 소현 세자 빈 강 씨(姜氏)의 사사(賜死) 사건. 인조 24년(1646)에 소의(昭儀) 조 씨(趙氏)를 저주하고 어선(御膳)에 독약을 넣었다는 무고로 사사되었다.

(7) 두 표제어의 뜻풀이가 유사한 경우에는 집필자가 판단하여 어느 한쪽의 뜻풀이를 적극적으로 수정한다.

예) #1생채02#2뜻수#3 「1」 ~날로 무친 나물.#4 「1」 ~날로 무친 나물. 능생나물.#5 ‘생채02 「1」 ’와 ‘생나물’의 뜻풀이가 거의 동일하여 동의어 처리함. 고유어계 조어나, 한자어계 조어나의 차이일 뿐 결국 동일한 것임.
#1생나물#2뜻수#3익히지 아니하고 생것 그대로 무친 나물.#4=생채02 「1」 .#5 ‘생채02 「1」 ’의 뜻풀이 수정에 따름.

※ 생채02(生菜) 「명」 「1」 익히지 아니하고 날로 무친 나물. 『익히지 말고 {생채를} 해서 먹자.』 「2」 『북』 마르지 아니한 산나물.

생-나물(生-)「명」 익히지 아니하고 생것 그대로 무친 나물.

- (8) 관련 어휘나 참고 어휘의 뜻풀이가 해당 표제어의 뜻풀이와 동일하거나 거의 같다면 집필자가 판단하여 둘 중 하나를 수정한다.

예) #1누그러뜨리다#2뜻수#3딱딱한 성질을 부드러워지거나 약해지게 하다.#4딱딱한 성질이나 태도를 부드러워지거나 약해지게 하다.#5비슷한말 ‘누그리다’와 뜻풀이가 동일하여 수정함.

※ 누그러-뜨리다 [-뜨리어[--어/--여](-뜨려), -뜨리니] 【…을】 「동」 딱딱한 성질을 부드러워지거나 약해지게 하다. 누누그러트리다·눅잡히다. 「비」 누그리다.
누그리다 [누그리어[--어/--여](누그러), 누그리니] 【…을】 「동」 딱딱한 성질을 부드러워지거나 약해지게 하다. 「비」 누그러뜨리다.

- (9) 뜻풀이에 외래어 표기가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와 원어 등이 맞는지 외래어 표기 용례집에서 확인한다. 잘못된 표기가 발견될 경우에는 ‘뜻수’로 분류하여 수정하고, 외래어 표기 용례집과 다르지만 표기 용례집의 잘못된지 사전의 잘못된지 집필자가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뜻수검’으로 분류하여 #5에 메모를 남긴다. 또한 뜻풀이에 나오는 외래어 지명이나 인명 등이 《표준》의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해당 외래어 지명이나 인명을 ‘표추검’으로 남긴다. 외래어의 표기는 아래의 표기 용례집을 따른다.

- ① 외래어 표기 용례집-인명-, 2002
- ② 외래어 표기 용례집-지명-, 2002
- ③ 외래어 표기 용례집-일반 용어-, 2002
- ④ 2004 동남아시아 3개 언어 외래어 표기 용례집, 2004
- ⑤ 외래어 표기 용례집-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2005

예1) #1디킨#2뜻수#3후에 미국의 만살 플랜을 지지하고#4후에 미국의 마셜 플랜을 지지하고#5%

※ 디킨(Deakin, Arthur) 「명」 『인』 영국의 노동 운동 지도자(1890~1955). 운수 일반 노동조합 서기장, 세계 노련(勞聯) 회장을 지냈으며, 후에 미국의 마샬 플랜을 지지하고 국제 자유 노련을 창설하여 부회장이 되었다.

예2) #1앵두#2뜻수#3쥬스#4주스#5%

※ 앵두 「명」 앵두나무의 열매. 모양이 작고 둥글다. 붉게 익으면 식용하며, 잼 쥬스 술 따위의 원료로도 쓰고 약재로도 쓴다.

예3) #1구비오#2뜻수#3특히 16세기의 마요리카 도자기가 유명하며#4특히 16세기의 마올리카 도자기가 유명하며#5%

※ 구비오(Gubbio) 「명」 『지2』 이탈리아의 중부에 있는 도시. 예로부터 도자기 제조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였는데 특히 16세기의 마요리카 도자기가 유명하며, 고대 로마 극장의 유적, 중세 건축 따위의 사적이 많다.

(10) 뜻풀이를 수정할 경우에 그 표제어와 관련된 계열 어휘가 있다면 관련 계열 어휘를 모두 수정하여 집필한다. 예를 들면 ‘봄’을 수정할 경우, 계열 어휘인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일관성 있게 수정한다. 그러나 관련 어휘가 많아 집필자가 모두 수정하기 힘들 경우에는 일괄 검토 사항으로 남긴다.

(11) 뜻풀이에 동음이의어가 사용되어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뜻수’로 분류하고 풀어서 뜻풀이를 해 준다.

예) #1과감성#2뜻수#3과감한 성질.#4과단성이 있고 용감한 성질.#5‘과감하다’가 2개 있고, ‘과감스럽다’도 풀어서 뜻풀이되어 있음.

※ 과감-성(果敢性)[과:-쌩] 「명」 과감한 성질.

(12) 순환적 뜻풀이는 되도록 수정한다.

예) #1노려보다#2뜻수#3「1」 미운 감정으로 매섭게 쏘아보다.#4「1」 미운 감정으로 어떠한 대상을 매섭게 계속 바라보다.#5‘노려보다’와 ‘쏘아보다’의 뜻풀이가 순환적이어서 ‘노려보다’를 수정함.

※ 노려-보다 [-보아(-봐), -보니] 【…을】 「동」 「1」 미운 감정으로 매섭게 쏘아보다. 「2」 탐이 나서 눈독 들여 겨누어 보다.

쏘아-보다 [-보아(-봐), -보니] 【…을】 「동」 날카롭게 노려보다.

(13) 뜻풀이를 분할하거나 합칠 때에도 ‘뜻수’로 분류하고 #5에 ‘뜻 합침’ 또는 ‘뜻 분할함’ 등의 메모를 남긴다.

(14) 계열 어휘의 뜻풀이 중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은 ‘뜻수검’으로 분류하고 #5에 일괄 검토 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예) #1각각#2뜻수검#5십칠 관등 가운데 첫째 등급. 나머지 십칠 관등의 계열 어휘 뜻풀이가 일관성이 없음. 뜻풀이 상세 검색 적용 후, 일괄 검토 필요함.

※ 진양-조(-調) 「명」 『음』 ‘진양조장단’의 잘못.

(15) 《표준》의 뜻풀이 중 기본 표제어가 아닌 표제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기본 표제어로 바꿀 필요는 없다. 오히려 빈도에 따라 동의어로 돼 있는 표제항을 기본 표제어로 바꾸는 것이 나은 처리일 수 있다.(다만 전문어 풀이에서는 기본 표제어로 풀이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본 표제어는 개정 중에 바뀔 수 있으므로 뜻풀이를 모두 기본 표제어로 수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검토 작업 중 기본 표제어를 수정한 경우는 반드시 카페의 게시판에 기본 표제어 수정 사항을 올린다.

(16) ‘○○’의 잘못, ‘○○’의 옛말, ‘○○’의 북한어, ‘○○’의 방언과 같은 뜻풀이에서 ‘○○’은 형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에 형태가 아닌 기본 표제어가 쓰였을 경우에는 ‘뜻수’로 분류하여 수정한다.

(17) 사전 지침보다 한국 어문 규정이 우선한다. 어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그대로 따른다.

예) #1망태02#2뜻수#3‘망태기02’의 준말.#4=망태기02.#5사전의 준말 기준과 어긋나므로 동의어로 고침.(X)

#1망태기02#2뜻수#3~만든다. ㄴ망탁(網橐).#4~만든다. ㄴ망탁(網橐)·망태기02.#5‘망태02’를 ‘망태기02’의 동의어로 수정했으므로 여기에도 제시함.(X)

☞ ‘막대기/막대’와 ‘망태기/망태’는 <표준어 규정>에 있는 것이므로 수정할 수 없음.

(18) 본말과 준말 중에서 빈도가 높은 것을 기본 표제어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본말과 준말의 사용 빈도가 그다지 차이 나지 않고, 관련 어휘가 많아 기본 표제어를 바꾸었을 경우에 이에 따른 수정 사항이 지나치게 많아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현재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19) 월등히 많이 쓰이는 표제어가 기본 표제어로 설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기본 표제어를 수정한다.

(20) “○○’을 달리 이르는 말”로 풀이돼 있는 표제어는 일괄적으로 검토하여 유래를 알 수 있는 것은 ‘~라는 뜻으로,’ 등의 유래를 밝히고, 그 유래를 알 수 없는 것은 《표준》의 체제를 유지한다.

2) 아래와 같은 경우에 뜻풀이를 추가한다. 뜻풀이를 추가할 때에는 #3에는 정보 없음 표시(%)를 하고 #4에 뜻풀이와 해당 용례를 추가한다.(용례 추가 항을 따로 만들지 않는다.) 다만 집필자가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는 ‘뜻추검’으로 분류하여 #5에 추가를 검토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1) 《표준》에 등재된 기본 뜻풀이 외에 비유적인 의미가 말뭉치에서 다수 나타날 때에는 ‘뜻추’로 분류하여 뜻풀이를 추가한다. 다만 집필자가 확신할 수 없을 경우에는 ‘뜻추검’으로 분류하여 해당 사항을 #5에 메모로 남긴다.

예1) #1공약수#2뜻추#3%#4 「1」 『수1』 ~. 「2」 여러 사물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상충되는 이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받아 들일 수밖에 없는 {공약수가} 있다.§#5수학 전문어 뜻밖에 없는데 용례를 보면 비유적으로 ‘공통점’이나 ‘보편적 특징’과 같은 의미로 쓰인 예가 많음. 일반어 뜻풀이 추가함.

※ 공-약수(公約數)[-쑤] 「명」 『수1』 둘 이상의 정수 또는 정식에 공통되는 약수.

예2) #1꽃불#2뜻추검#5만발한 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아이들의 돌팔매질 패싸움은 그 {꽃불이} 타는 언덕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netc5904,145,한승원,해신의 늑>§

※ 꽃-불[곧뽕] 「1」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 「2」 축하하는 뜻으로 총이나 포로 쏘아 올리는 불꽃. 흑색 화약에 철분 따위를 섞어 통에 넣고 불을 붙여 총이나 포로 공중으로 쏘아 올리면 폭음과 함께 터져 여러 색깔의 불꽃이 흩어진다.

(2) 기존의 뜻풀이와 분명히 구분되는 새로운 의미로 쓰인 예가 발견되면 ‘뜻추’로 분류하여 뜻풀이를 추가한 후 해당 용례를 보인다. 다만 집필자가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뜻추검’으로 분류하여 #5에 추가를 검토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예1) #1가겟방#2뜻추#3%#4 「3」 가게 안에 딸린 작은 방.『고무신 가게와 약재상 두 칸으로 칸막이가 돼 있는 점방에 딸린 {가겟방} 역시 아래위 칸으로 장지문을 격해 있었다.<NDNAD460,354>§#5말뭉치에서 쓰임 확인.

※ 가겟-방(--房)[가:게뽕/가:겠뽕] 「명」 「1」 자그마하게 가게로 차려 쓰는 방. 「2」 =가게 「1」.

예2) #1가격표#2뜻추#3%#4 「1」 ~. 「2」 상품에 붙어 있는 가격 표시.#5%

※ 가격-표(價格表) 「명」 판매할 상품들의 가격을 적어 놓은 일람표. ‘값표’로 순화.

예3) #1가계08#2뜻추#3%#4「3」『경』 소비의 주체로 ‘가정’을 이르는 말.『장기간의 경기 불황으로 {가계} 및 기업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5‘가계 대출, 가계의 부채가 늘고 있다.’ 등에서 쓰이는 ‘가계’의 뜻풀이가 없다.

※ 가계08(家計)[계/-계]「명」「1」한 집안 살림의 수입과 지출의 상태. 「2」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는 방도나 형편.

예4) #1덧정#2뜻추점#5「1」~.「2」덧붙은 정(?) . 현재 풀이와 다른 용례 발견. 기타 말뭉치에서는 ‘덧정이 떨어지다’가 압도적으로 나옴.『인심이 날로 지악해져 가는 것을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하는 것 같아서 인사에 {덧정이} 겹히기 때문이었다. 오장이 불편하면 안색도 추레해 보이기 마련이다.<2ce00007,164,이문구,산 너머 남촌>/하양의 상냥한 거조가 마음에 든 거였다. 혹은 붙임성 있게 하얗고 어울리는 양마담에 대한 {덧정이} 먼저인지도 몰랐다.<2ce00007,276,이문구,산 너머 남촌>

※ 덧-정(-情)[덧정]「명」((주로 ‘없다’와 함께 쓰여)) 끌리는 마음. 『학교가 통 마음에 들지 않아 다닐수록 {덧정} 없는 일뿐이다./김산이도 다리가 아파서 밤길 걸을 {덧정이} 없는 판이라...<홍명희, 임궫정>

(3) 뜻풀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발생하는 뜻풀이 재배열 문제는 따로 메모를 남기지 않는다.

(4) 뜻풀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뜻풀이 번호에 변동이 있고, 이후 다시 이에 대한 수정 작업을 할 때에는 바뀐 뜻풀이 번호를 기준으로 한다.

3) 아래와 같은 경우에 뜻풀이 삭제를 검토한다. 뜻풀이 삭제는 검토 사항으로만 집필한다. 이에 따라 파일에는 ‘#1표제어#2뜻삭점#5해당 사항’과 같은 형식으로 입력한다.

(1) 《표준》에 제시된 뜻풀이 중에서 말뭉치에서 그 쓰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집

필자가 판단하기에도 쓰이지 않는 의미일 때에는 ‘뜻삭검’으로 분류하고 #5에 뜻풀이를 삭제하라는 메모를 남긴다.(삭제를 검토한 뜻풀이에 용례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삭’ 항목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 뜻풀이가 삭제될 경우 용례도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이다.)

예1) #1건들리다#2뜻삭검#5「3」 용례 없음. 말뭉치에서도 쓰임 확인 불가.

※ 건들-리다[건:---] [-리어[-어/-여](-려), -리니] 【…에/에게】「동」「1」‘건들다」1」’의 피동사. 「2」‘건들다」2」’의 피동사. ¶그 일에 그의 자존심이 {건들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3」‘건들다」3」’의 피동사. ¶지금까지 저 나쁜 놈에게 {건들린} 여자들만 해도 죽히 스물은 될 거야.§

예2) #1냄새나다#2뜻삭검#5「3」 말뭉치 쓰임 없음. 이런 의미의 뜻풀이는 단어 조어력 강력해 보이지 않음. 결합형의 용례 전무함.

※ 냄새-나다[냄:---] [-나, -나니]「동」「1」신선하지 않고 오래된 맛이 있다. 「2」어떤 일이나 사물에 몹시 싫증이 나다.¶한 달 내내 콩나물국만 먹었더니 이제 콩나물 소리만 들어도 {냄새난다}.§ 「3」그 환경의 사람들에게만 공통적으로 있는 특징이 느껴지다.

(2) 합성어로 등재되어 있는 표제어의 뜻풀이와 그 합성어를 구성하는 일부 성분의 뜻풀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합성어 쪽에서 뜻풀이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합성어와 합성어 구성 성분의 일부 뜻풀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합성어 구성 성분 일부의 뜻풀이를 삭제한다.

예) #1감다01#2뜻삭#3「2」못 본 चे하다.#4%#5표제어로 ‘눈감다’가 등재되어 있어서「2」못 본 चे하다’라는 뜻풀이와 중복됨. ‘못 본 चे하다’라는 의미는 ‘감다’의 의미가 아니라 ‘눈을 감다’ 전체에서 나오는 의미이므로 ‘감다01「2」를 삭제함.

※ 눈-감다[-따] [-감아, -감으니] 「동」 「1」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다. 『할머니는 편안히 {눈감으셨다}./그러나 이제는 별로 기다릴 세월이 남지 않았다. 네가 없는 땅에서 홀로 {눈감고} 싶지는 않다.《이문열, 영웅 시대》 「2」 남의 잘못을 알고도 모르는 체하다. 『비리를 {눈감아} 주다/그는 그 실수를 {눈감아} 달라고 사정했다./그는 부하들의 작은 잘못도 {눈감고} 지나는 법이 없었다.
감다01[감:따] [감아, 감으니] 「동」 「2」 【…에 …을】 못 본 체하다. 『비참한 현실에 눈을 {감아} 버리다.§

2. 다의어의 뜻풀이

- 1) 다의어의 각 뜻풀이에 제시된 용례 사이에 차이가 없고 뜻풀이를 합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뜻수’로 분류하고 뜻풀이를 합친다. 다만 집필자가 확신할 수 없을 경우에는 ‘뜻수검’으로 분류하고 #5에 뜻풀이 합침을 검토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예) #1들이꽤다#2뜻수#3 「1」 세계 꽤다. 「2」 마구 때리다.#4마구 꽤다.#5 「1」 과 「2」의 뜻풀이와 용례에 큰 차이가 없어서 뜻풀이를 통합함.

※ 들이-꽤다 [-꽤어(-꽤), -꽤니] 「동」 【…을】 「1」 세계 꽤다. 「2」 마구 때리다.『그는 주먹으로 닥치는 대로 아이들을 {들이꿨다}.§

- 2) 다의어의 뜻풀이 배열 순서는 ①기본 뜻→②비유적인 뜻이다. 한자어 표제어 등에서,
 ① 이 순서에 어긋나게 배열된 것은 ‘뜻배’로 분류하여 뜻풀이 배열 순서를 바꾼다.
 ② 기본 뜻의 풀이 없이 비유적인 의미의 뜻풀이만 실렸으나, 말뭉치에서 그 기본 뜻으로 사용되는 예가 확인되면 ‘뜻추’로 분류하고 기본 뜻을 첫 번째 뜻풀이에 추가하고 용례를 보인다.
 ③ 기본 뜻으로 사용되는 예가 말뭉치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기본 뜻을 명확히 알 수 있을 때에는 ‘뜻수’로 분류하고 ‘○○라는 뜻으로’와 같은 형식으로 뜻풀이를 수정한다.
 ④ 기본 뜻이 있을 것 같으나 기본 뜻으로 사용된 예가 말뭉치에서 전혀 나오지 않

고 집필자도 그 기본 뜻을 분명히 알 수 없을 때에는 ‘뜻수집’으로 분류하고 #5에 ‘기본 뜻 검토 바람’이라는 메모를 남긴다.

◆3) 다의어의 뜻풀이는 ‘표준어(일반어→전문어)→비표준어→방언→북한어→옛말’ 순으로 배열한다. 남한어끼리 묶어서 풀이해 주는 것이 층위에 맞기 때문에 배열을 ‘비표준어→방언→북한어’로 수정·결정하였다. 또한 옛말을 맨 뒤에 둔 것은 공시어→통시어로의 풀이 대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는 편찬지침Ⅱ p68-4-2. “2)고어의 뜻풀이를 북한어 뜻풀이보다 먼저 배열한다.”를 수정한 것이다.

3. 피동, 사동의 뜻풀이

‘○○의 피동사’, ‘○○의 사동사’로 뜻풀이된 표제어는 기본 표제어의 뜻풀이와 대조하여 그것이 기본 표제어의 피동이나 사동의 의미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만약 피동사나 사동사의 의미가 ‘○○의 피동사’, ‘○○의 사동사’로 설명될 수 없을 때에는 ‘뜻수’로 분류하고 별도로 뜻풀이한다.(이는 《표준》 편찬 지침Ⅱ7-1. 피동사·사동사의 뜻풀이 원칙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예) #1굳히다#2뜻수#3「3」‘굳다[Ⅱ]「2」’의 사동사.#4「3」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니할 만큼 힘이나 뜻을 강하게 하다.#5‘굳다[Ⅱ]「2」’는 형용사이므로 독자 풀이함.

※ 굳다[때]〔굳어, 굳으니, 굳느[굳-]〕[Ⅰ]「동」~. [Ⅱ]「형」「2」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니할 만큼 힘이나 뜻이 강하다.¶{굳은} 결심/{굳은} 약속/철석같이 {굳은} 결심/{굳게} 맹세하다/입을 {굳게} 다물다/어린 소년인데도 의지가 참 {굳군}/저놈들이 성문을 열고 싸우러 나온다면 쉽게 무찌르고 성을 빼앗을 수 있겠지만 저렇게 고슴도치처럼 숨어서 {굳게} 지키고만 있으니 우리가 더 불리하지 않겠습니까요?《유현종, 들불》 §

굳-히다[구치-]〔-히어[-어/-여](-혀), -히니〕「동」【…을】「1」~. 「2」~. 「3」‘굳다[Ⅱ]「2」’의 사동사.¶기반을 {굳히다}/마음을 {굳히다}/승리를 {굳히다}/그는 실질적인 제2인자의 자리를 서서히 {굳혀} 나갔다./일을 저지르겠다는 결의

만 혼자 {굳히며} 찾아가던 때와는 달리 쓸쓸한 마음으로 골목을 빠져나왔다.《송기숙, 자랏골의 비가》 §

4. 순화어의 뜻풀이

◆ 순화어의 뜻풀이는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이는 ‘순화 대상어와 순화한 말은 동의어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표준》의 편찬 지침Ⅱ(뜻풀이 7-2, 3. 동의어. p171)을 수정한 것이다.

1) 순화 정보는 원칙적으로 삭제하지 않는다.(다만 순화 정보와 순화 대상어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거나 ‘~의 순화’에서 ‘~의 잘못’으로 수정한 표제항에 대해서는 순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편찬 지침Ⅱ p184. 11.에서 달라진 내용>)

예1) #1곡자03#2뜻수#3‘누룩’으로 순화.#4=누룩. ‘누룩’으로 순화.#5순화어 정보만 있어 뜻풀이 삽입.

예2) #1테니스#2뜻수#3~남·녀 단식과 복식, 혼합 복식 따위의 경기 방식이 있다. ‘정구04(庭球)’로 순화.#4~남녀 단식과 복식, 혼합 복식 따위의 경기 방식이 있다.#5‘남녀’가 한 단어로 올라 있으므로 수정해야 함. 순화어 제시가 더 혼란을 줌. ‘테니스’와 ‘정구04’는 다른 것임. 공의 모양부터 다름.

예3) #1가디건#2뜻수#3‘카디건’으로 순화.#4‘카디건’의 잘못.#5순화어 일괄 처리.

예4) #1견본01#2뜻수#3~‘보기’, ‘본보기’로 순화.~#4~‘본보기’로 순화.~#5‘보기’는 ‘본보기’의 동의어이므로 삭제하고 기본 표제어인 ‘본보기’만 제시함.

2) 뜻풀이 없이 순화 정보만 있는 표제어는 반드시 뜻풀이를 넣어 주어야 한다.

① 원칙적으로 ‘빠다’, ‘다마네기’처럼 쓰지 않기를 권하는 표제어의 경우에는 ‘~의 잘못’으로 처리한다.

예1) #1빠다#2뜻수#3「1」‘버터’로 순화.「2」『북』‘버터’의 북한어.#4「1」‘버터’의 잘못.「2」『북』‘버터’의 북한어.#5순화어 일괄 처리. 1차 회의에서 ‘빠다’를 ‘버터’의 동의어로 처리하면서 북한어를 삭제했으나 ‘잘못’으로 처리하게 되

면 북한어를 삭제할 필요 없음. 잘못과 북한어로 각각 처리.

예2) #1다마네기#2뜻수#3‘양파’로 순화.#4‘양파’의 잘못.#5순화어 일괄 처리.

※ 빠다(←&일bata)「명」 「1」 ‘버터’로 순화. 「2」 『북』 ‘버터’의 북한어. 【<butter】
버터(butter)「명」 우유의 지방을 분리하여 응고시킨 식품. 빵에 발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이용한다. ㄴ우락01.『빵에 {버터를} 발라 구워 먹다.

② 쓰임이 많고 잘못으로 보기 어려운 외래어, 한자어 중에서 순화어가 순화 정보에
제시된 단어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뜻을 풀이를 따로 하고 순
화 정보를 보이지 않는다.

예) #1리조트#2뜻수#3‘휴양지’로 순화.#4재미있게 놀거나 편안히 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리조트} 개발/장관은 전국 주요 관광지에 대규모 복합 {리조트} 단지
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5‘휴양지’의 의미와 차이가 있는 듯하여, 별도의
뜻풀이를 함.

※ 리조트(resort)「명」 ‘휴양지’로 순화.

휴양-지(休養地)「명」 편안히 쉬면서 몸과 마음을 보양하기에 알맞은 곳. ㄴ휴양
처.『이 도시는 산과 바다가 모두 인접해 있어 최고의 {휴양지로} 꼽힌다.

③ 순화어가 순화 정보에 제시된 단어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의
어로 처리한다. 이때 기본 표제어도 반드시 함께 수정한다.

예) #1속미#2뜻수#3‘좁쌀’로 순화.#4=좁쌀「1」. ‘좁쌀’로 순화.#5순화 정보만 있음.
#1좁쌀#2뜻수#3「1」~.ㄴ소미01(小米)·전미01(田米)「1」.#4「1」~.ㄴ소미01
(小米)·속미·전미01(田米)「1」.#5‘속미’의 뜻 풀이 수정에 따름.

④ 영어에서 일본어를 통해 들어온 말은, 쓰임이 많음을 고려하여 잘못으로 처리하
되, 기준이 되는 영어가 표준어일 때에는 형태를 우선하여 ‘영어의 잘못’으로 처
리하고(예: 라지에타-라디에이터), 기준이 되는 영어 자체가 잘못일 때에는, 기준

이 되는 ‘표준어의 잘못’으로 처리한다.(예: 바란스/밸런스, 카렌다/캘린더, 밋데리/배터리 등)

⑤ 명백한 외국어이거나, 현재 쓰임이 거의 없거나, 순화한 용어가 한 단어가 아니라서 사전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 등은 표제어 자체를 삭제한다.(리코딩, 비어, 베스트01, 만땅, 사이키 등)

⑥ 어기(語基)는 ‘~로 순화’로 풀이돼 있으나, 이들 어기가 포함된 복합어·전문어 등이 표준어인 ‘경골(頸骨)*’ 부류는, ‘잘못’이 아닌, 동의어로 처리한다.(곤로02, 교맥, 길경02, 우랑01, 측각기, 홍저 등)

3) 뜻풀이가 되어 있고 순화 정보가 있는 표제어는 뜻풀이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① 순화어의 뜻풀이가 순화 정보에 제시된 단어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의어로 처리한다.

예) #1세일즈맨#2뜻수#3고객을~사람. ‘외판원’, ‘판매원’으로 순화.#4=외판원. ‘외판원’, ‘판매원02’으로 순화.#5순화 대상어.

※ 세일즈-맨(salesman) 「명」 고객을 찾아다니며 상품을 파는 사람. ‘외판원’, ‘판매원’으로 순화.▶자동차 {세일즈맨}/그는 작은 출판사의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다./맡이는 일을 맡기는 족족 실수만 거듭하기에…{세일즈맨으로} 세계를 돌게 했더니, 지사(支社)와 친지 등 아버지 이름이 통하는 데마다 빗을 걸머지고…《박완서, 오만과 몽상》

외판-원(外販員)[외:--/웨--] 「명」 직접 고객을 찾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

② 순화어의 뜻풀이가 순화 정보에 제시된 단어의 뜻풀이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실제로 쓰임도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의어로 처리하지 않는다.

- 4) 순화어가 비표준어, 속어, 비어 등일 때에는 그 내용을 ‘뜻수집’으로 분류하여 메모로 남긴다. 이는 내부 토론을 거쳐 수정·삭제한다.

예) #1선급금#2뜻수집#5‘선돈’으로 순화하라고 되어 있으나 ‘선돈’은 ‘선금’의 잘못으로 나와 있음. <순화어 자료집>에도 ‘선급금’은 ‘선돈’으로 순화한다고 되어 있어서 사전의 잘못된지 <순화어 자료집>의 잘못된지 알 수 없음. 검토 바람.

※ 선급-금(先給金)[-끔]「명」 미리 지급하여 주는 돈. ‘선돈’으로 순화. ≒전도금·전불금.
선-돈「명」 ‘선금02(先金)’의 잘못.

- 5) 순화 정보는 뜻풀이 번호가 아닌, 표제어 어깨번호까지만 제시한다.

- 6) 순화어의 배열은 아래와 같이 한다.

- ① 독자 풀이. ‘가’, ‘나’, ‘다’로 순화(미등재어·구(句) 상관없이 가나다순).
- ② =OO, ‘OO’, ‘가’, ‘나’, ‘다’로 순화(미등재어·구(句) 상관없이 가나다순).

- 7) 순화 정보가 미등재어일 때는 띄어 쓴다.(편찬 지침Ⅱ p185의 “순화된 말이 북한어일 경우에도 순화 정보를 그대로 두고, 순화 정보의 띄어쓰기는 남한어의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쓴다.”와 같은 맥락이다.)

5. 부표제어의 뜻풀이

- 1) 부표제어의 뜻풀이는 그 의미가 주표제어와 동일하면 ‘⇒’를 이용하여 주표제어로 뜻풀이를 돌리는 것이 원칙이다.(《표준》지침Ⅱ 8-2) 이에 따라 《표준》에서 이와 같은 원칙에서 벗어난 뜻풀이가 발견될 경우에는 ‘뜻수’로 분류하여 뜻풀이를 수정한다.

예) #1난계하다#2뜻수#3「Ⅰ」 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르거나 건너뛰다.#4「Ⅰ」
⇒난계01「2」.#5주표제어와 뜻풀이가 동일하여 주표제어로 돌림.

※ 난계01(亂階)[난:계/난:계]「명」 「1」 소란이나 화란(禍亂)을 일으키는 실마리. ¶ 그 사람이 조정에 있는 한 남모르게 교묘한 술책을 써 시끄러움을 야기시킬 {난 계가} 될 것입니다.《번역 선조실록》§ 「2」 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르거나 건너뛰. 또는 질서 없이 뒤엎친 차례.
난계-하다[난:계-/난:계-]「Ⅰ」 「동」 【…을】 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르거나 건너뛰다. 「Ⅱ」 「형」~.

2) 1)과 반대로 부표제어의 뜻풀이를 기계적으로 주표제어로 돌리기 위해 주표제어에 어색한 뜻풀이를 해 놓은 경우에는 ‘뜻수’로 분류하여 어색한 주표제어의 뜻풀이를 수정하고 부표제어의 뜻풀이도 따로 해 준다.

3) 부표제어의 뜻풀이를 주표제어의 뜻풀이로 돌린 것 중, 주표제어의 뜻풀이와 부표제어의 용례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집필자가 판단하여 어느 한쪽을 수정한다.

예) #1강등#2뜻수#3직위의 등급이나 계급이 낮아짐. 또는 등급이나 계급을 낮춤.#4 등급이나 계급 따위가 낮아짐. 또는 등급이나 계급 따위를 낮춤.#5부표제어 ‘강등하다’의 용례는 모두 ‘강등’의 뜻풀이와 맞지 않는다. 이런 용례가 말뭉치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강등’의 뜻풀이를 수정함.

※ 강등(降等)[강:-]「명」 직위의 등급이나 계급이 낮아짐. 또는 등급이나 계급을 낮춤. 강등-하다[강:-]「동」 【…을 …으로】 ⇒강등.¶반란을 일으켰던 길주를 군에서 읍으로 {강등하였다}./그가 이 나라 종친의 한 사람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로 특별히 그에게는 본형(本刑)에서 일등을 {강등하여} 종신 유형에 처하는 바이다.《유주현, 대한 제국》§

4) 주표제어의 뜻풀이를 수정할 경우에는 그에 딸린 부표제어의 뜻풀이와 용례도 반드시 함께 수정한다.

6. 전문어의 뜻풀이

1) 전문어의 뜻풀이는 되도록 《표준》의 뜻풀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뜻수’로 분류하고 전문어의 뜻풀이를 수정할 수 있다. 수정할 때에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1) 전문어의 뜻풀이가 지나치게 장황하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명료하고 간결하게 수정할 수 있다.
 - (2) 그 외 뜻풀이 중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전문어 사전, 인터넷 등을 참조하여 수정하고 수정한 사항과 이유를 #5에 메모로 남긴다.
- 2) 《표준》의 전문어 뜻풀이가 다른 전문어 사전의 뜻풀이와 달라 수정해야 할 것처럼 보이나 각종 전문어 사전, 인터넷 등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아 집필자가 어떤 설명이 맞는지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뜻수검’으로 분류하여 ‘#1표제어#2뜻수검#5해당 사항’의 형식으로 집필한다. #5에는 전문어 사전과 인터넷의 설명을 메모로 남긴다.

예1) #1도회보감#2뜻수검#5‘원나라까지 있었던’으로 되어 있으나 백과사전에는 남송까지의 화가만 실린 것으로 되어 있음. 혹시 전문어 자문 때 수정된 것이 아닌지 검토 바람.

※ 도화·보감(圖繪寶鑑)[-회-/-화-]「명」『책』1366년에 중국 원나라의 하문언(夏文彦)이 편집한 화론(畫論)과 화가의 전기(傳記). 삼국 시대의 오나라부터 원나라까지 있었던 화가의 약전(略傳)이 실려 있다. 5권.

예2) #1너새01#2뜻수검#5현재「2」의 풀이는, 돌 조각만 가리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나뭇조각을 너새라고 하는 듯함. ‘너새집’의 삼화도 지붕이 나무 널로 돼 있음. 지리 교과서 등을 참조하여 풀이 수정해야 함. ‘너새집’도 함께 처리하고 관련 동의어도 모두 검토 필요함.

※ 너새01[너:-]「명」『건』「1」지붕의 합각머리 양쪽으로 마루가 지도록 기와를 덮은 부분. 능당마루. 「2」지붕을 일 때 기와처럼 쓰는 얇은 돌 조각. 능녀와·

돌기와.

- 3) 지명, 인명 등의 뜻풀이는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터넷 백과사전 등을 통해 내용을 검토하고 《표준》의 뜻풀이와 다를 경우에는 ‘뜻수검’ 등으로 분류하여 메모를 남긴다.

예) #1녹도01#2뜻수검#5행정 구역 외에는 정보가 없는 단순한 지명. 삭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 확인하여 수정해야 함. 면적 정보가 틀림. 0.89km²(민족문화대백과사전, naver백과사전) 동의어로 된 ‘문도(蚊島)04’는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西歸洞)에 딸린 섬.’임(면적 0.94km², 동서 길이 500m, 남북 길이 280m, 최고점 73m이다. 문섬 또는 녹도(鹿島)라고도 한다).

#1문도04#2뜻수검#5‘녹도01’를 삭제하게 되면 동의어인 ‘문도04’도 삭제해야 함. ‘녹도01’를 삭제하지 않으면 ‘녹도01’과 함께 뜻풀이 수정해야 함.

※ 녹도01(鹿島)[-도] 「명」 『지2』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에 속하는 섬. 면적은 2.23km². ≡문도04.
문도04(蚊島)「명」 『지2』 =녹도01(鹿島).

- 4) ‘○○ 시대에’라는 뜻풀이가 나올 경우에는 인터넷, 백과사전 등을 활용하여 반드시 확인한 후 잘못된 정보라면 ‘뜻수’로 분류하여 수정한다. 만약 집필자가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뜻수검’으로 남긴다.

★5) 전문어라고 하더라도 말뭉치에서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고 그 뜻풀이가 전문어 사전에서 확인되면 ‘뜻추’로 분류하여 뜻풀이를 추가한다.

예) #1법장02#2뜻추#3#4「1」 중들이 짚고 다니거나 좌선 시에 사용하는 지팡이.『스님은 {법장을} 짚고 염불을 하며 가상(假想)의 법당을 돌았다.<NMH090,020,최명희,혼불>법사는 마침내 {법장을} 들어 법탑을 여무지게 올리면서 다시 눈을 번쩍 뜨더니, 청중을 한번 휘둘러보고는 설법을 계속한다.<netc3101,032,김정환,사하춘>§「2」 중생에게~.#5<<불교대사전>> 참고하여 뜻풀이 추가함.

※ 법장02(法杖)[-짱]「명」『불』중생에게 힘이 되어 준다는 뜻으로, ‘불법02(佛法)’을 지팡이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6) 한자어 중에서 《표준》에 비유적인 의미로만 뜻풀이가 되어 있는 표제어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비유적인 의미의 뜻풀이만 올라 있으나 말뭉치 등에서 한자 본디 의미의 쓰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뜻추’로 분류하여 본래 의미를 추가하거나 ‘뜻추검’으로 분류하여 본래 의미를 추가 검토 메모를 남긴다.

예) #1추호01#2뜻추검#5한자 그대로의 의미인 ‘가을철 털갈이하는 짐승의 털’ 정도의 의미 추가 검토. 뜻풀이 추가하면, 기존 풀이는 비유적인 의미로만 수정해야 함.

※ 추호01(秋毫)「명」가을에 짐승의 털이 아주 가늘다는 뜻으로, 아주 적거나 조금인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ㄴ분호02(分毫).

★(2) (1)과 달리 한자어 본디 뜻으로 쓰이는 예가 말뭉치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한자어 본래의 의미가 남아 있어서 그 의미를 밝혀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한자어는 ‘뜻수검’으로 분류하여 ‘○○라는 뜻으로’와 같은 형식으로 본디 뜻을 제시하고 파생된 의미를 풀이하는 것을 검토한다.

예) #1고근약식#2뜻수#3친척이나 돌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4외로운 뿌리, 약한 식목이라는 뜻으로, 친척이나 돌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5원뜻 추가함.

※ 고근·약식01(孤根弱植)[-낙씩]〔고근약식만[-낙썩-]〕「명」친척이나 돌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표준》에 ‘○○라는 뜻으로 ~을 이르는 말’ 형식으로 풀이되어 있으나 한자어 본디의 뜻으로 쓰이는 예가 말뭉치에서 확인될 경우에는 뜻풀이를 분할하

여 「1」에 한자어 본디의 뜻, 「2」에 비유적인 뜻을 배열한다.

예) #1녹의홍상#2뜻수#3연두저고리에 다홍치마라는 뜻으로, 젊은 여자의 고운 옷차림을 이르는 말.#4 「1」 연두저고리와 다홍치마.『예쁘게 밤 화장을 끝낸 그 여자는 장롱 속에 간직했던 {녹의홍상을} 꺼내 입고, 귀신도 홀릴 것 같은 황홀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방을 나설 것이었다.<김성동, 만다라>/아닌 게 아니라 율촌택의 자태는 나무랄 데가 없었다.…{녹의홍상이라는} 것이 본디 생기 있는 복색이면서도 수줍고, 그러면서도 당당한 빛깔이라는 것을 청암 부인은 눈이 부시게 느꼈다.<NMHHB020,249,최명희,혼불>§ 「2」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의 옷차림.『정한 시각이 되자, 초례청으로 들어서는 신부가 틀림없이 전자에 보던 그 여자가 분명하고, {녹의홍상으로} 칠보단장을 한 인물은 역시 경국지색이더라란 말이야.<NGSAC001,207,이기영,봄>§#5‘녹의홍상’ 원래의 한자어로도 쓰이므로 뜻풀이를 분할하고 용례 제시함.

※ 녹의-홍상(綠衣紅裳)[-노기-/노기-] 「명」 연두저고리에 다홍치마라는 뜻으로, 젊은 여자의 고운 옷차림을 이르는 말. 『예쁘게 밤 화장을 끝낸 그 여자는 장롱 속에 간직했던 {녹의홍상을} 꺼내 입고, 귀신도 홀릴 것 같은 황홀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방을 나설 것이었다.<김성동, 만다라>」

7) 전문어의 뜻풀이에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이 특히 많으므로 전문어 뜻풀이는 꼼꼼히 검토한다.

7. 북한어의 뜻풀이

1) 북한어의 뜻풀이가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호응이 제대로 안 되었거나 지나치게 장황할 경우에는 의미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한다. 다만 반드시 《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를 확인한 후 수정한다.

예) #1간접도급지불제#2뜻수#3직접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 결과를 간접적 방법으로 도급 생활비를 계산하는 도급 지불 제도#4직접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 결과에 대해, 간접적 방법으로 도급 생활비를 계산하는 도급 지불 제도.#5 《조선말대사

전》의 뜻풀이도 이와 같지만, 통사적으로 호응이 되지 않는 문장이므로 뜻풀이를 수정함.

※ 간접도급지불제(間接都給支拂制) 「명」 『북』 『경』 직접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 결과를 간접적 방법으로 도급 생활비를 계산하는 도급 지불 제도.

2) 북한어 표제어에 대해 똑같은 뜻풀이를 지닌 남한어가 있을 경우에는 ‘뜻수’로 분류하고 ‘○○의 북한어’와 같은 형식으로 뜻풀이를 수정한다. 이때 관련된 단어가 있을 경우, 모두 수정한다.

예) #1말립터#2뜻수#3무엇을 말리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춘 곳.#4‘건조장01’의 북한어.#5회의 결정 사항. 동일한 의미임.

※ 말립터 「명」 『북』 무엇을 말리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춘 곳.
건조-장01(乾燥場) 「명」 물건을 건조하기 위하여 특별한 장치를 한 곳.¶김 {건조장}/오징어 {건조장}.§

3) ‘북남검’으로 분류하여 남긴 표제어 중에서 표준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표제어는 ‘표사검’ 항목을 따로 만들지 않고 #5에 표준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메모를 남긴다.

★4) 독자적으로 뜻풀이되어 있는 북한 전문어의 경우, 유사한 뜻풀이를 지닌 남한어가 있을 때, 직접 자료를 확인하여 ‘○○의 북한어’로 수정하거나 ‘뜻수검’으로 분류하여 ‘○○의 북한어’로 뜻풀이 수정 검토 바란다는 메모를 남긴다.

예) #1롯데마광기#2뜻수검#5남한어 ‘로드 밀’과 동일한 의미로 보임. 전문어 감수 후 “로드 밀”의 북한어’로 뜻풀이 수정 검토 바람.
#1롯데분쇄기#2뜻수검#5남한어 ‘로드 밀’과 동일한 의미로 보임. 전문어 감수 후 “로드 밀”의 북한어’로 뜻풀이 수정 검토 바람.

※ 룯드마광기(rod磨鑛機)「명」『북』『공』=룯드분쇄기. ♣로드 마광기.
 룯드분쇄기(rod粉碎機)「명」『북』『공』여러 개의 로드(rod)가 들어 있는 원통이
 돌아가면서 광석을 필요한 크기대로 잘게 부수는 기계. 선�광장(選鑛場)의 일차
 분쇄에 주로 쓴다. ♣룯드마광기. ♣로드 분쇄기.

8. 방언의 뜻풀이

- 1) 방언의 뜻풀이 방식, 방언권 구분, 방언권 제시 방법 등은 《표준》의 원칙을 그
 대로 따른다. 다만 《표준》에서 제시한 방언권이 잘못되어 수정할 경우에는 ‘뜻
 수검’으로 분류하여 집필한다.
- 2) ‘○○의 잘못’, ‘○○의 방언’ 등으로 뜻풀이된 표제어는 말뭉치에서 실제로 ‘○
 ○’과 의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뜻수’로 분
 류하여 직접 수정하거나 ‘뜻수검’으로 남겨 검토하도록 한다.

예) #1내동01#2뜻수검#5‘일껏’의 잘못으로 뜻풀이돼 있으나 실제 쓰임을 보면 ‘지
 금껏’ 정도의 의미인 듯함. 검토 필요. ¶그믐산이는 {내동} 가만 있다가 갑자기
 부쩍하면 더럭 의심할지도 몰라 짐짓 기죽은 시늉으로 잠깐 땀을 들였다가
 <NHYAB120,411,이문구,오자룡>“아까 {내동} 말형게로.” “사랑에서 뭇 번씩이
 나 찾으심만, 어쩐다냐. 논에도 없고 밭에도 없고.”<NMHHB060,150,최명희,혼
 불>/문정은 사내의 되지 못한 행짜보다도 그녀의 음충맞은 웃음소리가 사위스
 러워서 짐짓 주춤하였다. 그러자 {내동} 묵중하게 앉아서 술잔만 갈아대고 있던
 심길섭이 쉽게 흘개를 늦추면서...<2ce00007,29,이문구,산 너머 남촌>§

※ 내동01 「부」 ‘일껏’의 잘못.

일-껏[일:겹]「부」모처럼 애써서.¶그는 {일껏} 마련한 좋은 기회를 놓쳤다./{일
 겹} 음식을 만들어 주었더니 맛이 없다고 불평이다./상관도 없는 사람이 괜한 말
 을 하여 {일겹} 잘되어 가는 일을 망쳐 놓았다.

★3) 표제어가 “○○’의 방언’으로 풀이되어 있으나 대응어인 ‘○○’이 북한어일 경
 우에는 기존 사전과 방언 사전을 확인하여 북한어의 방언으로 풀이된 표제어

를 삭제 검토 하거나 또는 직접 뜻풀이한다.

9. 옛말의 뜻풀이

- 1) 옛말의 문법 정보, 뜻풀이 형식 등은 《표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옛말의 뜻풀이 중에서 잘못된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뜻수’로 분류하여 수정하고, 집필자가 확신할 수 없을 경우에는 ‘뜻수검’으로 분류하여 #5에 해당 사항을 메모로 남긴다.
- 2) 《표준》에 옛말로 뜻풀이되어 있는 표제어가 말뭉치에 쓰이고 있을 때에는 ‘뜻수검’으로 분류하여 해당 옛말을 현대어로 처리하기 바란다는 메모를 남긴다. 또한, 옛말 단어가 나온 예문을 인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단 그 문장을 인용하되 #5에 해당 단어가 현대어로 수정되지 않을 시에는 용례를 삭제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예) #1납향날#2뜻수검#5말뭉치에 ‘납향날’이 나타남. 현대어로 처리 검토 바람. 『북 중엔 닭곰과 밀전병이었고 동지 팔죽과 {납향날} 고기구이까지 용케도 찾아 숨 쉴을 보이곤 했던 것이다.<NHYAD000,137,이문구,관촌 수필>§

※ 납향-날(臘亨)「명」「옛」「납일02(臘日)」의 옛말. 『臘日 {납향날}《역해 상:4》/臘八 {납향날}《동해 상:4》.

- 3) 2)와 반대로, 《표준》에 현대어로 뜻풀이가 되어 있는 표제어 중에서 말뭉치에 예가 전혀 나오지 않고 집필자 판단에도 현대어로는 더 이상 쓰임이 없다고 판단되는 표제어는 ‘뜻수검’으로 분류하고 #5에 현대어에서의 쓰임이 없다는 메모를 남긴다.

예) #1괴다04#2뜻수검#5‘귀여워하고 사랑하다’라는 의미의 현대어로 되어 있으나 말뭉치에서 그 쓰임을 확인할 수 없고 기존의 용례도 작성례와 《번역 중종실록》의 예문이므로 현대어로 보기 힘들. ‘고어’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예스러운’ 등의 상위 언어로 뜻풀이를 해야 한다.

- 4) 중화가 일어나는 옛말 표제어가 자동적 교체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뜻풀이에 교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옛말의 특징적인 불규칙 활용이나 특수 곡용을 보이는 기본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명을 덧붙인다.
(《표준》 편찬 지침Ⅱ 13. 옛말 세부 지침 p355 참고)

10. 의성 의태어의 뜻풀이

- 1) 의성 의태어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아니면 되도록 뜻풀이를 수정하지 않는다. 하나를 고칠 경우 관련하여 고칠 것이 너무 많고, 전체 체계 자체를 흐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뜻풀이가 분명히 잘못되어서 꼭 고쳐야 할 경우에는 ‘뜻수’, ‘뜻수점’으로 분류하여 수정하고, 관련된 어휘를 모두 수정하여 제시한다.
- 2) 의성 의태어의 뜻풀이가 용례와 맞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용례를 뜻풀이에 맞추어 수정한다.

11. 명사의 뜻풀이

- 1) 《표준》의 뜻풀이 중 서술성이 없는데도 동명사형으로 뜻풀이가 끝나는 것은 체언으로 끝나도록 뜻풀이를 수정한다. 다만 부표제어가 없는 표제어는 모두 명사형으로 끝맺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확실하게 서술성이 없는 것만 수정한다. 전문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 경승01(景勝)「명」경치가 좋음. 또는 그런 곳.

경신*전정(更新剪定)『농』약한 과일나무를 개선하기 위해 나뭇가지의 일부를 자름.

☞ ‘경승하다’, ‘경신 전정하다’가 가능하지 않아도 ‘좋음’, ‘자름’으로 뜻풀이할 수 있다.

- 2) 서술 명사와 실체 명사 모두로 쓰일 수 있는 명사는 《표준》의 형식에 따라 다의어로 나누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집필자가 판단하여 서술적 뜻풀이와 실체적 뜻풀이를 각각 제시할 수도 있다.

예) #1감독02#2뜻수#3「1」 일이나 사람 따위가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살피어 단속함. 또는 그렇게 하는 사람.#4「1」 일이나 사람 따위가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살피어 단속함. 또는 일의 전체를 지휘함.#5뜻풀이 「1」 에도 ‘사람’의 의미가 있는데 뜻풀이 「2」 에서 다시 특정 부류만 독립하여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 에 제시된 용례 ‘감독을 맡다/감독을 교체하다’는 「1」 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서술적 뜻풀이와 실체적 뜻풀이를 분리하여 각각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 감독02(監督)〔감독만[-동-]〕「명」 일이나 사람 따위가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살피어 단속함. 또는 그렇게 하는 사람. ㉠시험 {감독}/공사장 {감독}/{감독이} 소홀하다/일손을 놓고 서 버리는 마을 인부들을 향해 조 {감독은} 소리를 질러 댔다. <<한수산, 유민>>§ 「2」 영화나 연극, 운동 경기 따위에서 일의 전체를 지휘하며 실질적으로 책임을 맡은 사람.㉡{감독을} 맡다/{감독을} 교체하다/김 {감독이} 이번 영화를 흥행시킨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3) ‘명사+에’ 결합형이 표제어로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한다.

(1) ‘명사+에’의 결합형만 쓰이고, 명사 단독으로나 다른 조사와의 결합형으로는 전혀 쓰이지 않는 경우: 명사 표제어를 삭제하고 ‘명사+에’ 결합형만 부사로 등재한다.

(2) ‘명사+에’의 결합형 외에 명사가 다른 조사와도 결합이 가능한 경우: 명사만 표제어로 인정하고, ‘명사+에’ 결합형은 표제어로 등재하지 않는다. 다만 명사 표제어에 ‘((흔히 ○○ 꼴로 쓰여))’라는 문법 정보를 넣고 다양한 쓰임을 용례로 제시한다.

★4) 《표준》에 ‘○○의 어근’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말뭉치에서 명사적 쓰임을 보이고 집필자의 판단에도 명사로 확신할 수 있는 표제어는 ‘뜻수’로 분류하여 집필한다. 이때 #3에는 ‘○○의 어근’, #4에는 ‘표제어(IC 분석 포함)-원어-발음-

활용-품사-전문어 영역-뜻풀이-용례' 등을 차례로 적고 #5에는 근거가 되는 사항을 메모로 남긴다. 다만 명사적 쓰임을 보이긴 하나 집필자가 명사라고 확신할 수 없을 때에는 '뜻수검'으로 분류하여 #5에 메모를 남긴다.

☞ 이 항목을 '품수'나 '품검'으로 분류하지 않고 '뜻수', '뜻수검'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근'을 품사 정보가 아니라 뜻풀이를 통해 제시한 《표준》의 체계에 따른 것이다.

예) #1강력03#2뜻수#3'강력하다'의 어근:#4강력(強力)[-녁]〔강력만[-녕-]〕「명」
((일부 명사 앞에 쓰여)) 힘이나 영향이 강함.『{강력} 대응/{강력} 단속/{강력} 대처/{강력} 스테인레스. §#5'강력하다'의 어근으로 되어 있으나 말뭉치에서는 '강력 대응', '강력 단속', '강력 대처' 등과 같은 쓰임을 보이므로 명사로 볼 수 있을 듯함.

★5) 4)와 반대로, 《표준》에 품사가 명사로 분류되어 있으나 말뭉치에서의 쓰임이 어근으로만 나타나고 집필자도 어근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뜻수'로 분류하여 #3에 기존의 '표제어-발음-활용-품사-전문어 영역-뜻풀이-용례' 등을 모두 차례로 입력하고 #4에는 '표제어-○○의 어근'의 형식으로 입력한다. 또한 이에 따른 부표제어의 뜻풀이도 수정해야 한다. 다만 집필자가 확신할 수 없는 것은 '어근검'으로 분류하여 #5에 해당 사항을 메모로 남긴다.

예) #1가상09#2뜻수#3가상09「명」 칭찬하여 아름답게 여김. 능가칭03(嘉稱)「1」. #4'가상하다02'의 어근.#5현재 우리 사전이 嘉尙과 嘉賞을 혼동해서 잘못 풀이하고 있음. 바로잡음.

#1가상하다02#2뜻수#3「동」【…을】⇒가상09.#4「형」((흔히 뒷사람이 아랫사람을 칭찬할 때 쓰여)) 착하고 기특하다.#5잘못 바로잡음.

※ 가상09(嘉尙)「명」 칭찬하여 아름답게 여김. 능가칭03(嘉稱)「1」. 가상-하다02「동」【…을】⇒가상09. 『평소에 꺼리는 동생이로되 이 비상한 때에 민활하게 당신을 보호한 공적을 {가상하게}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김동인, 대수양>』로마 제국에 저항하여 싸운 그 의기만으로도 {가상하다} 할 수 있으

나…: 《이문열, 시대와의 불화》

★6) 《표준》에 명사로만 분류되어 있으나 말뭉치에서 부사적으로 쓰이는 표제어는 ‘부사점’으로 분류하고 부사적 쓰임을 보이는 문장을 #5에 복사하여 붙여 둔다.

예) #1방울방울#2부사점#5‘방울방울’은 부사적 쓰임이 강하므로 부사로 인정할 것 인지 검토 필요함.

※ 방울-방울「명」한 방울 한 방울. ¶이슬의 {방울방울마다} 햇빛이 비추었다./풀 앞에 이슬이 {방울방울로} 맺혔다./나의 목소리를 듣고 형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눈물을 {방울방울} 흘렸다.《김승옥, 환상 수첩》/바구니 가득 물건을 사 들고 온 소향의 이마엔 {방울방울} 땀이 솟아 있었다.《이병주, 행복어 사전》/복도의 콘크리트 바닥에 영신의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서 돈작만큼씩 번졌다. 《심훈, 상록수》

12. 특수어의 뜻풀이

1) 특수어는 주로 “대응하는 일반어”를 이르는 말’의 형식으로 뜻풀이하나, 이러한 형식으로 뜻풀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뜻풀이한다.(《표준》 지침Ⅱ 7-4 p174) 특수어를 독자적으로 뜻풀이할 경우에는 일반 표제어의 뜻풀이와 마찬가지로 표제어가 체언이면 ‘…로, …를 이르는 말.’로, 표제어가 용언이면 ‘(…의 은어로)’와 같은 형식으로 뜻풀이하는 것이 원칙이다. 《표준》의 특수어 뜻풀이 중에서 이러한 원칙에 맞지 않은 뜻풀이가 나올 경우에는 직접 수정하지 않고 ‘뜻수점’으로 분류하여 #5에 메모를 남긴다. 이는 나중에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예) #1대가다#2뜻수점#5「2」“뺏사람들의 은어로, 배를 오른쪽으로 저어 감을 이르는 말.”로 뜻풀이되어 있음. 동사의 뜻풀이인데도 불구하고 뜻풀이가 명사 꼴로 처리되는 것이 어색. 단독 대응어도 없어 “~은어로, ‘-다’를 이르는 말.”로도 뜻풀이할 수 없음. 이런 경우에는 은어의 공통적인 뜻풀이 요소를 뜻풀이 밖으로 끌어낼 때 허용되는 “()”를 써 “(뺏사람들의 은어로) 배를 오른쪽으로 저어 가다.”로 뜻풀이하는 것이 어떨지?

※ 대-가다[대:-] [-가, -가니] 「동」 「1」 【…에】 정한 시간에 맞추어 목적지에 이른다. ¶이러다가 제시간에 {대가기} 어렵겠다. 「2」 뱃사람들의 은어로, 배를 오른쪽으로 저어 감을 이르는 말.

- 2) ‘은어로’라는 뜻풀이 중에서 그 은어 사용자의 집단이 밝혀져 있지 않은 뜻풀이는 《표준》의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나중에 따로 일괄적으로 검토한다.

13. 동의어의 뜻풀이

- 1) 《표준》에 제시된 동의어는 모두 검토하여 잘못된 것, 의미에 차이가 나는 것을 수정한다.

- 2) 동의어 수정은 ‘뜻수’, ‘뜻수검’으로 분류하고, #5에 이유를 밝힌다.

예) #1괘종시계#2뜻수#3시간마다 종이 울리는 시계. 보통 벽에 걸어 둔다. ≒괘종·벽시계.#4시간마다 종이 울리는 시계. 보통 추가 있으며 벽에 걸어 둔다. ≒괘종.#5동의어 삭제. 뜻풀이 보완.
#1벽시계#2뜻수#3=괘종시계.#4벽이나 기둥 따위에 걸게 된 시계.#5‘벽시계’가 더 광의.

※ 괘종-시계(掛鐘時計)[-계/-계] 「명」 시간마다 종이 울리는 시계. 보통 벽에 걸어 둔다. ≒괘종·벽시계.¶주인집 마루에 걸려 있는 낡은 {괘종시계가} 게으른 소리로 세 시를 알렸다.《한무숙, 어둠에 갇힌 불꽃들》

※ 벽-시계(壁時計)[-씨계/-씨계] 「명」 =괘종시계.¶{벽시계를} 벽에 걸다/큰 {벽시계가} 무거운 추를 흔들며 다섯 시를 알렸다.§

- 3) 동일한 사물이나 개념이 각각 풀이돼 있을 때 비슷한말 관계를 끊고 동의어로 수정한다.

예) #1베옷#2관수#3「비」 포범(布帆).#4%#5동의어로 처리함에 따름.

#1베옷#2뜻수#3베로 만든 옷.#4베로 만든 옷.≒포범.#5‘포범’에서 비슷한말

관계에 있는 ‘베똥’을 동의어로 수정함에 따름.

#1포범#2관수#3「비」베똥.#4%#5‘포범’과 ‘베똥’을 동의어로 수정함에 따름.

#1포범#2뜻수#3베로 만든 똥.#4=베똥.#5‘포범’과 ‘베똥’이 비슷한말로 되어 있는데 뜻풀이가 동일함. <학회>에서의 처리처럼 동의어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함.

- ※ 베-똥[-돈]〔베똥이[-도치], 베똥만[-돈-]〕「명」베로 만든 똥. 「비」포범(布帆).
- ※ 포범(布帆)「명」베로 만든 똥. 「비」베똥.

11. 용례

11.1. 원칙

1. 용례의 제시 범위, 제시 방법 등은 《표준》을 그대로 따른다.
2. 《표준》에 제시된 용례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나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하거나 삭제한다.
3. 《표준》에는 용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말뭉치에서 적당한 예문이 나올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용례를 추가한다.

★4. 순화 대상어라도 말뭉치에서 자주 나타나고 쓰임을 보여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면 용례를 추가할 수 있다.

11.2. 세칙

1.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용수’로 구분하고 《표준》의 용례를 수정한다. 이때 파일에는 #3에 기존의 용례를, #4에 새롭게 고친 용례를 입력한다.
 - 1) 《표준》에 제시되어 있는 용례의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표준어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수’로 분류하여 수정한다.

예1) #1생똥맞다#2용수#3ㄹ{맞선 보는 자리에서 일부러 {생똥맞은} 얘기를 해서 신부 될 여자를 골탕 먹이는 일 말예요. <최일남, 숙부는 늑대>#4ㄹ{맞선 보는 자리에서 일부러 {생똥맞은} 얘기를 해서 신부 될 여자를 골탕 먹이는 일 말이에요. <최일남, 숙부는 늑대>#5받침 있는 말이 앞에 올 때는 ‘-이에요, -이어요’ 줄어들지 않음.

예2) #1날개비#2용수#3ㄹ{날개비} 성냥을 피라미 꼴로 수북히 쌓아 놓은 늑수그레한 성냥 장수가 두 손으로 성냥 한 줍을 집어...<김원일, 불의 제전>#4ㄹ{날개비} 성냥을 피라미드 꼴로 수북이 쌓아 놓은 늑수그레한 성냥 장수가 두 손으로 성냥 한 줍을 집어...<김원일, 불의 제전>#5오표기 수정. ‘ㄱ, ㄷ, ㅂ’ 등의 폐쇄음으로 끝나면 ‘-이’로 적음.

예3) #1주범01#2용수#3「2」ㄹ{기상청은 엘니뇨 현상을 이상 기후의 {주범으로} 꼽았다./과음~#4「2」ㄹ{기상청은 엘니뇨 현상을 이상 기후의 {주범으로} 꼽았다./과음~#5‘엘니뇨’가 바른 외래어 표기.

예4) #1냉수#2용수#3ㄹ{냉수를} 들이키다/~#4ㄹ{냉수를} 들이켜다/~#5‘들이키다’는 ‘들이켜다’의 비표준어임.

예5) #1대답#2용수#3「2」ㄹ{그는 묻는 말에 {대답도} 잘 못하는 어리숙한 사람이었다./나는~#4「2」ㄹ{그는 묻는 말에 {대답도} 잘 못하는 어수룩한 사람이었다./나는~#5비표준어

2) 제시된 용례의 내용이 지나치게 비슷한 경우에는 말뭉치를 참조하여 다른 용례로 교체한다.

예) #1개문하다01#2용수#3ㄹ/~운전사는 버스 문을 {개문하지} 않았다.#4ㄹ/~그것은 민당이 성내 주민들에게 보내는 통문으로, 즉시 성문을 {개문하거나} 최형순 등 오직을 잡아 성 밖에 내치지 않으면...<NAFAA002,294,현기영,변방에 우짚는 새>#5두 예문의 내용이 비슷하여 다른 용례로 교체함.

※ 개문-하다01「동」【(…을)】⇒개문01. ¶버스는 {개문한} 채 출발하였다.//운전사는 버스 문을 {개문하지} 않았다.§

3) 《표준》의 작성례보다 더 적절한 용례가 인용 말뭉치에서 발견되면 ‘용수’로 분류하여 인용례로 교체한다.

예) #1강중02#2용수#3「1」¶{강중에} 떠 있는 배.§#4「1」¶운수와 경후가 번차레로 배를 저었다. 차차 {강중으로} 들어갈수록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며 물 위로 비치는 달빛은 마치 대낮과 같이 눈이 부시다.<NGSAB003,556,이기영,신개지>§#5더 적절한 인용례로 교체함.

※ 강중02(江中)「명」「1」강물 위의 가운데. ¶{강중에} 떠 있는 배.§「2」강의 물속. ¶{강중의} 물고기.§

4) 다의어는 용례가 각 뜻풀이에 맞게 제시되었는지 검토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한다. 만약 다른 뜻풀이로 용례를 옮길 경우 ‘용삭’과 ‘용추’로 나누어서 입력하지 않고 ‘용수’로 구분하여 #3에는 《표준》에 제시된 용례를 입력하고 #4에 수정 사항을 입력한다. #5에는 뜻풀이와 용례가 맞지 않아 용례를 뜻풀이에 맞게 옮겼음을 메모로 남긴다.

예) #1난감하다#2용수#3「1」¶~/이렇게 큰일이 자기 앞에 떨어지고 보니 미상불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송기숙, 암태도>/면회소에~§#4「2」¶{난감하였다}./이렇게 큰일이 자기 앞에 떨어지고 보니 미상불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송기숙, 암태도>//일자리가~§#5「1」에 제시된 용례였으나 「2」의 뜻풀이에 적합하여 「2」로 옮김.

※ 난감-하다[난:---]「형」【…이】【-기가】【-르지가】「1」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어려워 처지가 매우 딱하다.¶{난감한} 처지에 놓이다/이렇게 큰일이 자기 앞에 떨어지고 보니 미상불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송기숙, 암태도>/면회소에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고 참말로 {난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현기

영, 변방에 우짚는 새>>//누구를 뽑아야 할지 선택하기가 {난감하다}.///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표정이 되다.§ 「2」 맞부딪쳐 건디어 내거나 해결하기가 어렵다.¶앞으로 살아갈 일이 {난감하다}./해가 지니 하산할 일이 {난감하였다}.///일자리가 없어 처자식 먹여 살리기가 {난감하다}.///앞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난감하다}.§

★5) 연어 구성과 관용구가 같은 형태일 경우, 연어 구성을 구체적인 의미가 드러나도록 인용례나 작성례로 바꾼다.

예) #1보따리#2용수#3「1」¶~메다/{보따리를} 풀다/{보따리를}~§#4「1」¶~/누님은 언제 준비했던지 따로 가져온 {보따리를} 풀어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netc4109,271,최일남,누님의 겨울>§#5연어 구성으로 제시된 ‘보따리를 풀다’를 인용례로 교체함. 인용레이므로 맨 뒤에 제시.

※ 보-따리(褌-)「명」 「1」 보자기에 물건을 싸서 꾸린 뭉치.¶떡 {보따리}/{보따리들} 메다/{보따리를} 풀다/{보따리를} 들다.§

※ 보따리(를) 풀다 「관용」 「1」 숨은 사실을 폭로하다.¶그는 그동안 숨겼던 일에 대해서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 「2」 계획했던 일을 실제로 하기 시작하다.¶막상 {보따리를 풀긴} 했지만 생각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2. 아래와 같은 경우 ‘용추’로 분류하고 용례를 추가한다. 이때 파일에는 #3에 정보 없음 표시(%)를 하고 #4에 새로 들어갈 용례를 입력한다.

1) 《표준》에서 제시한 연어 구성 외에 말뭉치에서 새롭게 보이는 연어 구성이 있으면 ‘용추’로 분류하여 추가한다. 다만 연어 구성을 새로 추가할 때에는 같은 형태가 관용구로 등재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관용구로 등재되어 있다면 연어 구성이 아니라 인용례나 작성례로 추가한다. 또한 이미 제시된 연어 구성이라 하더라도 집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작성례나 인용례로 교체할 수 있다.

예1) #1간질04#2용추#3%#4¶{간질을} 앓다/~§#5빈번한 연어 구성

예2) #1간찰#2용추#3%#4「2」¶{간찰} 한 통/{간찰을} 보내다/~§#5언어구성 추가

- 2) 《표준》에는 용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표제어인데, 인용 말뭉치에서 용례가 나오는 경우에는 ‘용추’로 분류하여 적극적으로 용례를 추가한다. 이때, 인용례에 맞춤법에 어긋나거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수정하여 추가해야 한다.

예1) #1노루뿔#2용추#3%#4¶두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렸지만 {노루뿔에} 돼지 꼴이었다.<NAGAA051,284,송기숙,녹두 장군>/새파랗게 기가 질려 {노루뿔을} 하는 아낙네의 거동에 놀란 주모가 뒷방으로 달려갔다.<bexx0010,김주영,객주>§#5%

예2) #1노르무레하다#2용추#3%#4¶눈앞에서는 {노르무레한} 빛살과 푸른 어둠이 섞이어 맴돌았다.<netc5905,230,한승원,포구의 달>/여덟 잔에 {노르무레한} 위스키가 따라진 뒤에 갑진은 술잔을 들며...<NGQAC000,73,이광수,흙>§#5%

- 3)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표제어이고 말뭉치에 적절한 용례가 나올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용례를 추가한다.

예) #1결락되다#2용추#3%#4¶그는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결락되어} 있다./한국 근현대사의 파행성을 실천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식이 {결락되어} 있다./얼굴엔 땀과 피와 먼지가 이겨져 있고, 손에 든 칼은 이빨이 군데군데 {결락되어} 톱니처럼 되어 있는데 그의 호소하는 말은 애절하다.<NGYAB032,299,이병주,행복어 사전>§#5%

- 4) ‘○○같이’, ‘○○처럼’ 등과 함께 쓰여 비유적인 의미가 생긴 표제어 중에서 ‘○ ○같이’, ‘○○처럼’ 등이 결합한 용례만 있을 경우에는 이들이 결합한 용례를 넣어준다.

예) #1나무토막#2용추#3%#4「2」¶그도 기실 몸이 {나무토막처럼} 기력이 빠져 있

었지만, 이럴 때는 술을 퍼 마시고 통잠을 자는 것만이 약이라는 것을 알고….<NAHAA050,094,문순태,타오르는 강>/아들에게서 한수 얘기를 들은 두식 영감은 마른 {나무토막처럼} 모로 쓰러졌다.<NKYAD000,268,황순원,신들의 주사위>§#5회의 결정 사항.

◆5) 전문어 표제어에도 용례를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인명, 지명 제외) 다만 자주 쓰이지 않고 말뭉치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문어 표제어에 집필자가 무리하게 작성례를 넣지 않는다.

☞ 이는 전문어 표제어에는 용례를 보이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했던 《표준》 기준 지침과 달라진 사항이다.

예) #1고미01#2용추#3%#4☞부엌 위의 {고미} 천장에 다락을 만들었다.§#5기타 말뭉치 수정함.

※ 고미01「명」『건』 굵은 나무를 가로지르고, 그 위에 산자를 엮어 진흙을 두껍게 바른 반자.

3.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용삭’으로 분류하고 《표준》의 용례를 삭제한다. 이때 파일에는 #3에는 《표준》의 용례를, #4에는 정보 없음 표시(%)를 입력한다.(그러나 해당 용례를 삭제하고 다른 용례로 대체할 경우에는 ‘용수’로 분류한다.)

1) 《표준》에 제시된 작성례 중에서 그 쓰임이 말뭉치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고 뜻풀이를 근거로 무리하게 만든 것처럼 보이는 작성례는 ‘용삭’으로 분류하여 삭제한다. 다만 현재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의 용례는 《조선왕조실록》을 통하여 쓰임을 확인한 후 삭제를 결정한다.

예) #1귀구하다#2용삭#3☞자신의 잘못을 비겁하게 {귀구해서}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자.§#4%#5뜻풀이에 맞추어 무리하게 작성례를 제시한 듯 보임.

※ 귀구02(歸咎)[귀:-]「명」허물을 남에게 돌려 씌움.

귀구-하다[귀:---]「동」【…을】⇒귀구02. 『자신의 잘못을 비겁하게 {귀구해서}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자.』

예2) #1고부하다01#2용식#3『친척들에게 {고부하다}.』#4%#5임의 작성례.

※ 고부01(告誨)[고:-]「명」사람의 죽음을 알림.

고부-하다01[고:---]「동」【…에/에게】⇒고부01. 『친척들에게 {고부 하다}.』

2) 현재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에 어색한 작성례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말
뭉치와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하여 그러한 쓰임이 있는지 확인하고 더 적절한
용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용례를 수정한다. 그러나 기존의 용례와 같은 쓰임이 말
뭉치나 <조선왕조실록>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고 뜻풀이에 맞추어 무리하게 용례
를 제시한 것처럼 보일 때에는 기존의 어색한 작성례를 삭제한다.

3) 연어 구성으로 제시된 형태가 표제어로도 등재된 경우, 집필자가 판단하여 표제
어 삭제를 검토하거나 용례를 수정한다.

예) #1가다가#2법식#3((주로 ‘가꿈’, ‘간혹’과 같은 부사와 함께 쓰여))#4%#5‘가꿈가
다가’가 한 단어로 올라 있고, ‘간혹가다, 간혹가다가’가 표제어로 추가됨에 따
라 용례에서 삭제하고 문법 정보 삭제함.

#1가다가#2용수#3『간혹~성을 낸다.』#4『“어서 올라오세요. {가다가는} 그런 일
도 있어야 살 재미가 있지 않아요.”<NFJDU000,175,염상섭,젊은 세대>“아까
그건 이태원에서 외국인하고 사는 여자한테서 가져온 거예요. {가다가는} 아주
신품이 걸릴 때도 있죠.<NKYAL020,099,황순원,움직이는 성>』#5‘가꿈가다가’
가 한 단어로 올라 있고, ‘간혹가다, 간혹가다가’가 표제어로 추가됨에 따라 용
례 교체함.

※ 가다가「부」((주로 ‘간혹’, ‘가꿈’과 같은 부사와 함께 쓰여)) 어떤 일을 계속하
는 동안에 어쩌다가 이따금. 『간혹 {가다가} 그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

지./저 애는 가끔 {가다가} 엉뚱한 짓을 한다./얌전한 그도 간혹 {가다가} 성을 낸다.§

★4) 《표준》에 제시된 용례 중에서 둘 이상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용례는 삭제하거나 다른 용례로 대체한다.

예) #1미치광이01#2용삭#3「2」『~/겨울철이 되어 푸짐한 눈이 산야를 뒤덮자 형제는 거의 {미치광이가} 되어 약속이나 한 듯이 스키장으로 달려갔다.<윤홍길, 비늘>§#4%#5「3」의 예로도 볼 수 있는 애매한 용례이므로 삭제함.

※ 미치광-이01「1」정신에 이상이 생겨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 ㄴ미친놈「1」.「2」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ㄴ미친놈「2」.『어느 {미치광이가} 질 게 뻔한 내기를 하겠니./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실실 웃어 대니 사람들이 자네를 {미치광이라고} 알볼 수밖에 없지./겨울철이 되어 푸짐한 눈이 산야를 뒤덮자 형제는 거의 {미치광이가} 되어 약속이나 한 듯이 스키장으로 달려갔다.<윤홍길, 비늘>§「3」어떤 일에 지나치리만큼 열중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ㄴ미친놈「3」.『그 사람은 축구라면 사족을 못 쓰는 축구 {미치광이야}.§

5) 용례에 접미사 ‘-들’이나 ‘-어지다’, ‘-어하다’가 결합한 형태가 제시된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든 교체 가능한 용례가 있으면 바꾸는 것이 원칙이다. 단, 원형이 제시된 용례가 없을 경우 ‘-들’이 포함된 것은 인정하고, ‘-어지다’나 ‘-어하다’가 결합한 용례의 경우, 대체 용례가 없어도 용례로서 신지 않는다. 현재 《표준》에 ‘-어지다’나 ‘-어하다’가 들어간 용례는 적극적으로 삭제하도록 한다.

4. 용례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용례가 없는 표제어는 ①인용 말뭉치→②기타 말뭉치→③조선왕조실록 말뭉치순으로 검색하여

(1) 인용 말뭉치에서 인용이 가능한 용례가 발견되면 적절한 인용례를 추가한다. 인용례를 추가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한다.

① 필요 없는 한자는 삭제하고 특이한 기호도 삭제하거나 바꾼다. 또한 띄어쓰기, 어법 등을 검토하여 정돈된 용례를 등재한다.

② 방언이나 비표준어가 있는 인용례는 추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비표준어나 방언이 널리 쓰여서 표준어 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 용례 외에는 제시할 용례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쓸 경우, #5에 비표준어가 들어간 용례임을 밝히고, 해당 방언을 ‘표사검’으로 분류하여 따로 집필한다.

예) #1ㄱ자집#2용추#3%#4ㅁ사랑채도 없이 겨우 안방 머릿방 마루 부엌을 갖춘 {ㄱ자집} 봉당에 흐드러지게 핀 유도화가 인상적이었다.<NDNAD300,397,박완서,미망>#5‘봉당’은 ‘뜰’의 방언임. 표준어 사정 검토 바람.

#1봉당#2표사검#5‘ㄱ자집’의 용례에 쓰인 단어. ‘봉당’이 표준어로 등재되지 않을 경우 ‘ㄱ자집’에 추가한 용례를 삭제할 것.

③ 추가할 인용례에 나오는 단어들은 표제어 등재 여부를 확인하여 미등재어가 들어 있을 경우에는 되도록 추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용례가 해당 단어의 쓰임을 매우 적합하게 보여 주어 꼭 써야만 할 경우에는 #5에 미등재어에 대한 메모를 남기고 해당 미등재어는 ‘표추검’으로 집필한다.

예1) #1복닥판#2용추#3%#4ㅁ말을 떼기만 시작하면 그것이 거치적거림이 되어 악다구니 말쌈이 되고 그리하여 나중은 어떠한 {복닥판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이다.<netc1005,477,한설야,산촌>#5용례 추가 시 ‘말쌈’은 표제어 추가해야 함. #1말쌈#2표추검#5‘말싸움’의 준말. ‘복닥판’에 추가한 용례에 나오는 단어. 추가 시 부표제어 ‘말쌈하다’도 같이 올릴 것.

예2) #1원면02#2용추#3%#4ㅁ나는 {원면} 창고 앞에 앉아 방적부 남자 공원이 실타래로 부는 슬픈 노랫소리를 듣고 있었다.<NAQAJ000,196,조세희,클라인 씨의

병>§#5용례 추가 시 ‘방적부’ 표제어 추가해야 함

#1방적부#2표추검#5방적-부(紡績夫). ‘원면02’의 추가 용례에 쓰인 단어임.
‘방적부’가 등재되지 않을 경우 이 단어가 들어간 ‘원면02’의 용례를 추가하지
말 것.

- ④ 인용하고자 하는 용례에 잘못된 단어나 주의해야 할 문장 표현 등이 들어갔는지를 잘 살피고 이러한 표현이 들어간 용례는 되도록이면 피한다.(주의해야 할 문장 표현: 《표준》 편찬 지침 II p53~57 참조)

- ⑤ 인용 말뭉치의 예문을 인용례로 사용할 때는 앞뒤 적당한 곳에서 문장을 생략하여 사용한다. 인용례의 일부분을 생략할 때 사용하는 생략 기호(…)는 인용례의 중간이나 끝을 생략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용례의 맨 앞이나 작성례에서는 쓸 수 없다.

예) #1내놓다#2용추#3%#4[2]「4」¶~/두령님들께서도 그 고을에서 앞장설 만한 사람들에게 방금 손두령께서 {내놓으신} 방침을 말씀하시고 설유를 하면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정읍에는 군사들이 못 모인다 하 <NAGAA070,168,송기숙,녹두 장군>§#5% (×)

⇒#1내놓다#2용추#3%#4[2]「4」¶~/두령님들께서도 그 고을에서 앞장설 만한 사람들에게 방금 손 두령께서 {내놓으신} 방침을 말씀하시고 설유를 하면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NAGAA070,168,송기숙,녹두 장군>§#5% (○)

- ⑥ 용례를 추가하기 전에 해당 단어의 용례로 등재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검토한다. 이는 인용례뿐만 아니라 작성례를 추가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 #1관두03#2용추#3%#4¶~/부하들은 적을 대하여 생사 {관두에서} 싸우면서도 먹지를 못해 펍펍 쓰러져 죽는 이 마당에, 저 혼자 기생 행락이란 당치 않은 짓일세.<NDPAC052,338,박종화,임진왜란>§#5%

☞ ‘생사관두’가 표제어로 올라 있기 때문에 이 예문을 ‘관두’의 예로 쓸 수 없음.

(2) 인용 말뭉치에 있으나 인용례로 제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용례나 기타 말뭉치에서 용례가 발견된 용례는 작성례로 수정하여 제시한다. 이때, 출전을 밝히지 않고 인용 말뭉치나 기타 말뭉치에서 가져온 것임을 #5에 메모로 남긴다.

2) 한 표제어 내에서 용례를 삭제하고 다른 용례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약호를 ‘용수’로 제시하고 #3에는 삭제 대상 용례를, #4에는 새롭게 추가하는 용례를 제시한다.

예) #1걱정#2용수#3「1」『~많다./어머니는 {걱정이} 섞인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신다./언니가~{걱정이다}./줄업을 해도 취직자리가 없으니 {걱정이다}.\$#4「1」『~많다./재산이 넉넉하여 먹고 사는 데에는 {걱정이} 없다./별 {걱정을} 다 한다. 그냥 두어도 저절로 해결될 일이야.\$#5‘걱정이다’ 용례가 중복됨. ‘걱정이 섞인’은 비교적 용례 적어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용례로 바꿈.

3) 작성례는 구어체도 가능하다.

4) 개화기 문헌에서도 용례를 인용할 수 있다. 다만 표기 등을 현대어로 바꾸어 사용한다. 신소설류 입력문에서 줄줄이 나오는 쉼표는 삭제하고 인용례로 사용한다.

5) 기타 말뭉치는 직접 인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미독립선언문》이나 《청산별곡》과 같이 널리 알려진 작품의 예문은 인용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타 말뭉치의 예문을 인용례로 사용할 때에는 ‘용추검’으로 분류하여 용례를 추가하고 #5에 기타 말뭉치의 예문을 인용례로 사용하였다는 메모를 남긴다.

6) 용례에는 한자를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고유 명사 등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자는 제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예) 경문04 『~내 범명을 원종(圓宗)이라고 명하여 불전에 고하고 수계사 용담(龍潭) 화상이 {경문을} 낭독하고 내게 오계를 준다.<김구, 백범일지>§

☞ ‘원종(圓宗)’, ‘용담(龍潭)’ 등의 한자를 지우지 않는다.

- 7) 기타 말뭉치나 인용 말뭉치의 예를 수정하여 작성례로 등재할 때에는 되도록 간결한 형태로 제시한다.
- 8) 기존에 있는 용례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에는 #5에 대체 이유를 반드시 밝힌다. 또한 제시된 작성례가 적절한 경우에는 말뭉치에서 비슷한 용례가 없다 하더라도 삭제하지 않는다. 작성례를 삭제하는 경우는 집필자가 보기에 매우 어색하고 말뭉치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때에 한한다.
- 9) 용례를 제시할 때 가능하면 다양한 활용형이 드러나도록 한다.
- 10)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용례는 삭제하거나 대체한다.
- 11) 용례에 근대 이후의 인물 실명은 가능하면 넣지 않는다.
- 12) 작성례는 주어를 보여 주는 것이 원칙이나 주어가 없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표현일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할 수도 있다.
- 13) 뜻풀이가 둘 이상인 다의어의 경우, 둘 모두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용례는 가능한 한 제시하지 않는다.
- 14) 전형적인 연어 구성을 보이지도 않고 뜻풀이를 보완하는 역할도 하지 못하는 작성례는 피한다.
- 15) 의미 기준에서 파생되어 짝이나 군을 이루는 부류의 연어 구성은 하나만 보인다.

예) ‘{신분이} 높다/{신분이} 낮다’ 중 하나만 제시.
- 16) 연어 구성은 맨 마지막 연어 구성에만 마침표를 쓰고 그 외에는 생략한다. 또한 연어 구성만 있는 표제어에 용례를 추가할 때에는 마지막 연어 구성의 마침표를 삭제하라는 메모를 따로 남기지 않는다. 이는 용례 추가를 원고에 반영할 때

일괄적으로 처리할 사항이다.

- 17) 용례에서 표제어에 붙어 나타나는 마침표, 쉼표 등 모든 부호는 { } 밖에 제시한다.

예) #1게두덜거리다#2용추#3%#4¶~/황소는 별 실없는 놈 다 보겠다는 듯 검정 소를 한 번 흘깃 바라보아 주고는 {게두덜거렸다}.<NRYAC000,122,정연희,꽃을 먹는 하얀 소>§#5%

12. 관련 어휘/참고 어휘

12.1. 원칙

1. 관련 어휘와 참고 어휘는 모두 확인하여 검토하고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관수’, ‘참수’로 분류하여 수정한다. 다만 집필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검’, ‘참검’으로 분류하여 #5에 메모로 남긴다.
2. 관련 어휘나 참고 어휘를 수정했을 경우에는 연관되는 어휘도 모두 수정해야 한다.

12.2. 세칙

1. 관련 어휘나 참고 어휘 정보가 있는 표제어는 관련 어휘와 참고 어휘가 맞게 제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관수’, ‘참수’로 분류하여 수정한다. 교차 확인도 빠짐없이 하도록 한다.

예1) #1누감하다#2관수#3「반」 「1」 「2」 누증하다 「3」.#4「반」 「1」 「2」 누증하다.#5‘누증하다’는 뜻풀이가 「1」 「2」 밖에 없음.
#1누증하다#2관수#3「반」 누감하다.#4「반」 「1」 「2」 누감하다 「1」 「2」.#5뜻풀이 번호 누락.

예2) #1년05#2참수#3「참」 란01.#4「참」 란02.#5어깨번호 수정.

2. 관련 어휘나 참고 어휘의 정보가 어느 한쪽 표제어에서 빠진 것은 ‘관수’, ‘참수’로 분류하여 수정한다.(‘관추’, ‘참추’로 분류하지 않는다.)

예1) #1고부01#2참수#3%#4「참」 부고05(訃告).#5‘고부01’은 ‘사람의 죽음을 알림’의 뜻이고 ‘부고05’는 ‘사람의 죽음을 알림. 또는 그런 글’의 뜻이라 상호 깊은 관련성 있음.

#1부고05#2참수#3「참」 부음02(訃音).#4「참」 부음02(訃音)·고부01(訃訃).#5‘고부01’의 참고 어휘 추가에 따름.

3. 부표제어의 준말, 본말 제시는 《표준》 편찬 지침에 준하여 한다. 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발견되면 수정한다.

4. 관련 어휘나 참고 어휘 정보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거나 집필자가 판단하기 힘든 것은 ‘관검’, ‘참검’으로 분류하고 #5에 메모를 남긴다.

★5. ‘앵글로·색슨’과 같이 가운데점이 있는 표제어를 참고 어휘로 제시할 경우에도 가운데점은 그대로 사용한다.

★6. 문법 형태의 이형태끼리는 뜻풀이 형식이 같아야 한다. 《표준》에 이형태끼리의 뜻풀이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뜻수검’으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5에 메모로 남긴다.

★7. ‘~의 전 용어’로 풀이돼 있거나, 그와 같이 수정된 표제항에서는 참고 어휘를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A에서 참고 어휘를 삭제하였으면, B에서도 같이 삭제한다.(편찬 지침Ⅱ p445 일반 사항에, 참고 어휘의 부류로 ‘~의 전 용어’는 명시하지 않고 있어, 참고 어휘의 부류를 더욱 한정한 것이다.)

예1) #1단경02#2참수#3「참」 장경02.#4%#5전 용어이므로.
#1장경02#2참수#3「참」 단경02.#4%#5전 용어이므로.

예2) #1상지대#2참수#3「참」하지대.#4%#5전 용어가 됨에 따라 참고 어휘삭제 바람.
#1하지대#2참수#3「참」상지대.#4%#5전 용어가 됨에 따라 참고 어휘삭제 바람.

◆8. 참고 어휘의 배열 순서는 관련 어휘와 마찬가지로 가나다순으로 한다.(이는 편찬 지침Ⅱ p446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나 순서 개념이 있는 단어의 경우, 또는 단위로 굳어진 단어들의 경우에는 그 밀접한 순서로 배열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다. 순서 개념이나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어휘의 경우는 이 순서를 우선하여 배열한다.(‘남·북·서’로 배열하지 않는다.)”에서 바뀐 내용으로, 웹 사전에서 참고 어휘를 클릭해서 입력하면서 참고 어휘가 가나다순으로 자동으로 정렬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9. 참고 어휘는 뜻풀이에 쓰이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짝이 맞게 제시한다.(이는 편찬 지침Ⅱ p448의 “셋 이상의 대립 관계가 형성되더라도, 그중 두 가지가 양극 대립 관계에 있으면 그것들을 서로 반의어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참고 어휘로 제시한다.”에서 바뀐 내용으로, 지침을 단순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2) #1대04#2관수#3「반」소06(小).#4%#5‘중04’과 함께 참고 어휘로 제시함
#1대04#2참수#3%#4「참」소06·중04.#5참고 어휘로 추가
#1소06#2관수#3「반」대04(大).#4%#5참고 어휘로 수정함
#1소06#2참수#3「참」소-22·중04.#4「참」대04·소-22·중04.#5‘대04, 중06, 소06’ 참고 어휘로 제시함

13. 어원

13.1. 원칙

1. 어원의 제시 범위, 제시 방식 등은 《표준》을 그대로 따른다.
2. 《표준》에서 제시한 어원 정보 중 명백한 오류는 수정한다. 어원 정보를 추가할 경우에도 수정 사항으로 처리한다.(‘어추’, ‘어추검’ 항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13.2. 세칙

1. 《표준》에 어원이 들어가 있지 않으나 관련 어휘들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어원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표제어는 ‘어수검’으로 분류하여 관련 사항을 #5에 메모로 남긴다.
2. 《표준》의 어원 정보 중에서 잘못된 것이 발견될 때에는 ‘어수’로 분류하여 수정한다. 다만 집필자가 확신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수검’으로 분류하여 #5에 메모를 남긴다.

14. 관용구/속담

14.1. 원칙

1. 관용구/속담의 표기, 뜻풀이 형식, 관용구의 용례 제시 방법 등은 《표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준》의 정보 중에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수정하고, 말뭉치에서 자주 보여서 관용구나 속담으로 볼 수 있는 것 중 빠진 것은 추가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3. 관용구와 속담에 관계된 모든 사항은 ‘#1#2#5’의 형식만을 사용한다. #5에는 해당 관용구/속담을 먼저 제시하고 수정이나 추가, 삭제할 사항과 근거 자료를 남긴다.

예) #1건넌산#2관뜻수#5‘건넌산 쳐다보기’의 뜻풀이 중 ‘무슨 일을 할 때’를 ‘무슨 일을 할 때에’로 수정 검토

14.2. 세칙

1. 《표준》에 제시된 관용구나 속담 외에 말뭉치에서 관용구나 속담이 발견되면 ‘관추검’, ‘속추검’으로 분류하여 해당 용례를 밝힌다.

예) #1뜨겁다#2관추검#5‘뜨거운 감자’ 관용구 추가 검토. 기타 말뭉치(10_8003g)에 용례 많이 나타남. ¶정신대 문제는 한일 간 지금도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1년 전부터 대우 사태는 예고됐었으나 정부의 어느 누구도 이 {뜨거운 감자들} 떠맡으려 하지 않았다./장관들이 한결같이 재임 중 해결해 보려다 결국 포기하고 후임 장관에게 미루고 미룬 사안들이 몇 가지 있다. {뜨거운 감자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린벨트 문제다.§

2. 관용구나 속담 삭제 검토는 ‘관삭검’, ‘속삭검’으로 분류하고 그 이유를 #5에 메모로 남긴다.
3. 관용구의 뜻풀이 수정이나 용례 추가는 모두 ‘관용수’로 하고, 속담의 뜻풀이 수정은 ‘속뜻수’로 분류한다.
4. 북한어 관용구나 속담을 남한어 관용구, 속담으로 수정했을 경우에도 ‘관용수’, ‘속뜻수’로 구분하여 집필한다.(‘북남’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5. 관용구의 뜻풀이는 관용구가 동사구인 경우에는 동사의 뜻풀이 방식으로, 부사구인 경우에는 부사의 뜻풀이 방식으로, 명사구인 경우에는 명사의 뜻풀이 방식으로 풀이한다.(《표준》 편찬 지침 II p484) 다만 현재 《표준》의 뜻풀이가 이와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일괄 처리 할 예정이므로 집필자는 이러한 뜻풀이 원칙에 맞지 않게 뜻풀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직접 수정하지 않고 ‘관수검’으로 분류하여 메모를 남기거나 게시판에 통해 문제된 사항을 알린다.
6. 뜻풀이가 다르더라도 이들과 결합한 관용구 의미는 동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표제어가 전혀 다르더라도 이들과 결합한 관용구 의미가 동일할 경우, ‘관수검’으로 분류하여 해당 관용구의 의미가 동일하므로 동의 관계를 검토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7. 관용구나 속담에 관련된 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뜻풀이나 용례도 모두 ‘관용수’, ‘관수검’ 또는 ‘속담수’, ‘속담검’으로 분류한다.

15. 삽화

15.1. 원칙

1. 삽화를 제시하는 표제어의 범위, 삽화에서의 명칭, 삽화 제시 방법 등은 《표준》의 원칙을 그대로 따른다.
2. 《표준》에 나오는 삽화는 모두 검토하여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수정하고, 삽화가 추가되어야 할 것은 ‘삽추검’으로 구분하여 추가를 검토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삽화에 관련된 사항은 수정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1#2#5’의 형식으로 입력한다.

15.2. 세칙

1. 삽화의 캡션 등 수정은 ‘삽화수’로 분류하여 수정한다.
2. 삽화 삭제 검토는 ‘삽삭검’으로 분류하여 집필한다.
3. 추가 검토는 ‘삽추검’으로 분류하여 집필한다.

16. 띄어쓰기

16.1. 뜻풀이의 띄어쓰기

뜻풀이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뜻띄’로 분류하여 수정한다.

예1) #1대렵03#2뜻띄#3소렵을 한 다음날#4소렵을 한 다음 날#5합성어 ‘다음날’의 의미가 아님.

예2) #1끄리#2뜻띄#3떼지어#4떼 지어#5‘떼 짓다’는 한 단어가 아님

16.2. 용례의 띄어쓰기

1. 용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용띄’로 분류하여 수정한다.

예1) #1대답하다#2용 띄#3 「2」 ¶~않았다./그는 누구에게도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
 았다./~\$#4 「2」 ¶~않았다./그는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5
 사전 등재어

예2) #1대들보#2용 띄#3 「1」 ¶~/상량식에 누군가가 써 넣었을 글씨가 {대들보} 위에
 어른거렸다. 《한수산, 유민》 \$#4 「1」 ¶~/상량식에 누군가가 써넣었을 글씨가
 {대들보} 위에 어른거렸다. 《한수산, 유민》 \$#5 ‘써넣다’ 한 단어

2. 용례의 띄어쓰기를 수정할 때에도 용례 시작 기호(¶)와 용례 끝 기호(\$)를 넣어
 준다.

예) #1물향태수#2용 띄#3 「2」 안되는 일도 없다#4 「2」 안 되는 일도 없다#5 %
 ⇒#1물향태수#2용 띄#3 「2」 ¶~/~안되는 일도 없다 보나...<송기숙, 자랏골의 비
 가>\$#4 「2」 ¶~/~안 되는 일도 없다 보나...<송기숙, 자랏골의 비>\$#5 회의 결
 정 사항.

◆16.3. 편찬 지침과 달라진 띄어쓰기

♣ 굵은 색으로 표시한 단어는 표제어 분석 등이 바뀌어 띄어쓰기가 달라진 사항이다.

1. 단도마연-토기(1 p183): 전문어가 예컨대 ‘A+B+C’ 연속 구성으로 길게 연결될
 경우에 A가 B의 종류를 말해 주는 종개념 명사이고 B는 A의 유개념 명사일 때,
 B와 C는 띄어 쓴다. 이때 조건은 B가 반드시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만
 약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인 표제어 처리 원칙을 따른다.

예) 단도마연-토기: ‘단도’, ‘마연’, ‘단도마연’ 모두 표제어에 없고 ‘마연’은 ‘단도’의
 유개념 명사가 아니므로 ‘토기’ 앞에서 ‘’을 할 수 없다. 더구나 ‘마연’은 표제
 어에 없다.

☞ ‘~토기’ 띄어쓰기 일관성이 없고, 띄어쓰기가 너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일단,
 ‘*형(形 토기)’을 제외한 ‘토기’ 앞에서는 무조건 ‘’으로 연결하고, 앞의 부분은
 유사한 형태끼리 같은 방식이 되도록 수정함.

예) #1단도마연토기#2표수#3단도마연-토기#4단도마연^토기#5‘~토기’ 띄어 쓰기
일관성이 없음.

#1단도마연토기#2표수#3「명」#4%#5표제어 수정에 따름.

2. 인명(Ⅰ p186): 성명이나 성, 이름, 호, 자 뒤에 붙는 호칭어나 관직명은 띄어 쓴다. 다만 성과 관직명이 함께 쓰여 고유 명사화된 것은 붙여 쓸 수 있다.

예) 김양수 씨, 김 씨, 김 군, 김 웅, 김 선생, 양수 군, 주 사장, 황희 정승, 양^귀비, 장^희빈, 기^황후, **희빈 장 씨**

☞ ‘**희빈 장씨**’는 장씨 가문에서 나온 희빈이라는 뜻이므로, 띄어 쓰면 어색하다. 크게 ‘의유당 김씨’의 부류로 보아, 붙여 쓰는 것으로 통일한다.

예) #1씨07#2용식#3「Ⅱ」¶~씨/희빈 장 {씨}/그~\$#4가문이나 문중의 의미일 때는 붙여 하므로 적절한 용례가 아님.

#1씨09#2뜻수#3((인명이나 성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그 성씨 자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4((인명이나 성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그 성씨 자체’, ‘그 성씨의 가문이나 문중’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5회의 결정 사항

#1씨09#2용추#3%#4¶~{김씨}/희빈 {장씨}/혜경궁 {홍씨}/1민씨} 일파/그의~\$#5회의 결정 사항.

3. 기타(Ⅰ p195): 띄어쓰기는 문맥 의존적이다. 즉 뜻에 따라서 띄어쓰기가 달라지는 일이 많다.

예1) ① 과붓집(‘과부’와 동의어), 과부 집(과부 집에는 떨감이 가득 쌓였다)

예2) ① 그만하다(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니 다행이다), **그만 하다**(‘그만’과 ‘하다’의 의미가 그대로 있음)

☞ 예2)는 ‘그만02「3」+하다’의 구 구성에서, 조어력 강력하고 생산적으로 쓰인다고 판단하여 ‘그만하다02’를 표제어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하던 일을 멈추다’의 의미일 때의 ‘그만 하다’도 ‘그만하다’로 붙여 쓴다.

예) #1그만하다#2표추#3%#4그만-하다02「동」【…을】하던 일을 멈추다.¶잔소리 좀 {그만해라}/공부 {그만하고} 우리 좀 쉬자./소모적인 감정싸움은 이제 {그

만하자}./작사랑은 {그만하고} 싶다.#5‘그만02「3」+하다’의 구 구성에서, 조어
 력 강력하고 생산적으로 쓰인다고 판단하여 표제어 집필함. ‘그만두다「1」,
 「2」’와 비슷하나 동의어로 볼 수는 없어서 독자 풀이함

4. -받다(I p206): ‘받다’가 구체적인 사물을 받는 행위를 뜻할 때에는 동사로서 그
 앞말과 띄어 써야 하지만, 행위성을 지닌 동사성 명사 뒤에서 파동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접미사로 규정되므로 중간에 조사가 개입되지 않는 한 그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예) 교육받다 (○) / 교육 받다 (×), 미움받다(○) / 미움 받다 (×), 사랑받다 (○) / 사
 랑 받다 (×), 오해받다 (○) / 오해 받다 (×), 전화받다 (○: 걸쳐 온 전화를 받을
 경우) / 전화 받다 (○: 구체적인 사물로서의 전화기를 받을 경우)

☞ ‘주다’- ‘받다’ 관계와 상관없이, ‘받다’ 앞에 구체적인 사물이 올 때는 앞말과 띄
 어 쓰고, 그 외의 추상적인 단어가 앞에 올 때는 붙여 쓴다. 예)고통받다(○) /눈
 총받다(○) /버림받다(○) /사랑받다(○) /미움받다(○) 등.

예) #1받다04#2법수#3((서술성을 가지는 몇몇 명사 뒤에 붙어))#4((추상 명사 뒤에
 붙어))#5회의 결정 사항.

#1받다04#2용추#3%#4#5-/{고통받다}/{눈총받다}/{미움받다}/{사랑받다}/{축복
 받다}.#5회의 결정 사항

5. 합성 명사의 띄어쓰기(I p211): 자립적인 두 단어가 결합하여 일단 하나의 합성
 어로 굳어졌다고 판단되면 띄어 쓰지 않는다. 두 개의 명사 이상이 합성되는 일
 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기 때문인 경우가 있고, 의미 해석이 통사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으므로 어휘부에 저장해야 하기 때문인 경우가 있다. 물론 후자의 경우
 라도 단어로서뿐만 아니라 관용구로서 저장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를 예1)에서
 보이고 후자의 경우를 예2)에서 보이도록 한다.

예1) 집안, 여러분, 온몸, 산속, 또다시, 온종일,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글, 우리나라,
 새해, 새색시, 그동안, 잠재의식, **모음조화**, 국무총리, **고속도로**, 전문학교, 필기
 도구, 사무총장, 주식회사, **환경오염**, 천연자원, 가두시위, 안전사고, 인공위성,

국립공원, 전자시계, 전자계산기, 가족계획, 노동조합, 협동조합, 소비조합, 돌
연변이, 합성수지, 국회의원, 구제불능, 반신불수, 대한민국, 국립묘지, 천연기
념물, 사관학교, 전문학교, 신춘문예, 국립대학, 사립대학, 공립학교, 사립학교
참고: 도립 공원, 시립 공원, 도립 묘지, 국립 학교
예2) 녹색신고, 전자가스, 한다하는, 활자인간, 큰코다치다, 가는귀먹다, 먼산나무

☞ 표시한 단어는 모두 붙임표로 돼 있던 것으로, 붙여 쓰기로 돼 있었으나, ‘교과서
회의 결과’에 따라 ‘^’으로 표제어 수정되었다. 따라서 사전 표제어 및 띄어쓰기
는 원칙적으로 모두 띄어쓰되, 붙여 씀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해당 표제어에 있던 품사, 발음 정보, 활용 정보, 전문어 영역, 뜻풀이 및 용례의
띄어쓰기도 모두 수정되었다.

6. 【상(像)】의 띄어쓰기(I p214): 어머니상, 아버지상, 교사상(‘모범’, ‘본보기’ 등
의 의미)

※ 주의: ‘상23(像)「2」’, 즉 형상을 갖춘 구조물의 의미는 된다. <예> 마리아 상, 부
처님 상

☞ ‘상23’은 명사로만 올라 있어서 ‘마리아 상’과 같이 띄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살상’ 같은 것은 표제어로 올라 있는 상태이다. ‘지장보살상’ 같은 것이 문화
재에 많은데 이런 것을 원칙대로 모두 띄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문법 정보를 추
가하여 ‘상23「3」’처럼 명사와 접사의 중간 자격으로 풀이 수정하였다.

예) #1상23#2뜻수#3「2」 사람이나 물건의 형체를 본뜬 입체적 조형물이나 그림.#4
「2」((일부 명사에 붙어))조각이나 그림을 나타내는 말.#5문법 정보를 추가하
여 ‘상23「3」’처럼 명사와 접사의 중간 자격으로 풀이 수정함. <연세>는 접사
로 처리하고 있음

7. 【판(板)】의 띄어쓰기(I p216): 과녁판, 툇날 판, 스키 판 // 광고판, 십계 판(十戒
板) // 금속판, 유리판, 고무 판, 나무 판, 수정 판(水晶板), 알루미늄 판, 알루미늄
박 판, 사기 판, 금동 판, 점토 판 // 고누판, 마작 판

☞ ‘알루미늄판’ 표제어 추가에 따라 목록에서 삭제함. ‘알루미늄판’으로 붙여 써야
한다.

예) #1알루미늄판#2표주#3%#4알루미늄-판(aluminium板)「명」알루미늄으로 만든 판.#5북한어 처리.인터넷 자료에 근거.‘알루미늄판’의 남한 대응어

◆16.4. 편찬 지침(I p216)과 달라진 생물, 동물, 식물 용어(부위 명칭) 목록

※ 이 목록에서의 용어들은 표제어에 없을 수도 있으나(표제어에 있는 것은 ○ 표시를 하였음), 일반적인 원칙에 따르지 않고 이 목록에서 규정한 띄어쓰기를 그대로 따른다.

☞ 굵은 색으로 표시하고 각주를 단 단어는 전문어 감수자가 표제어를 수정·추가·삭제함에 따라 기존 지침과 띄어쓰기가 달라진 것이다. 기존 지침에 ‘(0)’, ‘(북)’ 표시가 누락된 단어에도 각주를 달았다. 또한 내부에서 붙여 쓰도록 올린 단어도 목록에 넣고 각주를 달았다.

1. ㄱ

가로 흠, 가로세로 흠, 가로띠, 가로띠 무늬, 가로 맥, 가로면, 가로선, 가로 융기선, 가로점 무늬, 가로줄기, 가루썩, 기름벽, 가슴다리(0), 가슴등, 가슴등면, 가슴등판, 가슴마디(0), 가슴방패판, 가슴배, 가슴센털, 가슴순판, 가슴지느러미(0), **가슴지느러미발**¹⁷⁾, 가슴지느러미가시, 가슴털, 가시 돌기, 가시묶음(북), 가시뿌리, 가시줄, **가운데가슴**¹⁸⁾(0), **가운데가슴등**¹⁹⁾, **가운데가슴등판**²⁰⁾, **가운데가슴마디**²¹⁾(0), 가운데더듬이, 가지잎, 각판, 갈고리 돌기, **갈고리발톱**²²⁾, 갈기털, 갈래썩(북), 갈래열매(북), 갈래잎(북), 갈래줄, 갈래쪽(북), 갈래포자, 갈미선(북), **갈비선**, 감각털, 갓주름 면, 거미줄돌기, 거짓가로막, 거짓고치, 걷는다리, 겹겹질막, 겹날개, 겨드랑이깃, 겨울 깃, **겨울 포자**²³⁾(0), 겨울 홀씨 더미, 겹가시, 겹썩, 고리 흠, 골질 돌기, 공기주머니(0),

17) 뜻풀이에 대부분 붙어서 나와서 목록에 추가함. 표제어 추가하지는 않았음.

18) 원래 《표준》에는 ‘가운데*가슴’으로 있었으나, ‘가운데*’ 및 ‘머리가슴’과의 일관성상 ‘가운데가슴’으로 표제어 수정함.

19) ‘가운데*가슴’이 ‘가운데-가슴’으로 수정됨에 따라 뜻풀이에 나오는 ‘가운데 가슴등’을 ‘가운데 가슴등’으로 붙여 씀. 표제어 추가하지는 않았음.

20) ‘가운데*가슴’이 ‘가운데-가슴’으로 수정됨에 따라 뜻풀이에 나오는 ‘가운데 가슴등판’을 ‘가운데가슴등판’으로 붙여 씀. 표제어 추가하지는 않았음.

21) 감수자가 표제어 삭제한 단어.

22) 감수자가 한 단어로 표제어 추가함에 따라 ‘갈고리 발톱’에서 ‘갈고리발톱’으로 수정됨.

공동 막, 군 더미, 귀날개(북), 금속광택(0), 기는가지²⁴(0), 기는줄기(0), 기습판(북), 긴 마디, 깃겹잎, 깃조각잎, 깍지 구멍, 껍데기판, 꼬리돌기²⁵, 꼬리마디, 꼬리마디판, 꼬리발톱, 꼬리샘, 꼬리 위 털깃, 꼬리 위 덮깃, 꼬리자루(0), 꼬리지느러미가시²⁶, 꼬리털, 꼬리털 구멍, 꼬무니뼈, 꽃대 마디, 꽃떡잎, 꽃줄기²⁷(0), 끝면

2. ㄴ

날개깃, 날개꼬리, 날개집, 날름막, 넓은 길둥근 모양, 넓적다리마디(0), 넓적마디, 네 잎꽃(0), 눈 턱, 눈혹

3. ㄷ

다섯갈래잎, 땡기깃, 독가시, 독침털, 독털, 동원핵, 두렁줄, 둥근비늘(0), 뒤빨판, 뒤 빨, 뒤 몸마디, 뒤 발가락, 뒷가슴(0), 뒷가슴 기낭, 뒷가슴등²⁸, 뒷가슴등판, 뒷가슴 마디(0), 뒷기슴, 뒷날개(0), 뒷머리가시, 등골판, 등깃, 등각지, 등껍데기, 등다리, 등 마루뼈, 등 면, 등방패판, 등배, 등비늘, 등센털, 등순판, 등엽, 등 옆구리, 등잎, 등줄 선, 등줄 옆선, 등지느러미(0), 등지느러미가시, 등 쪽 판, 등판[背板]²⁹(0), 등 편(= 등 쪽), 딱지날개, 땅속줄기(0)

4. ㄹ

마디발, 마디 줄, 말 무지, 매개마디, 땀³⁰(0), 머리가슴³¹(0), 머리마디³²(0), 머리 방패, 모피질, 목 둘레, 목등, 목안이빨, 목주머니, 몸꼬리, 몸마디³³(0), 몸판, 무더기 털, 물결털, 물구멍³⁴(0), 물꽃, 밀면³⁵(0)

5. ㄴ

바깥 가로선, 바깥기슴(북)³⁶, 바깥 줄, 발마디, 발목마디³⁷(0), 반둥근형, 반삭동물

23) 원래 《표준》에 있던 단어. 표제어 표시 ‘(0)’ 함.

24) 감수자가 표제어 삭제한 단어.

25) 원래 《표준》에 없던 단어. 표제어 표시 ‘(0)’ 삭제함.

26) 뜻풀이에 대부분 붙어서 나와서 추가한 단어. 표제어 추가하지는 않았음.

27) 원래 《표준》에 있던 단어. 표제어 표시 ‘(0)’ 함.

28) 뜻풀이에 대부분 붙어 나오고, ‘뒷가슴*’ 등의 일관성상 붙이는 것이 나아서 목록에 추가함. 표제어 추가하지는 않았음.

29) 원래 《표준》에 있던 단어. 표제어 표시 ‘(0)’ 함.

30) 감수자가 표제어 삭제한 단어.

31) 원래 《표준》에 있던 단어. 표제어 표시 ‘(0)’ 함.

32) 원래 《표준》에 있던 단어. 표제어 표시 ‘(0)’ 함.

33) 원래 《표준》에 있던 단어. 표제어 표시 ‘(0)’ 함.

34) 원래 《표준》에 있던 단어. 표제어 표시 ‘(0)’ 함.

35) 원래 《표준》에 있던 단어. 표제어 표시 ‘(0)’ 함.

(0)→**반색동물**³⁸⁾, 방사 가시, 방패 비늘(0), 방패판, 바깥 가로선, 배 강모, 배 기낭, 배꼽데기, 배다리(0), 배등, **배마디**³⁹⁾(0), 배마디등판, 배 면, 배순판, **배우자주머니**⁴⁰⁾, 배자루마디, 배지느러미(0), 배판(腹板), 배 편(=배 쪽), 부착뿌리, 부챗살마루(0), 분생 홀씨, 분열 홀씨주머니, 비늘가지, 비늘줄, 비늘줄기(0), 비늘털(0), 빗비늘(0), 뺨주머니, 뺨는줄기, 뺨가시, 뺨털

6. ㅅ

삼각실, 생식 구멍, 생식돌기, 생식마디, 생식매듭, 생식배방패판, 생식순판, 생식 잎, 석회판, 성장맥, 세균식물, 세로띠, 세로 맥, 세로선, 세로줄, 세로줄 무늬, 세로 홈, 세로 홈 줄, **세잎꽃**⁴¹⁾(0), 세쪽잎, 세포살(북), 세포선, 세포 실, 세포실줄, 세포열, 세포입, 세포축, **센털**⁴²⁾(0), 속 층, 쇠골긴기낭, 수기관, 수꽃이삭(0), **수상 돌기**⁴³⁾(0), 수술 털, 수평날개, **숨구멍**⁴⁴⁾(0), 신경 돌기(0), **실 모양체**⁴⁵⁾

7. ㅇ

아가미구멍(0), 아가미덮개(0), **아가미딱지**⁴⁶⁾(북), 아가미뚜껑(0), 아가미판, 아래턱, 아랫날개, 아랫부리, 안쪽 가로선, 암기관, 암꽃이삭(0), 앞 가두리, 앞가슴 기낭, 앞가슴등, **앞가슴등판**⁴⁷⁾(0), 앞가슴마디(0), 앞가슴뼈, 앞기슭, 앞날개(0), **앞등판**⁴⁸⁾, **앞마디**⁴⁹⁾(0), 앞몸(0), 앞몸마디, 앞 발가락, 앞방패판, 앞뿔, 앞지느러미, 어깨가슴털, 어깨센털, 엄지줄기, 여름 깃, 여름 포자, 여린줄기, 열매날개, 엽상 지의류, **영양**

36) ‘버드나무박나비’, ‘벼중잎말이벌레’ 등 북한어 풀이에 나오는 단어. 북한어 표지 추가.

37) 원래 《표준》에 있던 단어. 표제어 표시 ‘(0)’ 함.

38) 웹 사전 개정에서, 동물 전문어의 ‘*색(索)*’은 ‘*삭(索)*’으로 표제어 수정되거나, 표준어로 새로 등재되었음. 이에 따라 ‘반삭동물’도 ‘반색동물’로 표기가 바뀜.

39) 원래 《표준》에 있던 단어. 표제어 표시 ‘(0)’ 함.

40) ‘복자낭’의 뜻풀이에 쓰였으나 뜻풀이가 수정되면서 쓰임이 없음. ‘배우자*’ 일관성상 ‘배우자주머니’로 붙여 쓰는 것 어색함. 목록에서 삭제함.

41) 감수자가 표제어 삭제한 단어.

42) 원래 《표준》에 있던 단어. 표제어 표시 ‘(0)’ 함.

43) ‘가지 돌기’의 전 용어가 됨에 따라 목록에서 삭제함.

44) 원래 《표준》에 있던 단어. 표제어 표시 ‘(0)’ 함.

45) 감수자가 ‘원실체’를 ‘실모양체’로 표제어 수정함에 따라, 북한어는 ‘실모양체’. 대응 남한어는 ‘사상체’임. 이에 따라 목록에서 삭제됨.

46) 북한어 표지 추가.

47) 감수자가 ‘앞가슴등판’을 표제어 삭제하고, 해당 단어로 ‘앞등판’으로 표제어 추가하였음.

48) ‘앞가슴등판’이 삭제되고 표제어 추가된 ‘앞등판’과 중복되어 목록에서 삭제.

49) 원래 《표준》에 일반어 풀이만 있었는데, 감수자가 동물 뜻풀이를 추가함에 따라 붙여 씀. 표제어 표시 ‘(0)’ 함.

앞⁵⁰(0), 옆가시, 옆더듬이, 옆돌기, 외오리 실 모양체⁵¹, 올림판, 원형질 돌기, 위턱, 윗가슴, 윗가슴등, 윗날개, 윗눈, 윗머리뼈, 윗부리, 이마뼈⁵²(0), 이마털, 이삭수염, 이삭줄기, 이삭열매, 입 구멍, 입둘레마디, 입막, 입아래판, 입앞마디(북), 앞갈퀴, 앞겨드랑이⁵³(0), 앞귀⁵⁴, 앞각지, 앞막, 앞몸⁵⁵(0), 앞세포, 앞순, 앞집, 앞틀, 앞끝⁵⁶(0), 앞날개, 앞혀

8. 스

작은꽃자루, 작은방패판(0), 작은입술수염, 작은턱⁵⁷(0), 잔털뿔(북), 잔톱니, 잡는 기관, 점눈, 정강이마디, 정수리돌기, 젖꼭지돌기, 종아리마디⁵⁸, 줄기마디, 줄기앞⁵⁹(0), 중간 맥, 중앙맥, 지지뿌리, 집게다리, 짝지발

9. 스

촉수포, 촉세포⁶⁰(0), 치상돌기⁶¹, 치판

10. 크

큰입술, 큰턱⁶²(0), 큰형밤색마름, 키날개

11. 트

턱가시, 턱다리, 털뿔→모속, 털층, 톱날판, 투구판

12. 프

팔목마디, 편모 구멍, 포삭(북), 풀이끼, 피질 돌기

13. 헝

-
- 50) 원래 《표준》에 북한어로 있었으나, 감수자가 남한어로 돌림에 따라 붙여 씀. 표제어 표시 ‘(0)’ 함.
 51) ‘검은청실말’, ‘노을청실말’, ‘누운청실말’ 등의 뜻풀이에서 쓰였으나 표식되면서 쓰임이 없음. 목록에서 삭제. ‘실 모양체’도 삭제되었음.
 52) 원래 《표준》에 있던 단어. 표제어 표시 ‘(0)’ 함.
 53) 원래 《표준》에 있던 단어. 표제어 표시 ‘(0)’ 함.
 54) 북한어로 돼 있었고, 《표준》에는 쓰임 없었으나, 해당 전문어 사전, 백과사전에 나오므로 목록에 추가함. 이에 따라 ‘앞귀, 엽이’ 모두 남한어로 돌림.
 55) 원래 《표준》에 있던 단어. 표제어 표시 ‘(0)’ 함.
 56) 원래 《표준》에 북한어로 있었으나, 감수자가 남한어로 돌림에 따라 붙여 씀. 표제어 표시 ‘(0)’ 함.
 57) 원래 《표준》에 북한어로 있었으나, 감수자가 남한어로 돌림에 따라 붙여 씀. 표제어 표시 ‘(0)’ 함.
 58) 감수자가 표제어 삭제한 단어.
 59) 원래 《표준》에 있던 단어. 표제어 표시 ‘(0)’ 함.
 60) 원래 《표준》에 있던 단어. 표제어 표시 ‘(0)’ 함.
 61) ‘돼지여치’에 ‘치상 돌기’로 띄어져 한 번 쓰였으나, 감수자가 ‘돼지여치’를 표제어 삭제함에 따라 쓰임 전무함. ‘수상·돌기’의 일관성과 ‘상(狀)’ 다음의 띄어쓰기에 따라 ‘치상 돌기’로 수정함. 구(句)로 보는 것임.
 62) 원래 붙여 쓰도록 돼 있었으나 미등재어였음. 감수자가 표제어 추가함에 따라 표제어 표시 ‘(0)’ 함.

한 줄 사상체, 향문더듬이, 향문마디, 향문매듭, 향문센털, 허벅마디, 헤엄다리(0), 헤엄털, 호홉 구멍, 흘씨잎(0), 흘씨자루(북), 흘씨주머니무리(0), 흘씨주머니 이삭, 흘씨주머니 자루, 흡수뿌리, 흰 빗줄 무늬

17. 배열

17.1. 표제어의 배열

1. 표제어의 순서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표배’로 분류하고 ‘#1표제어#2표배#3잘못된 내용#4고친 내용#5메모’와 같은 형식으로 입력하여 남긴다.

예) #1단연히02#2표배#3‘단연히02’가 주표제어인데 ‘단연06’의 아래에 있음.#4‘단연히02’를 ‘단연코’의 아래로 이동시킬 것.#5회의 결정 사항.

★2. 복한어 표제어 중에서 부표제어가 주표제어로 들어가 있는지 검토하고 잘못 배열된 것이 발견되면 ‘표배’로 분류하여 수정한다.

17.2. 뜻풀이의 배열

뜻풀이의 순서가 잘못되었을 경우 ‘뜻배’로 분류하여 수정한다.

(붙임 1)

《표준국어대사전》 원고 수정 양식

◎ 파일 형식

1. 파일명

파일명은 집필자 이름의 영문 약자 소문자(2자), 집필 연도 마지막 숫자(1자), 제출 월 숫자(2자), 제출일 숫자(2자), 0을 순서대로 조합하여 만든다.

예) wy(운영)+3(2003년)+05(5월)+03(3일:제출일)+0

⇒wy305030

2. 편집 용지: 한글에 설정된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F7을 눌러서)

위: 19.99	머리말: 15
왼쪽: 30	오른쪽: 30
아래: 15	꼬리말: 15

3. 서체: 신명조

크기: 10

※ 말뭉치에서 그대로 복사한 용례는 서체가 다르므로 문서를 다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서체를 맞추어야 한다.

4. 문단 모양: 한글에 설정된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여백(왼쪽, 오른쪽): 0	간격(문단 위, 문단 아래): 0
날말 간격: 0	줄 간격: 160
들여쓰기: 하지 않음	

5. 모든 페이지에 머리말을 단다.

형식: 이름(연도 월 일.)

예) 이재춘(2003. 5. 17.)

6. 모든 페이지에 쪽번호를 단다.

형식: -1- (가운데)

※ 머리말과 쪽 번호는 반드시 **1페이지에서** 지정한다. 중간에서 지정할 경우 앞 페이지는 머리말과 쪽 번호가 붙지 않는다.

◎ 수정 원고 작성 형식

I. 기본 형식

1. 집필자가 판단하여 수정했을 경우

#1해당 표제어#2문제점 유형#3《표준국어대사전》원본#4수정한 내용#5메모

예) #1갈19#2범수#3일부 명사 뒤에 붙어#4일부 명사 앞에 붙어#5%

예) #1매대 #2용수#3「1」『매대 우에/~§#4「1」『매대 위에/~§#5%

예) #1순진하다01#2뜻수#3「2」 세상 물정이 어두워 어리숙하다.#4「2」 세상 물정이 어두워 어수룩하다.#5‘어리숙하다’는 ‘어수룩하다’의 비표준어임. ‘어리숙하다’ 표준어 사정 검토 바람.

2. 집필자가 판단할 수 없어 메모로만 처리했을 경우(약호 맨 뒤에 ‘검’이 붙는 경우는 모두 이 형식으로 제시한다.)

#1해당 표제어#2문제점 유형#5메모

예) #1가짜어사#2표삭검#5단순 구. ‘가짜~’류 표제어는 북한어가 대부분. 남한어로 유일하게 등재되어 있음.

- ※ 유의 사항1: 필드 구분 기호 앞뒤에 공백을 두지 않는다. 즉 ‘#1V갈V#2V범수V#3V’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지 않고, 모두 붙여서 작성한다.
- ※ 유의 사항2: 원고에서 사용하는 기호는 뒤에 첨부한 ‘원고 사용 기호 목록’을 참조하여 여기에서 약속된 것만 사용하며, 임의로 다른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II. 필드별 세부 작성 형식

#1 해당 표제어

1. #1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표제어를 적는다.
2. 표제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기호(-, ^, ·)도 쓰지 않으며, 어깨번호만 쓴다. 어깨번호는 CD를 기준으로 하며 항상 두 자리로 한다.
예)#1가계06#2용추#3%#4¶{가계를} 잇다/~\$#5%
3. #1에는 주표제어와 부표제어만 들어갈 수 있다. 속담이나 관용구에 대한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에 해당 표제어를 넣고 #5에 속담이나 관용구 표제어를 써서 표시한다.

#2 문제점 유형(약호)

1. #2에는 문제점 유형을 약호로 제시한다. 약호는 <별첨>을 참조한다.
2. #2에는 약호만 제시하며 수정 사항이 있는 구체적 뜻풀이 번호는 #3에 넣는다.
이는 한 표제어에서 둘 이상의 뜻풀이나 용례 등을 수정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예) #1가려보다#2뜻수#3 「1」 무엇을 분간하여 알아보다.#4 「1」 모양 따위를 구별하여 알아보다.#5%
예) #1가격표#2용추#3%#4 「1」 ¶벽에 붙은 {가격표를} 살펴본 다음에 음식을 시켰

다.§「2」¶웃마다 {가격표를} 붙이고 정찰제를 실시했다./{가격표에는} 오백 원
이라고 붙어 있는데 아저씨가 천 원을 받았다.§#5%

3. 한 표제어 안에서 문제점 유형이 달라지면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한다.

예) #1**가격표**#2**웃추**#3%#4「1」~「2」상품에 붙어 있는 가격 표시.#5%

#1**가격표**#2**용추**#%#4「1」¶우리는 벽에 붙은 {가격표를} 살펴본 다음에 음식을
시켰다.§「2」¶웃마다 {가격표를} 붙이고 정찰제를 실시했다./{가격표에는}
오백 원이라고 붙어 있는데 아저씨가 천 원을 받았다.§#5%

#3 《표준국어대사전》 원본

1. #3에는 수정해야 할 《표준국어대사전》의 원본 내용을 적는다. 이때 기존 내용
의 일부를 수정하면서 앞뒤 문맥을 보일 경우에는 수정할 곳에 밑줄을 긋는다.

예) #1**가정일**#2**표수**#3**가정일**#4**가정-일**#5남한 용례 확인 ☞표제어 수정

예) #1**가정오랑캐**#2**뜻수**#3**낯잡아** 이르는 말#4**낯잡아** 이르던 말#5역사 전문어 ☞뜻
풀이 수정

예) #1**가결하다**01#2**용수**#3¶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다}/~§#4¶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5% ☞용례 수정

2. 용례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는 시작과 끝 기호를 반드시 넣는다. 또 용례에
나타난 해당 표제어는 어절 전체를 { } 기호로 묶어 준다. 이는 모든 필드에 공통
으로 적용된다.

- 용례 시작: ¶(전각: 문자표 3492)

- 용례 끝: §(전각: 문자표3437)

3. 제시된 용례의 일부 단어를 수정하거나 용례를 다른 것을 교체할 경우는 모두
‘#2용수’로 처리한다. 여러 용례 중에서 일부 용례만을 수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3에 원본 용례를 제시한다. #4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정한 내용
을 제시한다.

① 맨 앞의 용례를 수정할 때: 용례 시작 표시 후 수정할 예를 제시, 사선(/)을 긋고

물결표(전각: 문자표 340d)를 한 후 용례 끝 표시를 한다.

예) #1가감하다#2용수#3체력에 맞추어 운동량을 {가감하다}/~§#4체력에 맞추어 운동량을 {가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

② 맨 끝의 용례를 수정할 때: 용례 시작 표시 후 물결표(문자표 340d)를 하고 사선(/)을 그은 후 용례를 보이고 용례 끝 표시를 한다.

예) #1가끔가다가#2용수#3~/산을 올라가다 보면 {가끔가다가} 텐트를 칠 만한 곳이 보일 것이다.§#4~/산을 올라가다 보면 {가끔가다가} 다람쥐를 보기도 한다.§#5%

③ 중간의 용례를 수정할 때: 용례 시작 표시 후 물결표를 하고 수정할 앞 용례의 마지막 어절을 보인다. 그 뒤에 사선을 긋고 수정할 용례를 보인 후, 다시 사선을 긋고 뒤 용례의 첫 어절을 보이고 물결표, 용례 끝 표시를 한다.

예) #1가난01#2용수#3~/허덕이다/{가난에서} 벗어나다/{가난이}~§#4~/허덕이다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일했다./{가난이}~§#5%

4. 뜻풀이나 용례를 추가할 경우에는 #3에는 정보 없음 표시(%)를 한다. 용례 추가의 경우, 용례가 전혀 없던 표제어에 용례를 추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있는 용례에 더 추가해서 용례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에는 % 기호를 쓴다. 따라서 #2의 약호가 ‘뜻추’, ‘용추’인 경우에는 #3에는 항상 %가 와야 한다.

예) #1가갯방#2뜻추#3%#4「3」가게 안에 딸린 작은 방.¶고무신 가게와 약재상 두 칸으로 칸막이가 돼 있는 점방에 딸린 {가갯방} 역시 아래 윗칸으로 장지문을 격해 있었다.<NDNAD460,354,박완서,미망>§#5 말뚱치에서 쓰임 확인. ¶세 번째 뜻풀이 추가한 경우.

예) #1ㄱ자집#2용추#3%#4¶사랑채도 없이 겨우 안방, 머릿방, 마루, 부엌을 갖춘 {ㄱ자집}.§#5 ¶용례가 없던 표제어에 용례 추가한 경우.

예) #1가12#2용추#3%#4¶~/{김가야! 요즘은 잘 지내느냐}.§#5(용례 있는 것에 더하여 추가)

#4 수정 사항

1. #4에는 수정한 내용을 적는다. #3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존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면서 앞뒤 문맥을 보일 경우에는 수정한 곳에 밑줄을 긋는다.

예) #1가정오랑캐#2뜻수#3낫잡아 이르는 말#4낫잡아 이르던 말#5역사 전문어

예) #1가결하다#2용수#3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다}/~\$#4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5%

2. 『표준』에 용례가 있는 표제어에 용례를 더 추가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4에 추가할 용례를 제시한다.

① 맨 앞에 용례를 추가할 때: 용례 시작 표시 후 추가할 예를 제시, 사선(/)을 긋고 물결표(문자표 340d)를 한 후 용례 끝 표시를 한다.

예) #1가계#2용추#3#4{가계를} 잇다/~\$#5%

② 맨 끝에 용례를 추가할 때: 용례 시작 표시 후 물결표(문자표 340d)를 하고 사선(/)을 그은 후 용례를 보이고 용례 끝 표시를 한다.

예) #1가궁히#2용추#3#4~/여복해야 강진을 동구 밖 가난한 주막의 노파가 보다 못해 그를 {가궁히} 여겨 받아들여 주었을까.<NABAA021,214,한무숙,만남>\$#5%

③ 중간에 용례를 추가할 때: 용례 시작 표시 후 물결표를 하고 앞 용례의 마지막 어절을 보인다. 그 뒤에 사선을 긋고 새로운 용례를 추가한 후 다시 사선을 긋고 뒤 용례의 첫 어절을 보이고 물결표, 용례 끝 표시를 한다.

예) #1가날프다#2용추#3#4「1」{~허리/목이 {가날프다}/그녀의 몸은 코스모스와 같이 너무나 {가날퍼} 보였다./정갈한~\$#5%

3. 뜻풀이를 추가할 경우에는 용례도 함께 제시한다. 이를 ‘#2뜻추’, ‘#2용추’로 분리하여 각각 집필하지 않고 하나의 표제 항목에서 추가된 뜻풀이와 용례를 모두 밝힌다.

예) #1가갯방#2똥추#3%#4「3」가게 안에 딸린 작은 방.¶고무신 가게와 약재상 두 칸으로 칸막이가 돼 있는 점방에 딸린 {가갯방} 역시 아래 윗칸으로 장지문을 격해 있었다.<NDNAD460,354,박완서,미망>§#5 말뚱치에서 쓰임 확인.

※ 유의 사항: 말뚱치를 인용하여 출전을 제시할 때, 예문과 출전 사이는 띄어쓰지 않는다.

#5 메모

1. #5에는 해당 표제어를 수정한 이유나 근거, 그 외 일괄적으로 검토할 사항 등을 자유롭게 적는다.

2. 메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5에 반드시 정보 없음 표시(%)를 한다.

예) #1가갯방#2용추#3%#4¶{가갯방} 있다/~§#5%

3. 문제 유형에 따라서 #3과 #4 필드를 적지 않고 ‘#1○#2○#5○’의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약호가 다음과 같을 때에는 항상 ‘#1○#2○#5○’의 형식으로 작성한다.

① ‘-검’으로 끝나는 모든 약호: 여기에는 표제어 추가도 포함된다. 표제어 추가는 항상 ‘표추검’으로 약호를 제시하고, #5에 추가 이유, 추가 근거가 되는 인용 문장 등을 제시한다. #3과 #4에 직접 집필하지 않는다.

② 약호가 ‘관용수’, ‘속담수’인 경우에는 #3, #4에 집필하지 않고 #5에 모든 내용을 적는다. #5 필드 맨 처음에 해당 관용구나 속담 표제어를 적고, 그 뒤에 수정할 사항(용례 추가 등 포함)을 적는다.

예) #1가난#2관용수#5‘가난이 들다’에 용례 추가. ¶그 사람은 늙고 병들었으며 또 지독한 {가난이 들어}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렵다.§

원고 사용 기호 목록

※ 원고에는 다음에서 사용을 정의한 대로 기호를 사용한다. 검토자가 임의로 기호를 정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인용문을 그대로 따오는 경우에 특이한 기호들이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수정 양식에 맞게 고쳐서 싣도록 한다.

◎ 뜻풀이 번호

- 소번호: 「1」, 「2」(전각 낫표)
- 중번호: [1], [2] (자판 대괄호)
- 대번호: 「Ⅰ」, 「Ⅱ」(전각 낫표, 전각 로마자)

※ 유의 사항: 뜻풀이 번호가 동의어나 참고 어휘 등에 나타날 때에도 동일한 기호를 사용한다.

◎ 문자표에 있는 전각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

기호	문자 번호	사용하는 경우	예
¶	3492	용례 시작	¶이름난 가객§
§	3437	용례 끝	¶이름난 가객§
~	340d	문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줄이는 경우.	#4¶{가계를} 잇다/~§
...	3406	문형 정보 인용문 등에서 뒷부분이 없거나 너무 길어서 줄인 경우. 말줄임표가 사전에 그대로 입력되는 경우.	【...으로】 찾을 뿐인지라...<최명희, 혼불, 079>
·	3404	가운뎃점	명주옷·삼베옷·도포
「」	3418 3419	뜻풀이 번호	「1」 「2」
		품사	「명」 「형」
		북한어	「북」
		참고 어휘	「참」
		관련 어휘	「비」 「준」

기호	문자 번호	사용하는 경우	예
『』	341a, b	전문어 영역 표시	『법』 『농』
【】	341c, d	문형 정보를 묶는 기호	【…으로】
⇒	3461	뜻풀이 돌리는 기호	#1가량하다#3⇒가량05.
[]	3412 3413	활용 정보를 묶는 기호	[-보아(-봐), -보니]
ㄴ	3436	동의어	ㄴ가갸자루
→	3446	어원의 변천 과정	ㄴ→ㄷ→ㅌ

※ 유의 사항: 낫표(「」)의 경우 자판에 있는 것을 그대로 치면 반각 기호가 입력된다. 반드시 문자표에서 전각 기호를 찾아서 쓴다.

◎ 자판에 있는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

‘ ’	작은따옴표	소비의 주체로 ‘가정’을 이르는 말.
#	필드 구분 기호	#1#2#3
%	정보 없음 기호	#5%
< >	출전 기호 제시	<NDNAD300,397>
{ }	용례 중 표제어	#1가찰#4㉠~황제 직속의 특별 {가찰} 기구였다.§
:	발음의 장음 기호	눈물[눈:-]
-	고유어 표시, 표기와 발음이 동일 표시 등	가정집(家庭-), 눈물[눈:-]
[]	발음 정보, 중번호 표시	눈물[눈:-], [1], [2]
(())	문법 정보(괄호 두 번)	((주로 ‘가취할’ 꼴로 쓰여))
/	용례 구분	㉠가건물/가계약/가매장§
//	용례 구분(문형 구분시)	더 어려워졌다.//돈으로 벼슬을

※ 유의 사항: 사전 원고 등을 그대로 따오게 되면 작은따옴표가 전각 기호(”)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자판에 있는 작은따옴표로 모두 교체한다.

(붙임 2)

문제점 유형 약호 목록

구분	약호	약호 설명	교정지 반영 여부
표제어	표수	표제어 수정	○
	표삭검	표제어 삭제 검토 바람	×
	표합검	표제어 합침 검토 바람	×
	표추검	표제어 추가 검토 바람	×
	표사검	표준어 사정 검토 바람	×
원어	원수	원어 수정	○
	원검	원어 수정 검토 바람	×
발음	발수	발음 수정	○
	발검	발음 수정 검토 바람	×
활용 정보	활수	활용 정보 수정	○
	활검	활용 정보 수정 검토 바람	×
품사 정보	품수	품사 정보 수정	○
	품검	품사 정보 수정 검토 바람	×
	어근검	어근으로만 볼 수 있는 명사	×
	부사검	부사적 쓰임이 있는 명사	×
전문어	전수검	전문어 영역 수정 검토 바람	×
	전추검	전문어 영역 추가 검토 바람	×
	전삭검	전문어 영역 삭제 검토 바람	×
문형 정보	형수검	문형 정보 수정 검토 바람	×
	형추검	문형 정보 추가 검토 바람	×
	형삭검	문형 정보 삭제 검토 바람	×
문법 정보	법수	문법 정보 수정	○
	법추	문법 정보 추가	○
	법삭	문법 정보 삭제	○

구분	약호	약호 설명	교정지 반영 여부
뜻풀이	뜻수	뜻풀이 수정, 뜻풀이 분할, 뜻풀이 합침	○
	뜻수검	뜻풀이 수정 검토 바람	×
	뜻추	뜻풀이 추가	×
	뜻삭검	뜻풀이 삭제 검토 바람	×
용례	용수	용례 수정	○
	용추	용례 추가	×
	용삭	용례 삭제	○
관련 어휘	관수	관련 어휘 수정	○
	관검	관련 어휘 수정 검토 바람	×
참고 어휘	참수	참고 어휘 수정	○
	참검	참고 어휘 수정 검토 바람	×
어원	어수	어원 수정	○
	어검	어원 수정 검토 바람	×
관용구	관용수	관용구의 뜻풀이, 용례 수정	○
	관추검	관용구 추가 검토 바람	×
	관삭검	관용구 삭제 검토 바람	×
속담	속담수	속담의 뜻풀이 수정	○
	속추검	속담 추가 검토 바람	×
	속삭검	속담 삭제 검토 바람	×
삼화	삼화수	삼화 수정	○
	삼추검	삼화 추가 검토 바람	×
	삼삭검	삼화 삭제 검토 바람	×
띄어쓰기	뜻띄	뜻풀이의 띄어쓰기 수정	○
	용띄	용례의 띄어쓰기 수정	○
배열	표배	표제어 배열	○
	뜻배	뜻풀이 배열	○
기타	기타	CD 오류 등	×

◆ 연구 책임자

정 희 창(학예연구관)

이 운 영(학예연구관)

◆ 공동 연구원

박 선 영(분석 요원)

2008년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발행인	이 상 규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3동 827 전화: 02-2669-9775 팩스 02-2669-9727
인쇄일	2008년 12월 24일
발행일	2008년 12월 26일
인 쇄	크리홍보주식회사
